

아름다운 경영을 위한 유재성 회장의 1분 메시지

나 유재성은 스스로 제도권 밖으로 나와
제도권 속을 질타하고 변화하는
자발적인 이방인이 되고싶다.

아름다운 경영을 위한 유재성 회장의 1분 메시지



우연히 시작한 1분 메시지가

매일 쓰다보니 500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혼입니다.

우리 가족과 직원이 함께할 것입니다.

유재성

01

첫 만남 _ 2007. 9. 3

해마다 우리회사 마당에 장마가 그칠 때 즈이면 옥잠화(옥비녀꽃)가 피기 시작하고 저녁이면 나팔꽃처럼 활짝 펴 향기를 품는데 농염하기 짝이 없습니다.

홍루몽의 반금련이 서문경이를 꼬실 때 방안에 두면 향기에 취하여 다른 침을 멀리하고 반금련의 방에만 들락거렸답니다.

나는 이 꽃 전부가 15년 전에 경기도 일산 2,000평 밭에서 전국의 것이 모여져 일본에 결혼식 신부 부케용으로 수출되는 것을 알고 전부 캐워서 연경동 우리 밭에 갖다 심었습니다.

그 꽃을 우리는 가까운 분들과
우리 직원들이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 _ 2007. 9. 4

나는 그 옥잠화를 10년째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한해는 병들어 옥잠화를 보낼 수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 “이제 유재성 회장이 커지니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지 올핸 옥잠화도 보내주질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9년간 한 번도 고맙단 전화도 없었고 첨엔 신기해 하다가 나중엔 당연히 받겠지 생각했겠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받는 고마움을 모르고 받지 않았을 땐 화를 내는
이런 인간들 말입니다.

02

세 번째 만남 _ 2007. 9. 5

나는 직원들 생일날 꽃 화분을 보냅니다.

정말 간혹 메일이나 고맙단 전화 받을 때 눈물이 핑 돌니다.

우리 직원들도 만약 내가 잊고 보내지 않았다면 어디 가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 회장이 이제 너무 커져서 내 생일도 잊어버린 거야.” 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을까요.

부끄럽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회장께 메일 한 장 주면 고마워 눈물이 핑 돌겁니다.

04

네 번째 만남 _ 2007. 9. 6

나는 삼국지 읽기를 좋아합니다.

벌써 10번 정도 완독했고 내 친구 조호철 원장은 50번 필독했습니다.

물론 번역자가 다른 삼국지를 20대부터 지금까지 세월 따라 읽을 때마다 새롭고 달리 깨닫는 게 많은 책입니다.

나는 특별히 **적벽대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평생 몇 번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은 후 나랑 토론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지요.

30

05

여섯 번째 만남 _ 2007. 9. 10

그리고 평택에는 태창땅 10,000坪, 신라땅 5,000坪이
당진 고대 부곡지역에도 새로운 사업을
임원회의를 통해 전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코일센터 외에 사업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깊이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에 공장부지 100,000坪, 중국에 20,000坪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할 핵심역량이 무엇이나를 우리 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만남 _ 2007. 9. 7

며칠 전 평택을 임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평택은 社史에도 언급했듯이 나에겐 특별히 애착이 가는 공장입니다.
평택공장은 우리회사 어디보다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윤영도 과장, 배준호 과장, 박종원 대리, 조건호, 이상배, 박일권,
조호현 등 쟁쟁한 멤버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회사는 서해안 시대를 열고 있기에 증축 계획을 승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멀리서 열심히 고생하는 평택공장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 부탁드립니다.

06

일곱 번째 만남 _ 2007. 9. 11

며칠 전 부산 협신철강 이진태 사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술자리에서 “현재의 그 사람을 인정하라. 과거는 잊어버려라.”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능력도 떨어진 학창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를 잘해서 교수가 되고 좋은 회사에 입사한 훌륭한
친구들이 간혹 날 만나면 과거의 나인 자기보다 못났던 시절을
기억하며 현재의 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감지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과거에 매달려 현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성인이 된 후 의기당당하게 태어난 나자렛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선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었잖어.”라고 거들떠
보질 않았습니다.
그후론 예수도 다시는 나자렛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거 자신보다 더 훌륭해진 사람을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왜소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08

여덟 번째 만남 _ 2007. 9. 12

많은 사람들은 실패가 두려워 아예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라는 것은 해볼만한데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시도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아홉 번째 만남 _ 2007. 9. 13

며칠 전 북경경성태창을 다녀왔습니다.

9月 8日 대구 12:30~13:15 북경

9月 9日 북경 08:35~11:35 대구

보통 내 일정은 이렇게 빠듯합니다. 그날 새벽 2시까지 술을 직원과 함께 했으니 잠 4시간 자고 돌아왔습니다.

북경 다닌 일 중 이번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배돌암, 배성운, 임상호, 임종원, 이세형 이 사람들이 올핸 우리회사 중에서 최고 이익을 실현할 것입니다.

북경 회사 생긴지 3년 만에 실적이고 올해 배당받게 되면

투자 금액 전부 돌려받는 겁니다.

태창은 62년인데 3년 된 동생한테 지고 어머니 회사 티시테크도

북경경성태창 보면 분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원들이 잠을 자지 못해 눈에 핏발이 도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요.

열 번째 만남 _ 2007. 9. 14

북경경성 동업자 임야광 총재에게 선물을 들고 북경서 저녁 먹으며 중국 四大美人을 소개했더니 중국사람은 전부 아는데 유독 우리 직원들만 모르더군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중국을 경영할 생각을 할까요.

그 나라 문화는 섭렵을 해야지 그 나라 사랑과 역사를 모른다면

그 나라 사람이 우릴 얼마나 잘 볼까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한국 와서 중국 소설책 잔뜩 사서 보낼 예정입니다.

북경 직원도 분발하시고 우리 직원도 북경 직원에게 격려의 글을 주십시오.

11

열한 번째 만남 _ 2007. 9. 17

북경을 좀 더 소개하면 북경중공업 안에 북경크레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물량 전부를 임야광 총재께서 우리회사로 이관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이 물량만 북경현대 물량보다 더 많게 되지요.

그렇려면 북경중공업 안에 20,000坪 공장을 더 지어야 하고 또 천진과 북경사이 경성태창의 자회사인 고안경성태창도 또 공장을 20,000坪에다 지어야 하겠지요.

여기선 미국의 Terex 물량을 생산하게 되지요.

아마도 내년이면 두 배의 이익을 실현하는 우리회사 전체에서 톱이 되겠지요.

북경을 향해 여러분 big hands를.

열두 번째 만남 _ 2007. 9. 18

9월 6일에 오페라하우스에서 임원과 패왕별희라는 중국의 경극을 구경했습니다.

이 내용은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싸움인데 여기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나오고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항우의 초군이 포위되어,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듣고 장탄식하고 있을 때 중국 최고 미인인 우희가 자결하고 항우도 오강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경영하려면 그 나라 사람을 알아야 하고 그 나라 문화를 공부해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 중국 경극이나 일본의 가부끼도 한 번쯤 섭렵해 보시죠.

12

열세 번째 만남 _ 2007. 9. 19

이야기 한김에 중국 四大사대 美人미인을 소개할까 합니다.

侵漁침어란 물고기가 西施서시의 아름다움에 헤엄치는 것을 잊어버리고
물속에 가라앉아 버린다는 서시의 아름다움이고, 落雁낙안은 기러기가
王昭君왕소군의 아름다움에 날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땅에
떨어진다는 왕소군의 아름다움이고, 閉月폐월은 달이 趙燕의
아름다움에 부끄러워 얼굴을 가린다는 이야기고, 羞花수화는 꽃이
楊貴妃의 아름다움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美人이야깁니다. 그런데 우리회사 여직원들 전부가 침어, 낙안, 폐월,
수화의 아름다움을 다 지니고 있답니다.

우리 남자직원들은 분발하십시오.

열네 번째 만남 _ 2007. 9. 20

내가 여러분께 헛소리를 했군요. 미안합니다.

옥잠화 이야기 중에서 홍루몽의 서문경 반금련이 아니고
금병매였습니다.

수호지는 명나라 장편 무협소설인데 여기에 무송이가 나오고
무송이 형이 무대인데 무대 마누라가 반금련입니다.

수호지(저자 나관중)의 이런 이야기들을 확대하여 소설화한 것이
금병매인데, 금병매나 홍루몽은 중국 4대 소설 중에 가장 에로틱한
소설입니다.

여러분도 기회 있을 때 이런 책들을 한번 접해 보지 않겠습니까?



열다섯 번째 만남 _ 2007. 9. 21

삼국지에 나오는 글 중에 고사성어가 많습니다.

刮目相看(刮목상관)란 눈을 크게 뜨고 다시본다 입니다.

여몽이 노숙에게 한 말입니다.

水魚之交(수어지교)란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로 유비가

제갈공명에 한 말입니다.

三國志(삼국지)는 진나라 陳壽(진수)가 쓴 正史(정사)로서 魏(위), 蜀(촉), 吳(오)의 역사 기록이고 우리가 읽는 삼국지연의는 원나라 소설가 나관중이 正史를 토대로 쓴 소설입니다.

삼국지를 세 번 읽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직원들이 삼국지 읽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반가운 마음으로 몇 자 적어봅니다.

참고로 창주인 이덕서에 부탁해 水魚之交 글을 받아 북경경성태창 임야광 총재에 전달했답니다.

열여섯 번째 만남 _ 2007. 9. 27

나는 나희라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우리회사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고 지금은 아틀란타 주립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의사가 되려는 것을 내가 권해서 경영학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으로 다시 편입예정인데 내년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하버드로 갈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22살 나이의 아이가 혼자 어떻게 공부하는지 내게 보내온 글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남의 탓만 하며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지 않는 지를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나는 공자님의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것을 원망하라.”

아저씨, 안녕하세요?

월요일날 학교 시작한지가 언젠데 벌써 금요일이네요.

듣는 수업도 많고, 학교에서 일도 하고, 집에서 공부할려니까

정신없네요. 참,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신방학과 교수 있잖아요.

전직 타임즈 편집장이었다는 사람이요.

그 분 수업 진짜 재밌어요.. 또 어렵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이번에 과목을 9개 듣거든요.

안그래도 저희 학교 카운슬러가 막 말리고 저희 신방과 교수, Mr. Duffy

가 자기 수업 들려면 2과목 빼라고 그랬는데 그냥 아직까지는 9과목

다 듣고 있어요. 뭐 하나빼고 싶은 게 없으니까요.

요즘은 계속 12시에 자서 4시 반에 일어나거나 늦어도 6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서 그런지 하루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또, 수업을 9개 듣다 보니까 읽어야 되는 책 분량이 엄청나게요.

특히나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문학, 신방과 수업 2개, 미국역사, 유기

화학, 경제학 같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과목들이 대부분이라서

읽는 분량이 거의 살인적으로 많아요.

정말 5분이라도 짬 날때 책을 안 읽으면 숙제를 못 해갈 정도니까요.

제가 요즘 학교에서 20시간 넘게 일하거든요.

학교에서 일할 때도 책 끼고 일하고, 다른 수업으로 이동할 때도 책 끼고

이동해요. 읽어야 되는 책, 프린트물들이 많아서 책가방에 다 넣다 보니

책가방은 웬만해서 들지도 못해요.

아침 4시 반에 일어나면 1시간 좀 안되게 운동하고 나서, 씻고...

한 6시 되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7시반 되면 학교가거든요.

그럼 집에 오면 밤 9시 반이니까 학교 갈 때 도시락 3끼를 싸가요.

제 룸메이트는 저보고 도시락 3끼를 그것도 같은 메뉴로 싸가면 맛

없어서 어떻게 먹냐고 하지만 워낙 바쁘게 다녀서 시장이 반찬이라

그런지 배고파서 먹을 것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고 잘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제때 먹을 시간도 없고, 먹어도, 다른 수업

이동하면서 먹거나 아니면 차에서 운전하면서 먹으니까요.

월, 수요일은 아침 8시까지 학교 갔다가 수업 듣고 일 끝나면 저녁

8시고요. 화, 목요일은 아침 8시까지 학교 갔다가 일하고, 수업 듣고,

다시 일하고, 저녁 9시까지 수업 듣고 집에 와요.

금요일은 아침 9시까지 학교 가서 수업 듣고 3시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아침 11시까지 학교 가서 2시까지 수업 있고요.

그래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지

남들이 그 많은 걸 어떻게 해내냐고 막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이제 겨우 시작해놓고 어떻게 장담을 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시작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한 주 시작해보면 본인 스스로가 한 학기 동안 잘 해낼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이 딱 나오니까요.

밤에 잠 깨고 공부하려고 커피는 하드코어로 막 마셔요.

어떨 때는 갑자기 카페인을 너무 들이켜서 그런지

손 떨림 증상까지 온다니까요.

아저씨,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평범하고 지루한 불평이기 보다는

행복한 푸념으로 들어주세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잠깐 짬 내서 아저씨께 이멜 쓰고 있거든요.

제가 주말에 또 이멜 쓸게요.

나희 올림

17

열일곱 번째 만남 _ 2007. 9. 28

여러분 나희란 아이 글 보셨죠.
22살 아이가 얼마나 당차고 어른스러운지
두 글을 더 한 번 읽어 보세요.

2007년 9월 17일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메일 쓰네요. 얼마 전에 아저씨께서 보내신 책 두 권 잘 받았어요. 꾹꾹히 시간 내서 '남한산성'을 읽고 있거든요. 아직은 이야기 초반부터 책에 대해서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 책의 무엇이 아저씨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저번 주에 갑자기 아파서 한 5일 동안 계속 골골 거렸어요. 감기 몸살도 아닌데 얼마나 아프던지... 처음 이틀 동안은 좀 쉬고 숙제 같은 것도 좀 미루다가 3일째 되는 날은 도저히 안 되어서 아파죽거나 말거나라는 심정으로 책 읽고, 시험 공부하고, 숙제했었어요. 약 먹으면 잠 올까봐 약도 안 먹고 버텼는데 어떻게 감쪽같이 다 나았네요. 그래서 느낀 건요. 아픈 것도 긴장이 조금씩 풀려서 아프고, 아픈 것 이겨내는 것도 다 정신력이고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걸 알았어요. 뭐... 갑자기 온 감기 몸살이었거나, 피곤이 쌓였거나, 아니면 바이러스성 질병이라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요. 제 룸메이트들은 좀만 아파도 병원 가거든요. 저는 병원 갈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운동하고, 손/발 잘 씻고, 소금물로 입안 잘 헹구고, 따뜻한 차 마셨어요. 미국은 한 며칠 전부터 날씨가 가을 날씨로 돌입했어요. 원래는 아침에도 더웠는데, 언제부턴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위에 걸칠 옷을 들고 학교 가게 됐어요. 참... 이번 할로윈 때 룸메이트들이랑 룸메이트 친구들, 제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려고 하거든요. 할로윈 파티는 참석할 때 꼭 무언가로 분장을 하고 와야 되거든요. 제 룸메이트는 똥 분장하고, 지 남자친구는 파리 분장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엘비스 프레슬리' 나 '마릴린 먼로'로 분장하려고요. 아마 '마릴린 먼로'로 분장할 확률이 높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마릴린 먼로 기발 구하고 있거든요. 히힛...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먼로' 같은 지 보세요. 그럼 아저씨, 오늘은 여기서 줄일게요. 나희 올림

2007년 9월 27일

아저씨께...

러시아 여행은 어떠셨어요?

이메일 읽어보니까 제가 러시아에 안 가봤어도 그냥 대중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번 주 토요일만 지나고 나면 이제 정말 좀 한숨
돌릴 것 같아요.

그 동안 중간고사, 리포트, 신문기사 마감 등이 이번 주랑 저번 주랑 다
몰려 있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문학 클래스에서 중간고사
봤었어요.

중간고사 보는 건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분량이 많아서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냥 통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독을 해야 합니다.

객관식 10문제에 에세이 쓰는 게 3개 있었어요. 객관식은 쉬웠거든요.

에세이 토픽이 10개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3개 찍으면 되는 거였는데요.

그 에세이 토픽도 별로 어려운 게 없었는데 문제는 1시간 만에 다
해야되니까 급하게 써내려 간다고 정신 없었어요.

뭐 어쨌든... 그 시험도 다 지나갔고 금요일 날 신문기사 마감일이랑
이번 토요일날 있는 경제학 중간고사만 치면 그렇게 바쁜 건 없을 것
같아요.

12월 기말고사 기간 되면 좀 바쁠지 몰라도 그 중간에 신문기사 마감일이
끼인 주 빼고는 바쁘지만 나름 느긋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캘린더를 펴놓고 보면 이번 주만 넘기면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꼭 뭔일이 생기거나 다른 바쁜 일이 생겨서 항상
바빠요.

도저히 예측 불가능이에요. 친구들이 저보고 과목 8개 듣고, 일주일에
20시간에서 21시간 일하고, 다른 캠퍼스로 이동하고, 더군다나 신문기사
쏜다고 사람들 인터뷰하고 기사쓰고, 시험공부하고, 숙제하고, 책 읽고...
등등... 도대체 어떻게 다 해내냐고들 묻거든요.

제가 과목을 8개 하고 있어도 현재 다 A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더욱더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다 해내냐고
그래요.

제가,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주어진 일을, 더군다나 내가 계획한
일을 즐기면서 하는 거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늘 제가 말씀 드리는 거지만 월요일인 거 같다가도 눈만 깜박하면
금방 주말이라니까요.

오우... 내일이 벌써 목요일이에요.

아저씨. 삼국지를 보면 '적토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적토마'라는 말은 하루에 수천리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 뭐... 그런
불사신 같은 말이지요. 저는 어릴 때 삼국지를 읽었을 때 '적토마'라는
말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냥 다른 말하고는 달리 하루에 수천리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철이 들고 나서
생각하니까 어릴 적에 제가 적토마를 좋아했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적토마처럼 가야 할 길을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동경했던 것 같아요. 우습게도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적토마예요. 제갈공명이나 조조가 똑똑한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라 그런지 별 다른 감흥을 못 느꼈어요.

친구들이 요즘은 저보고 자주 하는 말이 '너는 쉬지 않고 공부한다' 라서
갑자기 삼국지의 적토마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18

열여덟 번째 만남 _ 2007. 10. 1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순간 가장 강렬히 끓어오르는 열망 중 하나가 그 사람과 접촉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접촉은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갈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미각, 촉각, 청각과 당신이 지닌 감각의 주파수를 맞추고 싶어하는 행위, 그것이 곧 접촉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어서 서두르십시오.

적토마는 제가 아니라 아저씨인 것 같아요. 아저씨야말로 60년 이상을
수지 않고 온 세계를 다니시면서 항상 자기계발을 하시니까요.
제일 먼저는 제 인생을 위해서, 또 저희 가족이나 아저씨, 그 외 저를
위해 힘써준 친구들이나 교수님들의 수고를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과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쩍...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 싶어서 그냥 열심히 해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문 기사 등 특별활동에 참여도 하고,
인터뷰하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인간관계도
넓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학교 친구들도 더 많이 만들고...
'공부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하면서 인생을 즐겨라'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싶은 제 마음도 있지만 또 제 성격상 책상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있지도 못하거든요. 야생 동물을 방안에 가둬놓고 있으면 얼마 안 가서
그 동물이 미치도록 방방 뛰거나 아니면 되게 우울해 하잖아요.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개는 늑대의 피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하루에
한시간 이상씩 주인이 그 개랑 조깅을 안하거나 그 개가 하루종일
집에만 있으면 강아지 성격이 굉장히 못 되게 변해버린데요.
제가 사람인 이상 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는데 피로를 풀 겸 하루
이틀... 길게는 삼일까지는 집에 계속 있어도 괜찮은데 그 후에는 마트를
가든, 가까운데 스타벅스를 가든 꼭 어디를 가야되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다녀서 집에서 폭 쉬고 싶네요.
아저씨는 그렇게 외국에 자주 다니시면 집에 안 계시고 싶으세요?
오늘은 여기서 줄일게요.

나희 올림

열아홉 번째 만남 _ 2007. 10. 2

60고개를 넘어서면서 인생을 바라보니 역시 인간이 중요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 역시 인간이어야 하고 여러분 역시 인간이기에 인간끼리 서로 부딪히고 헤어지고 돕고 의존하고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우리회사에 근무하는 여러분인데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평생 그 사람 인생을 좌우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깜짝 놀라 내 자식을 찾으러 벌써 다 커서 저희들이 자식을 키우더라 그 말입니다.

부모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것을 그리치면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을 그리치겠지요.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크는 것이라 했습니다.”

스무 번째 만남 _ 2007. 10. 4

30년 전입니다.

친구와 술집에서 치열한 토론 중에

(그때 내 친구들은 전부 취직한 셀러리맨이었습니다.)

느닷없이 후달리면 나에게

“너는 계장 과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장이 되어서 우리 심정 몰라.”

그때는 그 소리 들으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기업에 당당한 직원으로 정규교육을 받고 있었고 나야말로 아무 과정 거치지 않은 구멍가게 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때려 치우고 대기업에 입사나 할까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저럭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피를 말리는 전쟁을 치루게 되었지만 만약 다시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땐 당당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사장이 돼 보지 못해 내 심정 몰라.”

60이 된 지금 사장이 돼 있는 친구는 눈 딱 감고 봐도 별로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 만남 _ 2007. 10. 5

어제는(10月 3日) 휴일이라 오페라 오텔로를 하루 종일 DVD로 3번씩이나 보고나니 밤 12시였다.

세익스피어 원작으로 150말경 키프로스 항구를 배경으로 대본이 쓰여진 오페라이다.

주인공(무어스 베니스장군)인 오텔로(테너)는 흑인장군으로 아름다운 백인(메소페모나)을 아내로 맞아들이나 질투에 눈이 어두워 사랑하는 아내를 목 졸라 죽인 사람이다.

즉 중오의 덫에 걸린 남자의 처절한 사랑을 플라시도 도밍고가 열창 열연한 것으로 비록 노쇠했지만 노련한 반평생 닭은 오텔로 연기의 결정판이었다.

오텔로는 역시 마리오 델 모나코라 오늘 DVD를 주문해 다시 볼까 한다. 지금이 대구의 오페라 축제기간이다.

한 번쯤 인터넷에 들어가 스스로 표를 사서 오페라 구경 간다면 접촉할 사람도 만날지 누가 알리요.

참고로 10月 12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 오페라단의 오텔로가 오페라하우스에서 2일간 공연이 있다.

22

스물두 번째 만남 _ 2007. 10. 8

보통 사람들은 충고를 해주면 3가지 형태를 나타냅니다.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성을 버럭 내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선 맞다고 고맙다 해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이고 마지막 한 사람은 자기에 맞는 충고가 아닐지라도 고마워하며 충고해 준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했을까 깊이 새기고 충고에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거 하나도 잘 실천 못하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스물세 번째 만남 _ 2007. 10. 9

나는 충고를 할 때 소낙비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새벽 이슬처럼 소록소록 다듬어주는

이슬비형 충고를 바랍니다.

있이 소나기도 맞고 태풍과 비바람을 맞아 째지고 꺾어져봐야
더욱 강한 잎을 가지게 됩니다.

단, 충고하고 난 후에 상대방이 상처가 잘 아물고 있는지
끓아가고 있는지 관찰하지 않는 자의 충고란 범죄행위입니다.

스물네 번째 만남 _ 2007. 10. 10

나는 요즘 오페라를 보면서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다.
성악가가 고비고비마다 혹시 음정이 틀리지 않는지 연기가 어색한 게
없는지 연기자들의 의상이 어색하지 않는지 조명이 시원찮은지
무대장치가 영성하지 않는지 연출이 엉망이지 않는지 관현악단의
현이 이상한지 관이 어눌한지 소리의 전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지휘자가 오페라의 마디마디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합창의
소리에 울림이 없는지 성악가의 배역이 나이가 틀리는지 몸이
퐁퐁한지 인물이 못났는지 등등... 이런 것을 찾아 따라가다 보면
2시간 훌쩍 지나간다.

오페라는 지휘자, 연출가, 관현악단, 성악가, 합창단, 의상, 조명,
무대장치, 관객의 호응도 등이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이다.

이것을 체크하며 즐거리를 즐기며 성악가의 연기와 소리에 감응하며
간혹 주옥 같은 아리아와 합창곡이나 서곡 또는 간주곡에 긴장하며
눈물을 찔끔거리고 오금 못쓰고 발발 떨며 본다.

여기다가 자기가 좋아하거나 지원하는 성악가가 있을 땐 막이 내릴
때까지 긴장을 풀지 못하고 목소리의 구비구비 연기의 동작
하나하나에 매달려 가다가 끝나면 안도의 숨을 쉬며 그때에서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오페라를 보는 나는
행복한가를 되씹어본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간혹 생산공장에 들어가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잘못 정리된 것, 더러운 것이 먼저 보이게 되고
이것을 꾸지람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짐합니다.

잘된 것을 찾아 칭찬을 많이 해야지.

그래서 내 딸아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글을 액자로 만들어 주었고
금년 봄에 대구은행 부서장들 500名에게 강의를 하고 난 후
행장님께 이 글을 선물했습니다.

찰흙이란 알이 부화해 병아리가 되어 바깥을 나와야 하는데 껍 힘
 없어 계란껍질 속에서 콕콕 두드릴 줄이고啄이란 어미가 알을
 품고 있다가 하메나 하메나 기다리다 반가워 껍질을 깨어준다는
 탁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한치 틀림이 없어야 한다는
 글입니다.

우리도 줄과 탁이 동시에 이 회사 속에서 일어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봅시다.

스물여섯 번째 만남 _ 2007. 10. 12

우리 직원은 간혹 이런 불평을 말합니다.
“아무도 내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 보십시오. 다 선의의 경쟁자들입니다.
어느 놈이 가르쳐 주겠어요.

스물일곱 번째 만남 _ 2007. 10. 13

공자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세 사람이 다 내 친구다.

한 사람은 배울게 많아 친구고 한 사람은 배울게 없고 못난 것이 많아 그것을 배우지 말아야겠다 해서 친구고 하나는 부랄 친구다.”

우리는 살면서 창조적인 것을 친구에 배우고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친구란 위로 받고 의존하고 서로 노닥거려서는 결코 안됩니다.

인생에는 여름방학이 없듯이 우리에게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루의 시간이 종속적이거나 노예적인 시간 속에 있었는지
창조적인 시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자기 전에 꼭 한 번 짚어봅시다.

스물여덟 번째 만남 _ 2007. 10. 15

우리회사 인사실에 “미래의 경영자”를 1개월에 한 명씩 추천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는 현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고 사장단에 모든 것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훌륭한 인재를 발굴 키워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회사는 신입사원일 때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세월이 흐를수록 무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회사 조직도 문제가 있지만 직원들의 노예근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종속적이고 의존적임이 문제이고 이런 직원은 반드시 회장이 진두지휘 할겁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가르쳐 줄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스물아홉 번째 만남 _ 2007. 10. 16

여러분에게 내가 평소 ‘노예근성’, ‘종’, 참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하지요.

열정을 가지고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해 봅시다.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심부름꾼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를 항상 생각합시다.

아무리 멀미를 하는 사람도 자신이 직접 운전하면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잭 웰치도 인재 선택의 최고기준은 열정이라 했습니다.

열정이 부족한 천재보다도 열정이 넘치는 범재를 나는 선택할 겁니다.

열정은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불 같은 에너지입니다.

서른 번째 만남 _ 2007. 10. 17

나는 올 5월에 러시아의 극서인 발틱3국을 다녀왔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과거 러시아의 위성국가였지만 얼마 전 독립하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인접해 있는 1500년대 한자동맹으로 유명한 나라다. 이곳을 중앙일보 논설위원인 정진홍과 박진우 대리님과 함께 했었다.

그쪽 수도 한복판을 흐르는 강가의 오래된 아파트를 보고 왔다. 그리고 올해 추석날 러시아 극동인 블라디보스톡과 연해주 일대를 보고 왔다.

러시아 극중(한복판)인 이르쿠츠크의 바이칼 호수도 함께 보고 왔고 동행은 정진홍 위원과 박대환 사장, 박진우 대리였다. 요즘 나의 사고는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몽골에서 러시아로 옮겨지고 있다.

내 살아 생전에 이곳에 뿌리를 내려야겠다.

최근 세계시장에서 곡물가격이(콩, 밀, 옥수수)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다.

폭염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밀가루가 금가루로 되고 있다.

물론 연해주 농장을 꿈꾸며 땅 2,700만평을 보고 왔다.

러시아는 땅을 북한의 노동력을 한국의 자본이 합쳐질 시대가 온다.

우리의 미래는 후손들이 우리가 한 일들을 평가할 것이다.

나도 60이 넘어 마지막 한판 씨름을 붙어볼 상대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장래 한국이 을지문덕, 양만춘, 연개소문, 광개토대왕, 대조영, 장보고, 묘청, 이순신을 생각하며 세계를 지배할 구상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그때 다녀온 직후 정진홍의 중앙일보 토요 칼럼을 소개한다.

(1) 『정진홍의 소프트파워』 세계화 3.0시대의 주인공이 되자 “중앙일보”

“세계화 1.0시대에 변화의 동력이 국가였고, 2.0시대에는 기업이었다면, 3.0시대의 변화 주체이자 동력은 개인이다.” 토머스 프리드먼이 그의 저서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한 말이다. 70년 전인 1937년 스탈린은 극동 연해주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을 강제로 열차에 태워 허허벌판 중앙아시아에 짐짝 부리듯 흩어 놓았다. 세계화 1.0시대 변화의 동력이었던 국가가 작고 약하다 못해 아예 망했기에 망국의 개인들은 변화와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쩔 도리 없이 휘둘려 고스란히 그 피해를 뒤집어 쓴 것이다. 하지만 고려인들은 그 와중에서도 잡초처럼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그들 가운데 몇몇은 바람에 흩날린 민들레 흩씨처럼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유라시아 대륙의 극서(極西)에 위치한 이른바 발트 삼국까지 흘러들어갔다.

하지만 망국의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야 했던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가 있는 지 70년이 지난 오늘, 이른바 세계화 2.0시대의 변화 동력이자 주역인 기업들의 판세에서 보자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고려인들을 강제로 열차에 태워 짐짝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소비에트 정권의 본거지였던 모스크바의 관문인 세레미치예보 공항은 삼성과 LG의 평면TV에 점령됐고, 현대기아차의 붉은색 ‘리오’가 마치 진주군처럼 공항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문제는 세계화 3.0시대의 개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기 위해 나는 70년 전 고려인들이 겪었던 세계화 1.0시대 통한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극동에서 극서로의 여행을 결심하고 결행했다. 동시에 정말 놀랄 만한 속도와 파워로 커가고 있는 한국 기업의 세계화 2.0시대의 현주소를 직시하면서 세계화 3.0시대의 개인은 어떠한가 하는가를 유동하는 현실 속에서 고민하기 위해 70년 전 고려인들이 흩날려 갔던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인 발트 삼국으로 향했다. 그리고 지난 열흘간 라트비아의 리가, 리투아니아의 빌뉴스, 그리고 에스토니아의 탈린을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탈린의 남서쪽 바닷가 끝에 위치한 에스토니아의 여름 수도라 불리는 파누에서 짧지만

긴 여운의 여행을 정리하며 이 글을 적기 시작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었는데 벌써 동이 터 온다. 여명(黎明)이다. 묘한 하늘빛과 물빛이 서로 어울리고 교차하며 또 다른 하루, 아니 새로운 미래를 열기 시작한다.

이미 우리는 그 새로운 미래인 세계화 3.0시대에 접어들었다. 국가와 기업의 조직력보다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소중한 시대다. 이 시대를 제대로 주인으로 살려면 먼저 세계화 1.0시대의 관념의 지도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정말이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세계화 3.0시대의 지도는 국경선의 구획이 아니라 창조적 역량의 분포다. 미국에서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을 인도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프리드먼이 언급했듯 이제 더 이상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극동과 극서의 경계조차 없다. 이 글도 에스토니아에서 쓰이기 시작해 러시아 공항에서 전송돼 서울에서 보지 않는가. 또한 세계화 2.0시대의 기업 판도에 안주하지 말자. 지금 살 만하다고 안주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새롭게 도전하고 끊임 없이 모험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개인들이 스스로의 잠재된 위대함을 깨워 세계화 3.0시대의 전사로 나설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남 따라 하지 말고 자기만의 독창성을 창조의 무기로 삼아 세계화 3.0시대의 진정한 주역이 되어 보자. 세계화 3.0시대는 나와 당신이 모험하길 유혹하고 있다.

(2) 『정진홍의 소프트파워』 연해주의 야생 버를 아십니까 “중앙일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2시간 남짓 날아가면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닿는다. 해삼이 많아 ‘해삼위(海參威)’라고 불린 블라디보스토크. 본래 고조선과 발해의 땅이었고 구한말 국외 독립운동의 중심 기지였던 신한촌(新韓村)이 있던 곳. 거기서 북쪽으로 1시간 30분 정도를 차로 이동하면 우스리스크에 닿는다. 그 근방에 ‘한마당’이라 불리는 너른 들판이 있다. 지금부터 꼭 70년 전 그 들판에는 수확을 앞둔 벼들이 익다 못해 고개를 숙인 채 추수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고려인이 애써 심은 벼였다. 하지만 고려인은 추수를 기다리는 자식 같은 벼들을 거두지도 못한 채

인근 라즈돌로예 역에서 강제로 화차에 태워져 중앙아시아의 사막 한복판에 버려졌다. 나라 잃은 백성들은 그렇게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리고 있었다. 그 후 주인 잃은 벼들은 수확되지 못한 채 아무도 돌보지 않아 포기째 얼어 쓰러졌다. 낱알들은 흩어져 일부는 썩고, 또 일부는 겨우내 언 땅 속에서 살아남아 이듬해 봄에 스스로 싹을 틔웠다. 그렇게 반복하길 수십 년… 아무도 거두지도 돌보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생존의 몸부림을 거듭하며 그것들은 야생 벼로 진화했다. 일반 벼의 낱알은 겉이 매끈한 데 비해 야생 벼의 낱알에는 보리처럼 긴 수염이 나 있다. 곡식을 쪼아 먹는 새들의 부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고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 낳은 유전적 변이의 결과였다. 극동(極東)에서 강제 이송당해 중앙아시아의 그 척박한 사막 위에 짐짝처럼 부려진 뒤에도 악착같이 살아남았던 고려인들. 그 후 다시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의 극서(極西)에 해당하는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틱 3국까지 민들레 흩씨처럼 흩러간 질기디 질긴 생명력의 고려인들. 그들의 진한 민족적 생명력은 언 땅을 뚫고 다시 살아난 야생 벼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지켜내며 진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탈린 체제 하에서 강제 이주당했던 고려인 중 일부가 1956년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 시대가 열리면서 다시 연해주로 옮겨왔다. 아울러 사회주의 블록이 요동치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도 고려인이 중앙아시아로부터 역이주해 와 다시 옛 땅을 일궈내기 시작했다. 그들 자신이,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궈낸 땅들을 다시 밟고 다시 일군 것이다.

여기에 한 민족종교단체(대순진리회)가 힘을 보태 애초에 고려인이 터를 닦아 놓았지만 오래 방치돼 있던 한카 호수 주변의 농장들을 하나 둘 사들여 지금은 모두 17개의 농장에서 소와 돼지를 기르고 닭을 치며 때론 사슴을 방목한다. 콩 농사와 쌀농사 등도 5년째 짓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금도 어김없이 야생 벼가 출현한다. 70년이 넘도록 죽지 않고 생명의 질기디 질긴 끈을 이어온 이 야생 벼야말로 고려인의 슬픈 운명과

질긴 생명력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연해주의 야생 벼! 그 낱알 낱알은 다
름아닌 고려인의 한 맺힌 눈물 그 자체다. 그 야생 벼를 움켜쥐고 나 역시
하염없이 울었다.

이제 곧 남과 북의 정상이 다시 만난다고 한다.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진 않
고 있지만 적어도 그들의 시야가 한반도 안의 좁다란 정치적 흥정에 갇히
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진정한 민족의 하나됨을 생각한다면 세계 도처에
흩어진 700만 해외동포와 그들의 삶의 역정을 가슴과 시야에 담아야 하
지 않을까. 다음달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이다. 세계 도처에 흩어진 700만
해외동포가 존재함을 기억하는 날이다. 적어도 민족의 지도자를 자임하려
면 연해주의 야생 벼가 상징하듯 수많은 고려인, 아니 세계 각처의 한국인
이 흘린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서른한 번째 만남 _ 2007. 10. 18

어젠 북경을 당일치기로 다녀왔다.

10月 16日 부산 08:25→북경 09:50

10月 16日 북경 18:45→인천 19:50

이렇게 해외를 당일 날 다녀온 것은 내 인생에서 처음이다.

북경에서 중장비 쇼가 있었기에 조병상, 박대환, 김경태, 김병조,
이형우와 다녀왔는데 우리회사가 중장비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음을 느끼고 왔다.

참고로 나의 비행기록은 오늘 현재까지

아시아나 599회 887,330마일이고

대한항공 1,581회 1,564,480마일이다.

합하면 2,180회 2,451,810마일이다.

서른두 번째 만남 _ 2007. 10. 19

나는 남극 북극 빼고 세계를 다 다녀온 셈이다.
나는 그동안 여행 중 억만 가지의 사건을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
사건을 당하기도 했었다.
이 경험들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였고 이것들이 나의 생 지식의 보고가 되어 독서와
더불어 양날의 무기가 되었다.
나는 생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또한 여행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없고
간에 해보고 싶은 것 다해봤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네트워크(레이더망)는 굉장히 조밀하게 짜여져 있다.
여기에 걸려들면 어느 것도 빠져 나갈 수 없다.

나는 이 나이에 이것들을 소중히 나의 실체로 인정하며 남달리 자랑스럽게
살아간다.

32

33

서른세 번째 만남 _ 2007. 10. 22

며칠 전 유지연 차장, 이재규 고문과 제8회 세계지식포럼(world knowledge
Forum 2007)에 다녀왔다.

주제는 아시아시대의 부의 창조로써 연사는 앨런 그린스펀 미국연방
준비제도의장(前), 콜린파월 미 국무장관(前), 에드먼트 펠프스
노벨경제수상자, 경제학자 톰 피터스 등 많은 국외 학자, 정치가,
사업가 등의 강연이었다.

나는 지식을 목말라했기에 국내외를 물론 40년간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런데 유독 대구사람은 강의를 듣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번 이틀간 워커힐 폴코스 강의로 또 한번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서른네 번째 만남 _ 2007. 10. 23

기업은 종업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장소이어야 한다고 소니의 이데이 노부유키 회장이 말했는데 그러나 현실에서 기업은 젊은 시절 낭만을 접고 현실에 입문하기 위한 통로 정도로 생각하면서 주중은 지옥, 주말은 아주 적은 천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일을 하는 개념의 변화입니다.

현대는 초경쟁시대입니다.

조직원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최고의 승부로 요구되며 예술가적 마인드를 임직원의 열정으로 어떻게 끌어 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가 선정한 jump팀이 구성되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눈으로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뜻으로 손을 잡아주세요.

서른다섯 번째 만남 _ 2007. 10. 24

HR and Partner의 김혜란 선생은 “우체부 프레드”에서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만의 사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후반생”에서 공자, 범려, 항우, 유방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人生의 상당부분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단에 따라 인생이 달라짐을 우리는 보고 배우고 읽고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간혹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꼴도 보기 싫다. 오늘 이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단지 나는 내일만 있을 뿐이다.” 라고.



서른여섯 번째 만남 _ 2007. 10. 25

나는 젓이 큰 여자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나의 형제 유재구(48年生), 유재철(49年生)이 연년생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젓을 1년도 먹질 못했다. 그리고 1년 후엔 어머니
 품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셋째 놈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젓이 그리운 것은 어머니 품이 그리운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먹는 것과 사랑이 부족해 지금도 모자란다는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갈구해온 것이 내 인생이다.
 그래서 젓 큰 여자가 지금이라도 있다면 젊든 늙든 어머니 품속같이
 파고 들고 싶다.

그러나 천만다행이다.
 젓 큰 여자와 40년 살고 있기에.

서른일곱 번째 만남 _ 2007. 10. 26

나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깊은 고민을 한다.
 비즈니스일 경우 더욱 그렇다.
 먼저 잘못될 경우가 무엇인가 조목조목 따진다.
 그리고 부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또 생각한다.
 보통 밤을 새면서까지 생각한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도 가끔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대개
 눈치챈다.
 무슨 고민이 있구나 하고.
 그러나 결코 물어보지 않는다.
 그런 밤과 낮이 흘러 단점이 다 드러나고 그것을 해결할 방안을 찾게
 되면 잘될 때나 긍정적이거나 장점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실천에 들어간다.
 정말 겁나게 실천에 들어간다.
 그때쯤이면 잠도 자게 되고 술도 먹게 된다.
 이것이 40년 나의 비즈니스 인생이다.

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코 피하지 않고 직면해왔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남에게 물어보기부터 먼저 하더라.

서른여덟 번째 만남 _ 2007. 10. 29

나의 어린 시절의 김천 집은 초가집이었다.

어릴 때 2년에 한 번씩 벼짚을 사다 지붕을 할아버지가 손수 갈아
이는 것을 거들어 본적이 있다.

그 지붕엔 호박이 달리고 박이 열린다. 그래서 호박꽃도 박꽃도 나는
안다.

가을엔 밭에서 따온 고추가 빨갭게 지붕 위에서 익고 있을 때
흙마당에선 어머니가 명석을 깔아놓고 칼국수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마당 한복판에 우물을 길어 애동호박을 썰어 넣은 국수를 먹으며
마당에 핀 채송화, 봉숭아 보던 시절이 나의 보석 같은 어린
시절이다.

학교에서 지붕이 초가집이냐 기와집이냐가 그 학생의 가정조사다.
초가집인 사람 손들어 보라고 담임선생이 얘기할 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러나 그때 그 촌놈 아니었다면 지금쯤 내가 무엇이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지금도 입사면접을 볼 때 촌놈을 더 좋아한다.
김천국민학교에서 대구 수창국민학교로 4학년에 전학와서 졸업
때까지 내 별명은 촌놈이다.

그때 대구 촌놈들이 나를 사투리 고치지 못하는 촌놈이라 놀릴 때
부끄럽지 않았다. 내가 촌놈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회사에 또 하나 촌놈이 있다. 영양 촌놈 남익현 전무다.
작년에 칠순 어머니를 여의고 어젠 팔순 아버지를 여의었다.
그 아버님은 어머니가 그리워 식음을 전폐하고 막걸리만 드시다가
어머니 곁에 가셨단다.

지금 자식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남익현 전무께
위로의 말을 함께 나눕시다.

서른아홉 번째 만남 _ 2007. 10. 30

어젠 이재규 고문 집에 초대를 받았다.

물론 부부동반이었다.

이재규 고문 남은 인생의 전부가 피터드러커, 음악, 책 그리고
여자이다.

그 여자가 부인이란다.

얼마 전에 별라홀에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는 불란서 보르도지역
와인 **샤토무통로칠드**(보르도 메독지역 포이악마을)와 **샤토리피드로칠드**(보르도

메독지역 포이악마을)와 **샤토마고**(보르도 메독지역 마고마을)와

샤토오브리옹(보르도그라브지역 프삭-레오낭마을)을 마신 적이 있었다.

그때 못 마셨던 佛보르도 5代 名酒 명주인 위의 네 가지와

샤토리투르(보르도 메독지역 포이악마을)를 이재규 고문 집에서 대접 받게
되어 금년에 5가지 맛을 다 보았다.

요즘 유행하는 포도주 공부도 물론 해야겠다.

“신의 물방울”의 저자 아기다다시 남매가 세계지식포럼에 와서
와인공부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공부하기 전 먼저 마셔보고 느껴보라는 것이다.
 와인은 머리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란단.
 내가 아는 상식으로론 맛있는 포도주는 비싸더라.
 그리고 부드럽더라는 것이다.
 물론 나도 칠레와인 수준이다.
 이제 겨우 이태리로 넘어가고 있다.
 내 남은 인생에서 불란서 5대 명주를 다시는 마시지 않는 평범한
 인생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생각해본다.
 아무튼 이재규 고문 집은 노학자로서 삶이 철철 배여 있는
 그 자체이더라.

이 고문, 우리 부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소.

마흔 번째 만남 _ 2007. 10. 31

莊子장자의秋水篇^{추수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井蛙 우물속의 개구리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黃河에 사는 神^신 河伯^{하백}과 北海에 사는 神^신 若^약의 대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하백은 모든 강이 모여 자기에게 합쳐 흘러가니 나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말하니 若^약이 井蛙^{정와}라 이야기하며 자기는 모든 강을 다 모아
 담아가지만 강에는 폭이 있고 바다에는 테두리가 없다고 하백을
 나무라는 이야깁니다.

어제는 식당에서 公사회<sup>(20년 전에 본인이 주관하여 의사, 교수, 사업가 등이 모여
 공자의 사서, 삼경을 공부하며 공자를 스승으로 모시는 모임)</sup> 모임이 있었는데 3시간
 이야기 중 3분의 2는 상식에 관한 얘긴데 전부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구사람들은 책도 안 읽고 공부도 하지 않는, 신문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3시간 노닥거리는 걸 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어봅니다.

마흔한 번째 만남 _ 2007. 11. 1

나는 자전거를 운동 삼아 즐겨 탄지 40년이 넘는다.

최근은 산악자전거를 즐겨 탄다.

일요일은 간혹 오승목, 이동기, 강덕식, 박연목 등과 가야산 일대를 달린다.

물론 박연목 교수는 나와 자전거를 타다 다친 지(10月 15日)

만 1주년인데 아직 불편해 함께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

몇 년 전에 태창영업팀 김보혜와 성주 계곡에서 자전거 타다

보혜양이 계곡에 떨어지는 바람에 처녀 신세 망칠뻔한 적도 있었다.

차에 싣고 경대 응급실 찾아 갔을 때 강덕식 교수에게 거짓말을 했다.

나와 함께 타다 그러질 않았다고.

요즘 가을 새벽을 맛보고자 신천 교수부지에서 1시간 가량 매일

자전거를 탄다.

얼마 전엔 메밀꽃이 하얗게 핀 들을 달릴 때 그 기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우리회사 생산부 직원이 요즘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선진국일수록 자전거 타는 국민이 많다.

내가 여러분께 적극 권하고 싶은 운동 중에 하나다.



마흔두 번째 만남 _ 2007. 11. 2

나는 건축주인 람세스2세를 가장 좋아한다.

그는 영원불멸의 건축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을 명령한다.

그리고 건축가인 르 꼬르뷔지에를 또한 좋아한다.

스위스와 프랑스 접경에 통상성당이 그것이다.

물론 나는 피라미드의 장엄함과 통상성당에 경악하였다.

1928년 봄 파리에서 피에르와 에밀리 사부아라는 이름의 부부는 41살의 스위스 건축가 르 꼬르뷔지에를 찾아가 자신들과 어린 아들 로제를 위해 시골집을 설계해달라고 부탁했다.

집이 들어 설 곳은 파리서부 푸아시에 있는 숲이 우거진 땅으로 센강이 굽어 보이는 곳이었다.

르 꼬르뷔지에는 그때까지 건축가로 일하면서 개인주택을 15채 지었으며 건축에 관한 분명한 관점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다.

이로써 그 유명한 아름답지만 방수가 되지 않는 집

비라사부아(1931)주택이 완공된다. 그러나 완공 후 사부아

부인으로부터(1937) 가을에 이런 질책을 받게 된다.

“내가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요구를 한 끝에 당신은 이 집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지요. 이것은 당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나는 청구서대로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 주세요. 내가 법적인 행동에 의지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세계2차대전이 터져 사부아 가족이 피신하는 바람에 르 꼬르뷔지에는 특별히 아름답기는 하지만 사람이 살기 힘든 이 집 설계문제로 법정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모더니즘 건축가들은 내심 아름다움을 염두에 두고는 기술적인 맥락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정당화하려 했을까.

체코슬로바키아 부르노의 투겐트하트하우스(1930) 미스반드로에의 유명한 주택도 우리나라 김수근의 성북동 주택도 다 사용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건축가와 건축주는 항상 마찰과 다툼이 있어 오면서 아름다움이 창조되었다.

이제 포항공장은 20년이 걸려서 24,000坪에 공장과 정원과 사람과 기술이 완성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근무하는 300여 명 직원에게 아름다운 식당과 목욕탕과 헬스클럽을 지어달라고 AI건축 박진 소장에게 의뢰했다.

건축가와 건축주 사이에 또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이 건축을 나는 여러분께 내 혼을 기울여 바치고자 한다.

마흔세 번째 만남 _ 2007. 11. 5

나는 오드리 햅번의 유언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아라.

날씬한 몸을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거든 버림 받은 어린아이가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정녕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싶다면 어려운 이들과 함께 걸어라.

결코 누구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네가 누군가를 도울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쓰면 된다는 것을.

더 나이가 들면 새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의 손이 두 개인 까닭을...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손이라는 사실 말이다.”

로마의 휴일 영화에 매력적인 모나코 공주로 나오는 오드리 햅번은 64세(1993)로 아프리카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숨을 거두기 1년 전 크리스마스 때 아들에게 쓴 편지로 유언을 합니다.



마흔네 번째 만남 _ 2007. 11. 6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나는 버나드 쇼(1856~1950)의 묘비명인 이 글을 좋아합니다.
아프리카 스와힐리족의 SASA와 ZAMANI란 말이 있는데 사사란
“누군가가 죽었더라도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한 그는 여전히 사사의
시간에서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고,
자마니란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마저 모두 죽어 더 이상 기억해 줄 사람이
없게 되면 이때 비로소 그 죽은이의 영원한 침묵의 시간 즉 자마니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고 합니다.

우리 이 말 잘 씹어봅시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또한 죽은 후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나는 기억해주기 바라는 시간도 줄이고 싶다.

이것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무위 즉, 비움의 철학입니다.

마흔다섯 번째 만남 _ 2007. 11. 7

누구나 책 잘 고르고 잘 읽는 법에 고민이 많다.

책 읽기야말로 왕도가 없다.

그래도 몇 가지 추천하겠다.

먼저 책 표지에 실려있는 글귀와 작자의 소개를 읽어본다.

주제와 강조점이 요령껏 정리되어 있다.

물론 광고성도 포함되지만 그 다음 목차를 본다.

두꺼운 책을 요약한다면 줄이고 줄이면 책의 골격인 목차만 남는다.

그래도 안되면 서문을 읽어보라.

서문은 그 책을 쓴 동기, 책에 문제 삼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풀어놓는다.

서문은 그 책을 들어가는 출입구다.

서문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면 속된 말로 볼장 다 본 책이다.

문제의식이 없거나 주제의식이 애매하거나 문장이 인상적이지

않다면 그 책은 돈 들이고 시간 들여 읽어볼 가치가 없는 책이다.

그래도 안되거든 책을 많이 읽는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에게 선물로 책을 많이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도 저것도 다 싫거든 사는 것을 집어치워라.

추천할 冊

남한산성 김훈 지음,

생각의 탄생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지음.

마흔여섯 번째 만남 _ 2007. 11. 8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은 “생각의 탄생”이란 책에서 종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조적 리더만이 국가 경제는 물론 계층갈등, 인권, 환경 등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을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혁신가(Innovator)는 직관력과 통찰력을 갖춘

르네상스형 인간(만능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리더의 핵심역할은 문제를 포착하고 이해하는 것(格物致知)이라며 조직의 미세한 균열을 짚어내는 관찰력, 구성원과 고객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느낄 줄 아는(易地思之), 휴먼아트(Human Art)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리더로서 “생각의 탄생”의 책과 나는 얼마나 부합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흔일곱 번째 만남 _ 2007. 11. 9

우리회사에는 패거리 문화가 없습니다.

즉 친인척, 학력, 동문, 같은 고향 등이 근본적으로 배제돼 왔고 40년간 인사에서 나는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우리회사에는 친척이 전무합니다.

물론 자식이 근무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더욱 성실해야 하고 더욱 부지런해야 하고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승진이란 시간이 흘러서 떼우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우리회사에서 능력이 있는 자는 항상 규범에 매이지 않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마흔여덟 번째 만남 _ 2007. 11. 12

나는 부처의 설법이나 예수의 말씀을 좋아한다.
 종교는 없지만 만약 공부를 한다면 부처가 되는 공부를 하고 싶다.
 나의 철학은 공자 사상이 가장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공자적 人生을 살고 싶다.
“인간은 태어나서 배운다. 그리고 가르친다.
그 가르치는 길이 쉬워지는 것이 곧 내가 가는 길이다.”
 이것이 나의 철학이다.
 위의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자신 있다.
 여러분도 이제 살면서 자기 중심을 잡고 삶의 좌표설정을 세우고 人生을 사는 것이 자기자신을 항상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흔아홉 번째 만남 _ 2007. 11. 13

부처가 한 말들을 제자들이 모아서 쓴 책이 있다.
 원각경, 능엄경, 법화경, 화엄경 등등이다.
 부처는 책보고 공부하라 하지 않았다.
 그래도 힘이 들면 제자들이 쓴 위의 책을 보며 중들이 학습하며 부처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부처가 되고 나면 공부를 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돈오돈수이고 돈오점수는 부처가 되어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禪僧선승들은 간혹 논쟁을 벌인단다. 돈오돈수냐! 돈오점수냐 라고!
 근데 부처는 삼각자로 항상 자기 마음을 본다 하였으니 깨달음을 유지하는 것은 돈오점수이지 않겠느냐.
 근데 성철스님은 돈오돈수라 하였다니 경을 위배한 말을 한 셈이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성철스님 위력에 눌려 아무 말도 못했단다.

원각경에 이런 말이 있다.

“모든 인간의 번뇌 즉 고통은 사랑과 미움에 기인하는 바 미움은 사랑을 갈구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되짚어 보세요.

2,500년 전에 인간에 대해 갈파한 부처의 이 말은 2,500년 후라도 아니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불멸의 명언이라 생각한다.

원 번째 만남 _ 2007. 11. 14

나는 女子를 좋아한다.

왜냐면 세상에 반이 여자이기 때문이다.

왜 결혼한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숨어서 만나야 하나 항상 궁금하다.
특히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만날 때 대개 킁킁한 데서 만나는 것은
참 이상하다. 남자들에 경고한다.

여자를 만날 때 당당하거라.

우물쭈물거리다 개병신 되지 말고...

숨기지 마라.

언젠가 들리게 돼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자문제는 항상 남들에게 보여주고 털어놓고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신정아 사건을 보고 몇 자 적어본다.

원한 번째 만남 _ 2007. 11. 15

40年 前 일이다.

“재성아, 신문 가져오너라.”

새벽 6시경이면 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나를 깨우는 소리다.

그때 신문은 80%가 한문이었다.

아침 밥상 앞에 밥 먹는 나에게 신문 첫 기사를 읽어보라 하신다.

한문을 떠들거리면 그대로 불 같은 호령이 떨어진다.

그땐 정말 서러워서 독을 피우고 한문 공부를 많이 했다.

지금도 내 책상 옆 벽에 중국 간체자가 붙어져 공부하고 있다.

여러분이 한문을 안다는 것이 세상을 얼마나 넓게 아느냐 동남아
여행을 해보면 여실히 증명된다.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동남아일대는 화교가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기에 모든 간판이 한문이다.

여러분 한문실력은 1,300자다.

일본은 8,000자다.

중국은 13,000자가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본사람이 비웃고 있다. 한문 모른다고.

이제 세계는 중국 때문에 한문의 천국이 된다.

여러분 자식은 물론 여러분 자신도 한문 공부 몰두하시기 바란다.

여러분 이 뜻을 아는 사람 있나요.

多不有時.

원두 번째 만남 _ 2007. 11. 16

직원 여러분 나는 최근에 60才 나이에 만나는 친구는 두 명뿐입니다.

강덕식 교수(경북대학교 방사선과, 011-816-0138)는 우리 회사

의료고문입니다.

박연묵 교수(경북대학교 신경외과, 011-804-8047)는 나의 주치의이자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응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두 분에게는 언제나

연락하시어 상의해 주세요.

그리고 비서실도 연락망이고 박대환 사장도 즉각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질환이 생겼을 때 항상 대기하는 비상연락망입니다.

나는 두목으로서 바로 이런 점을 세심히 점검합니다.

어제 최호권 대리가 아킬레스건 힘줄이 끊어져 강덕식 교수, 박연묵

교수 덕분에 수술을 잘 마쳐 몇 자 적어봅니다.

원세 번째 만남 _ 2007. 11. 19

오늘 나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강덕식 교수와 함께 10일간 여행을 한다.

내가 中2(14才, 지금부터 48년 前) 때 봄 체육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쓰러져 집에 온 후 전신 마비가 되어 눕게 되었다. 전국 병원을 다 다녔으나 나의 병명은 아무도 몰랐다.

그로부터 1년간 움썽달썽 못하는(대소변도 스스로 볼 수 없는) 투병생활이 시작되었다. 물론 부모님은 큰 자식의 갑작스런 원인 모를 병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어머니가 전국을 업고 헤매고 다니셨다. 한방치료(침, 뜸) 정도였고 양약은 코티손(신경안정제) 1알이 전부였다. 그때 학교에서는 영어공부가 시작되고 수학은 인수 분해가 나오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면학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부산 초량 봉생병원(원장 해군중위 제대)에서 최종 병명은 “좌골신경 뇌척수막염”이라고 진단하였다. 그 당시는 의료진이 대구, 서울이 아니었고 6.25사변에 피난 온 사람이 부산에 집결되어 정착한



1965년 10월 10일
2단 승단기념

의사들이 그래도 실력이 있었을 때다.

1년간 무작정 기다린 투병생활로 건강은 악화, 뼈만 남는 상태가 되었다.

그때 온몸에 침을 수백 군데 뜸도 수백 군데 갑자한의원 원장에게 맞을 때 고통은 지금도 살이 부르르 떨린다.

중3이 되자 업혀서(지금 보람하는 양진수 등 동네 친구) 등교하게 되었지만 1년 꼬박 학업을 할 수 없어서 도저히 따라 갈 수 없기에 아버지가 담임선생과 상의, 한 학년 더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동생과 같은 학년이라 거부하였다.(이하 생략)

그 후 피나는 노력으로 건강이 회복되어 고2때 합기도 3단(우리나라 최초 합기도 창설 도주 최용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팔공산 3박4일 전국 등반대회 우승과 더불어 지리산 종주등반 초등반(배기택, 최충경, 김판용, 정대규, 김양명 등 8명)으로 겨울 처녀등반기록을 등반사에 남기게 된다.(이하 생략)

88년 12월 소련 KGB초청으로 모스크바 갔을 때 영하 30° 추위라 컨디션이 영 말이 아니었다. 돌아와 그 다음해 봄 경대병원 신경과에서 검진결과 나의 병명이 결정된다. 즉 호킨스박사병인 급성 근위축증이라서 6개월 후는 사망한다는 진단이었다.

담당과장 ○○○이 자신 있게 진단하는 바람에 나는 담담히 수용하게 되며 뒷정리를 시작한다. 그 당시 임원(조남필, 김종대, 신경환 등)에게 회사를 부탁하며 6개월간 수중촬영 전시회(우리나라 최초)를 서울 갤러리에서 성황리에 마치고 죽음을 준비하지만 그 당시 놀라웠던 것은 밀려있던 일이 없었고 앞일도 회사나 가정이나 크게 걱정되지 않았던 게 나는 정말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래도 혹시나 더 살고 싶은 충동 때문에 ○○○씨께 사정해서 소개 받은 사람이 교토병원 신경과 기무라 선생이었다.

죽은 조남필 사장(前 신라철강 대표이사)과 부인과 나 셋이서 교토병원(1989. 7. 4~7. 12까지 입원) 1주일 후 사망진단이 번복되고 14才 때 앓았던 병의 후유증이란 진단을 받고 목숨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판정을 받고 귀국하게 된다.(이하 생략)

나는 몽골에서 오토바이 타다 다리 수술 두 번 어깨 수술 한 번을 받게 된다. 그 수술 예후가 좋지 않아 찾았던 의사가 스웨덴 곤잘레스 박사로 강덕식 교수 소개로 알게 되어 지금 내가 출국하면서 여러분께 몇 자 적어 보았다.

이후 결과는 또 언젠가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실로 나는 지난 시간의 극한 상황을 피나는 투쟁으로 극복하였다.
지금 나는 지난 시간을 생각하며 오늘 아침 한없이 울고 있다.



원내 번째 만남 _ 2007. 11. 20

모험에 용기를 보태는 말 중에 영화 브레드 피트 주연의
“파이트클럽”에서 경쟁자와 용감하게 맞서는 대화가 있습니다.

“자기개발?”

그런건 다 자기위안일 뿐이야.

싸워 맞붙어 싸워.

그래야 비로소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안다고.”

여러분 경쟁과 도전만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원다섯 번째 만남 _ 2007. 11. 21

여러분은 오페라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런데 오페라의 남자 주인공들은 전부 죽일놈들이다.

푸치니 라보엠의 루돌프 시인(테너)도 첫만남에 2시간도 안되어
뜨개질 여인 미미(소프라노)를 접촉하고 난 다음 결국 죽게 만든다.

비제의 칼멘도 약혼자 미카엘라를 뿌리친 하급군인인 돈호세가
칼멘에 반하여 서로 죽게되고 베르디 라트라비아타도 알프레도가
접촉 이후 질투에 눈이 어두워 비올레타를 죽게 만든다.

푸치니 나비부인도 죽일 놈 핑커톤(미해군장교)이 나비부인을 접촉 후
미국으로 뺏는다.

나비부인은 아들을 남편에 넘긴 후 자결한다.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도 술집아들 뿌리뚫는 약혼자
산토사와 접촉 후 첫사랑 여자 롤라와 사랑하다 죽게 된다.

천하의 쪼다 호텔로도 질투로 부인을 죽이고 파멸해가는 유야기 모성
박탈로 인한 안정감 부족이 드러나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런데 여러분 도니제티의 희가곡인 사랑의 묘약은 그렇지 않다.

농부인 네모리노는 사랑의 묘약을 먹고 그 유명한 아리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아디나에게 불러주고 마지막 휘날레에 끝없는
키스와 더불어 접촉으로 이어진다.

여러분도 어서 사랑의 묘약을 사서 마시고 접촉할 연인을 찾으세요.



선여섯 번째 만남 _ 2007. 11. 22

누구나 우리들은 꿈을 꾸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개꿈을 꾸고 있다.
꿈이란 실현할 수 있는 꿈이어야 한다.
결코 개꿈은 꿈이 아니다.

우리 이재규 고문이 좋아하는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아예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라고 갈파한다.

드러커는 정말 그렇게 했느냐 반문해보면 정말 내가 보기엔 미치게
살다간 사람이다.



선일곱 번째 만남 _ 2007. 11. 23

“삼발에 쑥이 크다”란 말이 있다.

삼은 크게 자라고 쑥은 낮게 자라는데 식물학적 견지에서는 햇빛을
받기 위해 낮은 쑥이 줄기는 빈약하지만 크게 자라 옷자람 현상이라
하지만 삼이란 좋은 친구가 있으면 못난 쑥도 좋아진다는 말로
사용된다.

인디언들은 친구란 나의 슬픔을 등에 짊어져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인생의 도반이 되는 친구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언제 한번 밤 새워 나와 얘기해봅시다.

신여덟 번째 만남 _ 2007. 11. 26

물에 빠져 죽어가는 친한 친구가 있다 하자.

3가지 타입이 있다.

하나는 조금도 부담 갖지 않고 물에 뛰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죽은 친구가 잘못해서 죽었고 자기자신에겐 책임이 없다고 계속 변명하고 사는 인간이 있고 둘은 발을 동동구르며 뛰어들지 못하고 죽은 후엔 평생 그 친구 때문에 자신을 탓하며 살아가는 인간도 있고 셋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뛰어들고 보는 놈이 있다.

지가 함께 죽든 친구를 살려내든 그건 그 후 문제다.

여러분은 셋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불행히도 나는 60년간 친구를 사귀었지만 나를 위해 뛰어들 친구는 딱 감고 봐도 정말 하나도 없다.

그럼 나는 헛 살았단 말인가

이것이 요즘 나의 인간에 대한 고민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친한 친구가 아니고 남이라도 뛰어들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해 볼 것을 다해 봤기 때문에 더 해볼게 없어서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살든 죽든 다행히 둘 다 산다면 내 인생에선 본전 이상이 된다.

나는 이런 용기로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살 것이다.

論語논어의 憲問헌문 편에 孔子공자님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見危授命견위수명 즉,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는 이가 바로 聖人성인이다 라고.

여러분 살다가 정말 고달프거들랑 나를 시험 한번 해주기 바란다. 정말 뛰어드느지.

신아홉 번째 만남 _ 2007. 11. 27

나는 평소에 여행을 하면 내가 가진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한다.

人生을 살면서 넓은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다 이용하는 사람도 드물다.

나의 사고는 끝이 없다. 망원경으로, 또한 현미경으로도 사물을 본다.

숲도 보고 나무도 본다. 작은 것도 뛰어넘고 큰 것도 뛰어넘는다는 能小能大도 좋아하는 단어다.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오감이 다 동원된다.

오감이 발동하면 내재된 지식까지 어우러진다.

나의 능력에 나 자신도 놀란다.

같이 가는 사람들을 슬쩍 훑쳐보면 그들의 오감은 단편적이다.

나와는 전혀 게임이 안 된다.

나는 신이 나서 취미와 재능까지 동원한다.

그 결과가 나의 오늘이고 나의 미래다.

말초작(원시적) 본능은 그러나 오랜 노력과 습관이 가져온 결과다.

나는 행복하다.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예순 번째 만남 _ 2007. 11. 28

내가 남에게 바로 이야기 하면 남들은 나를 잔인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야기 하지 못하고 둘러서 이야기하면
점잖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 말하더라.

그런데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하면 거룩하다고 말한다.
나는 1987년 3월 31일부터 이동식 박사에게 매주 월요일 1시간씩
2년간 정신치료 받은 경험이 있다.

그때 나는 선생님께
“선생님, 천국이 어디입니까?”

선생께서

“천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야” 하셨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주위를 살아 있을 때 천국으로 만들며
살아갈려고 한다.

* 이동식 박사(한국정신학회 회장, 동북정신의원 원장)

예순한 번째 만남 _ 2007. 11. 29

옛날에는 집집마다 장맛이 다 달랐다.

그건 어머니 손끝에서 나오는 맛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옛날 집은 대부분 흙담집이었고 흙벽에 문종이를 바르고
마루도 송판나무로 만들었다.

집집마다 가족의 숨소리와 땀냄새도 다르다.

그러니 집집마다 다른 곰팡이가 자라고, 그 곰팡이가 달라붙은 메주도
다르고, 그 메주로 띄운 간장, 된장, 고추장 맛도 다 다른 것이다.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모처럼 고향에 가서 잠을 자면 집
곰팡이들이 좋아서 날뛰고, 그래서 잠이 잘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비슷한 아파트에 사니 모든 것이 다 같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소리가 하나같이 똑같다.

못난 대통령들만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다 똑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남들과 똑같아서야 어디 살아 남겠나?



예순두 번째 만남 _ 2007. 11. 30

스웨덴 여행 잘 다녀 왔습니다.

다녀온 첫 선물로 수출 1,000萬불 탑을 티시테크가 수상하였네요.

실로 대단한 실적이지요.

여러분 이제 남은 한 달 전 임원과 직원이 합심하여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합시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마감입니다.

마무리가 되어갈 때 오는 희열은 저만이 갖는 묘한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마감 없는 인생이 어디 있나요?

예순세 번째 만남 _ 2007. 12. 3

어젠 한국 영화제 시상식을 봤다.

『밀양』이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으로 이창동, 송강호, 전도연이 휩쓸고 외국 영화제에서도 전도연이 무슨 상을 받은 것 같다.

몇 달 전 그 영화 『밀양』(이청준 작가)을 봤을 때 받은 충격은 참 컸다. 인간과 하느님이 주제가 되어 고뇌하는 인간의 삶을 소설화 한 것을 이창동(난 처음에 문화부장관이 되길래 날라린 줄 알았다) 감독이 영화화 했길래 집에 와 찾아보니,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등 난해한 작품이 많았다.

정녕 우리나라 영화 수준이 이 정도로 대단했던 말인가?

라고 격찬을 했고 그 후 임권택 감독의 『천년학』을 보고 또 한 번 놀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괴물』이란 황당무계한 영화에 그렇게 관객이 몰리느냐 이겁니다. 거기다 『디워』까지.

이게 국민소득 10,000\$의 나라 한국인의 영화 수준이다.

대리만족, 황당무계, 비현실, 과장, 허위 이런 것이 한국 영화 관객을 열광시키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는 영화는 『바람 피기 좋은 날』(김혜수 가슴 볼려고), 『색계』(또 다른 거 볼려고) 등이다.

혹시 여러분 『게이샤의 추억』 보셨나요? 내가 생각하는 건

『괴물』보다 『게이샤의 추억』이 정말 형편 없어서 관객 수가 적었던 말인가?

우리나라 관객 수준이 그 모양이란 말인가?

이렇게 항상 당황해 합니다.

그래도 나는 장예모 감독의 『붉은수수발』, 『홍등』, 『국두』, 『인생』, 『영웅』, 『연인』, 『황후화』 등등 색채감에 항상 황홀한 오르가즘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영화 좀 보십시오.

예순네 번째 만남 _ 2007. 12. 4

이번엔 기적 같은 이야기다.

나는 아직까지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다는 거다.

여러분 이 말 믿을 수 있나요?

그러나 분명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나는 평생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라 감기가 올 것

같다는 감지 능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둘째 감기가 온다 싶으면 즉각 집에 들어가 드러눕는 겁니다.(물론 나는

사장이기에 이 부분만큼은 내 자유자재로 했죠.)

셋째 나의 비장의 보약은 레몬 두 개, 꿀, 녹차를 섞어 한 사발

들이키고 잠드는 겁니다.

넷째 그래도 뭔가 궁금해서 의사에게 물어보면 모른다기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기 바이러스는 내 몸엔 통하지 않는 특수 체질로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수궁은 되지만 실천은 어렵죠.

부모님이 주신 여러분의 몸

하늘의 섭리대로 잘 관찰하시고

여러분도 올 겨울 감기 없는 몸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내가 감기 걸려 우물쭈물 거리거든 잔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순다섯 번째 만남 _ 2007. 12. 5

여러분이 보내주신 SERI CEO의 『권력의 법칙』과 『피할 수 없는 충격』 잘 읽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기획실에 영구 보존되며 나는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펴봅니다.

SERI CEO 중에 최근에는 명지대학교 심리학과 김정운 교수의 『재미로 푸는 창조이야기』 강의가 가장 재미있습니다.

나는 정진홍의 감성경영도 빼놓지 않고 봅니다.

물론 동양철학 박재희 교수 강의도 빼놓을 수 없는 보석덩어리죠.

어제는 『권한이양에 실패하는 이유 10가지』도 우리 전 직원이 음미해야 할 글로 박사장께 부탁드렸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Daum, 네이버,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를 자주 봅니다만 여러분이 SERI CEO를 즐겨 봐 주신다니 이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습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올해에만 디지털 콘텐츠는 인류가 출간한 책의 300만 배가

생산되었답니다. 나는 삼성은 싫지만 SERI CEO는 맹렬히 보고 또 보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공감대를 찾아야겠습니다.

『권력의 법칙』과 『피할 수 없는 충격』 보내주신 주옥 같은 글을 읽고 각자의 생각이 다 틀려서 몇 자 적어 봅니다.

예순여섯 번째 만남 _ 2007. 12. 6

작년에 내가 전 직원에게 42,594,730원을 들어 치과 검진을 시켰다.

(삼성도 이런 일 안 했다.)

나로선 힘든 결심이었다.

그리고 치과 원장 김석환 친구를 불러 강당에서 강의도 했다.

몇 년 전인가.

결론은 직원 중 몇몇 사람이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이런 직원이 내게 결재를 받으러 오고 바깥에 영업하러 나가 고객을 상대한다.

여러분 제발 게을리 말고 식후 세 번 칫솔질을 꼭 좀 하고 그래서도 냄새 난다 하거든 치과에 가거라. 돈은 회사에서 부담할 테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접촉을 하노.

예순일곱 번째 만남 _ 2007. 12. 7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혼자였다.

느긋한 마음에 방구를 끼었다. 신나게 즐기는데

1층까지 내려가기 전에 중간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는가.

내가 제일 이뻐하는 여직원이 혼자 탄다.

순간 나는 벌겍게 된다.

인생이란 이렇다.

예순여덟 번째 만남 _ 2007. 12. 10

일요일 아침이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약간 쌀쌀하다.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고 자전거를 타고 신천 고수부지로 나갔다.

마냥 상쾌하다.

그런데 벌써 서리가 내려있고 그 무성했던 풀들이 다 시들어 누렇게 말라있다.

봄부터 지금까지진 개나리꽃, 진달래며 해바라기꽃, 심지어 메밀꽃까지 흐드러지게 피고 지더니 이젠 만물이 풀썩 주저앉아 내년엔 자손을 키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간다.

공자님이나 장자께서 만물이 소생하고 죽어가는 하늘의 이치를 알면 사는 것이 쉬워진다 하였는데

“우리들은 죽어서 자손의 거름이 될 수 있는가?”

를 생각하다가 처박혔다.

한참 후에 만져보니 귀에서 피가 난다.

허벅지에도 피가 나기 시작한다.

머리가 멍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헬멧을 쓰지도 않고 춥다고 땀모자만 썼었다.

남들을 처박고 놀리다가 이제 내가 처박혔다.

창피하다.

예순아홉 번째 만남 _ 2007. 12. 11

모든 인간의 속성은 안주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신은 결코 우리에게 안주의 행복에 시간을 오래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잠시 후에 다시 불행이 닥친다는 것을 모르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안주의 행복 때문에 피한다.

모든 예술가들은(물론 위대한) 다 성격이 괴팍하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영국 화가 터너(1775~1851)만 하더라도

가정은 형편없었다.(아버지는 이발사, 어머니는 정신병자)

그를 러스킨(1819~1900)은 결벽, 관대, 상냥한 마음씨, 고집, 다혈질
무종교라 말하며 또한 우리들은 터너를 비사교적 별난 사람이자
비밀주의와 염세주의자라고 말한다.

결코 평범 속에서 위대함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여러분은 평범하기에 위대해질 수 없음을 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길 멀고 험하고 힘든 길을 가지 않으려 발버둥친다.

나 역시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다.

어릴 땐 성격의 연약함, 게으름, 거짓, 과장, 평범한 학력, 왜소함,
건강의 악화, 열등감 투성인 내가 차츰 조금씩 변화가 오늘에 왔지만
나도 러스킨이 말한 터너와 다를 바 없다.

여러분 성격 좋고 인심 좋고 착한 사람, 그리고 부잣집 자식이 성공한
경우를 본 적 있는가.

이재규 고문이 내게 준 “예술의 의미”란 책을 새벽 4시에 잠이 오지
않아 읽다가 몇 자 적어본다. 스웨덴 스톡홀름 호텔 방에서.

여러분 결코 평범해지려는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

차라리 나처럼 별난 놈도 간혹 좋을 때가 있다.

70

일흔 번째 만남 _ 2007. 12. 12

이번엔 트림 이야기 해보자.

세상에 한국 남자는 왜 사람 앞에서 방귀를 펑펑 끼며 트림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

건데 이상하다.

여자는 조심하는데 유독 몇몇 남자들만 이 모양이다.

그런데 나도 무심코 나오는 트림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지은”이라는 어린 여인이 내게 회장님을 존경했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핀잔을 주는 바람에 이제 겨우 남 앞에서는 고쳤다.

그런데 만만한 집사람 앞에선 여전히 마구 펑펑 된다.

이게 인간들이다.

69

일흔한 번째 만남 _ 2007. 12. 13

미술을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한다.

“자연에는 윤곽선이 없지만 상상력에는 있다.”

나는 이것이 미술의 출발이라 본다.

블레이크의 미술에 깊은 깨달음의 정의를 좋아한다.

이 얼마나 심오한 철학이며 또한 현상인가?

“빈센트 반 고흐”

지독한 가난, 집착, 발작, 요절...

37년간 짧은 생애 동안 그의 삶은 절망과 고독에 가득 차 있기에

우리들은 그를 좋아한다.

서울 시립 미술관에서 반 고흐전이 내년 3월까지 전시가 열려 야단이다.

여러분 휴일 한 번 훌쩍 떠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한 번 만나
보시죠.



고흐, 〈별이 빛나는 밤〉, Oil on canvas, 72×92cm, 1889년

일흔두 번째 만남 _ 2007. 12. 14

“흰나방들이 날개짓 할 때 다시 식사하고 싶으시면 오늘밤 일이 끝난 후
들르세요. 언제라도 좋아요.”

이번엔 프란체스카(45세), 로버트 킨케이트(52세)의 작업 이야기를
하겠다.

메디슨 카운티 다리를 촬영하다 쪽지에 적힌 위의 글을 읽고 클린트
이스트우드(킨케이트 역)는 메릴 스트립(프란체스카 역)에게 즉각 전화를
한다.

프란체스카는 그 길로 시장에 가서 드레스를 한 벌 사고 슈퍼에 가서
이태리 와인 발 볼리첼라 한 병과 브랜디 두 병을 산다.(폭탄주 해 먹는다는
이야기는 소설에 나오지 않음) 그 술을 골라 들고는 톱 쓴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발폴리첼라 지방 아마로네는 2% 알코올도수가 높아
작업하기 좋기에 사며 야릇한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저녁 먹고
술 먹고 춤추고 이야기하다 2층 침실로 올라간다.(이하 생략)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이 우주에서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 한 번만 오는
거요. 몇 번을 다시 살더라도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거요.”

라고 킨케이트가 프란체스카 고향인 이태리로 남편과 자식 놔두고
들고 튀자고 꼬시는 말이다.

나는 간혹 이 말을 다른 여자에게 써 먹으면 대부분 여자들은 껌벽
죽더라.

여러분, 시간 날 때 꼭 “로버트 제임스 윌러” 지음, 『메디슨 카운티
다리』를 읽어봐 주기 바란다.

후편 『메디슨 카운티 다리의 추억』은 안 읽어도 좋다.

그 속엔 반드시 접촉할 때 쓸 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흔세 번째 만남 _ 2007. 12. 17

몇 년 전 일이다.

대구은행 감사실에 잠깐 들러 인사를 하는데 ○○감사가 내게 가지고 있던 손전화기를 탁자에 던지며 하는 말이다.

“유 회장, 오늘 내게 하루 종일 전화도 오지 않는데 이 전화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때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저 분이 하루 종일 남의 전화를 기다리는 건 자기 시간을 남에게 예약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즉 저녁이나 점심을 얻어 먹기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이다.

보통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밥이나 술을 사게 된다.

여러분은 남의 시간을 예약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약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제발 남에게 얻어먹지 마세요. (대체로 술 사는 놈이 말이 많다.)

여러분의 가까운 시간을 빼앗기게 되니까요.

나는 내 인생에서 40년간 얻어먹은 적이 거의 없고 혹시 얻어먹을 때는 뭔가 불안합니다.

제발 남의 시간을 빼앗는 인생이 되어 주십시오.

그건 그렇다 치고,

연말인데 내한테 밥 먹자 하는 전화 한 통화 없다.

아마도 나는 골동품이라 비싸서 쳐다보기만 하지 사가지는 않을 모양이다.

여성들이.

일흔네 번째 만남 _ 2007. 12. 18

어젠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에 항상 중국에 가는 것은 나도 시간을 버는 것이고 그들은 24시간 공휴일 없이 365일 일하는 북경경성태창이라 토요일 잠깐 야근하고 자고 있는 임종원 부장을 깨워 함께 저녁을 했습니다. 그러다 발동이 걸려 한 잔 하게 되면 이세형 부장이 먼저 퍼지게 되죠.

양 임 부장은 특이하게도 북경 체질입니다.

얼마나 강한 친구들인지 3년간 전혀 변화도 말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어눌한 듯한(전임 관리부장도 비슷) 배성운 부장 더해져서 배돌암 사장(내년엔 이왕에 담배도 끊고 머리도 확 밀어버려 『왕과 나』의 삼인왕 을 부리너가 되면 좋겠다)까지 가세하면서 우리끼리 노닥거리며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형과 아우의 자리가 되죠.

여러분 그들이 ISO9000 획득을 이세형이 합세해 해내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배돌암 사장과 북경중공업(일본 타타노 합작 법인) 금년 물량 확대(제3의 창업과 맞먹음)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내년 중에 “고안경성태창” 자회사가 세워집니다.

올해 TC TECH와 북경경성태창이 현대중장비로부터 단가 인상만

제때 적용받았다면 두 배의 이익이 날 회사들이죠.

정말 그들은 불평불만도 전혀 없고 배 사장을 잘 따르고 있고

배 사장도 형제같이 다독겨려 줍니다.

북경 현재 직원 400명, 내년 600명, 그 다음 해에는 1,000명까지

가는 회사를 배 사장은 경영성과를 위해 한국 직원을 쓰지

않겠다는 다. 비싸서.

그러니 그들은 또 반 죽는 것이 아니라 초죽음이 되는 겁니다.

가죽도 없이 밥 한 그릇 옮겨 챙겨먹지 못하는 그들에게 회사는

여러 가지 온정을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북경 직원들 회장이 머리 숙여 노고를 치하합니다.

일흔다섯 번째 만남 _ 2007. 12. 20

독일 베를린에 도착하면 18년 전 장벽이 무너진 후 수도가 본에서 베를린으로 바뀌는 바람에 2차대전 중 부서진 건물 보수와 대사관이 옮겨움에 따라 새로운 건축가들의 건축 경연장이 되어 있다. 나도 몇 년 전 사사를 완성한 나운정을 데리고 마누라와 함께 승효상 건축가와 방문한 적이 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은 리모델링 건축은 깨진 이빨로 하늘을 찌를 듯한 형상의 카이저 빌 헬름 교회(Kaiser-Wilhelm-Gedächtniskirche)라 생각한다. 1943년 11월 22일 영국군 폭격을 맞아 교회탑 일부만 남기고 파괴된 것을 베를린 시가 공모하여 에곤 아이어만 교수에게 건축을 맡긴다. 그 결과 폐허가 된 탑을 가운데 두고 푸른 빛을 발하는 육각형의

종탑과 팔각형 건물 교회를 세운다.

건물 전체를 빛나게 하는 내부 유리의 푸른 스테인드 글라스는 사르트르 출신의 유리 공예가 가브리엘 누아르가 사르트르 성당을 전형으로 만들어 일약 세계적인 건축학도들의 명소가 되었다. 그 외에도 국회의사당의 깨어진 돔을 프랑스 건축가 장누벨에 의해 완성되어 건축가들이 줄을 잇는다.

물론 그 이전의 르 꼬르뷔지에나 미스 반드로에의 건축물도 건축가들을 경악케 한다.

그런데 18년 전 장벽이 무너지는 날 동시에 SONY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합작으로 위대한 건축물을 탄생시키겠다고 발표를 해서 베를린 시민을 열광시킨다.

그 결과 후지산을 닮은 거대한 건축물이 완성되고 관광객이 이어지지만 건축가들은 흥물이라고 한다.

그 이전에도 르 꼬르뷔지에는 도시 건축은 도시 공무원이 다 망친다고 하였다.

거두절미하고

만약 포항시가 베를린을 가보고 나서 12월 20일 아침에 포항 일대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면 그 지역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면 포항시는 절호의 찬스를 얻는 것이 아닐까?

대부분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하야 후 살 집을 단두리하는 나라 정도라 서글퍼서 하는 뉘두리다.

추신 이 글은 12월 10일날 쓰며 박대환, 이재규에 확인시킨 후 조수영에게 12월 20일 글을 올리라 부탁하다



일흔여섯 번째 만남 _ 2007. 12. 21

연말에 발간될 책 이재규 고문의 『CEO가 알아야 할 클래식 작곡자 에피소드40』을 스웨덴 여행 중 읽다가 재미있는 글 하나 소개한다.

슈만과 클라라, 돈보다 강한 사랑

1830년 20세의 슈만은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감격한 나머지 피아노 연주자가 될 것을 결심하고, 모친의 승낙을 얻어, 독일의 정상급 피아노 교육자 프리드리히 비크(Friedrich Wieck, 1785~1873)의 지도를 다시 받아 음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슈만이 청년 피아니스트였을 무렵, 비크의 딸 클라라(Clara Wieck, 1819~1896)는 9살 아래의 소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슈만은 손가락을 다쳐 연주자에서 작곡가로 전환하고는, 클라라에게 자신이 작곡한 것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차츰 서로 사랑하게 되었지만, 슈만의 스승이자 클라라의 아버지 비크는 결코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클라라가 20세가 되던 해인 1840년 두 사람은 결혼허가를 요청하는 소송을 법원에다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화가 난 클라라의 아버지는 심지어 딸에게서 상속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클라라 슈만

클라라 슈만은 슈만의 충실한 아내이자 여섯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재능이 풍부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1853년 2월, 슈만이 라인강에 투신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간 청년이 바로 브람스였습니다. 브람스는 깊은 상처를 받은 스승의 아내 클라라를 도와 절망에서 그녀를 구하는 일에 혼신을 기울이게 됩니다.

6명의 아이들을 안고 7번째의 아이를 임신한 클라라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 브람스는 자신이 새로 작곡한 〈피아노 3중주곡〉을 들려주었습니다. 클라라에게서 막내아들이 태어나자 그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슈만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작곡했습니다.

슈만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시작된 클라라에 대한 브람스의 마음은 차츰 짙어만 갔습니다. 1855년 가을 클라라, 요아힘, 브람스 등 세 사람의 합동연주회를 각지에서 개최하여 슈만일가의 생계를 돕기도 한 브람스는 당시 클라라보다 14살 연하인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브람스와 클라라 사이에 편지의 교환이 시작됩니다. 그 후 40년에 걸쳐 음악 사상 보기도 못한 우정의 편지가 오고갔습니다.

편지에서의 호칭은 “경애하는 부인”에서 “나의 클라라에게”, 경칭의 “부인(Sie)”에서 친밀한 표현인 “당신(Du)”으로 변화해 가지만, 또한 “사랑하는 친구여”라고 우정을 지키려는 노력이 애처롭게 담겨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편지들에서 드러나는 것은 현실세계 속에서 클라라를 연모하는 브람스와 현실도피의 차원에서 브람스를 생각하는 클라라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죽기 전 내 영혼을 바칠 클라라와 브람스적 어떤 사랑이 시작된다면 이 또한 행복 아니겠는가?

일흔일곱 번째 만남 _ 2007. 12. 24

나는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이다.
 그러나 전통에서도 개혁이 필요했다.
 먼저 추석날은 일주일 전 토요일 구미 산소에서 전 가족이
 집합(거의 50名)한다.
 그 산소에는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위로 3代가 함께 계신다.
 그날은 전 가족이 1년에 한 번 대잔치를 하는 날이다.
 물론 출석 점호를 해서 참석 가족에겐 상을 내린다.
 그래서 그 집의 가장들은 자기 가족 챙기기 급급하다.
 벌초는 당일 새벽에 해버린다.
 모든 것이 편안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부모 앞에서 즐겁게 놀다
 온다.
 그리고 추석 당일은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느긋이 각 가정은
 해외 여행 계획들을 세우게 된다.
 그리고 신정 하루는 1月 1日 제사를 모신다.
 그때도 여러 가지 느긋하다.
 그리고 구정 땀 또 다른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우게 된다.

여러분, 조그만 관습의 변화로 얼마나 인생이 즐거운가?

일흔여덟 번째 만남 _ 2007. 12. 26

내 친구에게 준 글 소개할까 합니다.

만나준다니 기뻐요.
 그렇게 욕을 해 걸러 붙였는데도.
 만나기 전에 보내드린 이 글들은 우리회사 홈페이지(www.tc.co.kr)에 들어오면
 “CEO 1분 메시지”가 매일 뜹니다.
 나의 살아온 전부는 전부 당신의 영향이었소.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이었소.
 보다시피 당신이 가르쳐준 나는 미친 듯이 살아가요.
 스웨덴 치료를 마치고 로마에 도착한 첫날 새벽 7시까지 강 박사와 술 마시며
 당신 생각하다 한없이 울었소.
 첨 강 교수와 함께 만난 선술집에서 당신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車
 속에서도 슬피 울었소.
 남은 人生 살아가야 할 男子 별로 없소.
 어서 훌훌 털고 일어나시오.
 참선의 길을 권하고 싶소.
 이제 가르쳤던 당신이 실천할 때요.
 환갑을 맞는 당신을 데리고 먼저 40年부터 살고,
 그리고 또 살 생각 해봅시다.

2007. 11. 30

유재성





일흔아홉 번째 만남 _ 2007. 12. 27

할머니는 60살에 돌아가셨단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이다.
할아버지는 100살까지 사셨다.
그해 가을이면 성대한 백수잔치를 할 예정이었는데 애석하게도
봄에 장손인 나의 손을 잡고 영면하셨다.
결혼하고 산격동에 모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내와 함께 살다
가시기 이를 전날까지도 식사하시고 하루 전날 식음을 전폐하신 후
조용히 그리고 편안히 가시는 걸 아내와 지켜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지만 췌장암 선고 받기 전
3개월은 건강하셨다.
동산병원에서 입원 중 인턴의 가벼운 실수로 돌아가셨지만 나는
인턴을 원망하지 않았다.
췌장암은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는 암이라 그것을 아버지의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마지막 내 손을 잡고 눈을 감기 전의 표정은 나를 원망하는 듯
하였지만 내 품에서 산격동으로 돌아오셔서 1시간 후 도 원장의
운명선언으로 편히 가셨다.

그때 나이 72세였다.

어머니는 88세에 돌아가셨다.

고혈압으로 산격동에 누워계시며 의식이 왔다갔다 하시고 대소변도
스스로 잘 해결 못하셨다.

돌아가시기 전에 몇 개월은 전혀 다른 모습의 어머니 얼굴이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욕심을 버리신 어머니 얼굴은 보살처럼
맑고 아름다웠다.

나의 손을 잡고 산격동에서 돌아가실 때를 나는 생각해본다.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 평소에 왜 그토록 삶이 처연했길래 표정이
항상 요즈음의 나처럼 굳어 있었을까.

물론 도재욱 원장이 옆에 계시며 운명을 선언하셨다.

그래서 세 분은 산격동에서 내 손 잡고 돌아가셨고 그 곳에서 아들,
딸이 태어났고 또 둘 다 그 곳에서 결혼했고

아직도 40년째 거기에서 우리 부부가 살고 있고, 아마도 우리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게 대구 놈들이다.

한 곳에서 마음과 몸이 머물러서야 어디 세계인이 되겠느냐 말이다.

80

여든한 번째 만남 _ 2007. 12. 31

의무란 나에게
참 힘들고
어렵다.

81

여든 번째 만남 _ 2007. 12. 28

어머니의 장례식장인 계산동성당에서 첫 밤을 지낸 후 하늘을 향해
나는

“이제야 이 집안 장남으로 태어나서 내 할 일을 다 하였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나도 늙어있더라.

**무릇 사내 자식이 직분을 다함에 한치 차질이 없음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복을 운운해야 한다.

우리는 준비도 없이 우물쭈물거리다 당하고선 책임을 남에게

돌리거나 복타령만 한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직분으로써 해야 할 일 미루지
말아주셔야 이렇게 나처럼 부모님께 못다한 한으로 해가 바뀔 때마다
가슴을 치는 아픔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아내의 도움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여든두 번째 만남 _ 2008. 1. 2

오늘은 새해 첫날이다.

어제도 오늘이었고

내일도 오늘이다.

오늘은 언제나 있는 날이다.

82

여든세 번째 만남 _ 2008. 1. 3

임원들 각 방에는 格物致知 격물치지란 글이 걸려 있습니다.

무슨 뜻이고 하니

“사물을 자세히 관찰한 후 곧바로 척결하라”

뭐 대충 이런 뜻인데 사서 중 대학에 나오는 이야기라 임원들 방에 중국의 “이덕서” 씨에 부탁하여 각기 다른 필체로 쓰여져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을 들락거릴 때 그 글을 보고 임원 얼굴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방엔 木鷄之德 목계지덕이란 글이 걸려 있는데 長子의 達生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은 『싸움 닭이 되지 말고 나무 닭의 덕을 지녀라』

이런 말입니다.

(모르면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수십 줄 설명이 재미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책상 옆엔 柔유라고 걸려 있는데 제발 좀 부드러워져라 이런 뜻입니다.

벽에 뭐 붙여놓는 사람을 보면 대개 잘 안되니깐 하는 것입니다.

6층 회의실 벽의 居安思危 거안사위란 글은 貞觀政要 정관정요에 나오는 글로 당나라 태종이 신하와 문답한 내용을 吳兢 오경이란 사람이 쓴 책에 나온 말인데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해야 한다』란 우리 TC人에 맞는 글이지요.

이제 우리들은 靑出於藍 청출어람이란 荀子 순자의 勸學編 권학편에 나오는 뜻대로 일취월장 회사의 창업기를 딛고 올라서서 르네상스 시기를 이어내는 훌륭한 일꾼이 됩시다.

여든네 번째 만남 _ 2008. 1. 4

1분 메시지 보내주는 여러분께 감사한다.

그런데 깊이 이해하는 사람도 많은데 좀 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모르면 동료나 상사에 토론해 보라.

내가 가진 자(尺)를 여러분에 맞추어 이야기하는데도 짧은尺을 가진 몇몇 직원들은 이해하는데 힘든 게 사실일거다.

그런데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데도 평균 20장씩 밀려 있단다.

내 글은 나의 영혼의 글이다.

여든다섯 번째 만남 _ 2008. 1. 7

이재규 고문의 『청춘』이란 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젊을 때 “사무엘 올만”의 시를 많이 읽었지만 그때는 감흥이 없어
잊고 있었다.

그런데 몇 년 전 김정태 사장과 나고야 중부철강 요시다 사장(그때
나이 65才정도)이 나와 3시간 식사하며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니
내게 『청춘』이란 시가 도착해 있었다.

일본 사람들은 늙든 젊든 이 시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참 많다.
그 후, 친구 최성규 교수가 이 시를 번역해 내게 또 보내 주었다.
두 사람 다 그 시와 나를 연관시켜 본 듯하다.

지금 스스로 늙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임원에 이 글을 바친다.
내가.

청춘

사무엘 올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미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이십의 청년보다 육십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육십 세이든 십육 세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젓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아름다움, 희망, 용기, 영원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란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이십 세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팔십 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일 것이다.



여든여섯 번째 만남 _ 2008. 1. 8

신년에 제사를 모시고 Copying Beethoven DVD를 보았다.
베토벤이 청력 상실한 후에 악보를 옮겨 적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천재적인 음감의 소유자이자 작곡가 지망생인 안나 홀츠와 베토벤의
나이를 뛰어넘는 인간적인 사랑이 시작되는 장면 중에 이런 대사가
있다.

안 나 : 악장이 도대체 어디서 끝나는거죠?

베토벤 : 끝나지 않아

계속 흐르는 거지.

시작과 끝의 개념은 잊어버려

다리(Bridge) 같은 게 아니야

살아있는 유기체야.

마치...

구름처럼 떠오르는 조류(Birds)처럼

안 나 : 음악적 효과는요?

베토벤 : 그런건 없어

성장할 뿐.

1악장이 2악장이 되는거지

각 악장이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야

자넌 구조에 강박관념이 있어

올바른 형식이란 거에 매여 있다고

내면에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어야지

나도 귀먹기 전까진 듣지 못했네

그렇다고 자네더러 귀먹어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안 나 : 내면의 침묵을 찾아 음악을 들어란 거죠

베토벤 : 그래 침묵이 바로 열쇠야

음과 음 사이의 침묵

침묵이 자넌 감싸면...

자네 영혼은 노래할 수 있게 돼

여러분과 모든 음악가들은 이 창조자와 견습생의 대화에 귀 기울여 뭔가
번쩍 하는 것을 찾는다면 바로 여러분이 창조자이다.

여든일곱 번째 만남 _ 2008. 1. 9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란 홍국영의 이야기다.
그의 대인관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한시라도 빨리 알아보는 것이
처세술의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리더를 선택하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가
운명을 판가름 낸다고 말합니다.
“난 될 놈만 미네
그렇게 발 동동 굴러봐야 소용없네
어차피 잘려 나갈거 하루를 더 버틴들
무슨 의미가 있나,
내일, 또 내일은 어찌하려고?
동궁전 사방엔 노련한 사냥꾼이 득실거리고
세손은 이미 벼랑까지 내몰린 사냥감이네
결국 더 버티지 못할걸세
아쉽지만 숲을 호령하지 못한 범은
더 이상 범이 아닐세”

여러분, 이게 TV 월화 드라마 『이산』에 나오는 홍국영 이야기입니다.
하찮은 TV 속에도 이런 주옥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TV는 많이 보지 마십시오.

88

여든여덟 번째 만남 _ 2008. 1. 10

나는 다른 사람을 잘 존경하지 않는다.
사람은
하는 말이나
쓰는 글이나
하는 행동이 같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눈 닦고 봐도 없더라.

그래도 여러분 한 번 꼭 찾아주세요.
나도 이게 안돼서 미치겠습니다.

87

89

여든아홉 번째 만남 _ 2008. 1. 11

시간을 아껴썰던 내가 요즘
시간을 즐기니
왜 이렇게
내가 소중한지 모르겠다.

90

아흔 번째 만남 _ 2008. 1. 14

회사를 떠나는 직원이 있을 때 그 이유는
봉급이 적어서 꿈이 없어서 등이 아니라
리더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란 말을
나는 곰곰이 되씹고 있는 중입니다.

아흔한 번째 만남 _ 2008. 1. 15

내가 살아왔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대체로 내가 가진 돈에 접근하는 사람도 참 많다.
그동안 매년 억대 이상을 빌려 주기도 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경우는 아예 “달란다”.
왜냐면 “너는 나보다 돈이 많지 않느냐”.
대충 이런 뜻이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감추어
두고 얘기하는 게 많더라.
지금까지 남자들에게 그동안 돈을 잘 빌려주다가 마지막 한 번
거절하면 상대방은 “죽일 놈, 살릴 놈” 거리며 떠돌고 다니다가
나와 헤어진 놈 한둘이 아니다.
근데 여자들은 돌려주지 못할 때 대체로 잊지 않고 있다가 어떤
형태로든 갚더라.
물론 이 말들은 철저히 못한 내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91

아흔두 번째 만남 _ 2008. 1. 16

나는 내 자식에게 결혼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다.
첫째, 결혼 상대방은 대구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둘째, 결혼식은 남들에 알려져 성대히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끼리만
한다 였다.
딸은 지키지 못했다.
대구 촌놈이 사위다.
아들은 지켰다.
충청도産 서울태생이 며느리다.
우리나라 사람은 피가 많이 섞이지 않는 민족이다.
그래서 장단점이 많다.
다행히 농촌에는 베트남 피가 섞이고 있다.
징기스칸도 징기스칸 아버지 예수게이도 자신의 부인은 먼데서
데려왔다.
나는 대구 경북에서 60년 살지만 정말 대구가 싫다.
그 이유는 너무 많아 이 지면에 나열하기도 싫다.
여러분도 피는 멀리 섞여야 하고 여러분 자식도 먼 집안 사람을 데려
와야 잡종강세가 되는 것이 다윈의 유전학 이론이다.
그리고 결혼식 문화도 한 번 바꾸어 보자.
토요일, 일요일에 결혼하면 어찌란 말인가?
왜 축하객 생각은 안 한단 말인가.
나는 평일날 가족만으로 아이들 결혼식을 치루었다.
결코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무나 바뀌어야 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수북이 쌓여있다.
나는 지금까지 맘 먹었던 것을 실천하고 살았고
앞으로도 창조적인 실천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흔세 번째 만남 _ 2008. 1. 17

나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수부를 보며 항상 생각한다.
너무나 형식적이라고.
보통 이름 한 자 적고 만다.
그리고 돈 놓고,
차라리 내 장례식장 수부 앞에 이렇게 적어놓고 조문객에 원하는
말을 하고 싶다.
“고인이 된 이분과 평소 함께 했던 에피소드나 그분에 의해 기억될 말이나
상주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십시오.
우리 상주들은 고인의 또 다른 면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어찌 문상객에 잠시나마 추억의 시간이 아니되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도 시도해 보시죠.
여러분의 어른들 장례식 때 말입니다.



아흔네 번째 만남 _ 2008. 1. 18

주위사람들, 특히 직원들은 회장님은 기억력이 좋다고 한 번씩 대화의 소재가 내가 된단다. 특히 함께 술 먹고 이야기했던 것을 그 다음날 기억했다가 다 얘기해주면 그때서야 놀란다.

물론 나도 술이 딱이 된 상태에서고 상대방도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기억력이 좋은 것이 아니다.

나는 평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함께 복합적으로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

가령 운전하다가 다른 생각을 하고 또는 남에게 이야기하며 다른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 말을 잘 듣고 있지 않다고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마도 어릴 때의 열등감이 무엇이든 여러 가지를 빨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술을 먹게 되면 사고하는 두뇌의 일부가 마비가 되고, 현재의 시간에 집중하게 되니 아무리 많은 술을 먹어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몰입하게 된다.

여러분 술 먹고 나와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주기 바란다.

대개의 경우 술 먹고 헛소리하는 사람을 난 잘 참지 못한다.

할말이 있으면 평소에 해주길 바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말 없이 조용하다가 술만 먹으면 떠들고 난리더라.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신문에 난 이야기만 하더라.

무릇 인간은 술을 먹든 물을 먹든 언행은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평소에 할 말을 다 해버려야 술 먹고도 평범한 이야기는 하지 않게된다.

아흔다섯 번째 만남 _ 2008. 1. 21

밀란 쿤데라의 冊 『내일은 없다』란 것을 읽어보면 인간의 고민은 내일을 걱정하는데 70%를, 과거를 후회하는 데에 30%를 보낸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내일은 지금 현재에는 없고

과거도 사실은 없고

오늘만 현재 존재할 뿐이다 하였다.

여러분, 언젠가 내가

“어제는 꼴도 보기 싫다. 오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란 말 했던 걸 기억하는가?

세계적인 석학 “에릭 홉스봄”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라고 했다. 우리 회사의 역사는 우리 회사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나는 항상 생각해 왔다.

그래서 우리의 55년사(유귀훈 작가의 심혈이 담긴 우리들에겐 보물덩어리)를

최근 이재규 고문이 다시 요약한 자료를 보았다.

이것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TC 전체를 돌아보는 冊이 또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

유귀훈 氏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들 속에서 미래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고,

그것을 만든 나의 자랑이고,

그것을 쓴 유귀훈 선생의 명예이고,

그것을 즐겁게 강의할 이재규 고문의 즐거움입니다.

아흔여섯 번째 만남 _ 2008. 1. 22

나는 비트겐슈타인(1889~1951)이란 위대한 철학자를 좋아한다.

그는 “철학은 헛소리다.”라고 갈파한다.

“철학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곧 헛소리다.”

라면서 무의미의 논의가 곧 철학, 종교, 예술이라 하였고 의미의 논의는 과학이라 하였다.

나는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왜 종교 속에 있는지 직면해야만 종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종속적으로 무턱대고 일요일 교회에 가는 건 의존적인 노예근성이다.

종교에 직면하려면 성경이나 불경, 유학 등을 수백 번 읽어야 하고

타종교의 섭리도 깨달아야 한다.

만약 내가 종교에 귀의한다면 유학적인 사고로 예수님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불경 속에 귀의하고 싶다.

그렇다고 따분하게 절에나 가겠다는 건 더욱 아니다.

하루도 한치도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 묻고 되묻고 나무라고 꾸짖는 직면의 길이다.

이런 책이 있어 한 번 정도 읽을거리 되는 책이라 권한다.

신은 과연 인간을 창조했는가,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스 著

97

아흔일곱 번째 만남 _ 2008. 1. 23

“아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곧 아는 사람이다.”

공자님 이야기다.

30년 전 조호철 원장(정신과)과 강원구 회계사와 함께 『雲耕釣月』이란
현판이 붙어있는 술집에서

조호철 원장이 공자님의 이 말을 강원구 회계사에게 이야기한 후

“당신은 모르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자

그때 강원구 회계사는 그렇게 화를 내며 씩씩거렸고 30년을 그 말에

희롱당함을 억울해 하던 그가 요즘은 간혹 그때 일을 되씹는 것을

보면 역시 자기 극복이 되어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아는 것은 쉬운데 그것을 깨닫는 것은 한참 힘든 것 같다.

여러분 혹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나요?

96



아흔여덟 번째 만남 _ 2008. 1. 24

나희에게
공부가 시작됐다니 무척 기쁘다.
너 특유의 능력을 발휘해 보아라.
가장 큰 세상에서 큰 일을 해내거라.
나도 경쟁하듯이 열심히 사업에 몰두하마.
직원 여러분, 나희 학생처럼 세상을 휘저을 기개를 발휘해 주세요.
나희 편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날 학교 가기 전에 아저씨께 이메일 올려요.

어제는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이라 쉬는 날이어서 오늘부터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에 오리엔테이션 가서 제 카운슬러랑 이야기 했을 때 저한테 제가 다닌 Georgia Perimeter College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지아 공대, 조지아 주립대와 연결된 곳이라서 조지아 사람들이 다른 주로 편입을 잘 안 해서 모를 수도 있는데 조지아 주에서는 3번째로 큰 주립대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만

그 카운슬러가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제 대학이라서 아마 몰랐을 것이라 하고 하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저보고 하는 말이 “니가 다닌 그 작은 대학이랑 달리 NYU는 실력이 아주 좋은 애들만 모아 놓은 데라서 이번 학기는 아마 너한테 아주 어려운 학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나 어려운 교수, 쉬운 교수 있듯이 제가 다닌 2년제 대학에서도 실력이 뛰어난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조지아 공대 같은 데로 편입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NYU 에서도 제 원서를 심사할 때 그동안 제가 해왔는 걸 보고 앞으로도 NYU 에서 잘하겠다 싶어서 저를 합격시킨 거잖아요?” 제가 경제 수학 전공한다고 할 때 그 카운슬러가 하는 말이 “경제 수학 전공은 할 게 너무 많아서 아마 무지 힘들거야. 힘든 것도 그렇지만 언제 졸업할래?”

그래서 제가, “옛날 조지아에서 다닌 대학에서 이수한 게 많아서 별로 문제가 없이 보이는데요? 제 성적표 가지고 계셔서 그 정도는 아시는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수학과랑 경제과 가서 학과장들을 만나봐야 앞으로 택해야 될 과목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요.”

그 카운슬러가 계속 제가 2년제 대학에서 편입했다고 은근히 무시해서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전에 쓴 메일에도 이야기해 드렸듯이
수학과랑 경제과에서 제가 해온 과목들을 다 인정해줘서 할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creative writing 부전공을 하고도 내년 5월에 졸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학과랑 경제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카운슬러한테 또 갔어야 됐거든요. 그 카운슬러가 각 학과장이랑 이야기
해보니까 뭐라고 하더냐고 하길래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신 거 하곤 달리 졸업을 내년 5월에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NYU 편입하고 나서 1년 반도 안 되서 졸업하는 거지요.”

그 카운슬러가 “이번 학기에 클래스에서 살아남는데 아마 아주
어려울 거다”라고 해서 제가 제 물건 챙겨서 문 열고 나가면서 “We’ll see
(두고 봅시다).”라고 했어요. 오늘부터 강의실을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NYU 와서 좋은 성적 받는데 무지 힘들거란 생각 별로 해본적 없어요.
제가 2년제 대학 있을 2년 반동안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조지아 공대로 먼저 편입한 애들보다도, 캘리포니아 주립대 다니는
애들보다도 제가 한 학기당 과목도 더 많이 하고, 그 과목에서 잘하려고
커피를 하루에 15잔씩 마셔가면서 밤샘 적도 허디했거든요.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와서 그런지 NYU에서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는 건 겁도 안 나요.

제가 NYU 온다고 결정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비싼 동네에, 뉴욕에는
불친절하다고 소문났는데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거리였어요.
조지아에 있는 제일 친한 친구랑 전화 통화로 그 카운슬러 이야기하면서
제가, “She challenged me, I’ll kick her ass, showing my straight A
academic record in front of her face. (그 카운슬러가 나한테 도전장을

내밀었다니까. 내가 올 A 찍힌 통지표를 얼굴에 들이밀면서 확 기를
눌러놔야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Oh~~!!! She must have pissed you off, right? Yes.,
The best way that revenges her is that you need to do well this semester.
Good luck! (그 여자가 너 진짜 열받게 했는게 틀림없네, 그치? 그래..

복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번 학기에 잘하는 거지 뭐.. 잘해봐!)”
물론 제 인생을 위해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번학기에는 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생겼어요. 이번 2008년 봄학기에는 Math for Economists,
Analytical Statistics, Chaos & Dynamical Systems, 그리고 Macroeconomic
Theory를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름학기 I (5월부터 6월 말까지)는 World Cultures: Russia랑
International Economics 여름학기 II (6월 말부터 8월 8일까지)는
Expressive Cultures: Words랑 Introduction to Creative Writing, 2008년
가을에는 Analysis I, Advanced Creative Writing Workshop,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또 Probability & Statistics.

2009년 봄에는 Analysis II, Advanced Creative Writing Workshop 2개 듣고,
경제학에서 제가 듣고 싶은 과목 아무거나 2개 들어요.

그리고 2009년 5월에 졸업이고요.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경제과랑
수학과에서 학위 수여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그때 졸업할 거예요.
이제 학교에 가봐야겠네요. 화/목은 수업이 12시 반부터 있는데 오늘은
책을 사야 되어서 일찍 나가야 되요. 참, 학비 보내주신 거 어제
감사드린다고 전화 몇 번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있어서 통화를 못했네요.
보내주신 학비로 열심히 할게요.

나희 올림

아흔아홉 번째 만남 _ 2008. 1. 25

『직장인필독서』(김방희 지음)란 冊을 추천한다.

회사에서 성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는 책이다.

일에서 성공하고 싶은 회사인, 자기 계발을 하고 싶은 회사인, 독서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한 회사사람에게 권하고 싶다.

나 유재성은 이렇게 살아왔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다.

“오늘 하기 싫은 일 조금 하는 것은 10년 후에는

하지 않는 놈보다 조금 낫다”라고.

그러나 지금 나는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100

백 번째 만남 _ 2008. 1. 28

만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99

백한 번째 만남 _ 2008. 1. 29

평생 동안 딱 한번 사채를 빌려 본 경험이 있다.

태창은 북성로 땅 70坪으로 시작했으나 모자라 마지막 100坪을 더 사 넣기 위해 사채를 거래하는 이조철공소 이종환 사장에게 빌렸다.

(현재 북성로 땅은 300坪으로 주차장으로 임대)

그때 사채 금리가 그렇게 높은 줄 처음 알았고

쥘었을 때였지만 매월 이자 갚는 굴욕감은 참을 길 없었다.

6개월 만에 다 갚고 그 후 평생 동안 사채를 빌려보지도 않았고

내가 남한테 고리대금업을 한 적도 없다.

그 후로 어린 마음에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제3금융권 돈도 일체 빌리지 않았다.

요즘은 다행히 박대환 사장 진두 지휘 아래 금융권 최저 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고맙기 짝이 없다.

어릴 때 마음의 상처가 더 큰 힘이 될 줄 이제 지나놓고 보니 내가 대견스럽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결코 사채를 빌리거나 사채를 놓는

인생은 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백두 번째 만남 _ 2008. 1. 30

경상도 중에서도 대구 놈들은 친한 친구가 초상을 당해 고생하고

출근했는데 첫마디가 “너 얼굴 짝 삭았구나.”이런다.

세상에 하고 많은 말 중에 어떻게 이렇게 밖에 표현 못하는지

정말 대구 놈들 수준은 거의 밑바닥이다.

백세 번째 만남 _ 2008. 1. 31

세계지식포럼에 다녀간 이태리 디자이너 “지오반노니”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술적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그것이 사라진다” 라고 피카소가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천재적인 디자이너의 공통점은 특별히 아이디어를 짜기 위한 시간을 두지 않고 주변의 작은 일부터 관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한 후 무한대로 조합하는 것이고, 떠오르는 영감을 빠르게 구체화하여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창조의 강박 관념에서 탈출할 때 곧 창조의 시작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 밥그릇, 국그릇, 찻잔, 수저, 의자, 화병, 물컵, 주전자 어디하나 디자인적이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우리 인류는

美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미란 무엇인가” 낸시 애치코프 著)

저는 어릴 때 몸이 허약했기에(오히려 날씬했기에) 그 당시 20才에서 30才까지 체격은 키 174cm 63k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승목 신입사원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나이에 나보다 20살 이상 되는 분과 접대 및 함께 행동하다 보니 내가 너무 날렵해(기생오라비처럼)보인다고 생각해 함부로 옷을 입었습니다.

요즘 간혹 옷을 빼입고 나가면 주위사람이 묻습니다.

“이 옷 누가 코디 해주었고 보통 누가 사느냐”고

여러분 나는 내의 빼놓고(물론 항상 내의는 우리 마누라가 구형만 사다줍니다만)

전부 여행 중에 내가 삽니다.

그 세월 40年이니 자연 옷이 많지만 지금도 체형이 변하지 않아 옛날 그 옷 그대로 다 입습니다.

그래도 아깝지만 일부는 아들에게 넘어줍니다.

오늘은 디자인 이야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군요.

아무튼 21C는 디자인이 인간세상을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핸드폰, 전파매체 등 우리를 잠시도 묶어두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강한 국가는 스칸디나비아(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유럽 도시 중에는 비엔나, 그라츠, 베를린, 특히 밀라노(세계 디자인 모든 요소를 갖춘 도시)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술 즉 디자인이 주도하는 세상에 여러분과 자식들을 한 번 던져볼 생각을 지금부터라도 먹기 시작합시다.

나도 빛과 싸움인 카메라 촬영 40年の 쟁쟁한 사진작가로 투쟁해온 결과가 내 몸 속에 고스란히 나의 창조 세계 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백네 번째 만남 _ 2008. 2. 1

대구검찰청 서부지청에 가면 왼쪽 현관에 클로드 비알라(1936年生 佛)의 그림이 걸려 있다.

그 그림을 알아보고 난 후 정중하게 높이를 조정해달라는 부탁 감히 하고 나왔다.

그 후에 가보니 알맞은 높이로 그림이 조정되어 있었다.

그 비알라는 이런 말을 한다.

“회화의 모든 것은 이미 라스코 동굴과 선사시대의 그림 속에 담겨 있다.

현대인이 발명해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단지 테크닉만 완성했을 뿐.”

미술에 관한 책은 나는 그동안 수 천 권을 읽었지만 전무후무한 미술의 성격책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은 고펜리치의 『서양미술사』라는 책이다.

이 책 첫장을 넘길 때 15,000년 전에 그려진 프랑스 풍 드굴 동굴 벽화를 보고 인류의 美에 대한 능력은 창조주가 유전인자 속에 깊이 내재시켜 놓았구나 라고 감격하여 떠들고 다녔는데 우연히도 비알라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을 알고 나보다 10년 위나 나보다 한 수 위구나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열등감으로 느꼈던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극복하려면 뛰어 들어야 되고 지난 번 이야기대로

“오늘 조금 미술 공부를 하게 되면 안 한 놈보다 10년 후에는 조금 낫다”
아니,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걸 깨닫게 된다.

백다섯 번째 만남 _ 2008. 2. 4

오늘은 日本 기후현 “니혼포밍”이야기를 해야겠다.

태창철강이 미국 카필에서 슬리팅기계를 사와서 (주)쌍용을 통해(그때 김경태 사장은 쌍용 동경지점 철강그룹장으로 근무) 첫 수출한 일본의 C형강 가드레일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회사에 거래가 시작되었다.
니혼포밍 사장의 아버지는 기후현에 비단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아들 둘이 아버지의 후원으로 만든 회사가 “니혼포밍.” 기후현 골프장, 아와지시마 골프장, 영화제작회사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회사를 벌리기 시작한다.

부잣집 자식인 착한 두 형제는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사회를 접목하게 된다.

결국 10년 전부터 일본이 불경기가 시작되는 첫해에 부도가 난다.
쌍용도 돈을 많이 떼이게 되고 그 집안 전체가 망하게 된다.
지금도 그 잘생긴 부잣집 자식 형제들 얼굴이 간혹 생각난다.
지금쯤 뭘 하고 어디에서 굶고 있을까?

40년이 되는 사업이 나에게도 참 어려운 직업이다.

그동안 사업을 해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나에겐 잘될 때 교만한 것이 가장 극복하기 힘들다.

가령 몇 모르고 내가 교만한 것을 느낄 때 살이 부르르 떨린다.

백여섯 번째 만남 _ 2008. 2. 5

여러분, 화려하게 사는 것이 훌륭한 人生이 아니고
 평범한 생활 속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人生高手인생고수들이
 참 많다는 걸 나는 지금까지 잘 몰랐습니다.

백일곱 번째 만남 _ 2008. 2. 11

35년 전 이야기다.

내 친구가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를 시작할 시점에 그 당시 1百萬
 원을 주며 3년 후에 1천만 원을 만들어 달라며 내게 돈을 맡겼다.
 내게 돈을 주며 이 돈은 국민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며 15년간
 모은 돈이란단.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은행 금리는 물론 어떤 사업을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의 액수였다.

며칠 몇 달을 고민 중 개장사를 하기로 작정한다.

우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없는 개 “아프칸하운드”란 암개 강아지를
 수입해서(그 당시 1百萬원) 기르기 시작한다.

산격동 옥상(그 당시는 증축 전이라 단층집)에서 3년간 강아지 35마리를
 할아버지, 마누라와 함께 키웠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이었지만 할아버지와 마누라가 정성껏
 키워주어서 3년 후 개를 판 돈과 모자란 돈 보태서 돌려주었다.

그것이 나의 개장사였고 개공부 시작이었으며 그 이후 줄곧 수많은
 종류의 개를 키우며 관찰하고 있다.

물론 산격동 집은 한 번도 개가 없었던 적이 없다.

개공부를 하다보니 아프칸하운드란 책을 번역하게 되고(물론 출간하질
 못했지만) 그 덕택에 전국공인견협회 심사위원까지 하게 된다.

이게 나의 개장사 이야기고 그 친구는 박사가 되어 지금 세계비노기학회를
 이끄는 위대한 의사가 되어 학문의 세계를 섭렵하며 대학자가 되었다.

백여덟 번째 만남 _ 2008. 2. 12

우리는 강력한 경쟁자가 필요하다.

나 자신의 경쟁자가 누군가?

진정 치고 받고 맞붙어 싸우고 있는 그리고 싸웠던 그런 친구가 있느냐 이 말이다.

그저 동정 받기만 하고 위로나 해주고 도움만 받으려는 친구만 모아두고 있지 않는지.

나는 살아오면서 친구가 무수히 바뀌었다.

왜냐면 그 사람에겐 더 배우거나 경쟁할 게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옆에 친구를 소개하면서 수십 년째 사귀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서로를 가만히 보면 서로 의존하는 것 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 같다.

살아온 나의 인생에서 참 소중한 게 친구였다.

지금도 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삼십대의 젊은이들이다.

웬지 50살 이상은 굳어 있는 것 같아 싫어진다.

백아홉 번째 만남 _ 2008. 2. 13

내가 외국사람과 이야기 할 때 듣고 있던 마누라와 딸아이가
낄낄거리며 웃는다.

도대체 저 아버지가 말하는 저게 영어란다.

그런데 본인들이 외국 식당에서 무얼 말하면 외국사람들이 못 알아
듣는데 나는 서로가 의사소통이 능수능란하다.

우리들은(외국인과 나) 영어단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한다.

나의 친구 이영탁(증권거래소 이사장, 전직 장관)은 날보고 저 자식은
영어단어 100개 가지고 온갖 말 다 한단다.

지는 10,000개를 아는데도 말은 잘 못한단다.

문제는 뻔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강의하고 있고
승진 심사에도 가산되고 있다.

외국인과 대화할 때 우선 부끄러워 마라.

여러분이 그 나라 말을 몰라 찢찢 땀 때 그 사람도 우리나라 말을
모른다는 생각에 부끄러워하면서 오히려 더듬거리는 여러분을
부러워한다는 걸 잊지 마라.

내 경우에는 내가 손짓, 발짓 더듬거리면 오히려 외국인이 웃으며
적당한 단어를 찾아준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서양 여자를 보면 접촉하고 싶은 본능을 느끼듯이

서양 여자도 여러분을 보면 야릇한 본능을 가지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라.

이것은 인간 본능의 근본이다.

그래서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백열 번째 만남 _ 2008. 2. 14

밤을 좋아하는 놈들은
그 다음날 아침이 있는 걸 모른다.

참 시간이 없는 게 인생인데
나도 대체로 그랬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그 밤시간을 아내는 대폭 양보해 주었다.
그래서 미친듯이 밤을 해매고 다녔다.
그런데 그 밤시간을 어떤 사람은 총알같이 집에 들어가 애나 보고
마누라 엉덩이 두드리는 놈도 많다.
얼마 전 大邱를 다녀간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삶의 무게에 끌려 다니느라 내일을 위해 억지로 희생하는 것은 마치
노년기로 섹스를 미루는 청장년과 같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
“어제는 꼴도 보기 싫다.
왜냐면 오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어때요?

백열한 번째 만남 _ 2008. 2. 15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요즘 나는
했던 일이 자꾸 부끄러워진다.
그럼 나는 약해진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철이 들어가고 있단 말인가?
모르겠다 나도.
그리고 어떨 때는 잘 참지 못하고 화를 자주 내기도 한다.
이건 내 자신을 남에게 인정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늘어지면 더 강해지고 굳어지는데
정말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옆에 붙여놓은 글 柔유자를 보면서 생각한 글이다.



백열두 번째 만남 _ 2008. 2. 18

〈군주론〉이란 책을 지은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는

“훌륭한 도움말은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건 간에 대체로(그것을 열고저 하는)

군주의 영민함에서 비롯된 것이지 군주가 좋은 도움말을 들어서 똑똑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자기에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야 한다.

정보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정보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임원 중 몇몇은 자기의 정보를 나에게 줄 생각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왜 들습니까?

듣고 실천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죄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해방되고 난 다음 독립운동 할 사람이라 말합니다.

자, 어서 들은 결과를 내놓으세요.

113

백열세 번째 만남 _ 2008. 2. 19

밑에 놨은 윗놈을 모르고

윗놈은 밑에 놨을 모르더라.

나는 생각해 본다.

인간들이 서로 이래가지고 되겠느냐를.

그런데 옛날에 나는 전자에 불만이었고

지금은 후자에 더 가깝다.

그럼 다음에는 내가 뭐라고 할꼬?

둘 다 똑같다고 할까.

그럼 나도 똑 같은 놈이지 않나.

여러분 위의 말들이 어렵습니까?

사실 나는 이런 자신과 직면하는 이야기가 내 전공인데

“1분 메시지”를 지금까지 풀어서 이야기하려니 나도 미치겠습니다.

(내가 미치면 좋아할 정신과 의사 많다)

112

백열네 번째 만남 _ 2008. 2. 20

나의 자화상 _ 조병화

버릴 거 버리며 왔습니다.

버려서 안될 것까지 버리며 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나는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그러면 그분은 聖人이란 말인가?

長子の 무위철학을 운운하는 나는 이게 안되어 미칠 것 같습니다.

조병화 씨 말대로 영혼과 육체 중에서 육체는 버리고 영혼을 키우는

연습을 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렇더라도 저 자화상을 화두로 들고 우리 한 번 직면해 봅시다.

백열다섯 번째 만남 _ 2008. 2. 21

평소에 나는 돈을 쓰고 다니는 편이다.

그런데 보통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대체로 나에게 돈을 잘 쓰지 않는다.

돈이란 내가 가진 것이나 남이 가진 것이나 그 가치는 똑같다.

나는 일년 중 얻어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어쩌다 얻어먹을 때는 부끄러워 하루 종일 찢찢 맨다.

돈이란 써야 하는 것이다.

써야 할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을 보통 추잡하다고 이야기 한다.

죽을 때 돈을 쓰는 사람은 평소에 쓰지 않는 돈에 대한 자기보상이다.

절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게 돈이다.

보통 사람들은 얻어먹는 것을 즐긴다.

특히 높은 놈일수록.

그런데 나도 어쩌다 한 번 얻어먹을 땐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나의 마누라는 맨날 머라그런다. 다만 돈 쓰고 다닌다고.

그런데 쓰고 안 쓰고도 중요하지만 남한테 얻어먹을 땐 보상할 줄 알아야 한다.

나와 함께 다닐 때 도움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헤어질 때 나에게나, 나를 수행한 직원에게 조그마한 선물 하나 주면 그때 눈물이 주루룩 흐를 것 같다.

이걸 다 잘 못하더라 인간들은.

어쩌다 궁지에 몰렸을 때 구차한 변명하는 인간들 말이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인간들 말이다.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가진 자에 대한 못난 나의 서글픈 뉘드리일 뿐입니다.

백열여섯 번째 만남 _ 2008. 2. 22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市는 다섯 번쯤 가보았다. 러시아 짜르(황제)의 겨울 궁전을 개조해 미술관을 만들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에르미타주 미술관이다.

처음 1988년 12월 러시아 KGB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그 이유는 그해 올림픽 농구경기 때 미국과 러시아 게임에서 한국이 러시아 쪽을 응원한 것이 고르바초프 수상에게 감흥을 준 모양이었다.

12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선발되었다.

정치·사회·문화·예술·기업 등의 대표들이었다.

나는 그때 중소기업 대표로 선발되는 행운을 얻어 첫 도시 모스크바로부터 많은 도시에서 한국인으로서 첫 러시아 입국인이 되었다. 그 미술관(에르미타주)에서 마티스의 춤(우리나라 강강수월래 모양의 그림)을 보고 나는 발을 땔 수가 없었다. 돌아오자마자 포항공장 신라철강 벽화를 이원섭 교수에 의뢰해 제작, 완성되었다.



예전 신라철강 공장 벽화

평소에 그렇게 간이 큰 내가 6개월 후 그 그림을 지우고 지금 농악 경기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20년 전에 공장 내부에 누드화가 벽화로 그려졌다는 것에 대한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 그림이 아쉬워 우리회사 공장을 아무리 다시 찾아봐도 장소가 없다. 다행히 그 벽화는 55년사 社史 신라철강 건물 사진에 들어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社史를 한 번 펼쳐봐 주기 바란다. 지금보다 얼마나 멋진가를.

인간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절대 해서는 안되겠다.

최근 독일 르네상스 화가인 "루카스 크라나흐"가 1529년에 그린 '누드비너스'를 포스터로 제작해 런던 지하철 역에 게재하려는 영국 왕립 예술 아카데미와 런던 지하철 당국이 500년 전 누드그림을 놓고 입씨름한다니 영국 지하철 당국은 나 같은 후회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티스, 《춤》, Oil on canvas, 260×391cm, 1910년

백열일곱 번째 만남 _ 2008. 2. 25

우리나라 三名園삼명원을 소개하겠다.

담양의 소쇄원과 영양의 서석지와 보길도의 부용정이다.

潭陽 瀟灑園은 1530년(중종 25) 조광조의 제자 소쇄 양산보(1503~1557)가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건립한 園宇원우로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각 건물을 지어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루는 정원이고,

英陽 瑞石池는 조선 광해군 5년(1613년)에 성균관 진사를 지낸 石門
정영방 선생이 조성한 가로 13.4m 세로 11.2m의 조그만 연못으로
여름에 연꽃이 특별히 아름답다.

보길도의 芙蓉亭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정원이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 부인이나 딸자식과 함께 이 세 곳을 다녀오시면
다른 사람보다 한수 위의 지성인이 되겠지요.

다녀오신 후 내게 메일 한장 주면 내 어찌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금년 중 40년 된 山格洞주택 앞에 조그만 정원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 정원에도 내 영혼을 담을까 합니다.

백열여덟 번째 만남 _ 2008. 2. 26

오늘은 기분 좋은 아침이다.
나의 외손자인 이준희에게
18세 되는 해로부터 이준희
생일날(2004.1.6) 한 병씩 선물할
wine 2004년도産 프랑스와
이태리 wine으로 15가지를
준비했다.

83병을 준비했으니 준희가
101살까지 생일날 생일연도
술을 나에게 그리고 내가 죽고

난 후엔 준희 부모로부터,
그리고 그 부모가 죽게 되면

준희 부인으로부터 식탁에 생일날 wine이 올려지게 될 것이다.

그 한 병, 한 병마다 나의 싸인을 했다.

유재성,晟, 외할아버지, 외조부, 사야, 史野라고 썼다.

내가 죽고 나서도 준희가 나를 생각하며 해마다 받게 되는 선물을
하게 되다니 참 내가 대견스럽다.

이 술은 박동권 차장이 준비하였고 대구 세계와인아울렛에서



외손자 준희와 함께

구매하였고 서한정 원장(011-9913-4660)으로부터 정중히 문의하여 구매하게 되었다.

얼마 전 신문에서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로마네푼떼”라는 wine 1945년도産이 1억 2천만 원에 소더비에서 경매되었다고 하길래 작정을 하고 외손자부터 준비하게 되었지만 아마도 한국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내가 처음이지 않겠나 자부하고 싶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창조의 인생이 아닌가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도 보통 한 병당 와인 3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수천 종류가 있으니 100년을 내다보는 준비를 어디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매와인 종류 참고하세요.

제품명	빈티지	국가
Chateau Mouton Rothschilds	2004	프랑스
Ch Haut-Brion	2004	프랑스
Chateau Lafite Rothschild	2004	프랑스
Chateau Margaux	2004	프랑스
Barbaresco, Albino Rocca	2004	이태리
Barbaresco, Gaja	2004	이태리
Sassicaia(Super Toscana)	2004	이태리
Chateau. Beychevelle	2004	프랑스
Chateau. d'Issan	2004	프랑스
Chateau. Lynch Bages	2004	프랑스
Chambertin Clos de Beze, Armand Rousseau	2004	프랑스
Chambertin, Armand Rousseau	2004	프랑스
Grand Echezeaux, Louis Jadot	2004	프랑스

백열아홉 번째 만남 _ 2008. 2. 27

지난 2월 21~22일 신라호텔에서 조선일보 주관 제2회 ASIAN LEADERSHIP CONFERENCE에 유지연 이사, 이재규 고문과 함께 참가했었다.

주제는 LEADERSHIP & CHANGE였다.

연사는 에스코아호 핀란드 前 총리, 아난트 인도공대 마드라스 총장, 베칼리팔코 GE 인터내셔널 회장, 천홍 상해자동차그룹 총재, 카를로스 곤 르노 닛산 사장, 고축동 싱가포르 前 수상, 폴 키팅 호주 前 총리, 니노구치구니코 일본중위원 의원,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총리, 짐 로저스 회장 등 저명 기업인, 학자 등이 스피커였다. 리더십과 변화를 주제로 현 세계관을 거인들이 제시한 것 중 아시아 시대가 왔고 중국시대가 왔다가 핵심이었다.

우리회사도 중국어, 영어는 필수가 되어야 하겠고 여러분 자제도 중국어, 영어 공부는 정말 중요하다(이제부터 우리회사는 승진에 특별 배려가 되어야겠다).

나도 이번 강의에서 깨달은 바를 실천해 나가야겠다.

이번에도 대구사람은 이상천 前 영대총장, 홍철 대구경북 연구원장 밖에 눈 닦고 봐도 더 찾아볼 수 없더라.

1,000여 명 참석자 중에 말이다.

배운다는 것은 평소에 자기 생각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며 잘못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이틀간 주옥 같은 강의 내용을 남보다 더 깨달음에 행복해 한다. 나는.

백스무 번째 만남 _ 2008. 2. 28

포스코에 김만제 회장이 취임한 후 열연 대리점에 지분 참여 요청을 했었다. 그것도 내가 그 당시 열연 4곳, 냉연 4곳을 지분참여하기로 결정했다가 대리점의 엄청난 반발로 무산되고 전 대리점에 19% 지분참여하게 되었다.

그때 양사에 입금된 돈이 50억 현금으로 개인통장에 들어오게 되어 태창에 증자 후 성서 본사 건물을 짓게 되었다.

그 당시 50억은 큰 금액이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내가 대구를 떠나지 않는 방법으로 영원한 본사 건물을 착공하게 되는 출발의 어리석음이 오늘 이 건물을 있게 한 것이다.

우리회사 건축에서 먼저 건물 디자인, 조정, 조명이 타 건축보다 돋보인다.

제일 먼저 땅을 사고 조정부터 먼저 시작하였고 2년 후 공장 건물이 지어졌고, 그로부터 10년 후 본사건물이 착공되었고, 지금부터 2년 전에 마지막 별라홀이 완공이 되어 대구에서 태극기가 가장 높게 휘날리며 **밤엔 조명이 태극기의 역동성을 우리 민족의 정기만큼 강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나는 20년간 마지막 완성이 되기까지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모든게 함께 된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로 각각의 레이아웃은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식사하러 정원을 지나오는 시간이 나에겐 보석 같은 아름다운 시간이다.

여러분 무릇 사내자식이 태어나 起承轉結기승전결이 있는 이 건축처럼 인생도 이런 것이 되어야겠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완성도가 높아지는 성서 본사가 내 영혼이 숨쉬는 곳이고 창업자 흉상이 마당의 한복판에서 지켜주시는 한 이 어이 번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역사를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스물한 번째 만남 _ 2008. 2. 29

오늘은 창립기념일이다.

교육에 대해 아침에 박대환, 유지연, 이재규, 주영주,

이동기(직책생략)에

올해 강력한 지침을 시달하였다.

그리고 임원들께도 몇자 글로써 자극하였다.

리더의 속성이란,

책임과 과업완수에 대한 강한 동기

목표추구에 대한 맹렬함과 끈질김.

문제 해결에 대한 모험심과 창의성.

지칠줄 모르는 자신감.

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

스트레스, 절망, 지체됨을 창의성으로 돌파력이 마련되어진다고

“버나드 베스”가 말합니다.

여러분 작년 결산 결과 보고 받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 서서 보면 걸음마도 안되는 단계입니다.

올해는 다시 한 번 교육(육체적, 정신적)에 기초를 다져야겠습니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내가 먼저 여러분께 베푸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스물두 번째 만남 _ 2008. 3. 3

우리 본사 조명은 내가 꿈꾸어 왔던 걸 실천한 명 작품이다.

건물 설계할 때(1992) 한국의 조명회사를 신한은행 이동걸 사장 형인 이동건 회장(서울서 수입 조명기구 무역회사 운영)에게 부탁, 크리룩스 임경자 사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 고기영(그 당시 27才) 과장이었다.

그 임경자 사장은 나를 유혹하다 남편인 이영구 씨에 꾸지람을 들었고 사실 나는 그 당시에는 고기영 과장이 더 이뻐서 이것저것 충고해 주다 친하게 된 것이 올해로 16년째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제안 프랑스 조명사 얀 케르살레(서울 리움미술관 건축한 장 누벨과 설계 파트너)와 합작으로 우리회사 조명이 고기영 씨에 의해 최종 완성되었다.

이제 그 고기영 씨는 서울시 조명 자문위원이고 이화여대 조명교수 1호이고 두바이 건물 50층을 조명설계하고 동대문 운동장 건축도 자하하디드와 함께 조명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고 오늘 대구시 조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기 위해 대구에 온다 하니 이제 거인이 된 그 여인을 내가 만나기 힘든 훌륭한 조명계에서 한국은 물론 세계를 향해 거품을 물고 계시는 분이 되셨다.

그분에게 좀 더 채워야 할 부분은 美學이다.(미학전공설치미술가란 뜻이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며 앞으로 그분이 남길 흔적을 생각하니 참 흐뭇하다.

“흥시여 젊었을 때 너도 무척 뽐였어”

백스물세 번째 만남 _ 2008. 3. 4

이번 조선일보 주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1,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내 옆에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앉았기에 이재규 고문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라 했더니 서울시 내발산 초등학교 교사 박수정이란다. 둘다 깜짝 놀라 자세히 물어보았더니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 걱정하고 880,000원을 자비로 충당하고 이틀간 강의와 토론을 듣게 되었다. 나로선 충격 이상이었다.

우리나라 초등교사가 이 정도로 세상을 알아 그 꿈 많은 초등학생에 앞날을 지도하겠다니 우리나라 대학교수들 대부분 다 죽어야겠다. 그것도 뭐 물고.

제일 먼저 나는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회사는 타회사보다 체육 시설비 20억 이상 운영비 연간 2억 이상을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퍼붓고 있다.

그런데 온갖 이익을 준다 하여도 시작 1년이 지난 지금 이동기 센터장은 아직도 직원들 불만 타령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영어, 일어, 중국어 강사를 채용 강의하는데 들으려는 사람 거의 없다.

참 나로선 서글프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심정이다.

리더십 컨퍼런스와 뭐고 간에 나는 리더로써 우리 직원에 이것도 하나 옮겨 못 끌고 간다.

세계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중국은 우리를 덮치기 직전이다.

거대한 해일이 닥쳐오는 것을 혼자 알고 그래도 그래도 가야 하는 나는 어쩌다...

의무란 나에게 참 힘들고 어렵다.

백스물네 번째 만남 _ 2008. 3. 5

세계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가 리드해 갈 것이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최근 골드만 삭스에 의해 N11(Next 11개국) 즉, 신흥시장의 부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한국이다.

이들 나라는 유럽국가 2.3% 성장보다 2배나 높은 5.9%의 성장을 하고 있다 한다.

과거에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식이 이동되었으나 이제는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인재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신흥시장을 이동하는 현상을 세계 미래학자 폴사포 박사는 Cyber-Gypsies(사이버 집사)라 하였다.

여러분, 이 시대 주역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한 번 눈을 크게 뜨고 노력해 봅시다.

토인비가 문명은 해가 지는 쪽으로 회전하는 거라 하였다.

인도, 이집트, 중국, 페르시아로부터 문명이江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그리스 문명, 로마문명, 산업혁명, 미국문명, 일본 중국 문명에서 이제 아시아 인도로 이어지면서 다시 NEXT11개국에서는 나이지리아 이집트라 하였다.

여러분, 저 유명한 한니발 장군의 포에니 전쟁을 기억하는가. 로마와 칼타고 전쟁이었고 그것이 2,500년 전 칼타고가 지금의 리비아(아프리카)이다.

그것이 에게, 마케네 문명이다.

나는 이 시점 문명이 무엇인가 역사 속으로 헤매면서 **기번의 『로마쇠망사』** 책을 다시 보석 같은 마음으로 손에 쥐어본다.

백스물다섯 번째 만남 _ 2008. 3. 6

점심 때 별일 없으면 사무직원들과 부서별로 돌아가며 식사를 하는데 항상 내가 이야기 하는 게 본인들께 보약이라 생각하며 찢대를 내니 밥 먹는 당사자야 얼마나 밥맛이 있겠노.

내 혼자 떠들다 머쓱해지면 질문을 한다.

관리부 예쁜 최희영의 질문 내용은

“어려운 친구가 있는데 도울까 말까 망설여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대답이 조병화 시인의

“양심은 가장 무서운 감시자이다”

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잔뜩 더 어렵게 대답한 내 자신이 부끄럽다.

가르치는 게 쉬워지는 것이 곧 내가 가는 길이다에 맞지 않는

긴 이야기여서 후회가 된다.



백스물여섯 번째 만남 _ 2008. 3. 7

잊을 수 없는 그림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 화가 레핀의 『볼가강에서 배를 끄는 인부들』입니다.

레핀은 1844년 우크라이나 추구예프에 태어나 첫 작품이 출세작이 된 1868년 네바강을 배경으로 바지선을 끄는 노동자들의 충격적인 모습을 그린 화가입니다.

10명의 노동자와 고단한 삶의 표정은 비록 가축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고통 뒤에 숨은 자긍심과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는 마치 로댕의 『칼레의 시민들』(서울 로댕갤러리 상설전시)의 표정과 동일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 외에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쿠르스크 지방의 종교행렬』 등 역작이 전부 젊을 때 이루어집니다.

구정 땀 이르쿠츠크의 바이칼 호를 다녀왔습니다.

바이칼 호수 얼음 위는 영하 32°였습니다.

러시아 미녀 대학생이 미학공부를 한다가에 레핀 이야기를 하니 무척 반가워해 신이 나서 칸딘스키까지 진행했더니 몰라서 부끄러워하는 표정 속에서 나를 좋아하는 눈빛을 발견하고는 그 험난했던 미술 공부에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했습니다.



▲ 레핀, 〈볼가강에서 배를 끄는 인부들〉, Oil on canvas, 131.5×281cm, 1870~3년



◀ 로댕, 〈칼레의 시민들〉, 1884년

▶ 레핀,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Oil on canvas, 160.5×167.5cm, 1884~8년



▲ 레핀, 〈쿠르스크 지방의 종교 행렬〉, Oil on canvas, 175×280cm, 1880~3년

백스물일곱 번째 만남 _ 2008. 3. 10

나는 미술을 보며 간혹 충격을 받는다.

그중 하나가 프랑스 화가 구스타프 쿠르베의 『세계의 기원』이다.

인류 역사상 어떤 화가도 그 각도로 여자의 성기를 그린 그림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다.

그리고 멕시코 불운의 화가 프리다 칼로(1907~1954) 『나의 탄생』이다.

이것 또한 가장 적나라한 각도(여자의 자궁)에서 본인 얼굴이 빠져나오는 장면이다.

이 작품을 마돈나가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6세에 소아마비에 걸리고 18세에 불의의 교통사고(본인의

갈비뼈로 들어간 쇠창살이 성기로 빠져나오는 사고)로 명문의대생의 꿈을 접고 평생 허리와 오른팔 통증으로 몇 번의 유산을 거친 후 말년에 김스를 하여 누워서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멕시코 최대 화가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하지만 자기 여동생과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증오와 존경, 사랑과 갈등 등등 인간으로서 가장 처절한 삶을 47세에 마치게 된다.

여러분,

이제 차츰 미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것 또한 극복의 대상이지요.

옛날 미술을 모를 때 하도 답답해 화가에게 미술에 대해 질문하면 통명스런 대답은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 했을 때 화도 나고 내 자신이 미술을 이해하지 못해 저주스럽기까지 한적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게 질문한다면 나도 그 대답뿐입니다.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야 해”



▲ 구스타프 쿠르베, 〈세계의 기원〉, Oil on canvas, 46×55cm, 1866년

▲ 프리다 칼로, 〈나의 탄생〉, 금속판에 유채, 30.5×35cm, 1932년

백스물여덟 번째 만남 _ 2008. 3. 11

내가 지금까지 만난 머리 좋은 놈.
단점이 참 많더라.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항상 받아먹어야 한다.
주지 않으면 교묘히 배반(?)한다.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남에게 주진 못한다.
그 좋은 머리.
왜 안 쓸까.
좋은데.
나는 머리가 나빠서 참 행복하다.

백스물아홉 번째 만남 _ 2008. 3. 12

나는 집이 많다.
중국 북경에 몽골 울란바타르에 일본 고베에 서울 대치동에 그리고
40년 된 대구 산격동에는 주택이다. 다른 곳은 다 아파트고.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올해 아파트를 장만할까 한다.
작년에 내가 외국을 30회 다녀왔다.
최고 많을 때는 34회까지 다녀왔고 작년에 북경을 당일치기
두 번이나 하였다.
향후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을 합해서 일주일씩
다녀올 계획이다.
세계화란 내몸부터 바깥에 내놓아야 한다.
얼마 전 인천 송도 혁신도시 건설현장을 포스코개발 조용경 부사장의
안내로 다녀왔다. 항만, 교육, 문화, 교통, 주택, 공원, 레포츠 시설
등등 완벽하다. 완벽해.

70이 넘어서 외국 다니기 편리하게 인천 송도에는 기필코 아파트를 마련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인도까지만 개척해 보겠다.

저 유럽 문명을 있게 한 로마제국과 그리스 문명 그 이전의 그리스, 칼타고 마케도니아 문명이 있었고, 또 그 전의 에게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있었다.

여러분들은 저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 활약한 칼타고(지금의 리비아)까지 회사의 거점을 넓혀야 함이 당신들의 몫이다.

우리는 이조 500년 유학 때문에 어릴 때 우리 어머니들은

“물가에 가지마라 재수없으면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

“토정비결에 물을 조심하라 하였다”

고 항상 물을 두려움으로 교육시켜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북방민족 즉 기마민족의 기개가 살아 남아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이 기회에 한국에서부터 몸과 마음을 세계화로 향하는 초석을 다지자.

다행히 나는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바람 피우지 않고 집을 지켜주는 아내가 있어 행복하다.

백서른 번째 만남 _ 2008. 3. 13

나는 요즘 사람에게서 비린내를 느낄 때가 종종 있다.

전에는 못 느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비린내 나는 줄 잘 모르더라.

130

백서른한 번째 만남 _ 2008. 3. 14

SERI CEO를 보다가 “2008년 워렌 버핏의 편지”를 들었다.

버핏의 질문은

“당신 기업은 불멸의 Moat가 있는가?”

Moat는 성벽 바깥에 쌓은 물웅덩이로 난공불락의 뜻이 되겠다.

나는 1,000여 명의 직원을 끌고 가는 두목이다.

오늘 이 화두로 하루 종일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회사가 꿈의 기업으로 갈 것인지, 괜찮은 기업으로 갈지, 최악의 기업으로 갈지 이것이 우리의 숙제다

참조: SERI CEO 3월 6일자 2008년 워렌 버핏의 편지 꼭 들어주기 바란다. 여러분.

131

백서른두 번째 만남 _ 2008. 3. 17

이 회사에 40년 일하면서 신입사원 면접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 게 또한 나의 기록이다.

최근엔 생산직은 제외되고 있다.

소사장 제도를 실시하고부터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복이 많은지 큰 잘못을 저지른 직원이

태창 60년 史에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나의 뜻에 따라 인사담당 임직원이 피나는 고생을 한 결과라 생각한다.

그런데 북경에 임상호 부장은 면접을 하지 않았단다.

참 어이없는 일이다.

그때 임원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간혹 이런 일도 있는가 하면서 웃고 말았다.

어쨌든 산을 옮기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삽과 곡괭이,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성 어거스틴”이 말하였다.

인사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더욱 치밀하고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

그런데 우리 임원이나 우리 직원이 추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회사가 정말 시원찮단 말인가?

만약 우리 임직원이 추천하는 신입직이나 경력직이 있다면 두 눈을 부릅뜨고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133

백서른세 번째 만남 _ 2008. 3. 18

“꽃자리니라 꽃자리니라

시방 니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북경 배 사장과 4명 부장과 함께 술 한잔 하며 북경정성태창은 400名 중국직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전사고 3년간 한 건도 없는 것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북경직원은 한국직원보다 가시방석의 업무지만 피눈물나는 고생의 덕분에 무사고로 큰 실적을 올렸기에 具常先生의 꽃자리 詩를 읊어주었다.

그리고 배 사장을 격려하며 열악할수록 더욱 빛나는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다.

132

백서른네 번째 만남 _ 2008. 3. 19

요즘 나는 참 행복하다.

40년 된 집 마당에 매화꽃이 만개하였다.

술 취해 집 대문에 서면 분홍빛 매화꽃 향기가 등천을 한다.

자기집 마당에 梅花를 즐기는 선비는 옛날에도 드물었는데 내가
이 무릉도원의 봄꽃을 즐길 수 있다니.

그리고 마당엔 복수초, 영춘화가 흐늘거리듯 뽐내고 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다.

“봄꽃은 왜 노랗나요”가 질문이다.

산수유, 개나리, 영춘화, 복수초, 민들레, 유채꽃, 수선화...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천당갈 때 함께 모시고
가겠다.

10년 전 서울 호암갤러리에서 일본 천리대학에서 빌려와 전시한

安堅안건의 夢遊桃源圖몽유도원도를 본 적이 있다.

1447년 세종 29년에 38.7×106.5cm로 비단 바탕에 먹과 채색으로

그린 것인데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도원을 안건에게 설명한 후

그리게 한 것으로 한국 산수화에 큰 발전의 영향을 끼쳤다.

출근할 때마다 무릉도원에 산다는 행복과 함께하는 아내가 있는게 참 좋다.

여러분 우리회사 마당에 白梅가 꽃망울을 머금고 있고 산수유도
터지기 직전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봄을 어찌 풍요로움 속에 젖어들지 않을 수
있겠소.

곧 탁칠 벚꽃 잔치를 기대해본다.

특히 포항 마당에 옹긴 벚꽃이 기대된다.

백서른다섯 번째 만남 _ 2008. 3. 20

사람이 살면서 했는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게 젊었을 땐 참 어려웠다.

그 말을 지키려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후회해 보기도 하며 살아온
것이 지금인데 그래도 약속을 지켰다는 게 자신이 참 대견스럽다.

그런데 술 먹고 약속했는 것은 지키기가 참 어렵더라.

그런데 이번에 또 실수를 저질렀다.

배돌암 사장이 담배를 끊었다고 하길래 4명 부장 앞에서 6개월만
끊는다면 10만 원 송금하겠다고 술 먹은 김에 덜렁 뱉어버렸다.

속 쓰려 죽겠다.

이게 항상 내 문제다.

그런데 옛날에 임원 중에 고재욱 사장은 꼭 내가 술이 취했을 때
부탁하더라.

그 약속은 지켜주었지만 나중엔 습관적으로 그러더라.

여러분 내게 붙을 땐 맨정신으로 붙어주길 바란다.

나이 드니 자꾸 함부로 덜렁덜렁 약속해버리는 게 내 문제지만

이것도 한 번 직면하면서 도전해볼까 한다.

술 먹은 약속도 한 번 지키리라고.

백서른여섯 번째 만남 _ 2008. 3. 21

나는 내가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를 맡아 먼저 개척하기로 약속했다.

힘든 일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꼭 다녀오겠고 박진우 대리는 블라디보스톡에 파견근무 시킬 예정이다.

현재 내가 제일 필요한 건 60년 인생이 녹아내린

내 영혼을 통역해줄 사람이 간절히 필요하다.

결국은 그 나라의 사람을 알아야 한다.

그 나라 사람은 누굴 만나도 이젠 자신 있다.

내가 할일은 이것이다.

여러분 그 나라에 내 영혼이 살아 꿈틀거리는 통역해줄 사람 없나요.

이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세계가 좁혀지는 지금 나가서 부딪쳐야 하는 것이 언어라는 것에 대해 우리 TC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137

백서른일곱 번째 만남 _ 2008. 3. 24

오늘은 중국 절강성 오쑤나라(蘇州소주) 월越나라(杭州항주) 이야기다. 춘추전국시대 BC584년 오나라왕 閼閼합려는 부국강병의 일환으로 오자서를 모사로 등용하고 군사를 손무 장군(손자병법 저자)으로 삼는다. 오왕 합려는 월나라를 공격하다가 화살에 상처가 악화되어 목숨을 잃는다.(BC496)

합려의 아들 夫差부차는 아버지 복수를 위해 군사 훈련으로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 사실을 안 월왕 勾踐구전은 참모인 범려의 말을 듣지 않고 선제공격을 하다가 복수심에 불타는 오나라에 대패하여 회계산으로 도망가다가 사로잡히게 된다.

그때 구전은 오왕 부차의 똥맛까지 보는 굴욕을 당한다.

구전은 신하인 범려의 도움으로 오나라에 항복을 청해서 오나라에 잡혀있다가 부차에게 풀려난다.

구전은 오나라 속국이 된 월나라로 돌아와 와신상담(臥薪嘗膽 즉, 장작 위에 자고 쓸개를 씹으며) 복수의 이를 갈았다.

12년 후 구전은 오나라를 쳐들어가 오왕 부차를 사로잡아 자기와

같이 풀어주려 하였으나 부차는 자결한다.

승리한 구청은 西施 서시라는(중국 4대미인) 여자에 빠져 나라를 돌보지 않고 백성은 소흥주에 빠져 정신이 없을 때 신하 범려가 떠나며 편지를 남긴 대목 중에 토사구팽(死狗烹)이란 말이 나온다.

훗날 역사가들이 吳越同舟 오월동주란 말을 오와 월이 한 배를 탔지만 초나라를 치기 위해 원수끼리 만나서 마음이 달랐다고 표현한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중국 역사를 알 때 또 이런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중국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것이고 분위기를 리드할 수 있다.

여기에 오(소주), 월(항주), 손자병법, 와신상담, 오월동주, 서시, 소흥주, 토사구팽이란 말이 나오게 된다.

16년 전 조선족 임경복 사장과 함께 절세의 미인이 많다는 항주 옆의 가흥 출신 항주대학생을 우리회사에 데려오기 위해 가흥의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얻어먹은 술이 소흥주고 그녀 이름이 주청(周靑 조우징)이다.

그런데 일년 후 졸업식에 가 만나보니 못생긴 중국남자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었다.

백서른여덟 번째 만남 _ 2008. 3. 25

廬山煙雨 _ 蘇東坡

여산연우 _ 소동파

廬山煙雨浙江潮 여산연우절강조

여산의 비안개 절강의 파도소리

未到千般恨不消 미도천반한불소

가보지 못했을 땐 가보고 싶어

환장하겠더니

到得還來無別事 도득환래무별사

가보고나니 별 것 아닐세.

廬山煙雨浙江潮 여산연우절강조

여산의 비안개 절강의 파도소리

중국 북송(北宋) 소동파가 여산의 경치가 絕景 절경이란 소문과 浙江 절강(錢塘江 전당강)의 음력 대보름 날 바다로부터 파도가 전당강으로 만유인력 현상에 의해 역류하는 광경이 굉장하단 소문을 익히 듣고 임금에 아뢰어 항주 군수를 요청해 부임한 후 여산과 절강을 다녀온 후 읊은 시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중국 시이다. 소문이 너무 자자해 가보고 실망했으나 그래도 먼훗날 가만히 생각해보니 역시 그곳이 좋더라란 인간의 간사한 마음의 상태를 빗대어 읊은 시이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소동파는 항주 西湖 서호의 절세미인 西施 서시를 생각하며

西湖美人 서호미인을 찾아 항주에 부임한 후 읊은 시는 대충 이렇다.

“천상에는 하늘이 있고 지상에는 소주, 항주가 있다 (上有天堂,
下有蘇杭).

서호는 미인의 얼굴 가운데서 눈동자와 같다.”

항주에 부임한 후 서호에서 즐겨먹던 소동파 돼지고기(동파육)도 유명하다.

물론 미인과 소흥주도 즐겼으리라.

1992년 11월 철강협회 정명식 회장과 함께 중국에 갔을 때 나도
임정복과 함께 서호를 거닐며 소동파 생각하다가 그 후 만나게 된
것이 조우징(周青)인데 서호미인은 피부가 하도 맑아 흐르는 피가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 확인하려 했지만 못난 중국사람과 미국으로
튀는 바람에 헛물켜게 되었다.

여러분도 항주를 방문해 서호에서 용정차(중국 최고 녹차) 마시고 동파육과
소흥주를 마시며 소동파의 여산연우 詩 한 편 읊어 보는 것도 멋이
아니겠는가.

백서른아홉 번째 만남 _ 2008. 3. 26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가 간혹 있다.

그러나 눈물은 울고 싶다고 흘쩍거리는 것이 아니고

사내 자식이 가지고 있는 눈물은

눈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 자주 울 것 같다.

아마도 늙은 모양이다.

공자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공이란 제자가 있었다.

그런데 젊어서 죽게 되었다.

공자가 슬피 우니 자로란 제자가

“선생님이 울 때도 있습니까? 하고 말하니

“야야! 내가 이럴 때 안 울고 언제 울겠노”

라고 얘기하는 인간적인 공자님을 나는 참 좋아한다.

여러분도 울고 싶거든 날 불러놓고 실컷 우세요.

내가 참고 우는 거 다 봐줄 테니.

그런데 간혹 기분 좋은 날 친구에게 술을 권할 때 자주 써먹는 말이
있다.

공자님 우는 이야기 해주고 나서

“여러분 오늘 한 번 실컷 덥시다.

우리 오늘 같은 날 안 먹고 언제 먹겠소”

하며 분위기를 돋운다.

여러분 울 땐 울고 마실 땐 마시고 그때그때 참지 말고 하는 것이
인생 아니오?



백마흔 번째 만남 _ 2008. 3. 27

어느날 내게 강원구란 친구가 책 선물을 했다.
 단숨에 읽어버렸고 그리곤 뭐 내가 했는 것이잖아 라고 무심코 던져
 버렸는데 다시 민경식이라는 친구가 똑같은 책을 주며
 “이 책을 보며 회장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참 나는 행복하다.
 책 주는 친구가 많으니.
 여러분 人生을 살면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거든 꼭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돈, 건강, 인간관계, 행복, 승진 등 어떤 것도 여러분께 잘 안내할
 것입니다.
 지금 전세계가 이 책 때문에 난리가 났고 읽지 않는 사람은 거의
 바보 취급 받는 책이랍니다.

그 책은 Secret^{비밀}으로 Rhonda Byrne^{론다 번}이 지은 책인데
 자기계발서로서 지금까지 책 중에 모든 기록을 다 뛰어넘는 전세계가
 뒤집혀질 만큼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에”

“당신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우주를 창조한다”

— 윈스턴 처칠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지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 잭 캔필드

“조금만 조사해보면 뭔가를 성취한 사람은 하나같이 ‘어떻게 해내야
 할지’는 몰랐다. 단지 ‘해낼 것’이란 점만 알았다”

— 밥 프록터

“우주는 속도를 좋아한다. 지체하지 않는다. 예단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기회가 오면, 충동이 느껴지면, 직감적으로 뭔가를 해야한다고 느끼면
 행동하라

그게 당신이 할 일이다. 그러면 된다.”

— 조 바이텔리

어때요 여러분, 한 번 사서 펼쳐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염원했던 결과다”

— 붓다(기원전 563~483)

백마흔한 번째 만남 _ 2008. 3. 28

30년 전에 놀던 여자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다.
만나자는 얘기다.
강희, 민지, 반숙, 옥진 등 6명이 서울서 왔단다.
그러니까 내가 30대 초반 그녀들은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었다.
어제는 신일희 이사장 헝가리 쇼팽음악원 명예박사학위 취득 행사에
참가하였는데 계속 전화가 걸려왔다.
마치고 계명대 총장 이진우, 권업 교수, 박용진 교수와 예총회장,
문화예술회관 관장과 2차 뒷풀이하러 디종에 갔는데 거기에다 10번
이상 전화가 오길래 12시쯤 마치고 그녀들이 있는 곳에 갔다.
이미 폭탄주로 잔뜩 취해 있었고 거의 다 결혼에 실패 이혼했단다.
물론 잘 된 여인도 있단다.
50이 넘는 그녀들은 30년 만이라 추억은커녕 추한 모습들이었다.
폭탄주 몇 잔 마시고 나니 30년 전에 나의 부탁으로 본인들이 나의
높은 사람(?)에게 접대를 해주었기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며
뽕깡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나도 화가 나서 그 술집 기물을 전부 다 부수고 집에 돌아오니 온몸이
피투성이다.
마누라는 겁에 질려 잠도 못 잤단다.
그 놈의 추억이 원지 결코 뒤돌아 보지 말아야겠다.

142

백마흔두 번째 만남 _ 2008. 3. 31

일전에 나는 남극, 북극을 제외한 전세계를 다 돌아다녔다고 했다.
그러했기에 나는 이제 여러분께 전세계를 권하고 있고 실행에
옮기도록 독려하고 있다.
자 그럼 언제부터인지 한 번 찾아보자.
1988년 10월 22일 태창, 신라, 동아 전직원이 한라산 백록담을
등반했다.
그리고 1993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전 직원 130명이 큐슈, 뱃부,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쿠마모토 등
일본 연수를 다녀왔으며,
1995년 8월 3일에서 5일까지는 태창, 테크, 대구철강 직원 121명이
이화원, 만리장성, 자금성 등 북경을 다녀왔고,
2004년 8월 1일부터 4일까지 테크 74명, 아이티 8명, 그린 7명,
소사장 11명 등 총 110명이 몽골의 울란바타르, 명궁머리트, 테를지
등을 방문하였다.
뿐만이 아니다.

141

올해는 태창, 신라 전직원이 또 몽골 방문이 어려워 베트남 하롱베이와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로 조정하는 중이다.
그리고 2003년 11월 김대영 이사와 류지수 부장이 중국을 다녀온 것을 시작으로 2004년 중국 13명, 일본 4명, 2005년 11명(이하 모두 중국), 2006년 6명, 2007년 8명, 올해 3명으로 중국 철강산업 시찰에도 계속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이집트, 인도, 두바이를 임원과 몇몇 직원을 보내고 있다.
나는 내가 해보고 좋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에게 권하고 있다.

어쩌면 오히려 결사적이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권하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댈다.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취미가 안 맞아서, 월급쟁이라서, 주위가 두려워서, 자기 혼자 하니 미안하고 겁나서, 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못해서, 건강이 약해서 등등...

수 없는 이유로 자기자신의 변명에 열을 올리고는 속으로는 못한 자신을 탓하더라.

난들 위에 나열한 것이 다 맞아서 했겠나.

극복하다 보니 익숙해진 것뿐이다.

그런데 내가 권한 것을 실천한 사람도 있는데 내게 두고두고 감사해 하더라.

온 동네 다니며 내 자량을 하는데 정작 내 앞에 와서는 술도 안 사고 고맙다 소리도 잘 안 하더라.

이것이 인간들이다.

백마흔세 번째 만남 _ 2008. 4. 1

접촉 중 해야 할 Kiss라는 게 있습니다.

남녀가 키스를 하면서 **설왕설래**舌往舌來하면 심장이 뛰고 맥박은 두 배로 빨라지며 혈압이 상승함과 동시에 췌장에서는 ‘인슐린’ 이,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 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기능이 있어 당뇨병의 치료에 도움을 주며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이나 혈관의 수축력을 높여주고 인슐린과 함께 길항작용을 하여 혈당량을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또 키스를 하는 순간 체내에서 아미노산 복합물인 ‘뉴러펩티드’ 라는 화학물질이 배출된답니다.

뉴러펩티드는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모르핀의 200배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약물 복용보다 훨씬 빠르고 건강한 진통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핏속의 백혈구 활동을

강화시키는 물질을 배출해 인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이렇듯 감각적인 시스템 속에서 분비되는 타액은 구강 점막에 분산된 수많은 선에서 나오는 분비물로서 약 0.7mg의 단백질, 0.18g의 유기질, 0.71mg의 지방질, 0.45mg의 염분, 0.7mg의 알부민을 포함합니다.

이 액체는 무색무취에 약알칼리성의 섬유질형 유동체로 입 안의 산성화로 인해 발생하는 충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단, 키스 파트너가 충치에 걸렸다면 전염될 염려가 있으니 프렌치 키스는 금물입니다.

아침의 키스는 한 번에 3.8Kcal의 에너지를 소비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니 사랑하는 사람과의 진한 키스를 벚꽃이 피고 질 때 벚꽃나무 밑에서 한 번 시도해 보십시오.

참고로 花吹雪(はなふがき) 꽃잎이 눈처럼 날린다는 뜻이고

花嵐(はなあらし)꽃보라, 즉 꽃바람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일본 사람들이 꽃이 지는 모습을 즐겨 쓰는 말입니다.

또 동백꽃(つばき)과 능소화(凌ぜん花)도 질 때는 꽃잎이 말라붙지 않고 바로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간혹 눈 위에 동백꽃이 떨어져 있는 사진이나 실물을 본적이 있나요.

이렇듯 사물을 관찰하는 마음을 키워야 창조적인 인간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백마흔네 번째 만남 _ 2008. 4. 2

나는 평소 “잘 안되더라”라는 말을 하지 않은지 참 오래됐다.

나는 중2부터 대2까지가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였다.

그 이후는 극복, 극복, 도전, 좌절, 그 자체였지만 항상 무엇이든 실천해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안돼”라고 하면 나는 그냥 물끄러미 그 사람 눈을 쳐다본다.

故 정주영 회장도 평소에 잘 하는 말이 있었다.

“해봤어?”

백마흔다섯 번째 만남 _ 2008. 4. 3

오페라 『돈 조반니』는 모짜르트가 작곡한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의 3대 오페라 명작품이다.

희극이지만 인생의 불완전함, 삶의 해학과 관용이 담겨져 있다. 모짜르트는 빈 궁전에서 이태리 출신의 시인 로렌초 다폰테를 만나 위의 세 작품이 다폰테 대본에 의해 작곡되어진다.

이 오페라에 3명의 여인이 돈 조반니의 여성편력에 주체가 되는데 돈나 안나는 귀족의 딸로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돈나 엘비라는 부르그스에서 온 부르주아 출신의 연애지상주의자이다.

세 번째 채를리나는 농부의 딸로 재치는 있지만 윤리 의식이 부족해서 욕망을 위해 머리와 육체를 이용한다.

수많은 아리아 중 유명한 「카탈로그의 노래」, 「삼페인의 노래」, 「세레나데」를 비롯해 「때려줘요 마제토」, 「나의 연인을 위로해주오」 등이 알려졌지만 더욱 유명한 아리아는 「그런 말은 말아주세요」, 「그가 나를 속였구나」, 「그대의 행복은 나의 행복」 등 모짜르트의 주옥 같은 명곡들이다.

돈 조반니의 하인 레포렐로는 수첩에 호색한 돈 조반니의 여자 행각을 적는데 이태리 여자 650명, 알바니아 여자 230명, 프랑스 여자 100명, 터키 여자 91명, 스페인 여자 1,003명으로 전부 2,074명이나 된다.

실제로 17살부터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단다.

돈 조반니는 레포렐로가 마을 여자를 저택에 데려다 놓았단니까 내일

아침까지 건드린 여자 10명을 수첩에 더 기입해주겠다며 그들이 정신 못 차리게 하라는 「삼페인의 노래」를 호탕하게 부른다. 물론 돈 조반니는 세 명의 여자에 만족을 못 얻고 뿔뿔하고 당당하게 여자를 섭렵한다.

오페라 마지막에 석상(石像)이 나타나 살려주겠다 하나 굽히지 않고 지옥의 불 속으로 뛰어든다.

4월 17일부터 3일간 대구 시립 오페라단에서 돈 조반니 공연이 있을 예정이라 여러분께 설명드렸다.

돈 조반니는 이태리어이고 프랑스 말은 돈 주앙(Don Juan)이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뮤지컬로는 『돈 주앙』, 『노틀담 드 파리』가 있는데

나는 『노틀담 드 파리』는 서울에서 3번 보았다.

그런데 대구에 한국판 『노틀담 드 파리』가 5월 2일부터 공연된단다. 우리회사 전 직원이 관람하도록 하였다.

여러분 CD를 사서 돈 주앙의 쾌락이란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란다. 가사를 소개한다.

“자, 나를 위해 연주하라 내 기쁨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은 여자의 몸과 기타의 선율
내 손 끝에 젖어있는 그녀의 피부
아침까지 그녀들의 불꽃 같은 욕망을 느끼고 싶네
나의 매력으로 그녀들이 즐겁길 바라네
내게 포도주를 계속 따라주오
그녀들 몸 위에 부여주오
그녀들 가슴 위로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밤을 새고 싶네 잠은 필요 없지
여자들과 쾌락이 있는 한...”

여러분 화창한 봄 벚꽃축제 날 오페라와 뮤지컬 속으로 빠져 봅시다.

내가 28살 때 일이다.

그때는 오디오에 미쳐 있을 때다.

퇴근 후 오디오 가게 김명선(그는 나의 카메라 도반이자 오디오 기계들 파는 친구)

사장과 오디오 매니아들과 음악 기계소리에 각자의 감흥 나누다

한 잔하고 집에 오면 곧바로 오디오룸에 처박혀 새벽 3, 4시까지

음악의 마약에 빠져든다.

그땐 집에 오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 마누라는 고달픈 하루를 잠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문은 열어주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였기에 담을

타넘고 비상 키로 살짝 현관문을 열고 살며시 들어간다.

그 시절 큰아인 한 살, 둘째 아인 임신 중이었다.

방에서 신나게 음악을 듣는데 우리 집 개(진돗개)가 창문을 두드리며

짖고 있다.

시끄럽다고 문 열고 나무라니 획 뒤로 돌아간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뒷마당을 통해 2층 옥상으로 올라가니 거기서

개가 계속 짖고 있다.

“누구냐”하며 놀라 고함을 지르니 뭔가 불쑥 내게 달려들며 “옥”하며

놀라게 한다.

영겁결에 달려드는 놈의 어깨를 치면서 발길질이 날랐다(그 당시 합기도

공인 3단). 급기야 몇 차례 맞더니만 옥상에서 뒷집으로 튀다가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땐 달이 밝아 옥상에서 싸움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옆집에서는

문도 열어보지 않더라.

물론 마누라는 아이를 안고 발발 떨고 있으며 2층 싸우는 소리에

기가 죽어 말도 못했고 집을 지키기 위해 뒷방을 쓰던 박희문(우리회사

수원)은 문고리를 잡고 발발 떨었다.

정작 싸울 땐 그 개는 달이나 밑에 서 있었다.

그런데 밑에 있던 개는 도둑놈이 자기 위에 떨어지니 퐁을 싸버렸다.

그 개는 팔아버렸다.

그 이후로는 다시 진돗개를 키우지 않았다.

밑으로 내려가 그 놈을 일으켜 세우니 산격동 집 지을 때 현장

인부노릇하던 白모 씨였다.

다리를 심하게 다쳐 박희문에 업게 하여 자기 집에 데려다 주었다.

자기 어머니가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아들 뺨을 때린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걱정이 태산이다.

혹시 복수하지 않을까 또 우리 어린애 다치게 하진 않을까.

할아버지와 마누라와 밤새워 걱정하였다.

그 다음날 그 집에 가서 경대병원에 수련의 김세철(그 당시 인턴)에게

이야기해 부러진 다리 깎스해서 집에 데려다 주었다.

며칠 후 자기 어머니에게 1백만 원(그 당시 큰 금액) 드리고 우리동네에서

이사가게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못을 저질렀다.

결코 도둑놈을 두들겨 패서는 안 된다.

지금 세상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백마흔일곱 번째 만남 _ 2008. 4. 7

평소 내가 젊은 사람에게(특히 여자들) 화장실을 변소라 이야기하고
커피숍을 다방이라고 말하니 옆에 있던 늙은이가 내게 핀잔을 준다.
젊은 사람에게는 그런 말하면 늙게 보인다는나 그러면서 더 보탠다.
가요방에 가서 요즘 최신곡 하나 정도 부를 줄 알아야 한다나.
그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은 내가 “변소”, “다방” 등 툭툭 던지는
말들이 고도의 언어 구사란 것을 잘 모른다.

완성된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남들이 깔보거나 바웃지 않는다.

남이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한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진정 내가 젊고 싱싱하냐 말이다.

앞으로 갈 길이 60년

이 먼 길을 지금 온 것보다 더 젊음이 충만해야 한다.

우리회사에 늙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미래에 관한 冊을
드리겠다.

임원들은 정독해서 읽고 즉시 제게 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A4 3장정도 분량)

인간의 미래(More than HUMAN) 라메즈 남 지음

147

백마흔여덟 번째 만남 _ 2008. 4. 8

우리회사 2층에 史野 Gallery가 있다.

사야란 論語논어 文化문화편에 쓰는

문화적이고 세련된 것 또는 격식을 갖춘 것이고

野는 질박한 것, 거친 것, 자연 그대로인 것

史와 野가 조화를 이루어야 인간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군자의 덕목이라 하였다.

史野는 전 문화갤러리 관장이었던 배규원氏가 내게 준 말이다.

내게 딱 맞도록 인생을 살면서 노력해 볼 작정이다.

여러분도 지켜봐주기 바란다.

149

백마흔아홉 번째 만남 _ 2008. 4. 10

호(號)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

20대 초반 시절 친구 서상덕(前 서울은행 지점장)이 이동걸(현 굿모닝 신한증권
사장)에게 호를 지었다며 자랑스럽게 자기 호는 白波백파

즉 흰 파도라고 하였더니 이동걸이

“야 이놈아 백파라니 차라리 양파는 어떠냐 다마네기 말이다”

라고 놀려대자 그날 이후론 서상덕의 별명이 다마네기가 되었다.

호란 잘 못 건드리면 치명적일 수가 있다.

나도 호를 “사야”라고 정하러니 누가 “팔아야” 할까 걱정이 된다.



백선 번째 만남 _ 2008. 4. 11

세상을 살다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일인데 임원들에게 스리랑카에서 온 퍼디판이란 직원이 팔을
절단하는 대사고가 일어나서 임원들에게 필히 문병을 다녀오라
지시를 했더니 회의를 마친 후 점심을 먹고 내 방에 임원들이
들어와서 문병 가겠단다.

퇴근 후도 있고 토, 일요일도 있는데 하필이면 근무 시간 중 문병이라
어이없어 했는데 어젠 강승민 대리 부친상을 당해 서울로 문상을
갔더니 오후 5시인데 태창 부장 이하 직원들이 수두룩 앉아 있다.

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아무말 않고 나왔다.

만약 어떤 자리에 박태준 회장이 문상 가서 근무 시간 중 문상하고
있는 부하 직원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생각해본다.

아마도 수두룩 전부 퇴사 당했을 것이다.

우리회사는 속수무책이다.

그 사람을 내보내면 사람이 없다.

문제는 밑에 직원이다.

그것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도 모를 것이다.

이것은 분명 직무유기다.

여러분은 직분을 다 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겠다.

근무시간 중에 문상이나 문병 가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하는 짓이고

주인정신이 아니고 노예근성이다.

여러분 나는 시간 아껴쓰다 못해 시간을 갈아먹고 살고 있다.

제발 시간을 때우는 인생은 살지 말아주길 바란다.

정말 그 사람들 앞날은 흰히 들여다 보인다.

151

백선한 번째 만남 _ 2008. 4. 14

봄꽃이 왜 노란지 물으셨죠? 제가 답을 해 볼까요?

color theory(색채이론)에 보면 노란색은 *reflective and luminous and
happiest of all colors*(투명한 빛을 발산하는 모든 색깔 중에 가장 행복한 색)라고
나와 있죠. 또한, 긴장도가 높아서 한꺼번에 모든걸 터트려버리고 그래서
동력을 up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색깔입니다. 노란색은 무색 혹은
흰색에서 가장 먼저 튀쳐나온 성급한 색깔이자 다른 모든 색깔의 *seed
color*(씨앗이 되는 색깔)를 그 몸속에 숨기고 있죠. 그래서, 노랑은 주황,
그리고 초록으로 변형이 되어 여러가지 *chromaticity*(색도饱和度)를 날게
되는 겁니다. 봄은 오랜 겨울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드디어 맞이하는 계절의
처음이죠. 그래서 그 기대감과 *tenseness*(긴장감)를 자연은 노란색 꽃에
담아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어떠세요? 천당 가실 때 데리고 갈 만 합니까? 아니면 재미 없었습니까?

π.π

150

이태리 밀라노의 장지애란 처녀한테서 “**봄꽃은 왜 노랗나요**”에 대한 대답이 왔다.

태창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 무심코 메일을 열어본 후 이런 답을 해와서 여러분께 공개한다.

몇 년 전 우리회사에서 『꽃의 제국』이란 책을 쓴 **강혜순 성신여대 생물학 교수**(보스턴 대학 생물 생태학 박사 취득)를 초청해 강의를 들은 후 사전에 미리 질문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었다.

하지만 장지애는 이렇게 열심히 뒤져 과학적인 답변을 해왔다.

적어도 이 정도의 열정이 농축된 인간이라면 천당이 아니라
현생에서도 한 번 부닥쳐 보고 싶은 여자다.

다음 달 아테네에서 디자인 하우스를 그리스 여자와 개업을 하기로
했다 해서 한국에 초청했다.

같이 동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기꺼이 참여하란다.

투자비는 없고 조언으로도 충분하단다.

향후 결과를 언젠가 여러분께 보고하겠다.

인연이란 이런 것이고 이것이 창조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꽃의 제국』 꼭 사서 읽어보시면 식물의 세계가 인간보다
훨씬 질서 정연함에 소름이 끼쳐올 겁니다.

백선두 번째 만남 _ 2008. 4. 15

이제 골프 이야기도 해보자.

30년 前 포스코가 浦項100萬Ton 착공 시 박태준 사장은 그 당시
포항공사 진두지휘를 위해 서울서 재건호(새마을 → KTX로 변경)로
대구까지 와서 대구역 앞 대구여관에서 1泊하고 浦項에 간다.
그 시절 대구의 지인(知人) 경북광유 故 박진희 회장과 경산에서 간혹
골프 치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그때 골프장 잔심부름 하기 시작한 게 나의 골프 출발이었다.

30대 초반 내가 대구서 골프를 한다는 건 어른 친구나 나를 아는
주위 높은 사람은 한마디로 젊은 놈이 “**까분다**”였다.

그렇기에 숨어서 연습하고 정작 골프는 타도시 부산, 서울에서
필드를 나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 당시 허리 힘이 좋아 거리는 경산에서 한때 장타란 소문과,
젊었고 옷 잘입고 날씬하고 다리가 길어 캐디들한테 인기
만점이었다. 간혹 먼 거리의 드라이브를 갈기면 캐디들이 “**어메!
어메! 자기 짐승**” 이른다.

이러니 함께 나와 동행한 멤버는 전부 20살 위라 질투의 대상 밖에 되지 않아 맨날 핀잔만 받았고 OB난 남의 볼 주워다 주고 못 찾는 볼 찾아준다고 헐레벌떡 쫓아다니는 게 내 할 일이고 저녁엔 술집 접대예다 화류계 女子(?)들까지 잘 보살펴 드려야 하니 이건 고역 중 고역이다.

풀코스를 밤낮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하니 말이다.
그 당시 젊은 놈은 눈 닦고 봐도 골프장엔 없고 친구들은 고급스포츠라면 테니스에 입문할 정도였고 레저 스포츠란 없던 시절이었다.

지금 나는 일년에 한두 번 임원들과 골프 치는 게 고작이다.
나는 지금 남들이 골프 칠 때 토, 일요일은 거의 외국을 헤매고 다닌다.

요즘 나를 아는 知人들은 으레 골프 안치는 줄 알고 부르지도 않으니
골프 비용과 저녁 폭탄주 술값 비용도 내가 내지 않아도 되니
이 얼마나 행복한가.

만약 내 정도 여건에서 더치페이하면 두고두고 죽일 놈 살릴 놈 난리게 대구고 한국이다.

그런데 사내 자식들이 골프에 입문하면 그게 싫어서 그만 둔 사람 나는 본 적이 없다.

왜 그렇게 매달려 헤어나지 못하는지 참 나는 알 수 없다.

여러분이 만약 골프하고 싶거들랑 다른 거 다해보고 맨 나중에 하시길 바란다.

왜냐면 여러분도 들어가면 나올 수 없으니까.

백원세 번째 만남 _ 2008. 4. 16

우리회사 임직원들은 확실히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에 대구학생문화회관에서 장사익, 사물놀이 김덕수, 성악가들의 퓨전공연이 있었다.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공연이었기에 직원들에게 권하였다.

결과는 내가 직원들한테 참패 당한 심정으로 참담함을 느꼈다.

신청자가 거의 없었던단다.

물론 이렇게 되면 노틀담 드 파리도 취소한다.

이게 우리회사 문화 수준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회사 내에서 문화공간, 어학공간, 체력공간을 열어 주어도 소용없다는 걸 느낄 때 오는 荒弊感(황폐감)이다.

과거 15년 전에 옥포 저수지에서 일요일 날 수상스키 배우러 나오랬더니 사표 내는 직원이 있었다.

피곤해서 쉬겠다는데 무슨 수상스키냐 였다.

그 후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관한 혜택을 거의 없애버렸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그 심정이다.

153



백원네 번째 만남 _ 2008. 4. 17

우리회사를 떠난 전태호와 주정은 글을 소개합니다.

본인은 여러분께 지금 복리후생 문제에 깊이 관여하며 챙기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타회사와 한 번 비교해봐 주시고 부족한 점 일깨워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떠난 두 사람 글을...

유재성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문득 회장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서면으로 마음의 글을 올립니다

회사에 10년 근무했음에도 저와 회장님은 접촉할 일이 없는 관계라고
스스로 단정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리라 생각되어,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얼마
전까지 티시테크 품질경영팀의 전태호 대리입니다.

학교(전문대)를 졸업하고 학과 교수님의 소개로 티시테크와 인연을 맺었고
생산관리 및 영업부를 잠깐 거치고 7년 정도를 품질업무를 해왔습니다.

제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올해 2월말부로 TC TECH를
사직하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 아쉬움과
후회가 남아 있지만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제 자신의 마음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입니다. 회장님이 늘 직원들에게
강조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지금에서야 가슴 깊이 느껴지고
조금이나마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한 친구,
회사동료들에게 너무 소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들었던 TC 떠나오고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이 스쳐지나가고 또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울타리에 있을 때 정말 너무 철부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이 늘 말씀하시던 노예근성이라는 것이 나완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흘려버렸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내가 노예근성에 물들어
주체적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던 '직원들에게 다 주었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어학, 건강센터, 회장님의 철학 등 많은 것이 내 주위에 있었으나 내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TC에 있는 선후배님들은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회장님의 어떤 젊은이들보다도 더 강한 열정과 신념을 볼 땐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곤 하였습니다.

이젠 그것을, 그 정신을 본 받으려 합니다.

이젠 TC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내 자신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낯선 것이 힘이 들기는 하지만 내가 있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변화되는 국제경제와 신 사업 투자 등으로 인해 회장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제일 높은 곳에서 외로우시겠지만,

항상 TC와 직원들을 잘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몸은 회사를 떠나 왔지만 같이 동고동락했던 직원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회사가 되기를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도 같이 기뻐할 것입니다.

회사를 떠나올 때 아쉽고 서운했던 것을 모두 떨쳐버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후회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TC와 함께 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가슴깊이 새기며 TC인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영원한 TC인 전태호 드림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태창철강 서울영업팀에서 근무했던
주정은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안부인사 드리려고 편지올립니다.

제가 퇴사를 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1년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직장도 다녀보았지만,

태창만큼 훌륭한 임원진들과 좋은 직원들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꼈고, 늘 태창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느낍니다.

가끔 대구를 내려가서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올라오는 길은 마음이 뿌듯하였고, 오랜만에 만나는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올 때면, 반갑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한 회장님께서 주시는 책들을 읽으므로,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의 휴식과 마음에 양식을 쌓을 수 있게 해주셨고, 좋은 공연을 보여주심으로 눈과 귀의 즐거움을 선물해주셨습니다.

대구행사가 있을 때엔 늘 함께하던 안은미선생님의 공연도 잊혀지질 않으며, TC의 정원, 귀여운 강아지들, 아름다운 TC의 조경들도 너무나 그립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전직원들의 협동심과 회사에 애착심을 느끼게 했던 2003년도 2박3일 해병대훈련을 받았을 때와 상암경기장에서 “투란도트”공연을 보았을 때입니다.

해병대훈련 받을 때는 평소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라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특별한 경험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투란도트”는 너무나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정말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공연이었고, 어찌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려야 할지요.. 회장님께 제 마음이 편지로 전달이 될지 고민입니다. 2000년 12월에 입사하여 7년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아, 아들이 벌써 두 살이 되었습니다.

태창철강은 제 인생에 일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하였던 곳으로 절대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회장님의 깊은 배려로, 출산휴가 후 복직하게 되었고, 더욱 열심히
일하고 싶었지만, 복직 후 태창의 모습은 많이 변해있었습니다.
그 당시 새로운 직원채용의 계획도 있었고, 제가 복직하여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때만큼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퇴직할 때 회장님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직 후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굳은 결심도 있었지만, 회장님께
보여드리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고, 기회가 있다면, TC에서 다시 한 번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글재주는 없지만, 가끔 회장님도 뵙고 싶은 맘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용기 내어 편지 올립니다.
늦었지만, TC그룹 62주년 정말 축하드리며, 회장님께서 일개
사원에게까지 배풀어주신 사랑 늘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TC그룹이 더욱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8년 4월 8일

주정은 올림

백원다섯 번째 만남 _ 2008. 4. 18

이번엔 골프 내 실력 이야기다.

지금까지 기록은 30년 전쯤 수원 컨트리에서 일신제강 조봉각
상무와 처음 간 골프장에서 친 게 71타였다.

즉 one under였고 보기 둘 버디 셋, 나머지 전부 파였다.

그리고 20년까지 **이글 아홉 번**, 그 후론 한 번도 못했는데 아홉 번 다
파 5에서 two on one Putter였다.

그런데 홀인원은 한 번도 못해 보았다.

나의 특기는 장거리였다.

30년 전 영남투자금융의 김태웅 전무와 함께 접대로 주로 골프 치면
그의 나이 50대 나는 30대였기에 자기가 좀 창피하니 날 보고
잘 치란다. 그러면 남들에게 프로라 소개하며 한 수 배우기 위해
친다고 말할 수 있단다.

그해 겨울 구미에서 개업하기 위해 쉬고 있던 앞산 골프연습장
崔프로를 산격동 주택 옆에 경대여관을 두 달간 빌려서 숙식하게
하고 부산 내려가 고기 그물을 사와(그때는 특별 주문 않고는 골프 연습 그물망이
없을 시절) 산격동 단층집 옥상(50坪가량)에 그물을 치고 그해 겨울 오후
6시 퇴근, 집에서 저녁 먹고 옥상에 최프로와 올라가 드라이브만
3시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 후 그 다음날 새벽 4시 경산

골프장으로 택시로 달려가면 겨울이라 18홀 다 돌 때까지 깜깜하다.
첫 홀에서 나 혼자 볼 100개(원볼 하나 100원짜리)를 신주머니에서 꺼내(볼 100개면 신주머니 1/3정도임) 그 자리에서 드라이버 100개를 두드린다.

처음엔 250야드 근처에서 대충 80개쯤 찾고 한 달 후엔 100개 거의 전부 한 자리에 다 모일 정도로 실력을 닦게 된다.

물론 드라이버 떨어진 자리에서 아이언으로 세컨 샷을 날리고 그 다음 그 자리에서 그린 근처까지 붙이는 샷을 연습하니 하루 아침 혼자 50홀, 100홀을 돌게 되는 것이고 30년 전에는 다 마치고 8시쯤 돌아갈 때까지도 사무실 직원도 없고 문도 잠겨 있고 필드엔 물론 개미 한 마리도 없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출근하면 아무도 내가 밤, 새벽에 무엇을 한지 모른다.

지금 같으면 택도 없는 이야기다.

새벽 골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듬해 봄 의기양양하게 김태웅 전무에게 골프치자 하여 70대 초반을 치고 완벽한 폼에 장타까지 날리니 그 사람이 질려서 하는 말이

“너 장사 안하고 매일 골프장에 살았구나”

하고 야단이 났고 그것이 대구에 소문이 나서 아버지 귀에 들어가게 되어 골프를 거의 때려치우게 된 적이 있다.

그때 이후 내게 소문은

“저 자식은 한 번 한다 하면 하는 놈이다” 라고

어른들의 술자리에서 회자되곤 하였다.

백선여섯 번째 만남 _ 2008. 4. 21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는 건축가 루이스 칸의 국회의사당이 유명하다.

루이스 칸이 건축설계 제안을 받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산 대리석으로 그 나라에 익숙한 건물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인터뷰한 것이 기억난다.

그 나라 국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이고 해마다 갠지스강 범람으로 수백만 이재민이 발생하는 인도 아시아의 중간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행복 지수는 언제나 세계 1등,

종교란 참 무섭다.

그 나라 사람의 꿈은 앞바다 벵골만에서 기름이 철철 넘칠 땅을 가지고 있기에 행복하단다.

벵골만은 실제로 대륙붕으로 형성되어 유전이 발견될 수 있는 지형이다.

그 나라에 25년 전 무역 사절단으로 갔다가 골프장에 가니 남자 캐디가 나에게 5명이 붙는다.

골프백 매는 사람, 볼 칠 때 뒤에서 날아가는 방향 봐주는 사람, 떨어진 볼 찾는 사람, 골프 중 서너번 스콜(열대성 집중호우)에 우산 받쳐 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연못(비가 많아 한 홀당 웅덩이가 수백 개)에 빠진 볼 수영복 입고 찾아주기 위해 따라오는 사람이다.

내가 5명 데리고 다니니 24명이 한 조가 되어 함께 코스를 도는 진풍경이 발생한다.

난생 처음 겪는 시장 바닥 같은 골프를 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나라 대통령은 그 당시 10개월은 외국에 원조나 수재민 의연금 받으러 다니고 우기가 아닌 건기에는 2개월 간 프랑스에 유학하는 자식들 만나러 가서 초호화판 휴가를 즐기고 온답니다.

백선일곱 번째 만남 _ 2008. 4. 22

지금 北京 가는 비행기 속이다.

올해 들어 오사가 4회, 북경 6회, 러시아, 몽골, 캄보디아 등 4월 20일까지 海外 출장 12회째이다.

거의 매주 외국행인 셈이다.

오늘까지 대한항공 1,615회 1,617,998Miles, 아시아나 882회

902,918Miles로 합계 2,497회 2,520,916Miles이다.

1년에 30~40회정도이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국 출장 횟수가 많은 사내일 것이다.

그 중에 연간 30~40회 서울 예술 문화 공연을 참관하게 되니 정작 大邱에 머무는 날은 이틀 정도이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浦項을 다녀온다.

그러는 저녁에는 거의 매일 폭탄주나 와인을 젊은이들과(특히 젊은 여자들) 마셔댄다.

이렇게 놀라운 기동력의 원천은 40년째 살고 있는 山格洞의 위치이다.

우선 회사는 출근시간을 피하면 신천대로로 20분에 회사에 도착한다.

동대구역까지 10분이면 KTX표를 기사들이 발권해 준다.

동춘 비행장까지도 10분이면 만사 OK

포항 공장까지도 집에서 1시간 10분

김해공항까지도 집에서 1시간 10분

회사 출근하면 퇴근시간까지 초긴장의 연속으로 조수영 비서는 녹초가 된다.

박대환 사장은 항상 결재 대기 상태다.

거기다 틈만 나면 3층에 내려가 2시간 정도 운동해야 한다.

저녁에 폭탄주 마셔야 하기 때문에.

나의 평균 수명이 120세 정도라니 앞으로 60년을 이짓 해야 한다.

법인회사 9개, 종업원 한국 600명, 중국 400명, 외형 6,000억

이것이 현 TC이다.

올해는 대구 공장 크기의 신설공장을 8개 정도 짓고 있는 중이다.

참 시쳇말로 X나게 바쁘다 바빠.

이거야말로 시간을 아껴 쓰는 게 아니고 갈아 마시는 셈이다.

그런데 국가가 처음으로 나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전국 400명 상공인 중 CIP(Commercially Important Person) LOUNGE CARD를 발급받고 요즘 공항에서 수행인 2명까지 초스피드 귀빈 대접을 받고 있다.

대구에는 누가 CIP가 된지도 모른다.

자존심 때문에 서로가 얘기 안 한다.

부산 기업인은 18명 뿐이란단.

내 친구 그 유명한 상공회의소 회장인 신정택도 발급받지 못했더니 大邱는 2, 3명 정도 될까 말까?

비로소 새 정부 들어서서 40년간 세금을 많이 내고 국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몸을 불사르고 있는 내게 이런 영광이 있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 같은 애사정신이 오늘날 우리 TC를 있게 했고 우리는 더욱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리고 숨어서 새벽밥 챙겨주고 술 먹고 일어나지 못하는 날 깨워주는 아내가 있어 행복하다.

1885년 2월 2일 당시 69세이던 독일 수상 비스마르크는 제국의회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사는 한 배운다. 나는 오늘도 배우고 있다.”

백신여덟 번째 만남 _ 2008. 4. 23

기업의 성공의 열쇠는 헌신적인 직원들이다.

그중 앞서가는 임원은 내부 승진자로서 배돌암 사장, 남익현 전무, 이성진 상무 등이고 외부 영입자로는 박대환 사장, 주영춘 상무 등이 있다. 나머지 임원들도 이 회사와 운명을 함께 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임원이 있다면 결코 우리 직원들이 좌시 않는 회사로 만드는 것이 우리회사가 가야 할 책무로서 우리 임원은 다음의 이것들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먼저 인간 중시 경영이다.

즉, 사람의 마음을 얻고, 움직이고, 능력을 개발하고, 숨은 힘이 용솟음 치게 하는 인사관리, 리더십, 기업 문화가 있어야겠다.

둘째 목표, 목표설정, 목표달성의 의지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구성원들의 의욕이 넘치도록 경영자가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매진한다면 성공확률이 높아져 그것을 기준으로 업적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어야 함은 경영의 기본이다.

끝으로 집중 또는 몰두로 일과 자신이 하나가 될 정도로 몰두하면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되고 이로써 수준 높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또 집중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으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그리고 정확히 현실세계를 관찰한 다음 합리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위에 모든 것은 이미 지난 성현들의 가르침이었고 그것을 좀 더 실천하고자 한다면 『시크릿』을 다시 읽어봐야 한다.

“행하는 자 이루고 가는 자 달는다”

이것은 호암 이병철의 말이다.

백신아홉 번째 만남 _ 2008. 4. 24

파키스탄에 30년 전에 무역사절단으로 갔을 때 그 나라 상공장관 초청 저녁 파티가 있었다.

마침 상공장관은 한국에 급히 갔기에 장관 부인과 여동생이 호스트가 되어 저녁 파티를 하는데 닭살을 다듬어 하룻동안 레몬에 담갔다가 양념 고추장을 바른 후 숯불에 구운 닭고기 맛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별미였다.

그 나라도 회교국 중 음주, 간음, 간통 죄가 무섭다기 보다 살벌하단다.

매년 1명씩 시장에서 관중이 보는 앞에 범법자의 손가락을 자른단다.

그런데 내 앞에 앉은 장관부인 여동생이 너무 이쁘다.

부토 여사보다 이목구비가 확연히 틀리고 제법 볼룩한 곳도 있다.

이래저래 망설이다 식탁 밑으로 손을 살며시 잡았더니 자기도 얼굴을 붉히며 가만히 있는 품이 싫지 않은 모양이다.

그 후 손가락 잘리는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닌 美人이라 여러 각도로 전화도 초청장도 보냈으나 오리무중 참 안타까웠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석류 주스(지금까지 본 석류 중 가장 크고 달고 맛있었음)를 마셨더니 얼굴이 별경게 취하기 시작했다.

술을 못 먹게 하는 나라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상사 직원에 물으니 웃으며 이 나라는 과일을 삭혀서 주스로 먹는데 거의 포도주 수준의 알코올이란다.

그리고 술도 여자도 밖에선 안되니 집에 술을 담아 친척끼리 돌아가며 먹고 마시니 자연 근친상간이 잦게 된단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 신을 속이는 모순 속에 살더라.

종교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생각해본다.

나의 학문적인 결과물은 대학의 학사다.

30년 전 조호철 박사에게 학구적인 볼륨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 석사, 박사를 한 번 시도해 볼까 하고 상의했더니 본인은 나에게 극구 말리면서 내면의 세계를 더 키우라고 충고해 준 것 때문에 지금까지 학사학위 밖에 없고 또 그것의 열등감이 내게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것에 몰입하여 닥치는 대로 공부하게 하였다.

이번에 첫째로(한국에서는) 언스트&영 한국 최고기업가를 선정하는데 한영회계법인의 초대로(대구사람은 나혼자 참석) 정장에 나비 넥타이를 매고 참석하게 되었다.

최고 마스터상 수상은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 회장이었고 IT텔레콤 부문은 김신배 SK텔 사장이었고, 소비재 부문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금융서비스 부문은 라웅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라이징 스타 부문은 박상환 하나투어 회장이 수상하게 되었다.

모두 기라성 같은 자기 분야의 업적을 남긴 분들이었다.

향후 이 상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명예로운 상이 될지 또 여타 다른 종류의 상과 동격이 될지는 주최측의 문제다.

상은 누구나 다 받고 싶어한다.

나는 국민학교 때 줄곧 4학년까지 전교 수석상을 받은 이후 인생에서 한번도 없다가 몇 년 전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문제는 상을 받은 후 그 상에 버금가는 처신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의 격이 떨어지고 돈이나 권력에 의해 상이 매수되기도 한다.

한국의 대부분의 상들이 먹이사슬과 연결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다.

노벨상이라도 거절할 줄 알 때 진정한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노벨상도 권력을 이용해 받은 사람도 있으니 말이다.

25년 전 서남아시아 무역 사절단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하니 종합상사 직원이 안내를 한다.

마침 내 가방 열쇠를 잊었다고 이런 일은 평생 처음이라며 투덜대니 걱정 말란다. 이 나라는 항상 텅기에 잘 잊어버리는 국민이고 100m 간격으로 열쇠 수리공이 즐비하단다.

그런데 정말 많아 가방 키를 다시 만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저 운전기사 보고 내가 앞서서 가는 장소를 알려 주었는데 도착할 때까지 서너번 목적지를 되묻는단다.

정말 기사가 몇 번 다시 물어보더라. 태양이 너무 뜨거워 머리를 굴리면 덥단다. 내참. 그런데 식당에는 일하는 여자는 눈 닦고 봐도 없다. 회교 국가라 여자는 남자 앞에 서질 못하단다.

그래서 상사 직원이 그 나라에 주택을 갖게 되면 보통 남자 식모가 5명이나 된단다. 그러니 그 사모님은 더워 불편함도 있지만 남편 출근하면 여왕이 된단다.

밥하는 사람, 애보는 사람, 집안 청소하는 사람, 마당 청소하는 사람, 집 지키는 사람, 부채 부쳐주는 사람, 다 합쳐도 한 달 봉급이 100불이 되지 않는단다.

어느 날 집 주인이 출근하며 마당의 개똥을 치우라고 집안 청소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후 점심 때 점심 먹으라(혹시 지 마누라 바람 피울까봐?)

집에 와 보니 똥도 그대로고 이야기한 집 청소하는 놈 찾으니 없다.

한참 욕을 하고 있는데 그 놈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오길래 나무랐더니 그 길로 자기는 마당 청소하는 놈 찾아 다녔는데 못 찾았단다.

나라마다 종교와 문화가 틀리니 온갖 재미난 일들을 여행 중 종종 보고 느끼게 된다.

백예순두 번째 만남 _ 2008. 4. 29

이번에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우리나라 전통음악에는 **성악**(판소리 등), **기악**(가야금 등), **무용**(살풀이 등)이 있다. **전통음악 중 성악에는 궁중악과 민속악이 있다.**

궁중음악은 1116년 고려 예종 때 송나라에서 아악기들이 들어오면서 아악이라는 음악이 조선조까지 이어져 오는데 왕을 중심으로 선비, 귀족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가곡은 선비와 중인계급이 모여 시를 노래하는 음악으로 가야금, 피리, 대금, 해금, 장구의 반주를 수반하는 음악이다.

시조는 3장 형식으로 누구나 시나 노래를 알면 부를 수 있고 대금과 장구로 가능한 음악이다.

가사는 12곡이 있는데 창법이 시조나 가곡보다 다양하며 자유스럽다.

그리고 민속악은 전통 대중음악으로 민속, 민중, 대중음악이라 하며

종류에는 **판소리**와 민요가 있는데 그것들은 지역에 따라 분류된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판소리는 원래 12바탕이었으나 지금은 5바탕이 전승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춘향가**(완창 7시간 정도), **심청가**(4시간 30분), **홍보가**(2시간 30분), **수궁가**(별주부가 3시간), **적벽가**(3시간 30분)가 있다. 그 판소리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서편제(전라도 지역), 동편제(경상도 지역), 중고제(충청도 지역)로 나누어져 지역에 따라 노래 색깔의 차이가 있다. 민속악 중 **민요**도 지역에 따라 구분이 되며 경기민요(서울중심), 서도민요(강원도, 함경도 중심), 남도민요(전라도 중심), 제주민요 등으로 구분되어 전승 되어진다.

경기민요에는 「창부타령」, 「노래가락」이 있고 서도민요에는 「정선아리랑」, 「강원도아리랑」, 「한오백년」 등이 있고 남도민요에는 「육자배기」, 「흥타령」, 「보름(탐돌이)」, 「새타령」 등의 노래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한국 성악가 중 정마리, 박민희는 정가 쪽이고, 이희문은 경기민요 쪽이고, 안이호는 동편제, 정은혜는 서편제의 판소리를 부른다.

여러분 언젠가 이 분들을 모시고 새로운 강당이 리모델링되어 완공되면 초청해서 국악공부를 해보자.

국 악	성악	궁중악 (정가)	가사
			가곡
			시조
		민속악	판소리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 적벽가
		민요	경기민요(창부타령, 노래가락)
			서도민요(정선아리랑, 강원도아리랑, 한오백년)
			남도민요(육자배기, 흥타령, 보름, 새타령)
기악	무용	제주민요	

백예순세 번째 만남 _ 2008. 4. 30

1985년 1월경 아버지께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간으로 전이가 되었기에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오래 사셔야 6개월 정도란 진단을 내린 상태였다.

나로선 그 당시 장남으로서 다하지 못한 직분에 형언할 수 없는 막막한 심정이었다.

우선 마음을 정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하였다.

저녁 늦게 술을 먹는 것을 삼가(특히 기생집 출입)하고 운동을 하기 위해 大邱에서 헬스클럽을 찾았더니 그 당시 유일하게 정우맨션에 딸린 수영장과 간이 헬스클럽이 있어 등록하고 열심히 혼자 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영장을 경영하는 여자주인(유부녀)이 날 짝사랑하게 되었고

내가 수영장 여자 코치와 다정하게 운동하니 질투가 나 우리 마누라한테 고자질하게 되어 여러가지로 곤혹을 치루게 되었다.

어쨌든 그때 이후로 20년간 줄곧 기구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비과학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심장을 다치게 된다.

도재욱 내과에 상의를 했더니 동산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김권배 박사를 소개받아 진단 결과로 심장에 무리가 왔으니 운동을 중단하고 약을 주며 조심하란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 컸었다.

그러면서(본인은 담배를 물고) 나에게 이 기회에 **“담배를 끊으시죠”**라고

충고를 하게 되었고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이후 지금까지 나는 담배를

한 모금도 빨지 않게 되었다.

그 당시 담배는 20년간 하루 2갑 술 먹을 때는 3갑 정도로 땡 골초였다.

담배를 못 끊는 친구들이 날 놀린다.

저 자식은 담배를 끊다니 **지독한 놈이다** 라고.

그 소리 듣기 싫어 나는 친구에게

“아니야 난 담배를 원래 좋아하지 않았는 거 같아.

너무 쉽게 끊게 되었어.”

그러니 그 친구는 그러면 그렇지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쉬운 것 아니야라며 담배 못 끊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더라.

나는 의지가 강하다.

의식의 세계에서는 강한 의지로 담배를 끊고 살았지만 무의식의 세계에선 담배를 피우게 되고 그 꿈속에 내 자신을 질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꿈을 꾸는 것은 역시 의식과 무의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내 자신을 간혹 발견하는 것 같아 더욱 채찍질로 금연의 의지를 실천했다.

이제는 완성단계의 20년을 훌쩍 넘기게 되었고 MRI촬영 결과

심장과 기관지(허파)는 보석처럼 맑고 투명하단다.

이제 우리회사에도 금연운동이 시작된다 하여 나의 경험을 몇 자 적어 보았다.

배돌암 사장도 점점 금연이 완성되어 간단다.

돈 준다는 약속은 속 쓰리지만 그보다 더 큰 우리 임원들의 금연이 확산되기 시작한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까.

덤으로 나는 특별한 정신적 의지가 강한 사람인지 마약이 전혀 듣지 않는다.

마리화나를 옛날에 몇 번 시도를 해봐도 소용없었고 마취 주사를 맞아도 남보다 일찍 원상회복되어 수술 때 애를 먹는 적이 많았다.

1985년 5월 13일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다.

그 어른은 돌아가시면서 내게 금연이란 선물을 주고 가셨다.



백예순네 번째 만남 _ 2008. 5. 2

나의 취미 중 육상사진 촬영은 30년 경륜과 수중사진 촬영은 15년 경륜을 가지고 있다.

수상 경력은 국내전에는 75년부터 경북도전에 입선, 특선, 79년 국전에 입선, 81년 대구직할시 미술대전 특선, 87년 대한민국 사진전람회 입선과 개인전이 몇 번 서울, 대구, 캐나다에서 이루어졌고 수중사진전은 전국 최초로 90년 서울갤러리, 대구 동아쇼핑에서 그 후 포스코 갤러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96년에 있었다.

국제전은 18개국 189점이 입선, 입상하게 된다.

위의 내용은 나의 사진집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나의 취미 중 가장 오랜 시간을 사용한 것이 촬영이었고

이것이 나의 미학의 세계에 완성도를 높여준다.

국내전보다 국제전 수상 경력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 모든 상은 먹이 사슬에 의해 권위를 상실한 상들이 전부에 해당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전에 도전하여 나의 최고상은 영국 에딘버러 엑스비전(200년 전통)에서 은상을 받은 것이고 촬영 내용은 용평스키장에서 눈이 날리는데 넘어진 딸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는 어머니의 사진이었다. 그 당시 컬러사진이었으나 이제 퇴색되어 흔적도 없어진 필름만 가지고 있다.

그때 잘 나가던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에게 자랑했더니 자기의 용평스키장 사진이라 사겠다고 서의규 씨에게 교섭이 들어와 1억 원을 달랬더니 깜깜 무소식이더라.

그런 나의 사진 촬영은 똑 짧은 지 15년이 흘렀지만 이제 나의 예술 세계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어릴 때 좋아했던 영화배우 제임스 딘은 1955년 9월 30일 LA →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자기가 사랑한 이태리車 포르쉐를 몰다가 정면충돌로 24세에 사망하게 된다.

그 사람이 남긴 영화 『이유없는 반항』, 『에텐의 동쪽』, 『자이언트』는 불멸의 영화이다.

제임스 딘은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해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갔다.

여러분도 어디 한 번 인생에서 매달릴 곳을 찾아라.

그리고 그곳에 내일 죽을 것처럼 영혼을 불태워라.

활활.

백예순다섯 번째 만남 _ 2008. 5. 6

샘쫓는 작품의 영감을 일으키게 한 피카소의 여인들을 소개하겠다.

생전 피카소는 4만 5천 점의 작품을 남겼다.

그중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작품은 여성과의 사랑을 통해 탄생한 것이다.

파블로 피카소는 그림, 도예, 조각, 판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한 20세기 최고의 예술가다.

그의 천재성이 추앙을 받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적 업적을 이룬 피카소는 사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생전에 두 번 결혼했지만 피카소는 결혼에 만족하지 않고 공식적인

여인을 곁에 두었다. 그뿐 아니라 피카소는 생업을 통해 많은 여성을

유혹했고 그 여성들과 더불어 작품세계가 다양해졌다.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피카소의 첫 여인 **페르낭드**

열네살 때 정부를 두었을 정도로 일찍 성에 눈을 뜬 피카소는 고향

스페인을 떠나 파리에서 활동할 때는 작업을 같이하던 모델들과

문란한 성생활을 즐겼다.

그림과 섹스로 일관된 생활을 즐기고 있던 청춘시절 피카소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

피카소가 첫 번째로 사랑한 여인 페르낭드다.

피카소는 누드모델이었던 그녀를 집안에만 두고 싶어 했다.

외출이나 쇼핑도 하지 못하게 했다.

다른 사람이 그녀를 소유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었을 정도였다.

피카소는 사랑의 여신 페르낭드와 8년 동안이나 동거했다.

피카소는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한편으로는

페르낭드가 다른 남자와 도망을 가자 해방감을 느낀다.

귀족적 아름다움, 첫 아내 **올가**

페르낭드와 헤어져 많은 여자에게서 위안을 찾고 있던 피카소에게

러시아 발레리나 올가 코클라프가 나타난다.

하지만 귀족 혈통, 화려한 사교계의 인맥을 가진 그녀를 유혹하기란

쉽지 않았다.

올가는 피카소의 명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에는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피카소는 그녀를 갖고자 결혼을 한다. 하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다른 여자에 대한 피카소의 관심이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올가는 피카소의 과거 여인들을 질투해 피카소를 자유분방한

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애쓴다.

결국 올가는 아들 파올로의 출산으로 말미암아 피카소의 성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만다.

그들의 결혼생활은 파경으로 치달았고 올가의 빈자리를 채워준

여인이 마리 테레즈다.

순정으로 가득한 열일곱, **마리 테레즈**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열일곱 살의 마리 테레즈 발터를 보고 피카소는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어린 마리 테레즈는 피카소가 누구인지 몰랐다.

여섯 달이나 피카소를 피해 다녔지만 집요한 피카소의 애정 공략에

마리 테레즈는 열여덟이 되는 생일날 그와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게

된다.

피카소는 마리 테레즈와의 사랑을 아내 올가 모르게 8년 동안이나

키워나갔다. 하지만 그녀와의 사이에 딸을 출산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들통이 난다.

이때부터 올가와 피카소는 별거에 들어가고 피카소는 올가와 이혼하고 싶었지만 위자료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마리 테레즈와 동거한다.

30년 연상의 연인 피카소를 마리 테레즈는 독점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소유하길 원하면서도 자신에게 전부를 건 마리에게 지루함을 느꼈다. 마리가 아이를 출산하는 사이 열정이 식어버린 피카소는 다른 여인을 만난다.

화가이자 사진작가였던 도라 마르다.

청춘을 느꼈던, **도라 마르**

스페인어가 능숙한 스물여덟 살의 도라 마르는 사진작가 조르주 바타이유의 정부였지만 피카소는 상관하지 않고 사랑을 진전시킨다. 도라 마르는 열정적인 피카소와 사랑에 빠진다.

피카소는 젊은 여인을 곁에 둬으로써 자신의 젊음이 유지된다고 생각했다. 도라 마르를 만나 사랑에 빠진 피카소는 다시 청춘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도라 마르와 마리 테레즈는 피카소를 차지하려고 싸웠지만 두 사람을 좋아했던 피카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두 사람은 피카소 곁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자신을 버린 유일한 여인, **프랑수아 지로**

그림에 대한 열정이 멈출 줄 몰랐던 것처럼 섹스에 대한 그의 생각도 멈추지 않았다.

공식적인 정부가 돌이면서도 피카소는 다른 모델들과 관계를 맺는다. 피카소의 섹스에 대한 탐닉은 시간이 갈수록 도를 더해 갔다.

그의 명성에 비례해서 젊은 여자들을 원하는 횟수도 늘어났다.

그 여인들에게서 피카소는 청춘을 느꼈던 것이다.

올가, 마리, 도라 이 복잡한 관계의 중심에 서 있던 피카소에게

새로운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프랑수아 지로다.

다른 여인들처럼 자립심이 강한 그녀였지만 피카소의 유혹은 집요했다.

만난지 3년 만에 동거에 들어갔지만 그녀는 피카소를 불신했다. 피카소를 소유하려면 아이를 갖는 일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프랑수와 지로는 두 아이를 낳는다.

하지만 그녀는 딸을 낳고 피카소가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을 느껴 스스로 피카소를 떠나버린다.

마지막 여인, **자클린 로크**

독점욕이 강한 자클린은 1961년 일흔아홉의 피카소와의 결혼을 계기로 피카소와 다른 여인들과의 만남을 통제했다.

피카소를 사랑한 여인들은 그가 떠났어도 그의 곁에 머물기를 희망했었다. 피카소가 죽은 후 마리 테레즈는 목을 매어 자살을 했고 자클린도 권총으로 자살한다.

파블로 피카소(1881~1973)는 천부적인 재능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갔다.

고정적인 틀을 깨고 무한한 창작의 자유를 보여준 것이다.

정상의 자리에 있어도 완성이 없는 작품 세계는 그를 긴장시켰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것이었다.

여러분 피카소도 여자를 만나다 갔다.

나도 여자를 만나다 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다.



백예순여섯 번째 만남 _ 2008. 5. 7

나에겐 못한 형제들이 있는데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61살(환갑)이 되어서 대련의 중국 조선소에서 간부로 근무하게 됐단 소식 듣고 참으로 반가웠다.

그는 현대조선 선각설계과 부장까지 근무를 끝으로 우리회사에 왔다. 처음 임원회의에서 그는 새로운 사업에 심사숙고 회의를 거듭하는 걸 보고 그가 하는 말이

“이 회사는 정주영 스타일이 아니고 이병철 스타일이구먼”
라며 자기 생각만 주장한다.

그때 나는 분명히 말한 적이 있다.

“이 회사는 정주영이도 아니고 이병철이도 아니고 나 유재성 회사다” 라고.

그는 선박에 관한 한 20년 경험을 갖고 있기에 우리회사 어떤 임원보다 철강영업에 관한 한 창조적이다.

현재 티시테크도 그 사람의 발상이었고 티시알도 그 사람 아이디어였다.

그런 그 사람을 이 회사에서 내친 것은 회사방향의 중심이 바로써야 한다는 나의 소신이다.

물론 그 사람이 우리회사에서 일한다면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또한 창조적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임원 중에도 책임지지 않을 임원도 있다.

그 사람이 이제 다행이다 싶더니 또 문제가 있는 형제가 있단다.

사람이 살면서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나.

회사에서 임직원과 친인척과 형제 자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끔히 하자니 비인간적이란 소릴 들겠고 그렇지 않게 하려니 1,000명 거느린 두목으로서 직분을 생각하면 정신이 확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만약 신이 계신다면 나의 인생도 큰 복도 큰 불행도 아니었으면 빌고 싶은 마음이다.

그리고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제발 제자리에 서 주었으면 하는 간곡한 심정이다.

167

백예순일곱 번째 만남 _ 2008. 5. 8

여러분 월드컵 4강 시합 때 우리나라의 히딩크 감독이 훌쩍 뛰며 팔을 치켜올릴 때 휘날리던 벡타이 생각이 나는가요.
그 벡타이를 디자인한 이경순 사장은 우리나라 스카프, 벡타이 디자이너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VIP 전부가 그녀의 코디로 의상을 걸치게 된다는 평이 나옵니다.
그녀가 저녁때 자기 친구와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데 옆에 중2 정도의 여학생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曰할
“그래 말이야, 그년이 미친년이지 그게 인간이냐 말이다.
아침에 등교하는 나에게 밥도 해주지 않고 눈비비고 나오며
100,000원 주며 아침밥 사먹어라나.
지는 술먹고 새벽에 들어와서 실컷 자고 밥해주기 싫으니 내게 돈 듬뿍 줘주더라 말이다”
“그래 니네 엄마 미친년이다.
그런데 우리엄마도 똑같은”
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정신없어 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슬며시 나가더니 한참 있어도 오지 않아 밖에 나가보니 화장실에서 울고 있더라입니다.
“너 왜 이러니”하고 물었더니
“미안해, 나도 오늘 아침 딸에게 밥해주지 않았어”

하더라고 내게 이야기해주며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문에 초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했던 기사를 읽고난 어른들은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가리라 언명했답니다.

이게 우리 어른들이지요.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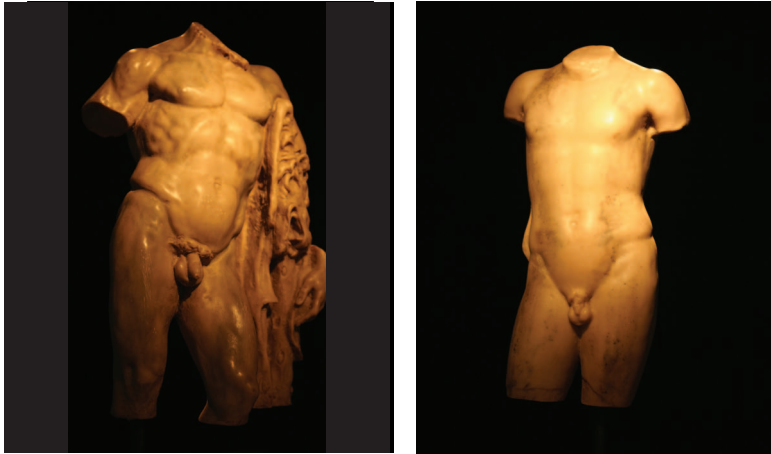
여러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머니나 마누라에게 꼭 아침밥 챙겨 드세요.

정말이지 이것만은 저는 행복하다고 자부합니다.

168

백예순여덟 번째 만남 _ 2008. 5. 9

어떤 이는 내게 멘토가 되어 달라느니
또는 내가 그이의 멘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아왔는데
진정 나는 언젠가 모든 사람의 구루가 되고 싶다.



백예순아홉 번째 만남 _ 2008. 5. 13

토르소(Torso)란 목, 팔, 다리 등이 없는 몸체 만의 조각작품을 일컫는 말이다.

이태리 말로는 몸체(胴體)를 뜻하는 조각용어이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유적에서 발굴된 토르소가 조각으로서 미를 인정하게 된 것은 팔, 다리, 목이 없는 미완성이라도 인체미를 상상으로 더욱 강조하는 현대조각에서도 생략이 아닌 그 자체가 완성된 조각이 된 것이다.

그리고 회화에서도 쿠르베의 “세계의 기원”도 바로 토르소 형태의 그림이다. 나는 이것이 주는 인체미(人體美)가 너무 아름다워 이태리에서, 캄보디아에서 고가를 지불하고 사와 2층 갤러리에



전시하고 있다.(현재는 포항 페페에 전시)

그중 하나를 내가 좋아하는 분께 선물하게 되었다. 나는 그분이 받아 주시길래 밤잠을 자지 않고 즐거워했고 나중에 함께 미학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희망했는데 며칠 후 정중히 반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매우 당황했었다.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 비록 미학적인 요소가 강하더라도 자기 혼자 즐기는 것은 될지 몰라도 선물용으로는 상대방이 잘 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앞서 며칠간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 나이를 살면서 그래도 똑똑하다는 내가 실수를 하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언젠가 그분께 사과하는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해보며 마음을 달래고 있다.

백일흔 번째 만남 _ 2008. 5. 14

옛날에는 거짓말을 했는데 남들은 정말인 줄 알고
지금은 정말로 말했는데 거짓말 하는 줄 알더라.

170

백일흔한 번째 만남 _ 2008. 5. 15

우리 회사가 영원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 고민이고 나의 화두다.

세계의 영원한 기업이 있다! 없다!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단다.

1982년 톰 피터스와 워터만이 출간한 책에서 있다 했다가 1987년에
다시 쓴 책에서 없다고 했단다.

2001년 짐 콜린스가 쓴 책에 있다고 하니 2003년 피터스는 없다
하였단다.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부하들이 고민할 때
부하들에게

“반도체 사업을 안 하면 10년 후에 서서히 죽을 것이고 반도체 사업이 잘
못되면 5년 안에 죽을 것이다.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면 해보고 죽는 게 낫지 않겠나”

라고 했단다.

171

우리회사가 영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느냐
죽는다 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달라진다고 한다.

나는 톰 피터스가 이야기한 대로

“세상의 기업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영원하도록 노력할 수는 있다.”

를 곰곰이 생각하는 중이다.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절대 영원할 수 없고 생존 자체도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172

백일흔두 번째 만남 _ 2008. 5. 16

세상을 살면서 인간은 간혹 말을 실수하게 된다.

김대환 원장이 물에 빠져 아이를 잃게 되었을 때 그가 총무고 내가
공사회 회장이라 부인한테 위로의 말을 전화로 하게 되었다.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마음을 크게 먹고
잘 이기십시오”

라고 나오는데 무심코 말을 뱉게 되었다.

부인曰

“내게 이보다 더 큰 게 앞으로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40년 전 일이지만 지난번에 그 부인을 보니 또 생각한다.

말이란 한 번 뱉은 것을 담을 수가 없다.

이런 책이 있다.

『떠남과 만남』 구본형 지음 윤광준 사진 책이다.

요즘 5월 연휴라 책도 많이 읽어야 하겠지만 가족과 함께 위의 책을 읽고 전라남도 여행을 권하고 싶다.

구본형의 글솜씨가 탁월하다.

초판 서문 중에

“여행은 자유다. 그리고 일상是我们이 매여 있는 질서다.

질서에 지치면 자유를 찾아 떠나고 자유에 지치면 다시 질서로 되돌아 온다.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 매여있는 우리에게 여행은 늘 매력적인 것이며, 되돌아 올 수 있기 때문에 비장하지 않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인가.

그리고 저자의 주옥 같은 이야기가 이어진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진작가 윤광준의 중간중간 사진도 글과 안성맞춤인데 끝에 사진작가의 말에 이런 글이 실렸다.

“훌륭한 인생의 멘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적어도 나쁜 길로 빠져들 확률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내겐 두 사람의 멘토가 있다.

하나는 변신의 필요를 일깨워준 출발의 은인이고 다른 하나는 실행의 방법을 일러준 은인이다.

이 두 분 이름을 말해야 한다.

구본형 소장과 태창철강 유재성 회장이다.

선부른 존경을 표시하지 않았던 나는 이들을 진정한 스승으로 삼았다.

[중략]

스스로를 개척해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아름답다.

출발을 열어준 구본형과 이보다 먼저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보여준 유재성이 그랬다.

선행은 후학의 길을 제시해주어야 바른 도리다.

꿈이 현실로 바뀐다는 실제 사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길의 제시와 완성을 보여준 두 선행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다.”

이번 연휴 때 10일날은 북경에서 배 사장과 골프 친 후 오페라하우스에서 『나비부인』을 보고 다음날 서울에 와서 포이동 M에서 신술의 현대무용을 관람한 후 부처님 날은 대구에 와 회사에서 하루 종일 밀린 일을 정리한 후 이 글을 쓰고 있다. 참 내가 생각해도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안다. 책 속의 나의 글은 부끄럽지만 의무를 다해보겠다.

백일흔네 번째 만남 _ 2008. 5. 20

5월 15~16일 양일간 김정태 사장과 제40회 한일경제인회의에

(동경 근처 치바현 우라야스시) 다녀왔다.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에 태창철강은 20년 전쯤 가입하여 과거에는 돌아가신 조남필 사장과 다녔고 지금은 김정태 사장과 참석하고 있다.

한일협회에는 한국에는 110개 사가 가입되어 있다.

한국측 강연은 무역협회 이희범 회장이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한일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일본측은 일본경단련 부회장이며 스미모토 화학 사장 오네쿠라 히로사마의 발표가 있었다.

2007년 한일 무역액은 829억 달러였고 1965년 수교 당시 2억 달러에 비해 414배나 신장되었다.

일본은 한국에 세계에서 3위 수출국이고 2위 수입국이다.

한국은 일본에 세계에서 3위 수출국이고 6위 수입국이다.

일본의 한국투자 패턴은 1997년 외환 위기를 분기점으로 전기 전자,

기계, 섬유 금속 등 2차 산업에서 금융, 보험,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업, 문화, 오락, 통신, 도·소매업 등 3차 산업으로 투자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양국의 인적교류도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년 1만 명 정도였으나

2007년에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260만 명이고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220만 명으로 총 480만여 명이 교류되고 있다.

무역규모는 2007년에는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229억 달러이고

1965년 이후 누적 적자는 3,112억 달러로 지난해 한국의 총 외채액인 3,806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다.

동북아에서 한중일의 비중은 대단히 크다.

우리회사도 TC TECH를 중심으로 활발히 일본수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일협회에서 한일간 현안문제를 회의하지만 항상 일본측의 무성의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끝날 때는 항상 두리뭉실 발표하고 만다.

세계는 유럽 중심 EU와 중남미 중심 NAFTA와 동북아 중심

한중일이 단합하여 세계시장에 대응해야 하는데 일본이 주도권을

잡지 못할 것이며 향후 러시아 중국 한국이 중심이 될 것이다.

우리도 하루빨리 일본 기술을 전부 빼앗아 동북아 중심에 선 TC가 있어야 한다.

백일흔다섯 번째 만남 _ 2008. 5. 21

보통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저 놈은 별난 놈이야”

“유 회장은 연구 대상이야”

“저 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등등

나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보면 특별하지 않고 보통 사람이다.

내가 보통이라면 그 사람은 바보나 병신이 된다.

그러면 내가 병신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말인가.

보통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확보하고 위로하는데 능숙하다.

175

백일흔여섯 번째 만남 _ 2008. 5. 22

대구 부산 신 고속도로를 타면 나는 항상 기쁘다.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고속도로는 경주를(문화도시) 거쳐야 하고

울산을(산업도시) 거쳐서 부산에 도착하게 되어 대구서 부산은 두 시간

고속운행 되었다.

20년 전인가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하는데 건의사항이 없냐고

상공회의소 조사부장 서정형(亡)에게 전화가 왔다.

뽕족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내게 문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한테 대구 청도 삼랑진으로 이어지는 열차길로

고속도로를 건설해 달라고 부탁하게 했다.

그 친구가 지도를 보더니 기발한 아이디어다 라고 무릎을 치며 건의

1호로 상정하였고 그것이 대통령께서 즉석에서 건설장관에 지시하는

바람에 2년 전에 신 고속도로가 완공이 된다.

요즘 우리 집에서 김해공항까지 1시간 10분이다.

그래서 오사카, 북경을 밥 먹듯이 다니며 소시민의 아이디어도

국정에 반영될 수 있구나 생각하며 즐거이 다닌다.

거기다 CIP 카드 소지자라 공항에서도 극빈대우다.

이제 전국 600명 추가 모집한다니 박 터지게 생겼구나 하며

우리직원과 박 사장께 고마움을 드린다.

백일흔일곱 번째 만남 _ 2008. 5. 23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자주 다닌다.

북한의 나진 선봉지역과 중국의 훈춘 지역과 러시아의 하산 지역이 각각 국경선 근처의 주요 거점 지역이다.

남북통일의 조짐 중 경제 개통이 먼저 북한과 소통되었을 때 철도 수송이 가능한 통과지역이다.

훈춘을 통하여 철도 운송이 중국 대륙을 누빌 수 있고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된다.

하산을 통하면 시베리아를 거쳐 영국까지 철도 운송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역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한국이 다 부담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답답할 것도 없고 오히려 느긋하다.

일본을 제끼고 우리가 빨리 서둘러야 할 주요거점이다.

178

백일흔여덟 번째 만남 _ 2008. 5. 26

이듬해 죽음을 예감한 전나무가 그해에 유난히 화려한 꽃을 피워내는 林學^{임학}적 현상으로 소멸의 공포와 생명의 그리움을 동시에 나타내는 아름다운 어휘의 말이 있는데 獨語^{독일말}로

앙스트 블루테(Angstblute)다.

71才의 투자 상담가인 주인공 파를폰 칸의 사랑과 욕망을 작자 마르틴 발저(81才)가 쓴 장편소설 책명이 『불안의 꽃』으로 번역되어 나왔다.

이번 스웨덴 여행에서 이 책을 읽으며 “케도 위를 달려가는 열차”라는 내 인생을 한 번 바라보고 싶다.

피터 드러커는

“나는 결코 예언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창밖을 내다보고 현실을 관찰하고 남들이 아직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을 파악할 뿐이다”

라고 말한다.

여행은 이래서 또한 인생을 더 넓게 가지는 것이 아닌가?

백일흔아홉 번째 만남 _ 2008. 5. 27

지금 전세계가 중국 때문에 난리다.

3년 전 NYT칼럼니스트가 쓴 “중국을 위한 기도문”을 소개하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중국지도자 후진타오 주석이 건강하게 중국의 은행시스템 구조조정과

막대한 부실 채권과 부패를 전세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제거하고,

과열된 중국 경제를 경기 침체 없이 진정시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부디 중국 지도자들이 120살까지 살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매년 9%

경제 성장률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아멘”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칼럼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아시아 주요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의 안정을

갈망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 외울 것이라는 “가상기도문”을

소개하면서

“이제 중국의 안정은 우리의 문제이며 전세계의 안정은 중국지도자에게 달려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 구매욕, 외자유치로 확보한

막대한 자본력에 점점 코가 꺾고 있다”면서 “중국의 거품이 터지면 이는

전세계 모든 거품이 함께 터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그렇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쓰촨성 지진이 빨리 마무리 되고 티벳 독립도

안정권을 찾고 북경 올림픽을 잘 치루어야 우리 TC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분!!

180

백여든 번째 만남 _ 2008. 5. 28

올 봄 세계경제포럼을 이재규 고문과 유지연 이사와 함께 다녀온 후

The 1st TC Leadership & Challenge Conference를 유지연 이사 주관하에 전 임직원이 참여 성대히 마치게 됨을 회장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며 참가자 노고를 한 번 더 치하합니다.

그런데 안내장에 CEO Message란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내가 쓴 글이 아니고 유지연 이사가 본 회장의 마음을 읽고 쓴 글이었으니까요.

“내 인생에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이 많았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직면함으로써 비로소 나라는 인간을 알게 되었다.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만들어진 인간이다.

부끄러움과 고통으로 새로 태어난 한 인간이다.

강한 부모님이 없었다면 나라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젊은 날의 아픈 좌절과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

나는 불태웠다.

179

내가 가진 유전인자 모두를,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 모두를 용광로
같이 활활 타는 내 의지 속에 집어던졌다.

너무나 처절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태우며 몸부림
쳤던 게 내 삶이었다.

2005년 12월 몽골에서 晟

여러분 내가 쓰는 1분 메시지를 여러분이 함께 해달라는 글이
아닙니다.

그 글은 여러분의 거울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느낀 그 컨퍼런스는 '아 이거 두목 만들기
대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임원은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적당히 얼버무리는 분도 계셨고
어떤 임원은 자신감 넘치는 비전과 철학을 제시한 임원도
계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통해 우리 직원들은 무서운 해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그날은 잠도 옹게 못 잘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결국 우리회사는 내부에서 전문 경영인이 탄생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회사 사장들도 社別 컨퍼런스를 열어주시어 회사의 연로를
여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폭군 유재성** 시대는 떠나서 성군의 시대가 와야
하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훌륭한 임금이란 백성이 볼 때 임금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임금이라 하였습니다.

나도 내 방에 “木鷄之德” 목계지덕이라 써놓고 자꾸 쳐다보지만 아직
다다르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여든한 번째 만남 _ 2008. 5. 29

얼마 전 서울 페스티벌 총감독을 맡아 성공적으로 치루어낸
현대무용가 안은미 선생 이야기를 하겠다.

2001년 5월경 신문을 보니 뉴욕에서 귀국한 안은미란 사람이
대구시립무용단 단장으로 발탁(그 당시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재직중인 김정길 씨가
초빙) 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그 당시 나운정 대리에게 지시해서 대구
도착하는 날 만나자는 제안을 하라 하였다.

나운정 대리가 서울까지 가서 섭외한 후 도착하는 첫날 저녁 프린스
호텔 일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때 머리를 뺏뺏 깎은 모습과 발랄하고 당당한 태도와 특출한
의상이 나의 눈에 띄게 되었다.

그리고 제안을 한 것은 大邸는 문화 예술의 불모지라 얼마 있지 않고

그만 두게 될 것이라고 호언을 하며 어려운 대구를 설명하면서 제발 대구에 머물러 달라고 사정하고는 활동비 조로 월 백만 원을 그만둘 때까지 드리겠다고 제안을 했었다.

그 후 본인 입으로 그 당시 나를 이상한 눈으로 봤다며 혹시 자기를 돈으로 매수하려는지 또는 욕심을 품은 기업인을 자칭한 날라리가 아닌가 의심하였ندا.

어쨌든 그 안은미가 대구 무용계를 발각 뒤집어 놓았고 서울을 들락거리며 한국 무용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빡빡 깎은 머리에 젓가슴을 다 내놓고 춤추기를 시작해 관객을 경악케 하였다.

우리 회사에서도 몇 차례 송년공연이 있었고 나의 환갑 잔치날에도 160쌍 동기생들을 우리회사 강당에서 홀랑벗고 즐겁게 해주었다. 대구에 있는 동안 독일 피나바우쉬 무용가도 우리회사를 방문케 하여 기념식수도 하고 가게 되었고, 그 덕분에 나도 현대무용공연이 있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서울, 대구, 외국을 헤매고 다니며 공부하게 되었다.

대구시립무용단장 직을 그만두고 독일로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회사 박대환 사장이 장학문화재단 돈 1억을 전별금으로 선뜻 내놓기도 했다.

LG아트홀에 다녀간 세계 무용단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나는 열심히 공연을 보러 다녔다.

이스라엘 바체바 댄스 컴퍼니,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 피나바우쉬 무용단 등을 내가 직접 보게 되었고 무용계의 선구자 이사도라 덩컨의 자서전도 읽고 공부하게 되었다.

5월 17일, 18일 성남 아트홀에서 네덜란드 댄스 컴퍼니 공연을 가자고 최근 “레이디 맥베스” 공연으로 “버자이너 모노로그”만큼 대히트를 친 연극인 서주희한테서 연락이 와 망설이고 있는 중에 글을 쓴다.

백여든두 번째 만남 _ 2008. 5. 30

최근 『인간의 미래』라는 책(라메즈 남 지음)을 임원들께 하나씩 나누어 주어 읽게 한 후 의견을 보고받고 있다.(본인들은 미칠 지경이었지만)

내가 읽은 책 중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 책이다.

얼마 전 이 책을 읽고 난 후 내가 남은 인생 60년이란 표현을 했다.

이 책을 읽고 더욱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정신연령을 불철주야 젊게 다듬고 있다.

2,000년 전 진시황은 불로 장생의 약을 구하러 신하를 동쪽으로 보냈으나 약 구하러 돌아다닌 사람들은 엄청난 운동으로 더 오래 살았고 오히려 진시황이 먼저 죽었다.

물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다.

여기 박대환 사장의 독후감을 소개하니 여러분도 사서 읽어주기 바란다.

『인간의 미래』를 읽고

2008. 5. 10 박대환

인류가 탄생 이후로부터 인간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려는 생각 이런 야망들이 모여서 오늘날의 인간으로 진화를 거듭했으리라.

이 책 “인간의 미래”를 읽고 불현듯 영생을 위해 불로초를 구하려 했던 진시황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우선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명공학의 발달로 유전자 손상에 의한 불치병 환자에게 정상적인 유전자 삽입에 의한 유전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준(1989년 아산티의 ADA 유전자 결함) 이후 이를 계기로 당뇨병, 빈혈, 종양, 비만 등에 유전자 치료의 길을 모색하고 있고, 더하여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근육 양을 늘리는 유전자 치료법에까지 나가고 있다.

유전자 치료 기술이 발달하면 질병치료와 신체개조가 가능해질 것이고, 이의 전망이 밝다고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인간 유전자의 변형은 자연의 섭리에 반한다거나, 유전자 치료법은 아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새롭고 익숙하지 않는 의료 기술들은 종종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 자주 사용하게 되면, 점차 익숙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수용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 왔다.

그러나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정신 상태를 컨트롤 하는 기술이 나오면 인간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나, 그럼에도 인간의 정신을 바꿔주는 약이나 유전자 치료법은 알츠하이머병, 노화 등 우리의 영원한 숙제 해결에는 밝은 전망이 될 것이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치료에 가장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유전자 치료법이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증후군 아이들의 경우와 우울증 경우에는 약물치료제 복용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다.

또한 인간의 뇌와 정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커다란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정상인들의 학습능력이나 집중력을 강화시킨다면 더 나은 기억력과 더 빠른 이해력을 지닌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더 많은 신약을 만들고, 더 좋은 건축물을 짓고, 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명공학에 의한 수혜로 인간 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정 수준 세계 모든 인류에게 수명이 현저하게 연장된 것은 또한 사실이다.

우리가 원하는 수명연장은 단순히 예전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인간계놈의 해독으로, 현재 출생 전 진단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질병 원인이 되는 유전자 수십 개 정도라 하지만, 언젠가는 태아가 지닌 3만 개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각 유전자의 기능을 알게 되면 부모는 태어날 아기의 외모나 지능 성격 같은 것에 대해 미리 감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이고 PGD(착상전 유전자 진단)에 의해 배아의 모든 유전자 스크린이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각각의 배아가 착상해 성장하면 이런 모습의 어린이가 되고, 성장한 다음엔 이런 모습의 어른이 됩니다”하고, 또 컴퓨터그래픽 사진도 곁들여 나온다면...

이목구비, 피부색, 머리카락, 지능수준, 성격, 질병확률 등이 유전자 조작에 의하여 선택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 배아가 많아질수록 선택의 폭도 늘어날 것이다.

클로닝(복제)은 이미 양, 소, 원숭이 등에서 성공했고 인간에게서도 성공했다는 발표는 있지만 확실치 않다.

클로닝은 도덕적 혐오감과 인간 본연의 “생식 존엄성”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많은 반대에 부딪쳐 있다.

유전자를 조작해 내가 바라는 아이를 원한다면 자칫 그 반대의 아이도

나올 수 있다.

인류에겐 물려줘야 할 “올바른 유전자가 있고 인간에겐 이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수많은 결정을 하므로 유전자 선택에 관한 결정도 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 설득력을 얻을지,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선호도도 다르다. 어찌 보면 인간의 신성불가침, 존엄성이 심히 훼손되는 것 같아 일면 걱정되기도 한다. 유전자 조작은 질병 치료를 한계로 하는 것이 최소한의 순리라는 생각이 든다.

뇌에 전극과 두뇌 칩을 사용하여 각종 기능을 보완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정신적 기능(기억력, 시력, 언어,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로봇팔다리를 사용하여 신체마비 환자의 운동능력을 회복시키고, 시각이미지와 소리를 뇌 속으로 보내 뇌로 소통하는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하니,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한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에 경의를 표할 뿐이다.

우리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며 그 세포는 단백질로 돼 있으며 단백질의 구조는 유전자에 의해 규명된다는 게 밝혀졌다. 또 뇌와 신경계가 뉴런이라는 특수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뉴런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메커니즘도 규명되어 거기서 얻은 정보로 질병치료에 응용되고 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체의 기능이나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고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 목전에 다가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이를 초월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에게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사를 통해 우리는 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능력을 획득해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됐고 정신적 육체적 능력은 이미 크게 확장돼 있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 더 나은 경지에 도달하려는 생각이 인류세계를 구축한 원동력이다.

“그만하면 됐다”고 말하기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욕망과 본성이 지속되는 한 100년 천년 또는 100만년 후의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 후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 있을지 모른다. 무엇보다 우리 후손들은 놀랄만한 다양성을 보일 것이고 실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명공학은 우리에게 사고력, 감각, 외모, 의사 소통력 등 어떤 면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빚어낼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그러나 시카고 대학의 생명윤리학 교수인 레온 카스가 2004년 부시대통령 생명윤리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유전자 조작 및 복제기술은 생명가치를 떨어뜨리고 부모자식간의 자연스런 관계를 붕괴시킨다”고 했으며 인간의 노화를 늦추는 것은, 나이드 사람들이 계속 권력에 집착하도록 만듦으로서 사회적 정체를 유발하고, 인간정신을 조작하는 기술은 빈부격차를 더욱 넓힐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어진 자연적 상태를 존중해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오만이다. 즉 생명공학적으로 심신을 바꾸는 것은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것이란 보고서 내용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만하다.

또한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질병치료와 기능강화를 명확히 구분하여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는 계속 권장하되, 기능 강화는 제한해야 한다. 자연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며 이를 간단히 바꾸거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별 있는 행동이다 라고 했다.

위의 윤리적이고 보수적인 두 사람의 견해와 달리 이 책에서는 인간의 능력 강화를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 치료와 능력 강화는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 치료, 심장병, 암 발병 억제 등 능력 억제연구를 중지하면 환자나 장애인 치료연구도 멈출 수밖에 없다.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정부의 통제하에서 능력강화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 한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잠재력을 넓히고 아이들에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길 원한다. 자신을 바꾸고 변혁해 개선하려는 충동은 우리가 지닌 특징의 하나다.

인간이란 종은 지금까지 늘 더 빠르게 더 건강하게 더 현명하게 더 오래 살 방법을 찾아왔다.

이제 생명과학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정신과 육체를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인간의 수명연장은 자연 섭리에 의한 방법 즉 필수영양소 섭취, 소식, 칼로리 제한, 운동 등을 통한 건강유지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수명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무턱대고 수명연장은 세대간 교체의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변화를 어렵게 함으로서 발전을 정체시키고 궁극적으로 세대간 갈등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단순히 몇 개의 유전자 조작을 받고 수명 연장의 축복을 받았으나, 나이를 먹어도 죽지 않고 쇠약해지고, 추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래도 죽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또한 유전자 조작에 의하여서는, 선택된 인간의 탄생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 선택의 폭도 늘어난다면, 그 선택된 아이는 인류가 탄생한 약 40억 년 전부터 전승되어온 나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나의 후손이라고 진정 말할 수 있을까.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한편 神은 또 다른 도전과 시련을 우리에게 안겨 줄 것 같아 두렵다. 끝.

백여든세 번째 만남 _ 2008. 6. 2

최근 1년 동안 오페라에 몰입하고 있다.
요즘은 오페라에 물미가 툭기 시작한다.
결론은 역시 보고 듣고 읽는 것 외에는 없다.
우리 함께 공부해 보자. 오페라!

간주곡(間奏曲-Intermezzo)은 오페라 막간 제2막이 시작되기 전에 연주하는 곡으로 비제의 카르멘 간주곡이 유명하다.

리허설이란 작품 공연 전에 준비 연습하는 것인데 나는 공연자 측에 양해를 구해 이것을 즐겨 보고 난 후 저녁엔 지친 성악가들에게 밥 사주고 술 사주며 한 수 배운다.

마에스트로(Maestro) 정명훈 어찌구 저찌구도 위대한 음악가, 지휘자, 연주가, 작곡가를 일컬어 마에스트로 ○○○라 부른다.

메짜보체(Mezzavoice)란 음량을 억제하여 부드럽고 기쁘고 높은 기교의 음을 내는 기술로 몽세라 카바예의 투란도트 중 류의 『님이여 들으소서』가 너무나무 유명한 메짜보체이고, 영국 웨일스의 남자 브린 터펠(Bryn Terfel)의 돈 조반니 역에서 뱃심에서 우러나오는 메짜보체 소리도 대단하여 바람둥이 돈 조반니가 밋게 보이지 않는다.

벨칸토(Belcanto)란 18C 이태리에서 성립된 가창법으로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아름다운 소리로 대표적인 가수는 **쥬세페 디 스테파노**가 있다.

사실은 스테파노와 파바로티가 올해 함께 죽었지만 성악가로서는 스테파노가 파바로티보다도 몇 수 위다.

서곡(Overture)이란 오페라나 오라트리오 도입부에 사용하는 관현악곡을 말한다.

아리아(Aria)란 본래 노래란 뜻으로 성악가들의 오케스트라 반주가 수반되는 독창곡을 말하는데 대부분 비기너들은 이 아리아만 들으러 가는 경향이 많다.

앙상블(Ensemble)이란 이중창, 삼중창, 사중창 등 합창을 수반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관용어로 사용할 때는 발란스나 통일성을 말하므로 잘 구분해야 한다.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효대에서 하대웅 교수 연출로 우리누나가 출연한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가 나의 영혼 속에 깊이 간직된 합창곡이다.

칸초네(Canzone)란 작은노래 민요란 뜻으로 요즘은 이태리 파퓰러(popular) 송을 말하지만 오페라에선 **피가로의 결혼** 중 『사랑이 어떤 것인지...』나 **리골레토**의 『여자의 마음』, **오텔로**의 『버들의 노래』 등 가볍고 작은 아리아를 말하기도 한다.

자, 이쯤하고 우리나라가 요즘 오페라하우스를 한강에 프랑스 **장 누벨** 설계에 의해 **이명박 시장** 시절에 짓기로 한 것을 일본의 장 누벨 작품과 비슷하다느니 한강 철교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느니 시끌시끌하여 **오세훈 시장**이 고민 중이란단.

어쨌든 우리 함께 오페라에 깊이 빠져보기 위해 DVD부터 사라 나가자.

백여든네 번째 만남 _ 2008. 6. 3

CEO 역할은 경영환경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달라져 왔다. 국내 CEO의 경우 **창업가형 CEO**(~1960년대)에서 **사업확장형**(1970~80년대), **관리형**(1980~90년대) 및 **구조조정형**(1998~2008년) 등으로 변천해왔다. 높아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보수화된 경영체질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창조형 CEO**'가 요구된다.

'창조형 CEO'란 창조적 파괴활동을 통해 신사업, 신제품 및 신시장을 개척하는 창조적 의지와 역량을 발휘하는 리더를 의미한다. CEO가 경영환경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하고 단지 자신을 둘러싼 CEO환경의 변화에만 관심을 기울일 경우,

- ① 단기 성과에 대한 집착
- ② 개인의 몸값 올리기
- ③ 의사결정 및 책임회피
- ④ 어중간하고 무난한 리더십 발휘

등 기업경영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CEO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기업에게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전략의 본질은 운영의 효율성이 아니라 경쟁기업과의 차별화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과 CEO에게 필요한 역량이 바로 창조성이다.

'창조형 CEO'의 5大 조건은

- ① 부단한 성장추구
- ② 인재확보 및 후계자 육성
- ③ 조직에 창조적 영감 부여
- ④ 글로벌 시장개척
- ⑤ 사회와의 의사소통 등이다.

우리회사도 CEO경영이 각 사별로 정착되어 가고 있고 이것만은 기필코 내가 주도하여 제도적으로 정착하려는 의지를 임원들께 피력하고 있고 이것이 나의 필생의 사업이 될 것이다.
아울러 CEO는 철저히 회사 내에서 배출되어야 함이 나의 철학이다.
자, 우리는 이제 2010년 1조 매출, 500억 이익의 고지를 향해 큰 걸음을 시작했다.

전 임직원 공히 목표를 향해 매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여든다섯 번째 만남 _ 2008. 6. 4

나는 연극배우 몇몇을 알고 있고 특히 김성녀, 서주희를 좋아한다.
서주희는 2년 전 본사 정원과 강당에서 고등학교 동기생과 60년 환갑잔치를 합동으로 160쌍(우리 정원에 기념패 설치) 초대하여 서주희의 버자이너 모노로그를 공연케 했고, 안은미가 무용단과 춤을 춰 주었고 최수지 교수 팀의 밸리댄스 공연이 있었다.

그 서주희가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레이디 맥베스』를 수 년에 걸쳐 수정, 보완, 실험을 통하여 극본과 연기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음향과 구음 오브제의 속성을 드러내는 훌륭한 창작을 생명력 있게 발표하였다.

『레이디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중 5막 1장 레이디 맥베스의 몽환적인 상태를 출발점으로 맥베스가 레이디 맥베스의 죽음에 대한 짧은 전갈(The Queen, my lord, is dead)을 받은 5막 5장에서 연출가 한태숙의 상상력으로 죽음의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원작에 없는 주제를 만든 작품이다.

나홀 전석 완전 매진이란 대히트작이 되었다.

다행히 우여곡절 서주희 초대에 응하게 되어 행운을 얻게 되었고 그날 저녁은 그들과 함께 실컷 마시고 먹고 놀다 왔다.

극단 미추(대표 손진책=김성녀 남편)의 『벽속의 요정』도 김성녀의 열연으로 5월 5일~14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발표되었다.

스페인 내전을 다룬 일본작가 후쿠다 요시유키의 원작을 극작가 배삼식이 한국전쟁 상황으로 옮긴 작품이다.

무릇 작품을 감상하려면 처음엔 연극, 미술, 음악, 무용 등 작품에 접근하고 난 후는 그들을 직접 만나 입체적 감상의 기법을 발휘함으로써 짙은 감동을 더 얻게 된다.

내가 할 일은 이런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제공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백여든여섯 번째 만남 _ 2008. 6. 5

오페라 이야기 구체적으로 해보자.

오페라란 음악, 문학, 연기, 의상, 조명, 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무대예술작품이다.

그랜드 오페라는 19C 파리를 중심으로 성행하던 오페라 양식이고

바로크 오페라는 17~18C 오페라이고 베네치아 오페라는 17C

이탈리아 중심 오페라이며, 실내오페라는 17C 이탈리아 궁정이나
귀족 저택에서 공연된 오페라이다.

그 외에 다양한 장르의 **소형오페라**, **오페라발레**, **오페라코미크**,

오페라세리아, **오페레타**, **청소년오페라**, **오페라부파**, **록오페라**, **대본오페라**,

무한선율오페라, **문학오페라**, **방송오페라**, **번호오페라** 등등 수없이
분류된다.

목소리 종류는 **홍성** 즉 주로 **홍부**의 공명을 이용한 어둡고 깊은 **울림**의
목소리이고 **두성** 즉, **머리**의 공명을 이용한 밝고 부드러운 **울림**의
목소리이다.

중성은 양쪽을 다 아우르는 소리이다.

우리회사에 6월 1일부터 성악가 최덕술 선생이 태창장학문화재단
상임이사 및 사야갤러리, 사야 홀 관장으로 취임한다.

우리 모두 토요일 그분에게 목소리도 점검하고 TC합창단을 만들어
즐겁게 음악공부하며 인생을 즐겨보자.

백여든일곱 번째 만남 _ 2008. 6. 9

스웨덴 다녀왔더니 한국이 난리났네요 촛불시위로.

이게 전부 과거 10년간 집권했던 정부 속에 구석구석 남아있는
흔적들이겠지요.

여러분 한국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전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이 판에 우린 무엇입니까. 지금.

MB가 잘못했다는 5가지를 신문을 읽고 자세히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라 곰곰이 생각하며 나열해봅니다.

① 소통과 불통 사이----- 국민과 스킨십을 넓혀라

② 포용과 옹졸 사이----- 반대의견도 듣고 수용하라

③ 섬김과 오만 사이----- 피플 프렌들리로 바뀌라

④ 성찰과 몰입 사이----- 성공신화, 이제 잊어라

⑤ 과거와 미래 사이----- 개발시대의 사고의 틀을 버려라

여러분 내가 그렇습니다.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 1년 만이라도 가만히 두고봅시다.

국민들이 왜이리 똑똑하십니까.

백여든여덟 번째 만남 _ 2008. 6. 10

6월 6, 7 양일간 임원과 중국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첫날 북경의 3대명물 램쿨하우스의 CCTV건물, 프랑스 건축가

폴 앙드레의 중국 국가 경극원(오페라하우스), 북경올림픽 메인스타디움

일명 鳥巢(조소, 새둥지, 나옴차오)라 하여 자크 헤르조크와 피에르 드 뒤펁의

공동작을 보고, 그 다음날 『인간의 미래』란 책을 가지고 한 분에

30분씩 발표하여 8시간 동안 풀코스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다음 번엔 자료를 정리하여 여러분께 전 임원들의 보고서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날 임원들께

“자주 옮겨 심는 나무는 잘 자라지 않는다.

작정하고 터를 잡았으면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백여든아홉 번째 만남 _ 2008. 6. 11

임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여 제출한 독후감을 내 자신이 공부한다는

관점으로 일일이 채점을 해보았습니다.

채점의 기준은 100점 만점에

첫째, 책을 얼마나 이해했는지(이해력 50점)

둘째, 얼마나 잘 정리했는지(정리력 30점)

셋째, 얼마나 비판적으로 읽고 자기 자신의 견해와

비교했는지(비판력 20점)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독후감에 제 의견을 몇 줄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원들 컴퓨터 다루는 기술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란 서론, 본론, 결론 등으로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흔히 말하는 起承轉結이 있어야

하고요.

또한 이 보고서를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읽는 사람의 수준도 생각해 주세요

덕의 자식에게 읽어보라고 해보세요.

적어도 나에게 글을 써보낼 때는 나의 1분 메시지 정도의 촌철살인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글을 짧게 쓸수록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 신문의 서평이라도 철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은 후에는 자기의 생각과는 어떻게 다르고 또는 같은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앞으로 서론, 결론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조병상 부회장 75점 (제출일 : 5월 3일)

이해력 이해는 한 흔적이 분명합니다만 팩트에 대한 설명이 부족. 달리 말해 책을 좀 더 깊이 읽어야 하겠음(40)

정리력 작은 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했지만, 서술량이 너무 부족(25)

비판력 결론이 너무 상식적이고 앞으로의 각오도 마찬가지. 좀 더 심층적으로 밀도 있게 접근요망(10)

박대환 사장 75점 (제출일 : 5월 9일)

이해력 이해는 충분히 한 것으로 보임(40)

정리력 그러나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되풀이 서술하고 있으며, 특히 서술문과 인용문이 혼합될 때는 문장의 종로 부분에서 말이 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20)

비판력 책의 견해도 소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15)

김병조 전무 75점 (제출일 : 5월 11일)

이해력 책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듯 보임(45)

정리력 읽고 줄 친 부분을 그냥 1,2,3 등 차례대로 정리한 것은 시간 부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겠음(20)

비판력 6개의 항목에 다소간의 비판적 사고가 있지만 독후감으로 정리한 부분은 비판적 시각이 보이지 않음(10)

주영춘 상무 85점 (제출일 : 5월 12일)

이해력 책을 철저히 읽고 이해했다는 느낌(45)

정리력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이슈를 잘 대비시켜 보기 좋게 정리(25)

비판력 이 책의 내용을 TC와 관련지어 말을 하고 있음(15)

유지연 이사 80점 (제출일 : 5월 20일)

이해력 자신의 경험과 본 영화 등과 책의 내용을 비교적 잘 결합(45)

정리력 컴퓨터 전문가답게 좀 더 새로운 감각으로 작성, 프레젠테이션을 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모범이 되면 좋을 듯(25)

비판력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읽고 당황하는 모습, 비판력을 키우길 요망(10)

김경태 사장 70점 (제출일 : 6월 1일)

이해력 내용은 이해했지만 책을 철저히 읽은 흔적 부족(40)

정리력 따라서 상식적인 이야기로 원고 매수를 채우고 있음(20)

비판력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이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반적 결론을 내리고 있음(10)

심장섭 사장 70점 (제출일 : 6월 4일)

이해력 책을 읽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내용뿐.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바람(40)

정리력 시간 부족 때문이겠지만 다소 성의 없는 서술방식으로 책의 주요 부분도 거론하지 않고 있음(20)

비판력 결론도 너무 상식적(10)

남익현 전무 75점 (제출일 : 6월 5일)

- 이해력** 구체적인 사람들의 예를 드는 것으로 보아 책을 모두 읽고 이해한 것으로 보여짐(45)
- 정리력** 그러나 책의 순서대로 중간중간 부분을 그대로 옮겨놓은 자료에 지나지 않음(20)
- 비판력** 예방의 중요성,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다짐으로 끝내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10)

이성진 상무 65점 (제출일 : 6월 5일)

- 이해력** 책을 제대로 모두 읽었는지 의심스러움(35)
- 정리력** 책을 정리했다기 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정리(20)
- 비판력** 결론 부분이나,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훈 부분이 너무 평범(10)

김대영 이사 65점 (제출일 : 6월 5일)

- 이해력** 독서과정을 솔직하게 서술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소 넋두리 같은 말을 하는 느낌(35)
- 정리력** 앞으로 워드를 다루는 능력도 좀 키우기 바라며, 소재목만 너무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실제로 책을 읽었는지 의심스럽게 함(20)
- 비판력** 비판 부분도 역시 평범한 감회를 피력(10)

박을영 상무 70점 (제출일 : 6월 5일)

- 이해력** 내용은 이해하고 있으나 책을 정독했는지 중간중간만 읽었는지 의심스러움(40)
- 정리력** 두서없이 워드를 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정리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쓴 것 같은 느낌(20)
- 비판력** 결론부분이 책의 내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서술, 비판 또한 존재하지 않음(10)

이형우 이사 70점 (제출일 : 6월 5일)

- 이해력** 책의 내용은 이해한 것 같지만 핵심적인 팩트나 용어에 대한 언급이 부족(40)
- 정리력** 책을 읽고 부분부분을 워드로 옮겨 친 것에 지나지 않음(20)
- 비판력** 결론이 없고 따라서 비판도 없이 책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음(10)

배돌암 사장 75점 (제출일 : 6월 7일)

- 이해력** 책이 전달하려는 내용의 이해는 우수. 수고하셨습니다(45)
- 정리력** 책의 앞부분 중 중요한 것만 그대로 정리(20)
- 비판력** 비판과 앞으로의 견해는 너무 상식적이고 일반적(10)

임원의 독후감은 전부 회사 내 커뮤니티에 제출날짜별로 게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원 전체 중 심장섭 사장과 이형우 이사 독후감이 제일 시시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체 임원들 중 점수가 가장 낮은 임원은 이성진 상무와 김대영 이사(65점)입니다.

백아흔 번째 만남 _ 2008. 6. 12

오늘은 2008년 5월 26일. 지금은 PM 11:30 Scandic Star Sollentund Hotel이다.

오늘 낮에는 강덕식 교수와 스웨덴 스톡홀름 DENDERID HOSPITAL에 있었다.

오늘 저녁 5시 레스토랑 STALLA STAR GARDEN에서

곤잘레스(GONZALES 정신과 물리치료학 박사며 나의 주치의), MARIE

BECKMAN(간호사), LUO BRUNDIN, MD(Karolinsk Institute Neuro Science

즐기세포 권위자), 강덕식 교수 그리고 내가 저녁을 먹었다.

실로 40년 만에 오늘은 희망이 있는 날인 것 같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염원의 결과다.”

론다 번의 『시크릿』 책이 또 생각나게 하는 밤이다.

우리 인류가 그렇게 해왔듯이 정말 나는 한없이 이루어내고 있구나.

언젠가 스톡홀름 출발하기 전 한없이 울었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겠구나.

백아흔한 번째 만남 _ 2008. 6. 13

이번에는 성악가의 목소리 종류인데

남자는 테너(남자의 가장 높은 목소리), **바리톤**(테너와 베이스의 중간 목소리),

베이스(가장 낮은 남자 목소리)가 있다.

여자는 **소프라노**(가장 높은 여자 목소리), **메조소프라노**(소프라노와 알토의 중간 여자 목소리), **알토**(가장 낮은 여자 목소리)가 있다.

그 중에서도 남녀 공히 테너에는 가볍고 경쾌한 **레짜로 테너**가 있고, 서정적이고 색소한 **리리고 테너**가 있고,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스핀토 테너**가 있으며 **드라마티코 테너**는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목소리다.

특히 씩씩하고 영웅적인 테너라 일컫는 **헬덴 테너**도 있다.

여자에게도 **레짜로 소프라노**, **리리고 소프라노**, **스핀토 소프라노**, **드라마티코 소프라노**가 있고 특히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가 있다.

남자	테너	레짜로 테너(존 맥코맥, 티토 스키파)
		리리고 테너(프리츠 분던리히, 주세페 스테파노, 베니아미노 질리)
		스핀토 테너(유시 비외를링)
		드라마티코 테너(프랑코 코렐리)
		헬덴 테너(존 비커스, 한스 바일러)
	바리톤	네오루찌, 부르손
	베이스	필립 강
여자	소프라노	레짜로 소프라노(이윤경)
		리리고 소프라노(손현진, 이정아, 홍혜경)
		스핀토 소프라노(에바 마르톤)
		드라마티코 소프라노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조수미)
	메조 소프라노	
	알토	

이런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오페라 대본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세계적인 성악가들은 여러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 칼라스가 그러한데 이것은 절대적인 연습의
결과다.

여자 주인공 역을 잘 해내는 성악가를 **프리마 돈나**라고 하며 일명
디바라고도 한다.

남자 주역 가수는 **프리모 우오모라** 한다.

여러분도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나의 **디바** ○○○ 이렇게
불러주면 올 것 같이 착 달라든다.

그리고 가수의 아리아가 끝나면 이태리어로 남자의 경우 **브라보**,
여자의 경우 **브라바**, 남자 여자 중창 및 합창일 때는 **브라비**라고
외쳐대야 한다.

유럽에서는 불어로 **Vis(비스)**라고 공칭해서 외친다.

이것은 가수를 위한 관람자의 가장 중요한 박수와 더불어
에티켓이다.

그리고 객석에 앉아 있을 때 옆자리 손님이 오면 앉아서 다리를 당길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서서 지나가게 해야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마주보며 지나가야지 엉덩이 쪽을 보여서는 정말 안된다.

이것도 특히 대구 놈은 잘 안되더라.

우리 TC인은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보자.

백아흔두 번째 만남 _ 2008. 6. 16

30년 前 일이다.

경북대학 의과대학 인턴 김세철(현 중앙대학교 부총장, 세계비뇨기학회장)을
강원구(현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 소개를 받고 30代 초반 서로 배짱이
맞아 인턴실에서 공부하는 놈 불러내어 매일 밤 술집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던 그가 경대병원을 떠나 중앙대학병원으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다.

나는 의사가 될 사람이라 잔뜩 투자를 해놓았더니 서울로 간다기에
아쉬워 다른 사람을 소개를 받은 사람이 조호철 정신과 원장이었다.
조 원장과 죽이 맞아 서로 경쟁하며 이야기 중 자기도 정신 치료를
받아야 한다나.

정신과 의사도 본인의 정신 상태를 다른 정신과 의사나 스승에게
미국은 상식적으로 주기적 검증을 받는다기에 그럼 나도 정신 치료를
받아도 되나 했더니 물론이란단다.

본인에게 받겠다 하니 친구라서 곤란하니 자기 스승 이동식 박사를 소개해 주더라.

그래서 87년 3월 31일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 1시간, 시간당 100,000원을 드리기로 하고 받은 정신 치료가 2년간 계속되었으며 그때 정신 의학 서적을 엄청 읽게 되었고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어 세상을 바로 보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정신치료 중 이 박사가 하도 폭폭 쏘시길래 선생을 극복하기 위해 **프로이드, 융, 아들러, 에릭 프롬** 등 정신의학, 심리학 책을 두루 섭렵, 선생님의 공격에 달라들기 시작했다.

그때 선생님 왈

“유 사장 당신이 내게 정신치료 받지 내가 유 사장한테 정신치료 받을까?”

라며 나무라기도 했지만 **오늘날 확고부동하게 나의 삶을 정립해주신 살아계시는 은인이고 나의 부처다.**

물론 여러분도 당연히 정신 치료를 받아 삶의 옳은 길과 방향을 정하는데 군더더기 없는 인생이 되어주길 바란다.

정신치료 횟수

1987년	23 회
1989년	2 회
1992년	20 회
1993년	2 회
1996년	4 회
2004년	3 회

백아흔세 번째 만남 _ 2008. 6. 17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갈 때 꼭 뺏에 든 소주를 사가지고 가서는 그 곳에서 부스럭 부스럭 가방을 뒤져 소주를 끄집어내 권하면서 하는 말이

“역시 소주가 최고야”다.

그리고 음식 먹을 땐 튜브에 든 고추장을 끄집어내서 다른 나라 음식과 함께 먹는다.

이럴 바엔 뭇하러 외국에 가느냐다.

그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 고유의 음식과 그 나라 고유의 술을 먹어야 여행의 맛이 더해진다.

일본의 경우 스시나 사시미 음식을 먹을 땐 일본 사케(청주)이상 맛있는 게 없다.

일본 청주는 精米청미 즉 쌀 겉부분을 깎아낸 쌀을 蒸米증미 즉 뜨거운 수증기로 쌀을 찐다.

찐 쌀을 원료로 누룩을 만들고 쌀, 누룩, 물, 효모균을 통 안에 넣어 발효를 시켜 압착기로 술과 술 찌꺼기를 분리한 후 압착기에서 나온 술을 저장, 여과 가열, 가공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 일본 청주다.

청주 중에 本醸造酒본양조주는 정미 70%(쌀을 30% 꺾었다)이고
吟醸酒음양주는 정미도 60% 이하이고 大吟醸酒대음양주는 정미도 50%
이하이고 純米酒순미주는 양조 알코올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청주이다.
기타 순미음양주, 순미대음양주, 특별순미주, 특별본양조주 등
지역마다 술이 다르고 양조 방법이 다 틀려 청주만 천 종류가
넘는단다.
먹는 방법도 따뜻하게, 차게 각각 다르게 먹고 맛도 매운 청주,
덜 매운 청주, 달콤한 청주, 덜 달콤한 청주 등 한없이 많다.
먹는 잔도 야끼모노(도자기)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내가 자주 가는 神戸고베에도 양조장이 엄청 많다.
일본 전역에서 최고의 정종은 新潟니이가타에서 생산한 고시노
간뻘이(越の寒梅)라는 청주다.
옛날에 태창 거래선이 있는 니이가타 中條鋼材의 나카조 사장과
다카하시 전무와 눈을 맞으며 이 술을 먹던 생각이 난다.

백아흔네 번째 만남 _ 2008. 6. 18

나는 소멸과 유한성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사람이다.

195

백아흔다섯 번째 만남 _ 2008. 6. 19

클림트가 사랑한 여인들에 대해 소개하겠다.

클림트는 독신으로 살았지만 그는 정신적으로 사랑했던 여인과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누었던 여인들을 철저하게 구분했다.

클림트와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여인들은 귀족계급 출신이었으며 그의 억눌린 욕망을 해결해 준 여인들은 모델들이었다.

클림트가 정신적으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에밀리 플뢰게다.

클림트가 임종 순간에도 찾을 정도로 그녀와의 관계는 특별했다.

에밀리 플뢰게는 예술가 회사를 같이했던 동생 **에른스트** 아내의 동생이다.

클림트는 29살, 에밀리는 17살에 만났지만 두 사람은 처음부터 연인관계는 아니었다.

클림트가 동생 에른스트의 죽음 후 그의 어린 딸 헬레네의 후견인이 되면서부터 가까워졌다.

클림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던 독립적인 여성 에밀리 플뢰게는 그가 죽을 때까지 27년 동안 같이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평생 클림트 곁에서 있었다.

클림트 작 에밀리 플뢰게의 초상화가 4점 남겨졌고, 그 중에 **〈에밀리 플뢰게의 초상〉**이 가장 유명하다.

클림트의 초상화 모델로 두 번 선 유일한 여인인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는 상류층 여성이었지만 클림트와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여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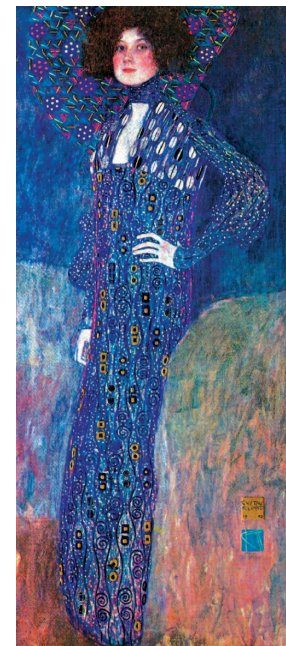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1〉 이 작품은 클림트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화려하다.

이 작품은 기업가 페르디난트가 빈

은행가의 실력자의 딸이었던 아내 아델레의 초상화를 클림트에게 의뢰한 작품으로서 남편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녀는 화려한

목걸이와 모피를 착용하고 모델로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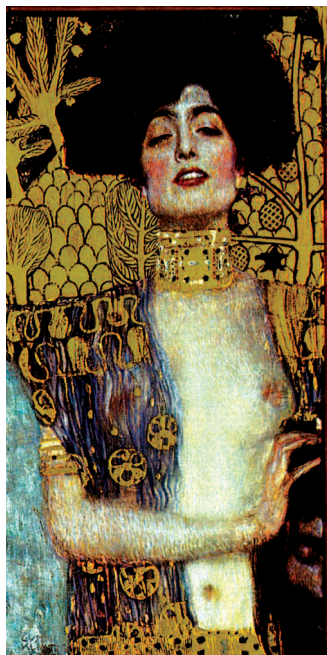
부와 관능이 묘하게 어울려져 있는 이 초상화는 그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의뢰자인 남편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구스타프 클림트, 〈에밀리 플뢰게의 초상〉, Oil on canvas, 181x84cm, 1902년



구스타프 클림트,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화1〉, Oil on canvas, 138x138cm, 1907년



고가의 모피와 보석, 의상을 걸치고 있는 초상화는 아텔레 저택의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 걸려 남편의 예술적 안목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게 만들었다.

남편의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이 초상화는 전통적인 초상화 기법에서 벗어나 있다.

서른일곱 살의 클림트와 열여덟 살의 아텔레 블로흐 바우어는 화가와 모델로 처음 만났지만 초상화를 그리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클림트와 아텔레 블로흐 바우어와의 특별한 관계가 드러나게 된 작품이 〈유디트1〉이다.

이 작품은 클림트가 아텔레 블로흐 바우어를 모델로 에로티즘을 강하게 나타냈다.

모델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배경을 장식적인 요소로 극대화시켜 구성했는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사교계 여성들의 배타적인 성격을 드러내게 한다.

클림트가 정신적인 만족은 상류층 여자에게 얻었다면 모델들과는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었다.

클림트의 아틀리에에는 항상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벌거벗은 채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클림트의 화실에 있는 모델들도 하류층 출신으로 그들이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다.

클림트는 자신의 작품의 모델로 그리고 자신의 욕망의 배출구로

그녀들을 고용했다.

클림트와 문란한 성관계를 가졌던 모델들은 그의 요구대로 화실에서 풍만한 엉덩이를 드러낸 채 모델끼리 동성애를 즐기고 있든가 아니면 자위행위를 하면서 성적인 것을 드러내고 자유스럽게 표현했다.

그런 모델들 가운데 클림트와 오랜 시간 동거했던 여인이 **미치 침머**이고 그녀와의 사이에 아들 두 명을 낳았다.

그녀는 다른 모델들과 다르게 클림트의 애정을 받았지만 그녀의 지위는 향상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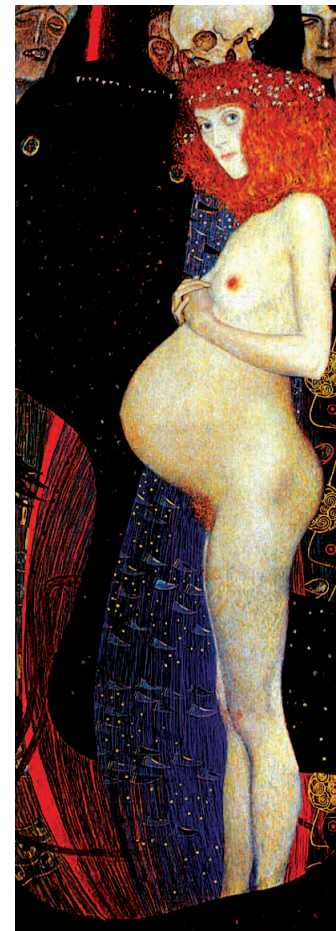
미치 침머가 클림트의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중 그녀의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어 제작한 작품이 〈희망1〉이다.

3층 헬스장에 가면 클림트 그림과 뭉크의 그림이 붙어 있다.

승효상 건축가와 비엔나 여행할 때 에곤 실레의 그림이 보고싶어 갔던 미술관이 네오폴드 미술관이었고 그때 프린트화를 사와 붙여 두었다.

클림트 그림 값은 1억 불 이상이지만 그것도 거래되지 않으니 운동하면서 실 때 한 번씩 봐주기 바란다.

클림트 그림들은 너무너무 선정적이다.



백아흔여섯 번째 만남 _ 2008. 6. 20

나는 과거 집에서 드라세나(행운목)의 꽃을 피워 본 적이 있다.
그때 당시 감회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흐뭇했고 내 자신과 꽃을
가꾸어준 부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흰 꽃에서 피우는 향기는 오렌지 향보다 오히려 더 농염해 어쩔 줄
몰라 멍멍한 상태였다.
그런데 태창 본사에 김용하 대리가 키우던 소철(蘇鐵)이 망우리를
맺을 때 보고를 받고 단순하게 생각하였으나 활짝 핀 모습을 보고
깜짝놀라 현관 앞에 배치해 모든 사람이 보도록 했다.
실로 50년에서 100년 만에 꽃을 피운단다.
그렇게 자주 가는 일본 고베의 소철 정원(相樂園)에서도 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우리회사에 큰 경사를 불러오는 것 같아 기쁘기 한량없다.
여러분, 이 기쁨을 소철과 함께 영생 불멸의 회사를 만들어 냅시다.
蘇鐵은 열대나 아열대 식물로 은행나무처럼 정충을 가지고 있고
천년정도 자란단다.



백아흔일곱 번째 만남 _ 2008. 6. 23

살아있는 사람 중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정신과 의사
이동식 박사다.
그분에게 정신치료를 받던 중 이렇게 질문했다.
“선생님 담배는 왜 못 끊습니까?”
“음- 그건 말이야 끊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

196

백아흔여덟 번째 만남 _ 2008. 6. 24

마르틴 발저가 쓴 장편소설 『불안의 꽃』(앙스트블뤼테)을 읽다보면 제1장 17 page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디에고**는 뭔가에 대해서 일단 말을 했다 하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건 싫건 관련 전후상황을 광범위하게 전부 다 듣게된다.

디에고는 그런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단 **디에고**가 설명해주는 것은 설명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이고,

고로 청취할 만한 내용이란 점을 듣는 사람은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실사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디에고는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뿐이었는데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자랑이나 늘어놓는 떠벌이로

간주하곤 했다.

디에고는 그가 입밖으로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곤 했다.”

나는 **디에고**를 나 **유재성**이라고 생각하며 읽었다.

책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책을 읽는 즐거움이다.

부처는 **우수마발(牛洩馬勃: 소오줌과 말똥으로 아무데도 쓸데없는 것)**이 다

나의 스승이다 하였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게으름이 없을 때 창조가 이어진다.

그리고 한치 틀림없는 자기 직면이 필요한 것이 **人生**이다.

백아흔아홉 번째 만남 _ 2008. 6. 25

카사노바와 함께 플레이보이의 대명사로 불리는 **돈 주앙**은 수많은 여성을 유혹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 수백년 동안 시와 소설, 연극,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등장했고 20세기 이후에는 다양한 문학 장르뿐 아니라 영화와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전 세계인에게 아이콘으로 각인되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호색한**으로 알려진 **돈 주앙**이 4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재해석되는 이유는 아마 모든 사람의 마음 한켠에 ‘돈 주앙’ 적인 면모가 숨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돈 주앙을 다룬 작품의 효시는 스페인의 극작가 몰리나가 1630년에 발표한 <세비야의 호색한과 석상의 초대>이다. 프랑스 대문호 몰리에르는 희곡 <돈 주앙>을 썼고,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 바이런은 돈 주앙을 풍자한 서사시 <돈 주앙> 16편을 발표하기도 했다. 돈 주앙의 극적인 삶은 다양한 음악으로도 표현되었는데,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돈 주앙>, 리스트의 <돈 주앙 회상>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2006년 말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 뮤지컬 <돈 주앙>이 공연되었고, 조니 뎀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돈 주앙 드 마르코> 역시 돈 주앙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다.

그 외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작가와 작곡가, 연극 연출가, 영화감독과 뮤지컬 감독들이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돈 주앙을 그려왔고, 그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돈 주앙을 다룬 작품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은 단연 더글러스 에이브람스의 소설 <돈 주앙의 잃어버린 일기>이다.

<돈 주앙의 잃어버린 일기>에는 소설의 배경인 16세기 스페인의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알카사르 왕궁과 히랄다 종탑, 대성당,

구 시가지의 골목길이 눈앞에 있더라도 한 듯이 그려지는데 실제로 세비아에는 아직도 수세기 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 16세기 스페인은 펠리페 2세의 통치하에 있었다. 당시 스페인은 전세계에 걸쳐 수많은 식민지를 둔 강대국이었지만, 잦은 식민지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전장으로 끌려나가 과부와 버림받은 여자들이 매우 많았다고 한다. 세비아는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들어오는 금과 은 등 모든 무역을 독점하며 막강한 부를 구축했지만, 남자들이 부족한 사정은 어느 도시와 마찬가지로였다.

펠리페 2세는 국력을 강화하고 문화를 중흥시켜 스페인 문화의 황금기를 이끌었지만, 가톨릭을 고수하며 무자비한 폭정도 불사한 인물이었다. 당시 온 유럽을 떨게 했던 종교재판은 이 소설에서 중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넘쳐나는 부와 데카당, 종교적 광신이 한데 맞물린 16세기 스페인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돈 주앙이라는 극적인 인물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개연성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돈 주앙은 냉담한 바람둥이가 아니라, 여성과 육체에 갖든 신성함에 대해 존경을 표할 줄 아는 남자이다.

많은 상대를 오가며 사랑과 성애를 나누지만 그 모든 여자에게 충실하려 했던 최고의 연인이며, 도그마에 갇혀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과 육체를 부인하는 종교재판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감한 남자이기도 하다.

그 당시 마녀사냥은 15C이후 이교도의 침입과 루터파의 개혁으로 분열된 종교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마녀사냥을 전담한 것은 종교재판소로 광적인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17C까지 300년 동안 재판에 희생된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할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어쨌든 종교와 인간이 저지른 것 중에 가장 잔인한 학살이었고 그 당시 그것을 거부한 돈 주앙이 여자를 섭렵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우주의 동식물 중 가장 잔인한 게 人間이다.

200

이백 번째 만남 _ 2008. 6. 26

옛날 이동식 박사에게 정신치료를 받을 때다.

“선생님 모르는 것도 죄입니까?”

“그래 모르는 것도 죄야”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어리벙벙 했었는데
살아갈수록 느끼겠다.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내가 하는 말(1분 메시징)도 살다보면 다 알 수 있고
살다가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백한 번째 만남 _ 2008. 6. 27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2005년에 선정한
“우아하게 늙어가는 미국인 10”을
발표한 적이 있다.

폴 뉴먼, 로버트 레드포드, 로렌 바콜(영화배우), 콜린 파월(前 미국무장관), 워렌 버핏(증권 투자가), 마사 스튜어트(자연 운동가), 산드라 데이오크너(前 연방 대법관), 필립 로스, 토리 모리슨, 존 바예즈 등이다.
얼마 전 여러분께 『불안의 꽃』 장편소설을 소개하면서
양스트블뤼테도 이야기 했다.
강한 자는 나이들어도 시들지 않는다.

이백두 번째 만남 _ 2008. 6. 30

여러분 NYT주기도문 외에 골프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제한된 몇 사람의 이야기일지라도 우리 다 함께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골프 주기도문

Tee Shot은 70퍼센트의 힘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Iron Shot은 간결하게 채를 떨어뜨릴 수 있게
힘을 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OB나 쏘루에도 쏘아들지 않으며
그저 대자연 속에서 본전이나 건질 수 있음을
영광으로 여기는 골퍼가 되게 해 주소서...
나의 Shot들은 요행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상대의 Shot은 개골창이나 연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프와 디봇 자국에서는,
거리는 안 나도 똑바로 나가는 볼 내게 주시옵고,
최악의 스코어에서도 동반자의 실수로 이기는
그런 골퍼가 되게 해주소서...
뺨뚫어진 사고로 상대의 Bad Shot을 꿈꾸게 하시고,
OB나서 몸부림치는 상대 마음 달래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소서.
지 거리 모르고서 나무나 물 건너 그린보고 볼 치려는
상대방 마음 속 유혹을 절대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오며
저 또한 그것을 가르쳐주는 무지를 범하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또한 내가 이런 마음, 이 기도를 너무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나에게 내숭과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203

이백세 번째 만남 _ 2008. 7. 1

몸과 마음이 늙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기준에다 맞추려고 노력한다.
병신들!

204

이백네 번째 만남 _ 2008. 7. 2

神은 결코 直線은 만들지 않고
曲線만 우주에 만들어 놓았는데
人間은 직선을 만들었다.

205

이백다섯 번째 만남 _ 2008. 7. 3

부끄럽다고 남에게 부끄러움을 이야기 않는
것보다 더 큰 부끄러움은 없다.

이백여섯 번째 만남 _ 2008. 7. 4

직선이 곡선을 건드렸구나!
神이 만든 우주(曲線)에다 피라미드(直線)를 세웠으니
神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라 생각했다.
20년 전 이집트 갔을 때 사막 위에 5,000년 전에
세워진 피라미드를 보고 느낀 것이었다.

206

이백일곱 번째 만남 _ 2008. 7. 7

이제서야 내 영혼 속에 음악이 있는 것을 알겠다.

2008.6.25 Firenze Teatro Comunale에서 Zubin Mehta 지휘에
Vienna Philharmonic의 Lang Lang 피아노 협연을 들으면서.

이백여덟 번째 만남 _ 2008. 7. 8

오늘, 내가 다녀온 천국(몽골 흡스쿨 호수의 초원지대)에 모실까 생각하고
평소에 가까이 지낸 사이(우리회사 별라홀에도 초대했음)라 무심코 명함을
뒤져 그분의 핸드폰 전화로 연락드렸더니 번호가 바뀌었다고 교구청
전화번호를 줬은 여자가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교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불통스럽게 점심시간인데 왜
전화하느냐길래 조환길 부주교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 불통스런 사람曰

“그분과 가까운 사이라면 핸드폰으로 직접하지 왜 사무실로
전화합니까” 란다.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다고(말할 때 이쯤에서 욕이 튀어나올 뻔 했다) 해서
그쪽으로 전화했다고 하였다.

그 불통스런 사람은 점심시간 이후 비서실로 전화해 연유를
말씀드리고 그 위의 중간 비서들을 거쳐 비서실장한테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상세하지만 방정맞게 응대해 주었다.

전화를 끊고 어이없어 가만히 생각해보니 교회란 이런 후닥다리
시스템이구나 생각되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일부
성직자들이 이 모양이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곰곰이 되씹어
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그분을 이 지옥 속에서 잠깐 천국에 모실려고 했으나 복이
없는 분이 되셨다.

이백아홉 번째 만남 _ 2008. 7. 9

세계 패션의 혁명을 일으킨 거장 **조르지오 아르마니**를 나는 좋아한다.
“**완전한 미의 추구자**”로 불리며 전세계 37개국 290여 개 매장에서
년 1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패션왕국**”의 **제왕 조르지오 아르마니**.
군더더기 없는 패적함과 튀지 않는 세련미는 그의 브랜드에 열광하는
수많은 매니아 층을 만들기도 했고 할리우드 스타들마저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포로가 되기에 충분하였다.
그는 이제 의상을 넘어 홈 인테리어와 휴대전화에 이르기까지
아르마니 스타일을 확장해가는 “**라이프 스타일의 창조자**”로서 디자인
미학의 선두에 서서 성공을 꿈꾸는 자의 표본이 되고 있다.
올 봄 세계경제포럼에 다녀간 **스테파노 지오반노니**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했다.
그 역시 이태리 밀라노에서 세계 미학의 정점에 서서 디자인을 끌고
가고 있다.
이번 스웨덴 출장 중 돌아오는 길에 밀라노를 들리게 되어 디자인
공부를 할 수 있어 나는 흥분하고 있다.
그는(조르지오 아르마니 이하 생략) 1934년 무솔리니 독재가 절정에 달하던
때 이태리가 나치편에 서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즈음
피아첸차市 콜롬보 거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1962 사망) 우고 마르니는 파쇼연맹의 사무직원이었고
피아첸차 지역팀에 형과 함께 축구선수로 활약하였으며 어머니
마리아 라스몬디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가정주부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여인이었다.
그런 그가 1957년 라니센테 백화점 입사를 계기로 1975년 조르지오
아르마니 S.P.A를 창립(참고로 **엠פורิโอ 아르마니**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캐주얼한
젊은 고객을 위한 브랜드로 이 역시 그의 회사다) 후 1980년 **리처드 기어**(이사람이 날
뺐었다라는 사람이 종종 있음) 주연 영화 「아메리칸 지골로」를 시작으로



성서훈연구소 사진

100여 편의 영화 의상을 담당하였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평생공로상**”을 수상하였고 2000년
구겐하임 뉴욕 미술관에서 “조르지오 아르마니” 회고전이 열렸으며,
2001년 『포브스』지 “**성공한 이탈리아 디자이너**”로 선정되고 2005년
메르세데스 벤츠를 컬러와 내부디자인을 하였으며 2006년 이태리
토리노 동계 올림픽 이탈리아 깃발 디자인을 하며 세계를
누비고 있다.
이것이 그사람 프로필이다.
21C 우리는 디자인의 대가인 그를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지
남자들이 만나면 골프이야기, 군대간 이야기를 여자 앞에서 해야 되겠는가?

이백열 번째 만남 _ 2008. 7. 10

1978년 4월 4일 할리우드에서 우디 앨런의 「애니홀」에서 열연한 다이앤 키튼이 오스카 상을 받는데 아르마니 재킷을 입고 시상식 무대에 올라간다.

그때 사람들의 찬탄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아르마니가 알려지는데 그 당시 그녀가 입은 의상 컨셉은 넓지만 딱딱하지 않은 어깨, 좁은 옷깃과 꼭 끼는 허리, 부드러운 천, 절제된 관대함이 묻어나는 재단 감각은 섹시함을 잘 표현해주는 의상이었다.

그는 자신의 패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면서도
“나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옷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녀배우들도 거기에 포함되죠.

그들은 스타일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니까요.

나는 남에게 패션을 강요하거나 또는 예측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옷을 입는 것은 단순히 즐겁고 자신감을 주는 것, 편하게 느끼고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되는 방법입니다.”

라고 높은 명성의 디자이너라는 명칭을 거부한다.

그는 자신의 일에서 보여주는 신비스러운 맹목성, 스타일리스트로서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되었던 광적일 정도의 완벽주의, 하나의 패션 스타일을 만들어내기까지 창조의 욕망에 방해가 되는 것을 냉혹하게 잘라버리는 태도는 그의 사생활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자기와 일하기 위해서는 인내, 극기, 열정이 필요하다고

“내가 나 자신만을 믿는다는 걸 인정합니다.

일에 있어 내가 냉정하다는 판단은 옳은 말입니다.

난 실수하는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실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한테 최선을 요구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최선은 언제나 있고 최선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동료에게 조용한 듯 하지만 강한 질타의 뜻이 담긴 자신을 표현한다.

그는 그의 팀과 일을 할 때 하는 말이,

“자극적인 선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자극을 주다보면 우리안에 잠자고 있던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니까요.

복수심이 최고에 달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멋진 것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동료 디자이너들이 아주 유능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면 그건 우리들의 분노입니다.”

그는 어린시절 그가 처했던 소박하고 고통스러운 사회 조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일종의 복수심이었다.

사실 야망 때문에, 최고 중의 최고가 되기 위해, 일을 최우선 순위에 놓기로 마음먹었다고 그는 인정한다.

“일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나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를 잃었죠.

내게 다가서기 어렵고, 비사교적이고, 무뚝뚝하고, 껄뻘하다고 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일하기 위해 함께 있기를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자유롭고, 현실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모험을 즐기는 자기 영혼의 존재를 확인했다.

여러분 나에게도 조르지오 아르마니 같은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선 건축에는 승효상, 민경식, 박승홍, 박진 등이 있고, 조명에는 고기영, 의상에는 이경순, 권기찬, 조경에는 가와기시, 권기찬, 니시가와 인테리어는 최시영, 장지애, 라니아 등 수 많은 사람들과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이백열한 번째 만남 _ 2008. 7. 11

“이탈리아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조르지오 아르마니, 흰 송로버섯, 파스타, 오페라를 빼고 무슨 영광스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나?”

라고 나는 외치고 싶다.

패션계의 미켈란젤로인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세계에서 의상은 성적 암시없이 섹시함을 전달하며 개인의 육체적 특징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넌지시 보여준다.

그의 색채의 특징은 부드럽고 감각적이지만 감각을 대신하지 않는다. 모래색의 온갖 미묘한 변화가 포함된 전설적인 베이지를 기본으로 예상 못했던 색조가 불쑥 만들어진다.

그의 재능은 변조, 정해지지 않았지만 코드화된 한계에 대한 존중, 한순간 먼저 멈춰서는 재능을 가진다.

쇼킹한 장미색이 아닌 나무딸기색(나에게도 강덕식 교수가 추천해주어서 입는

자켓에 간혹 오페라 보러갈 때 분홍 와이셔츠를 받쳐입는 옷색이 있다), 오렌지색이 아닌 망고색, 그는 늘 상상력의 테두리 중심에 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회사 오승목(174cm, 63kg)의 체격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아르마니 옷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리처드 기어가 80년대 남성의 섹시심벌로 부상한 것도 인상적인 그의 옷을 입고 출연한 영화 「귀여운 여인」(줄리아 로버츠 출연) 때문이지요.

주인공이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움직이면서 재킷, 와이셔츠, 넥타이를 완벽하게 갖춰 입은 유명한 장면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프랑스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72才)은 최초로 여성에게 바지정장을 도입하고 여성용 텍시도 자켓을 고안해 남녀 의상의 경계를 없앴다.

그런 그가 1936년 알제리 오랑에서 태어나 2008년 6월 1일 죽었다는 글을 보며 모든 여성을 의상으로부터 해방시킨 그를 다시 한 번 모든 여성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디자인 공부하여 멋진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시다.

212

이백열두 번째 만남 _ 2008. 7. 14

나는 여러분께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더라.

이백열세 번째 만남 _ 2008. 7. 15

우리 회사는 아랫사람 입장에서 보는 소통의 배려가 전혀 안 되어있다.

20살의 젊은이는 60살의 늙은이 속에 들어올 수 없다.

안된다고 화낼 것이 아니라 늙은이가 젊은이 쪽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그런데 파고들기는커녕 이해도 못할 뿐 아니라 자기 기준 쪽으로 오지 않는다고 화까지 내니 젊은 직원들은 직장을 포기하고 그만두게 된다.

이제 또 늙은 임원이 경영기획실 쪽에 오셨다.

조흥원 사장이 바로 그분이다.

이분이 얼마나 우리회사 리더십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낼지 우리 함께 두고보자.

김정운 교수가 소개하는 『설득의 심리학』이란 책을 한 번 다함께 읽어보자.

그 속에 Perspective taking이란 말은 남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능력이란 심리학 교수의 말이다.

하루빨리 우리회사가 늙은 사람이 저주고, 늙은 사람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늙은 사람이 칫솔질을 더 자주 하고, 늙은 사람이 자주 새옷을 갈아입어야 이 회사가 젊어질 것이다.

우리회사는 늙은 사람이 문제다.

나부터.

그러면 늙은 사람들은 어찌란 말인가?

성현은 德으로 다스리라 하였다.

이백열네 번째 만남 _ 2008. 7. 16

비엔나 필하모니와 주빈메타가 지휘하는 크루즈선에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부부와 최덕술 부부와 함께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한적이 있다.
그때 스페인 팔마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게이트가 A18이었고
런던→인천 비행기 좌석은 19D였다.

이백열다섯 번째 만남 _ 2008. 7. 17

TC 여러분

여러분께 생일 축하도 받고 선물도 받고 하니 이제 우리들 사이엔
주거니 받거니 인생이 시작되는군요.

“1분 메시지”나 “회장의 말(임원회의시)”들로 너무 여러분께 내가 노출되어
있지 않나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일을 잘하고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당당하고 어떨
땐 교만하기도 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얼핏 걱정도 됩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는 백성들이 누가 임금인지 모를 때에 훌륭한 성현이
항상 뒤에 있어 왔지요.

여러분께 고마워 “康衢煙月”(강구연월-잘사는 백성이 사는 동네는 제 시간이 되면
일제히 항상 굴뚝에 연기가 난답니다. 밥 짓고 있기에)이란 고사성어도 드리며
이어령의 책 『젊음의 탄생』도 한 권씩 보내드리겠고 여름 보너스도
조금 많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215

216

이백열여섯 번째 만남 _ 2008. 7. 18

자기 밑에 사람을 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또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는커녕 미워하고 끝내
전부와 관계가 나빠지는 사람의 유형이다.

우리 회사에서도 조 모 사장(亡), 신 모 사장, 정 모 전무, 강 모 부장,
나 모 차장 등등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회사와 관계된 모모 교수들도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직업에 있거나 주인이 되어 평평
올려봐야 하고 그때 깨달았을 때 상당히 늦은 때이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문제라 깨닫지 않고 남의 문제로
돌리다보니 자신을 동료로부터 잃어버리게 된다.

대체로 이런 유형 사람은 어릴 때 성장 과정이 남보다 다르다.

성장하면서 특히 성숙되지 않았을 때 어떤 큰 충격을 당하게(구체적
언급은 안하겠다) 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외롭기에 **의존할 절대자**를 찾게 되고 또한 혼자
스스로 **의존자**를 설정하고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이 대개 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절대자도 아니고 성현도 아니고 곧 예수나 부처도 아니다.

그리고 내게 충성을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다 바친다.

그래서 나는 경험 많기에 그때그때 그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지만 내게서 헤어나질 못해 끝내 원망하고 헤어지거나 헤어짐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떠난 후 죽을듯 살듯 날 원망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으로 우리회사를 떠난 사람이 이를 악물고
극복해 성공해 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언젠가 그 사람이 깨달았을 때 나는 그를 울부짖으며 안아주리라.

그런데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자식 또는 가까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

현 우리회사 임직원 중에도 물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
분위기가 아주 나쁜 곳도 있다.

우리들은 자기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백열일곱 번째 만남 _ 2008. 7. 21

2천년 전 한나라 때 4천 8백만 인구에서 현재의 13억에 이르는 동안,
수십개의 왕조가 망하고 다시 세워졌다.
왕조는 망했지만 중국은 망하지 않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망하지만 산업은 망하지 않는다.
산업은 변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존재한다.
시대에 따라서 제도가 변하듯 기업도 변해야 한다.
쉬썬원許倬雲은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으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연구와 폭넓은 식견으로 수준높은 중국사를 완성한다.
1930년 장쑤성(江蘇省) 우시에서 태어나 1949년 타이완으로 이주하여
타이완 대학을 졸업, 미국대학 교수(피츠버그, 듀크, 하와이)를 역임한 그의
중국사 강의 冊의 이야기다.
이야기는 이렇다.

- 권한과 수익을 어떻게 기업의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가?
- 인재를 어떻게 선발하고 육성할 것인가?
- 어떻게 전문경영을 실행할 것인가?
- 기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보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 권력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 외부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변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는가?

218

이백열여덟 번째 만남 _ 2008. 7. 22

세상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성과 감성으로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감성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인간들은 어느 부문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 자기는 이성적인 삶을
살았노라, 감성적인 삶을 살았노라 떠든다.
내가 보기에 하늘은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주셨다.
그 경계에 살아가는 아슬아슬한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성의 경계에서
감성을 깨닫는 순간 조그마한 흥분의 발정에서 자살이란
충동을 갖게 되었다.
그때 뛰어내렸다면(크루즈 선상 지중해 밤바다 위) 나는 자살이란 누명을 썼을
것이고 내 주위 사람들이 사는 인생을 서글프게 만들었을 것이다.
충동에 의한 자살은 위험한 것이다.

219

이백열아홉 번째 만남 _ 2008. 7. 23

직분에 충실히 살아온 지금 나는 본능을 알았다.
음악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이제야 소리가 뭔가 알겠다.
영혼을 두드리는 소리를.

217

이백스무 번째 만남 _ 2008. 7. 24

요즘 접대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본인들이 최고 이해 관계자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엔 어렵게 어렵게 골프약속을 하고 골프를 함께 친다.
그리고 술집으로 직행, 폭탄주 거나하게 취하면(간혹 기쁨조(?)를 불러
노닥거리기도 하지만) 목청이 터져라 마이크 잡고 신나게 흔들고
뽕아재깐다.(이쯤되면 난청 현상이 생길 법한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 절대 멀쩡하다)
그리곤 헤어지고부터 끄끄거린다.
서로가 다시 이짓 안해야지 하면서.
근데 이 짓도 벌써 30년째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이젠 조금씩 달라지는 접대방법이 없을까?
좀 더 문화적인 컨셉으로 말이다.
30,000\$ 시대를 열어야 할 우리들은 접대방법을 창조하는 것도 장사다.
그런데 과거엔 나도 그 짓하며 장사했다.
요즘 별라홀에선 좀 색다른 접대방법이 거의 매주 전국의 저명
인사(?)들과 이루어지고 있다.
한 번 다녀간 사람들 입을 통해 연일 초대해달라는 고도의 기술적인
압력(?)이 박 사장을 괴롭히고 있다.
그 시간에 12시까지 퇴근도 못하고 도와주고 있는 박동권, 박진우,
오승목, 조수영, 이혜진 등등 마칠 때쯤 내가 미안해 찢찢매며 데리고
들어가 남은 술 따라 마시게 한 후 집에 돌려보내는 내 마음도
아프다.
이 기회에 박 사장 이하 관계 직원과 식당 책임을 지는 황현지 양과
이주머니 노고를 치하드린다.
여러분, 이렇기에 여러분께 별라홀 개방을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221

이백스물한 번째 만남 _ 2008. 7. 25

그땐 그렇게 몰라 찢찢 매었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알겠구나.
그때 몰라했던 것들을.

220

222

이백스물두 번째 만남 _ 2008. 7. 28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다.

뭐 거창한게 아니라 - 친구끼리 친하다고 그 친구의 집안에 관한 얘기를 친구 부인 앞에선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는 서양에서는 결코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그리고 그 친구의 자식 앞에서 그 친구 가정교육에 관한 이야기도 결코 해서는 안된다.

가령 이런 이야기들이다.

지도 가정에서는 별 볼일 없으면서 친구 부인 앞에서

“그건 네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등등

친구 딸 앞에서

“넌 그런 교육방법은 옳지 않아”

“너의 방법은 틀렸어” 등등

옛날에 내 친구가 홍콩에서 내 딸에게 나의 교육방법이 나쁘다고

지 마누라, 지 딸, 내 마누라, 내 딸 앞에서 나에게 충고를 했는데(나의

딸 교육방법이 나쁘고 자기 교육이 좋다는 뜻으로) 그때 내 딸아이는 중3이었다.

그런데 내 딸은 20년이상 나의 교육방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이건 내가 참 속상한 일이었다.

누구나 그 가정에, 그 집안 혈통에 맞는 교육방법은 다 틀리다.

그리고 그 후 어느날 내 부인하고 나하고 심각한 싸움으로 냉담하고

있을 때 친구가 왔길래 내 부인을 좀 달래 달랬더니 그 친구가 술

한 잔 취한 상태에서 내 부인 앞에 지는 잘난 척 하면서

“재성아, 넌 그건 백 번 니가 잘못했어. 너 부인에게 사과해”

라고 명령조로 이야기 하길래 윤광준이 보는 앞에서 그 친구 얼굴에 와인잔을 집어 던졌더니 얼굴에 피가 났었다.

그래도 그 친구는 자기 잘못을 모르더라.

얼마 전에 지중해 여행에서도 충동적으로 불쾌한 생각이 들어

물 속에 뛰어내릴 뻔했던 이야기를 했다.

모든 가정은 다 가장이 피나게 지켜오는 것을 단편적으로 절대 단돌이가 아닐 땐 충고할 수 없다.

근데 한국놈들은 걸핏하면 남의 이야기다.

병신!

불안한 세계 경제를 비웃듯 미술 시장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그림 값과 연관된 기록은 경매 때마다 경신되고 시장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그 많은 비싼 그림들은 도대체 누가 팔고 누가 사는 것일까?
그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 세계 경제의 흐름이 보인다.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가 모두 미술 시장에 담겨있다.
요즘 미술시장의 주류인 서양미술은 유럽에서 시작됐다.
그림은 유럽인들의 호사스런 취미였고 19세기 후반 이후 미국 경제가 기세를 올리면서 미국인들이 유럽 대륙을 훑어 명화를 씹쓸이 했다.
1980년대에는 일본경제가 반짝하면서 일본 재벌들이 '명화사랑'이란 열병을 앓았다.
최근엔 미국과 영국의 컬렉터들이 작품을 팔고 러시아와 중동의 억만장자들이 구입한다.

그림에 쏟아붓는 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중국 사람들도 둘째 가라면 서러워한다. 재미있게도 이들은 서양 그림에는 좀처럼 눈길을 주지 않는다.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믿는 그들은 자국 작가의 그림 값이 서양보다 싸다는 사실에 자존심 상해 한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클럽 '첼시'의 구단주로도 유명한 아브라모비치는 지난 5월 뉴욕 경매에서 **프란시스 베이컨과 루시안 프로이트**를 기록적인 가격에 낙찰받았다.

두 작품 가격을 합치면 1억 2,000만 달러다.

베이컨의 3부작 <트립틱>(Triptych)은 8,628만 달러에 팔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작된 작품 중에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프로이트의 <베네피츠 슈퍼바이저 슬리핑>(Benefits Supervisor Sleeping)은 생존 작가 작품 중 가장 비싼 3,360만 달러를 기록했다.

프로이트 그림은 살이 미어져 나오는(아마도 120kg) 중년 여인이 응접세트에 처박혀 누워있는 그림이다.

얼마 전 이탈리아 밀라노를 강덕식 교수와 다녀온 적이 있다.

그때 미술관에서 **Francis Bacon**(베이컨:1909년 영국 Dollin에서 태어나 1992년 심장마비로 사망) 전시가 있었다.

도대체 얼마나 잘 그렸기에 그림 값이 천정부지 올라가나 나로선 참 어처구니가 없다.

밀라노 미술관에서의 베이컨의 그림 앞에는 이렇게 글을 써놓았다.

"You kill the thing you love"

베이컨인지 햄인지 그림도 모르겠는데 설명은 더 어렵다.

아무튼 프린트 판화 석장 사와서 본사 1층 로비에 걸어두었으니 비싼 그림 인쇄화로 감상해주기 바란다.

베이컨을 더 보고 싶은 분은 "세계판화대전"이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9월 22일까지 전시되니 틈나면 봐주기 바란다.

그림 한 장이 286억이라니 말이다.



루시안 프로이트,
〈베네피츠 슈퍼바이저 슬리핑(Benefits Supervisor Sleeping)〉,
Oil on canvas, 151.3×219cm, 1995년



루시안 프로이트, 〈네이키드 포트레이트 위드 리플렉션 (Naked Portrait with Reflection)〉, Oil on canvas, 91×91cm, 1980년

이백스물네 번째 만남 _ 2008. 7. 30

1980년대, 소위 예술영화가 발붙이기 힘들었던 이땅에서 개봉돼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영화 ‘미션’은 그 스펙터클한 남미의 자연이 그대로 담겨있는 영상뿐만 아니라 영화 전편을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선율로 더욱 많이 기억되는 영화다.

22년이 지나 다시 들어보니 역시 위대한 음악은 시간을 초월한다.

영화 ‘미션’이 지니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음악이다.

신부 가브리엘이 개울가에 앉아 오보에를 부는 장면은 영화 ‘미션’을 대표하는 장면이다.

언어와 습관을 초월한 음악의 위대함 그 자체를 보여주는 장면이니만큼 위대한 선율이 필요했다.

그 선율을 작곡한 이는 바로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 최고의 영화음악가 엔니오 모리코네다. 바로 이 장면에 흐르는 ‘Gabriel’s Oboe’는 영화사상 가장 유명한 선율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광고와 TV프로그램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

엔니오 모리꼬네는 올해로 팔순을 맞이한다.

미국의 아카데미는 거장을 몰라본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이라도 하듯 200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평생공로상”을 헌정하는 것으로 거장에 대한 예의를 갖췄다.

영화 ‘미션’은 1986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용서**’다.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맡은 멘도자 역은 바로 이 영화의 주제를 상징하고 있는 캐릭터다.

멘도자는 포르투갈 출신으로 남미를 정복하기 위한 용병으로 원주민들을 학살한 바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 노예로 팔아먹는 상인이라는 직업을 지니고 있다.

그런 멘도자가 자신의 아내와 내연의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만다.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을 한 멘도자는 가브리엘 신부를 따라 신부가 되어 과라니 족을 도우며 평생 사는 것으로 신께 용서를 구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처음엔 멘도자를 증오했던 과라니 족은 가브리엘 신부의 설득으로 결국 그를 용서한다.

고행을 위해 온몸을 감싸고 있던 고철 더미를 한 과라니 족이 끊어내 준다.

그들의 용서를 통해 진정한 용서를 받은 멘도자는 끝까지 과라니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땅 위에서도 천국에서처럼’으로 번역되는 명곡 ‘On Earth As It Is In Heaven’은 영화 ‘미션’을 통해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남아메리카 특유의 민속 타악기와 클래식한 코러스가 혼연일체를 이루는 이 곡은 이과수 폭포의 웅장함과 엔니오 모리꼬네 특유의 거대한 스케일이 만난 명곡이다.

여러분!

꼭 영화 미션을 DVD사서 봐주시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도 한 번 CD사서 들어보시고 본사 1층 사야갤러리에 이과수 폭포사진도 감상해주시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미션’ 음악과 영화에 대해서

그때 유창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줄줄 내게 대답해주시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장에서 임원이 될려면 문화예술 분야를 섭렵하는 것은 필수코스란 것을 명심해주시 바랍니다.

이백스물다섯 번째 만남 _ 2008. 7. 31

학과 벽 허물기 본격 나서

음·미대 교수 ▶ 공대, 의대 교수 ▶ 사회대

음대와 미대 교수들이 공대로 옮기고, 의대 교수가 사회대 교수로 활동하는 등 서울대가 광범위한 학문간 '통섭(학문융합)'에 본격 나선다.

이는 최근 학계의 화두인 통섭을 서울대가 적극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년 시작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WCU(World Class University·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들도 WCU 유치를 위한 융합학과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교과부는 융합학문 분야 가운데 △신전공 분야 개설 △잡채력 큰 해외 학자 초청 △세계적 석학 초빙 등 세 부문에 걸쳐 5년간 8,250억 원을 투입해 WCU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학제간 연구 목적으로 화학 전공의 김영식 교수를 2001년 동양사학과로, 계산통계학을 전공한 문중양 교수를 2005년 국사학과로 임용한 바 있지만 전체 단과대 차원에서 융합학과를 만들어 교수를 이동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과대가 25일 대학본부에 보고한 WCU 추진 현황에 따르면 공대는 WCU 1유형(신전공 분야 개설)에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아트공학(음악+미술+공학)
△나노바이오공학(화학+재료공학+기계공학+의학)
△에너지환경공학(기계공학+에너지자원공학+건설환경공학)
△금융공학(수학+경영학+산업공학) 등 4개 학과(대학원 과정) 개설을 제안했다.

미디어아트공학은 음악과 미술(산업디자인 포함) 분야를 공학에 접목한 융합학문. 영화 드라마에서 컴퓨터그래픽이나 전자음악을 만드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강태진 공대학장은 "예술과 공학을 융합한 미국

서울대 단과대별 융합학과(WCU 1 유형) 추진안		
단과대	신설 학과	융합 분야
공대	미디어아트공학	음악+미술+공학
	나노바이오공학	화학+재료공학+기계공학+의학
	에너지환경공학	에너지자원공학+기계공학+건설환경공학
	금융공학	수학+경영학+산업공학
자연대	재료물성학	재료공학+고체물리학
	금융수학	수학+경영학
	나노바이오학	물리학+화학+생물학
사회대	인지신경과학	심리학+생명과학+의학(신경, 생리학)
	국제기구·인간안보연구	정치학+사회학

자료 : 각 단과대

메사추세츠공대(MIT)의 미디어랩을 모델로 삼아 음대 미대 교수 4명을 전임교수로 영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노바이오공학은 나노(10억 분의 1)분야 연구를 통해 의약품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자연대, 의대와 구체안을 협의하고 있다.

강 학장은 “추진하는 융합학과는 핵심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교과부의 WCU 선정과 상관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이달 말까지 내부 조정을 거친 뒤 다음 달 20일까지 교과부에 예비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고려대 역시 WCU 유치를 위해 인문사회 부문 융합학과 개설을 위해 인지과학 분야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공계에서는 나노바이오와 신소재 개발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한양대는 공대와 의대를 주축으로 △에너지학과(화학부+신소재학부) △생명과학과(생명공학+의학(신경과)) △나노바이오학과(재료공학+물리학) 등 세 가지 분야를 추진 중이다.

- 동아일보 7월 28일자

아저씨,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통섭에 관한 기사는 어제 이메일로 받았는데, 통섭이란 책에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표시해놓은 부분을 다시 읽느라고 코멘트가 좀 늦었네요. 우리나라 유명대학에서 World Class University (WCU) 를 형성시킨다고 여러 학문을 종합해서, 또는 몇 개의 학문을 통섭시켜서 또 다른 과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 기사의 주제였거든요. 글썄요.. 저는 그것이 과연 통섭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관련된 학문을 몇 개 합쳐놓고 또 다른 새로운 분야로 나누니까요.

금융쪽으로 공부를 하면 당연히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그 두 학문을 합쳤다고 해서 금융수학이라는 분야를 또 만들었잖아요. 그렇다고 수학이나 금융이란 분야가 없어지거나 완전히 통합되어 금융수학이란 학문으로 변형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꾸자꾸 세분화돼 간다는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의 World Class University 는 드러커가 말하는 환원주의식 통섭이라기 보다는 드러커의 환원주의식 통섭에 반대되는 휴얼의 융합적 통섭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본문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휴얼은 과학을 강에 비유한다. 여러 갈래의 냇물들이 모여 강을 이루듯이 먼저 밝혀진 진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합쳐져 결국 하나의 강령에 포함될 뿐 그 어느 것도 다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냇물이 강으로 환원되지 않듯 진리는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진리들과 합류된다는 것이다.”

즉, 제가 읽은 우리나라 명문대의 World Class University 형성은 지식의 환원적인 통합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식의 합류인 것 같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저것 합쳐서 다른 분야를 소생했으니까요.

책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통섭적 연구가 다 환원주의적일 수는 없지만 통섭은 분석과 종합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 영향적이라는 말처럼 굳이 몇 개의 학문을 합쳐서 또 다른 학문을 만들기 보다는 통섭이란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 대학을 예로 들면 금융하면 굳이 금융수학이라고 따로 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금융하는 애들은 따라서 그냥 수학하거든요.

그렇게 하계끔 사회나 학교에서 지정해 놓고요.

음악하는 애들도 과학이나 공학 쪽에 관심을 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만들어 놓고요.

음악하는 애들이 물리(특히 소리와 울림에 관한 것)를 많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선택해요. 교수들이 가르칠 때 환원주의적으로 가르치거든요. 저도 정치학을 하지만 정치학을 제대로 하기 전에는 인문학, 사회학, 철학, 미술, 음악, 경제학, 역사 등을 배워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됐고 수학을 복수전공으로 하지만 물리, 응용수학, 천문학 등을 배워 수학을 어느 학문에나 쓸 수 있도록 또 과학이나 다른 인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수학을 보다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해두었거든요.

동아일보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그 글을 다 읽고 밑에 사람들이 남긴 코멘트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섭에 관해 거부감정을 가지고 있네요.

음악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학에 합류할 수 있냐 등등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한 분야만 죽어라고 공부해서 성공하면 오케이되는 이 사회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를 만나면 이야기해 주세요.

나희 올림

나희야!

네가 지금까지 쓴 글 중 오늘 글이 최고다.

이제야 네가 누군가 조금 알겠구나!

그렇다.

학문의 통합에 대한 너의 분석은 탁월하다.

곧 창조적인 대융합(통섭)은 마음의 근본이다

너의 마음을 보아라.

다 열려 있지 닫혀있지 않지 않느냐?

닫는 것도 열린 것도 다 마음이란다.

결국 기본과 본능과 근본에 충실하면 대통합이 이루어진단다.

2008. 7. 29

아저씨

이백스물여섯 번째 만남 _ 2008. 8. 1

내가 아는 日本人들은 그 사람이 外國에 나갔다 다시 日本으로 가면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것이 **소바**(막국수, 메밀국수)란다.
그런데 日本사람은 대부분 평생 동안 맛있는 **스시**(생선초밥) 먹는 것이
소원이란다.
나라마다 기호는 틀리지만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 일본 사람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계란요리는 일본사람이나 한국사람들이 동시에 무척 좋아한다.
그 이유는 과거 못살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란다.
그런데 입맛이란 참 간사한 것이다.
일본 스시에 길들여진 나는 한국에서 생선초밥은 어떤 집도 갈 수
없고 가지 않는다.
왜냐면 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 같은 불행한 사람은 되지 않길 바란다.
그러니 맛있고 비싼 것은 처음부터 길들이지 않아야 한다.

227

이백스물일곱 번째 만남 _ 2008. 8. 4

내가 여러분께 직위, 직책, 직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한다.
오늘은 작정을 하고 칼을 들고 상처를 낼까 한다.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기사 박동권은 직위가 차장이다.
참 성실하고 나와 15년째다.
나에겐 만점에 가까운 나의 보석 같은 부하다.
그런데 그는 직위가 그에게 맞지 않다.
내가 보이지 않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이 속속 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속상하기는커녕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왜냐면 첫날 면접부터 그것을 알았기에 승진할 때마다 주의를 주고
있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직위에 맞지 않는 행동이 눈뜨고 못볼
지경이라고 남들이 이야기한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성격 문제가 아니고 그릇의 크기 문제다.

226

그래서 중국의 兵書 육도삼략(六韜三略)에 직위를 올려줄 사람과 상금을 많이
줄 사람을 구별하라 하였다.

그러다보니 자연 그 밑에 기사도 대동소이하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만큼 승진이 되지 않는다고 동네방네 떠들며
끝내 내 귀에 들어오게 한다.

물론 직위에 맞지않는 임원들도 있고 부장 이하 직원들은 거의 내 눈에
다 보인다.

그 직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말이다.

인간은 올라가면 교만해진다는 부처의 능엄경 이야기는 이미 했다.

여러분께 드릴 말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 회사 외에 공식 직함은 어떤 것도 사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말지 않는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직위를 갖지 않을 때 남에게 손가락질 덜
받게 된다.

이 세상 어디에도 권위에는 권력, 금력, 명예욕이 포함될 수 없다.

그러기에 높은 인간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난 후도 변명에
급급한 것이다.

이백스물여덟 번째 만남 _ 2008. 8. 5

부잣집 자식은 자기가 했는 것이 별로 없으면서
아무에게나 군림하려 한다.

228

이백스물아홉 번째 만남 _ 2008. 8. 6

나는 우리 임직원으로부터 간혹 이런 소리를 듣는다.

“우리 회장님은 너무 빠르고 시야가 넓어 따라가기가 미칠 지경입니다”

왜 나와 직원의 차이가 날까요

위기의 인식능력이 구성원보다 훨씬 넓고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한 CEO는 남보다 먼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멀리서 밀려오는 먹구름을 쳐다보기 때문에 두려움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껴 변화의 인식 속도를 빠르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300권의 책을 읽는답니다.

그런데 나만 직원들에게 듣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장들도 다 같은 소리를 듣는답니다.

그리고 회장을 빠르다고 해야 자기가 느리지 않다는 것을 합리화 하는 것이랍니다.

이백서른 번째 만남 _ 2008. 8. 7

인간들은 서로 관계를 하면서 “내 너를 믿는다”라고 친할수록 서로가 자주 이야기 한다.

부모와 자식지간에 부부지간에 상하지간에 선후배지간에 심지어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말이다.

그런데 나의 스승 이동식 박사는 이 부분은 흔쾌하다.

“믿는다는 말은 의존심이다”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한다.

그런데 서로 사이 좋을 땐 별일 없던 놈들이 헤어지게 되었을 땐 죽일놈 살릴놈 한단다.

그래서 이 박사는 배신을 하고 피해를 주고 원한을 사더라도

“믿었다면 믿어라” 하신다.

그렇지 않을려면

“믿지를 말고 믿는다 소리 하지 말아라”

결국 믿는다 라는 것은 의존심이다 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들은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세상에 믿을 놈 없네”

라고 남을 원망한다.

231

이백서른한 번째 만남 _ 2008. 8. 8

자기가 했는 말을 또 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저 할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이고
말을 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이다.

232

이백서른두 번째 만남 _ 2008. 8. 11

“두려움은,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고 힘든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앤디 그로브 인텔 회장의 말이다.
항상 위협 받았기에 끝없는 생존의 돌파구를 찾아야 했고 두려움이
창조를 낳았다.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600만 명 학살 때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다.
그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
중2때 걸렸던 원인 모를 병이 재발하리란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극기, 극복, 창조로 이어져 온 게 내 人生 50년이었고 아직도
이어질 것이다.

이백서른세 번째 만남 _ 2008. 8. 12

나는 30년 전부터 생일되는 날 전후로(잊어버리지 않게) 치과에 가서 스켈링을
1년에 한 번씩 꼭 해왔다.

동기친구가 치과 원장이라 그곳에 갔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늙어서 변화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하고 30년
전보다 지금이 간호사 교육이 더 엉망이라 치과 주치의의 바꾸기로
했다.

강덕식 교수와 상의 결과 장윤제 치과로 결정하였다.
정말 대단한 컨셉으로 치료에 접근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도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것을 권하고 싶다.
지난번에 회사 차원에서 치과 진료를 여러분께 다 제공하였다,
다시는 이런 진료는 없다.

스스로 치아 건강에 관심 가져주기 바라고 스켈링은 꼭 하여야겠다.
입에서 냄새 나는 사람이 무슨 세상을 살아가겠단 말인가?

나는 하루 중 설새 없이 입에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왜냐면 언제 내게 女人이 키스를 퍼부을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고 있다.

치과 진료 중 간호사가 주스나 커피나 심지어 녹차를 마시고 난 후에도
물로 입가심하란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치아 건강은 만복을 타고 난다 하였지만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근본이다.

이것부터 안 된다면 무엇을 하겠단 말인가.
장윤제 치과는 강덕식 교수와 상의 후 TC의 전속치과로 협약해
여러분을 도울 예정이다.
향후 TC와 장윤제 치과의 협약 사항을 티시넷에 올리겠다.

233

이백서른네 번째 만남 _ 2008. 8. 13

휴가가 잘 마무리 되었으리라 믿고 유지연 이사에게 8월 23일
컨퍼런스 일정대로 실시하라 지시하였다.
교육은 누구나 다 싫어한다.
그러나 **교육을 위해 준비하고 생각할 때부터 성숙되기 시작한다.**
이번엔 지난번 컨퍼런스 임원 발표보다 훨씬 성숙되어야 한다고
단단히 일렀다.
차기 부장에서 임원승진은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인터넷
투표까지 검토하고 있다.
나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 이 회사를 이끌 임원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직원 중에서도 눈에 띄면 적극 회사 조직 속에 더욱 깊이 반영
시킬 것이다.
지난번에 여러분께 이야기한 대로 **승진을 기다리지 말고 쟁취해주시기**
바란다.

이백서른다섯 번째 만남 _ 2008. 8. 14

“잘 노는 놈이 일도 잘한다”

이번 몽골여행 안내를 맡은 함석규 사장이 내게 들려준 얘깁니다.
우리 임직원이(임원 4명 직원 91명) 몽골 여행을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멋있게 마무리 해주었다고 함 사장이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도 흐뭇했습니다.
내가 없으니 더욱 결집력이 대단하구나 감탄했습니다.
지난번(2004) 8월 1일~4일 110명이 다녀왔고 내년엔 마지막 남은 인원
보낼 것을 다시 약속드립니다.
아마도 이런 행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했지만(일부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었지만 본인의 체력문제로 판단) 더욱
회사를 위해 큰일을 저질러 주기 바랍니다.
평소에 날 보고 왜 몽골에 그렇게 자주 가느냐?란 질문에 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러 간다고.

여러분도 보셨듯이 몽골은 그저 초원일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엔 별들의 잔칫날이고 낮엔 허브향이 가득찬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볼 것을 다보면 볼게 없거든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면

달을 수 없는 저 몽골 하늘의 별을 딸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갈건가?

나는 그래서 그 곳에 가면 내 마음을 본답니다.

이백서른여섯 번째 만남 _ 2008. 8. 18

“내 가슴을 처음으로 두드리게 만든 그리운 그 이름은

언제나 사랑의 기쁨을 되살려 줍니다.

내 열망을 가득찬 사념(思念)은 언제나 당신에게 날아갑니다.

간절한 한숨 속에 부르는 그리운 이름은 당신입니다.

팔티에르 말데! 팔티에르 말데!”

누군가가 내게 불러준 그리운 그 이름(Caro nome che il mio cor)은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오는 질다의 유명한 아리아다.

집안에 몰래 숨어든 만토바 공작(나쁜놈)이 신분을 속이고 가난한 고학생

팔티에르 말데라며 사랑을 속삭인다.

순진한 질다는 첫사랑의 황홀한 꿈에 젖은 채 뜨겁게 달아오르는
마음을 노래한다.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가 그 목소리를 과시하기 위해 곧잘 부르는
아리아다.

내가 좋아하는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한다.

15일은 김승철(바리톤), 강훈(테너), 조은주(소프라노) 16일은 이현(테너),

김정아(소프라노), 고성현(바리톤)이 출연해 각자의 역량을 과시하는데

작년에 이어 리골레토 역의 김승철, 고성현 한판 승부를 기대해볼
만하다.

15일 저녁은 전 출연진과 함께 PODO에서 회식 예정하고 있고

16일은 우리 임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리골레토 관람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는 오늘 집에서 리골레토를 DVD로 세 번씩이나 보고 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되는 이 오페라를 과연 우리 직원은 누가
보러 갔을까?

만약 보러 간 사람이 있다면 1년치 오페라 관람권을 사서 내가
선물하겠다.

여러분!!

이백서른일곱 번째 만남 _ 2008. 8. 19

오늘은 상념에 잠겨 퇴근하지 않고 잠시 책상에 앉아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께 이야기할까 합니다.

내 회사엔 내 자식이 근무합니다.

딸아인 미국서 공부 후 MBA까지 마치고 순조롭게 결혼 후 아들까지
낳고 회사에서 TC IT를 맡아 그럭저럭 잘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학창시절부터 다잡지 못했고 그 후로부터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기다리다 어쩔 수 없어 회사에 들어와 근무한지 6년
3개월째입니다.

본인의 성격과 회사 임원들의 적극적이지 못한 교육 탓에 항상 회사
외곽에서만 돌았습니다.

최근 TC TECH의 생산관리 손을 받고 이동진 이사와 함께 불철주야
뛰고 있던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2개월 휴직 명이 떨어졌고 본인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방향의 근본은 교육과 체력입니다.

그 체력의 바탕은 修身수신입니다.

우리회사가 드넓은 미래의 바다를 향해 먼 항해를 하려면 모든

회사인들이 체력을 단련해야 함은 기본인 것입니다.

오늘 이동기 부장에게 최근 체력단련과정 결과를 회사 인터넷에 발표하라 지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 체력단련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든 이때 좀 더 열심히 체력단련을 임직원과 함께 한 후 2개월 뒤 훌륭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유준혁 차장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의 자식이었고, 또한 지금 다시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자식을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키우기 참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대기만성 큰 그릇을 만들어내는 아버가 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동식 박사께서

“자식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크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한 이 짓으로 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두려운 마음으로 상념에 잠겨 몇 자 적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의 심정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백서른여덟 번째 만남 _ 2008. 8. 20

보통 나는 남에게 불편한 말을 할 때 직선적이다.

남들은 날 보고 그렇게 바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나라고 나무란다.

바로 하거나 돌려 하거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선 돌아서면 아픈건 마찬가지다.

말을 돌려하는 사람은 직면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돌려 하는 것이다.

바로 하면 될 말을 빙빙 돌리다 보니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오히려 더 힘들고, 하고 난 후는 서로가 더욱 서먹해진다.

그런데 살다 보니 말을 돌려 하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사람 좋단 소리를 듣더라.

그런데 그 사람 인생을 자세히 보면 그것도 돌리더라.

바로 하고 돌리고는 상관 없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 돌려서는 안 된다.

지금도 나는 남에게 충고나 힘든 이야기를 할 땐 심호흡을 한 후 조금 쉬었다가 작정하고 바로 이야기한다.

이백서른아홉 번째 만남 _ 2008. 8. 21

창조경영의 출발점은 바로 예술이다.

*시와 음악, 미술, 공연 등 예술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며 여기서 바로 창의력이 나온다.*

- 마이클 루트벤스타인 교수

여러분 금년 말이 지나면 우리 社內에 평택 공장, 대구 본사, 포항
공장에 새로운 문화가 탄생됩니다.

식당 문화, 건강증진 문화, 예술 등 社內에 복리후생 차원이 아닌
TC전체에 나의 철학을 심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에게 해주는 것을 이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제 본사 사야갤러리, 사야 콘서트 홀에 최덕술 관장이 취임했고
경영기획실에 박대환 사장과 조흠원 사장이 버티고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239

이백마흔 번째 만남 _ 2008. 8. 22

얼마 전에 미국 NYU에 다니는 우리회사 장학생 김나희 양이
방학이라 大邱 부모 곁에 왔다.

8月 31일 출국 예정인데 점심을 회사 식당에서 임원들과 함께 하면서
유지연 이사가 대뜸 우리 직원들에게 강의를 해달란 제안을 하였다.

그때 나희 양이 멀썩해하며 “무슨 강의냐”길래

내가 “그냥 네가 살아온 경험을 얘기해보렴” 라고 이야기했더니
승낙하였다.

8月 23일 교육 때 잠깐 이야기하기로 해서 여러분께 12月말 경 내게
보낸 메일도 함께 첨부한다.

이런 아이가 훌륭히 성장해서 한국과 세계의 미래를 짊어져야 하겠다.

240

아저씨,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20일부터 집에서 계속 혼자서 지냈더니 이제는 혼자 있는 것도 이골이 나네요. 제 룸메이트 가족들이 다 뉴저지에 있어서 다들 뉴저지로 갔어요. 저는 왜 안 따라갔냐고요? 성탄절이란 이유도 있지만 제 룸메이트가 가족 문제 때문에 간거였거든요.

가족 문제 때문에 신경 쓰이는데 저까지 가서 그 집에 머물면 아무리 친해도 실례가 될 거 같아서 그냥 안 갔어요. 덕분에 저는 며칠 동안 혼자 있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날 혼자 있으니까 거참 기분 안 좋대요. 일주일 전 쯤에 NYU에 서류 내고 지금 기숙사랑 뭐 다른 서류 기다리고 있거든요.

처음 NYU에 합격이 되었을 때는 그 좋은 학교에 합격이 되고 이제 조지아에서 벗어나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말고사 시험 공부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기뻐요.

그런데 친한 친구들, 교수님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하나하나 짐 싸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제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또 새로운 곳에 대한 설렘보다는 두려움도 앞서고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뉴욕시에 혼자 이사가야 되고, 연말이라고 다 가족끼리 모일 때 혼자 집 지키고 있어야 되고, 한국 간다고 그렇게 베풀다가 비자 때문에, 또 시간이나 여건상 못 나가게 되서 그 쑥쑥한 마음 달래고, NYU가서 잘 할 수 있을까 등등...

이런 마음 싹 잊어버리게 강하게 마음 먹으려고 눈물 속 빠지게 단련시키고 있어요.

아저씨께서 주신 책 중에서 “하버드 스타일”이란 책 있지요?

그 책을 보니까 작가의 하버드 졸업식 날 어느 나라 대통령이 와서

졸업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Homesick: 향수병)을 꼭 참고 숙제(homework)를 하면서 학부 과정을 보냈더니 어느날 대통령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설을 들던 어떤 멕시코 인이 그 당시에는 킁킁 웃어댔는데 몇 십 년 후에는 멕시코 대통령이 되었어요.

제가 하버드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NYU로 편입을 했지만 나름대로 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 꼭 참고 연말에 혼자 지내면서 책 읽고, 글 쓰면서 시간 보내는데 나중에 대통령까지는 못되도 제대로 밥이나 먹고 살지 않겠어요?

오늘은 NYU가서 어떤 클럽을 들까 생각 중이었어요

NYU에 클럽이 몇 백 개가 되거든요.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건

그 일부고요. NYU 가면 저는 라틴댄스 클럽이랑, 어드벤처 클럽, 미술클럽, 그리고 쿡클럽 들거예요. 그동안 다 배우고 싶었는데 배울 곳이 없어서 못 배웠거든요. 어드벤처 클럽은 말타기, 보트타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등 뭐 그야말로 모험을 하는 거지요..

교수님들이고 친구들이고 다들 제가 NYU가는 거 되게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뉴욕 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종이 모이고 절대 쉬지 않는 곳이라고들 하잖아요. 젊을 때 그런 곳에 가서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공부를 하면 어딘들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저도 그래서 두려움 반 기대 반인지도 몰라요. 일단 제가 뉴욕으로 떠나는 건 1월 13일로 잡고 있고요.. 이사집은 아마 한 14일이나 15일 정도 도착할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연말이 오기 전에 그동안 사소하게 정리해야 될 것들은 다 끝냈고, 이제 가장 큰 이사와 차 파는 것만 남았네요. 차는 Carmax라는 데 가서 팔면 되고. 기숙사에 가구는 다 있으니까 제 침대 같은 건 가져갈 필요 없어서 사실 뭐 특별히 그렇게

힘들다 싶은 건 없어요. 그냥 막상 조지아를 떠나는 자체가 힘들어서
그렇지요. 조지아 와서 참 별의 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동안 미운 정이
들었나봐요. 학교에서 저랑 친한 교수님(Maryann Errico)이랑 작별인사를
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분명 해낼 거라고 믿는다. 니가 NYU에 가고 석사과정 밟는다고
더 좋은 대학에 가면 이런 작은 2년제 대학 기억이라도 하겠니?”라고..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요, 아마 저는 이 2년제 대학을 더 기억하게
될걸요? 왜냐하면 이 대학 때문에 제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좋은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제가 NYU라는
큰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NYU보다는
이 2년제 대학이 훨씬 작고 이름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NYU라는 큰 곳에 갈 수 있었잖아요”라고 대답했어요. NYU 가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것을 배우겠지만
Errico 교수한테 말한 것처럼 저한테 있어서는 남들이 생각하기에
볼품없는 이 대학이 제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
줬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은 저한테 “NYU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니가 다닌 그 대학은 잠깐 맛보기였고, NYU 가고, 거길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또 석사를 하고, 일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은 태산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크리스마스날 날씨가 추운
것보다도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뱃 속까지 더 시린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내년에는 아저씨랑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이เมล 쓸게요.

나희올림

이백마흔한 번째 만남 _ 2008. 8. 25

퍼디판 전송

어제(8월 20일) 인천공항에 동행하여 전송하고 왔습니다.

회사에 남긴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와 엄청난 손실, 그리고 불구자가 되어
귀국하는 젊은 청년을 보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안타까움과 중압감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위의 글은 김병조 전무가 내게 준 글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리랑카에서 티시테크에 근무하러 온 퍼디판이
팔이 잘려 나가는 대형사고를 우리회사 실수로 일어나게 되었다.



며칠 전에 의수를 하고 귀국하는 퍼디판을 불러 식사를 함께 하며
위로의 말을 해주고 위로금을 더 지불하였고 내년엔 부모님과 함께
초청까지 해두었다. 사고당한 보고를 받은 날은 나는 밤잠을 설쳤다.
과연 이것이 내가 가는 人生이냐고 반문을 하면서 어떤 보상도 어떤
 댓가도 합당한 것은 없다.

살아가며 더욱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야 함은 물론이고 죽을 때까지

퍼디판을 잊어선 안 된다. 여러분 그리고 임원님들 여러분
자식이 해외에 나가 일하다 팔이 잘려 돌아온다면 어떤
심정이겠소?

퍼디판 사고 후 어떤 임원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것으로 죄를 삭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다같이 사는 게 무엇이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 시점에 깊이 반문하고 자성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팔 잘려 집으로 돌아가는 퍼디판을 생각하면서.

이백마흔두 번째 만남 _ 2008. 8. 26

지난 토요일엔 제2회 TC 2.0 Conference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유지연 이사를 필두로 관계자 노고를 치하한다.

10년 이상된 차, 부장급들의 과거 최선을 다한 보고를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 이 사람들이 TC의 산증인이었구나 느낌을 받으며 한땀
속연해지기도 하였다.

다 훌륭한 임원들 감이었다.

그런데 막상 누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경영자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왜? 왜? 왜?

우리회사 임원은 자체 승진보다 바깥에서 영입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가?

발표자들의 대부분이 과거 추억 속에 자기를 감추고 있을 뿐 미래를
짚어질 짚고 패기있는 사원을 끌고갈 패기만만한 두목을 찾기란 참 힘든
것 같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과거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들추고 지금의 본인과
미래의 본인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왜?

**우리회사는 신입사원들은 하늘을 부셔먹을 듯 기개가 넘치는데 해가 갈수록
타성과 울타리에 갇혀 자기 직면을 못하는 간부들은 왜 그럴까?**

동북아 중심 축에서 우뚝 선 TC가 가야할 방향을 왜 제시를 못했을까?
내가 가르친 20년 세월에 여기까지 밖에 못왔다면 앞으로 갈 길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물론 긴장되고 처음이라 다소 의지가 미흡하다고 했겠지만 나만 본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 전부가 보았다.

그래도 우리는 그사람과 함께 가야하고 격려하며 지난 과거를 경험삼아
큰 틀을 갖추는 일꾼이 되어야겠다.

수고하신 발표자 여러분 더욱 노력해서 컨퍼런스가 활짝 열리는 기틀을
마련해보자.

결단코 나는 여러분과 고락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TC의 축이 되어
부하직원들을 우뚝서게 이끌어 가도록 한 번 해보자.

다음 컨퍼런스(젊은 사원 중심으로) 11월 22일에 다시 한 번 기대해 보며 욕심 많은
회장의 푸념이라 생각 말고 나도 한 단계 낮출 테니 여러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바란다.

243

이백마흔세 번째 만남 _ 2008. 8. 27

나는 사십이 넘고부터 머리가 반백이 되기 시작했다.
그땐 남들보다 빨리 머리가 쉬었기에 오히려 멋있다고 난리였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흰 머리칼이 많아지기 시작하니 너무 남의 눈에
띄어 나쁜짓할 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호철 원장에게 머리 염색할까 했더니 차라리 니 마음을
염색하란다.
요즘 한국은 '성형공화국' 이라고 외국인들이 비아냥거린다.
너도 나도 성형, 성형 야단이고 난리다.
대한정신의학회에서는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결점이 있다고 집착하는 신체 변형 장애 현상도”가 생겨 젊음과 외모에
집착하는 성형중독현상이 10대 청소년에게 확산 중이란단다.
정말 해야 할 것은 마음을 성형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도 지금 염색하고 다닌다.
잘나 보일려고.

244

이백마흔네 번째 만남 _ 2008. 8. 28

요즘 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다.
짧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불안한 마음이다.
즉 남은 인생이 짧다 라는 본능 때문에 남에게 자기를 확인 당하고
싶은 마음이다.
결국 느긋하지 못한 조급한 마음의 상태인 것이다.
내가 여러분께 1분 메시지도 길게 쓰는 건 여러분이 잘 모를 거라는
나의 노파심이다.

245

이백마흔다섯 번째 만남 _ 2008. 8. 29

완전한 人材는 없다(全材)
위에 있는 사람이 人材로 만들어야 한다(爲材)
세종의 신하 강희맹의 말이다(全材爲材)
여러분 내게 오시오.
어서!

이백마흔여섯 번째 만남 _ 2008. 9. 1

독일의 물리학자 **오스트 발트**는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긍정적 마인드와 독서라 하였다.
나와 여행을 하면서 나는 책을 보고 상대방은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궁금하다.
“뭘 생각하고 있을까?”

246

247

이백마흔일곱 번째 만남 _ 2008. 9. 2

모든 사람들이 내 눈을 보면 날카롭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 눈이 날카로운 것이 아니고
사물을 읽어내는 내 눈이(내 마음이) 날카롭다 한다면 나는 인정한다.

이백마흔여덟 번째 만남 _ 2008. 9. 3

존경하는 회장님 100번째 만남의 글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회장님 글을 읽고

1. 짧은 글, 힘찬 문장, 긴 의미

2. 마지막 부분의 절묘한 반전

3. 넓고 깊은 공부와 경험, 그리고 통찰력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200번째 만남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1.28

이재규

여러분 오늘이 248회 9월 3일 1분 메시지 시작한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이재규 (前)고문은 100번째 이런 글을 주셨는데
조병화 시인은 쉼은 짧을수록 매력적이고 힘이 있으며 감동을 준다
하였습니다.

나도 짧게 쓰려니 여러분께 얼마나 전달될까 노파심에서 길게 쓰면
넋두리 같아 나도 싫었습니다.

춘철살인의 글이 되려면 그것이 聖人の 길이지요.

내가 쓰고 있는 1분 메시지에 담긴 뜻이 현실 속으로 들어가 창조된 생명을
지닌 것처럼 여러분이 제 갈 길을 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글 쓰는 재미를
더욱 흥미롭게 느껴지게 할 것입니다.

248

249

이백마흔아홉 번째 만남 _ 2008. 9. 4

사람이 얻고 싶어하는 가장 큰 권력은
"당신은 정말 사랑받을 가치 있는 사람이다"
오스트리아 정신의학 창시자 프로이트의 말이다.
나는 생각해본다.
정말 나는 사랑 받을 가치 있는 인간인가를.
명예와 금력보다 가르치고 베푸는 삶의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좌우명대로 그 길을 가겠다.
"나는 태어나서 배운다.
그리고 가르친다.
가르치는 길이 쉬워지는 길이 곧 내가 가는 길이다"

이백선 번째 만남 _ 2008. 9. 5

정은혜가 부르는 보성소리 심청가는 최승희 선생을 통하여 배운 것이다.
최승희 명창은 정정렬제 춘향가의 전승자로서 보성소리 심청가를 우리가 알기로는 명고수인 김명환 선생에게 배웠다.
최승희 명창의 이 보성소리 심청가가 오늘 공연의 주인공인 정은혜에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정은혜의 소리는 맑고 밝으며 높이 질러내는 소리와 낮게 이끌어가는 소리가 고루 아름답다.
정은혜는 판소리의 서정적인 아름다움과 극적인 표현을 제대로 표출해내는 젊은 소리꾼이다.
얼마 전 정은혜는 1분 메시지에 소개되었고 우리회사에 와 여러 번

249

공연한 바 있다.

그 아름답고 젊은 소리꾼 정은혜가 9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남산국악당(서울 충무로 한옥마을 내)에서 심청가 공연이 있다.

우리 서울, 평택 직원은 가족과 함께 많은 나들이하여 우리 국악의

세계에 심취해보자(공연 요금은 회사가 부담하겠다)

한국의 예술인은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고 스승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훌륭한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를 배출하는 한국문화가 있다.

그런데 못한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었다고 가출(?)하여 해매고 있는
무리들도 참 많다.

그런데 일본은 스승이 살아계시는 동안 가출(?)도 안되고 뛰어넘는
시늉을 해서도 안되는 엄격한 규율이 있다.

그래서 스승이 있는 당대에는 걸출한 인물이 있을 수 없지만 스승의
턱밑까지 가는 제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스승이 제자를 키우는 방법은 각각 다를지 몰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못한 스승과 못한 제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은혜

교육(Education)

2002. 2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졸업
2002. 3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수시 장학생 입학 M.A
2006. 2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2008. 3	서울대학원 음악대학 석사과정 B.A

수상경력(Award)

1993. 7	정음 전국 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초등부 최우수상
1994. 10	남원 흥부제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초등부 최우수상
1997. 11	정음 전국 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중등부 대상
1999. 11	제17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 전국대회 참방
2000. 11	전국 남도민요 경창대회 중,고등부 최우수상(남도민요 中 육자배기)
2001. 5	제17회 동아국악콩쿠르 판소리부문 학생부 금상 및 종합 특상
2002. 2	“21C를 빛낼 우수 인재상” 대통령상(청와대 만찬 참석)
2002. 3	제1회 군산 전국 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 대상
2003. 9	제8회 완산 전국 국악대제전 판소리 일반부 대상(국무총리상)
2003. 6	제19회 동아국악콩쿠르 판소리 일반부 동상
2005. 6	제21회 동아국악콩쿠르 판소리 일반부 은상

음반활동(Record)

2002. 10	국악방송 새음원시리즈 “젊은 명창이 꿈꾸는 판소리 사랑” 발매
2003. 4	판소리 젊은 소리꾼 5인 CD 국내 발매<신나라 뮤직>
2003. 7	유네스코 선정 판소리 CD 제작 국내 및 해외발매<신나라 뮤직>
2006. 12	정은혜 판소리 다섯 바탕 눈 대목 CD2 녹음
2007. 1	新춘향 공연 음악 녹음
2008. 1	독일 Freiburg theater & Heidelberg theater 합동작품 “Softer, I can't hear you” 공연 음악 Voice Recording
2008. 2	영화 <라디오 데이즈> OST 참여

사사(Teacher)

최승희 선생께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사사
송순섭 선생께 적벽가 사사
김수미 선생께 유관순 열사가 사사

이백선한 번째 만남 _ 2008. 9. 8

보낸사람	"한광수" kshan7@tc.co.kr
받는사람	"유재성" jsyoo@tc.co.kr
제목	회장님 100번째 메시지를 축하드립니다
받은날짜	2008. 9. 3 오전 8:52:45

존경하는 회장님께

우선 회장님의 100번째 "1분 메시지"를 축하드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시작은 잘 하지만 끈기가 부족한지

얼마 못가서 흐지부지해 지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오늘아침 회장님의 100번째 글을 보면서

새삼 60여 년의 티시 역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잔치를 하며

연인들의 교제 시작 후 100일 되는 날에 축하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날일 오늘 회장님의 1분 메시지 100일 기념축하 행사를 열고 싶은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좋은 글 더욱 많이 쓰시어 티시그룹 전 가족들 마음에 상징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회장님 메시지 100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아침을 기다리겠습니다.

위의 글은 TCR의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한광수 차장의 1년을 축하하며 내게 준 이메일이다. 한 차장은 끈기가 부족한지 247회 메시지를 몇 줄밖에 읽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축하와 격려의 메일을 보내주어서 고맙고 또 고맙다.

이제 그만 쉰다 여러분이 깨알같이 읽어 도움이 된다니 다시 마음 다잡고 쓸 것을 약속한다.

축하메일 보내준 임직원들 박대환 사장, 주영준 상무, 변연경 차장, 한광수 차장, 손영준 차장, 김희섭 차장, 박노한 부장, 남준욱 대리, 김병준 대리, 유지연 이사, 주영주 부장, 이진형 사원, 정명은 계장, 박재준 과장, 박수정 과장, 손영호 부장, 조흥원 사장, 고현재 부장, 김대영 이사, 최호권 대리, 박기출 차장, 조호원 과장

이백선두 번째 만남 _ 2008. 9. 9

궁금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1분 메시지를 검색하나 열어보았더니 평균 150명이고(우리 회사 직원만) 요즘 평균 170명 정도로 제법 숫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딱 하나

215번째 만남이 최고 206名이나 되었다.

깜짝 놀라 내용을 열어보았더니

여러분께 보너스 준다는 내용이었다.

여러분은 참 약했다.



이백원씨 번째 만남 _ 2008. 9. 10

지난 주엔 권기찬 교수와 조수영 비서와 함께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矢頭 成元 會長 초대로 본인의 別莊에 다녀왔다.

그분은 건설장비 제조업을 하다 많은 돈을 벌어 별장도 구입해 즐기다가 80이 되니 외로워서 모든 것을 다 처분하는 중이었다. 본인(유재성)의 인사말에 언급하기를

“나이가 들면 지닌걸 버리기가 아까운데 애지중지하는 별장을 판다니 역시 矢頭 會長은 큰 인물입니다”

하며 日本 詩를 읊어주었다.

“벚나무와 삼 밀 풀밭이 이슬로 젖었으니

날이 샌 뒤 가는게 좋겠네

어머니가 눈치챈들 어찌리”

일본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시가집(詩歌集)이라 불리도 좋은

“만요슈(萬葉集)”가 8세기에 편찬되었다.

만요슈에 들어있는 4,500개의 노래는 갖가지 배경을 지닌 시인들이 창작해냈다.

그때 矢頭 會長 앞에서 내가 불러준 시는 만요슈에 나오는 詩로 젊은 농촌 여인이 지은 시다.

이 詩는 요바이(夜違い)라는 풍습을 노래한 시로 요바이란 젊은 구혼자가 밤에 여자집에 몰래 기어들어 정을 나누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기가 가득찬 촌락의 젊은 처녀들은 동네 청년의 방문을 기대하며 일부러 남자가 접근하기 쉬운 곳(헛간)에서 잠을 잔다. 잠입한 청년은 아침이 될 때까지 여인과 함께 머뭇으로써 구혼의 표시를 한다.

그야말로 이슬처럼 생생한 이 노래는 밤을 함께한 청년과 평생 살고 싶다는 농촌 여인의 욕망을 표현한 노래이다.

이 노래를 그 회장 앞에 불러주었더니 그 이후 대접이 휘황찬란하였다.

일본 사람은 만나면 빨리 상대방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걸 써먹었다.

나의 비서 앞에서 생전 모르는 거물 기업인이 내게 껌벅 죽는걸 보고 흐뭇해하며 만요슈 시를 많이 외워야겠다고 결심했다.

254

이백원네 번째 만남 _ 2008. 9. 11

작년에 日本 코벨코의 후지와라 모친상에 김경태 사장과 문상을 갔을 때 이야기다.

문상하기 전 마쓰오카 전무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부부는 한국남자가 한국여자를 존중하는 대우를 해주는데 일본의 경우는 일본남자가 일본여자를 비하한다는 이야기를 마쓰오카 전무가 내게 해주었다.

나는 그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日本1020년 헤이안 시대(794~1185) 궁정의 宮女 무라사키 시키부가 完成한 장편소설 겐지이야기 源氏物語(げんじものがたり)를 읽어보면 남녀가 대등하였다고 알려주었더니 마쓰오카 전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내게 절을 하곤 유 회장을 존경한다고 하였다.

유 회장의 일본 역사, 문화, 그림, 소설, 문학, 정원, 건축, 나무 등 탁월한 지식을 우리 일본인도 감히 따라갈 수 없다하며 감탄해 하였다.

무릇 일본을 알려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섭렵해야 한다.

참조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973~1014)는 지금부터 천년 전인 11C 초 지금의 京都에서 헤이안시대 한학자 아버지 후지와라 다메토키(藤原爲時)의 딸로 태어나 1005년 천황의 공녀로 발탁되어 궁중생활 체험을 살려 완성한 장편소설이 源氏物語이다. 源氏物語는 전체 54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00자 원고지 5,000매가 넘는 세계 最古, 最長 고전소설로 치밀한 구성과 인간의 심리묘사, 표현의 정교함과 미의식 등으로 일본 문학 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된다. 겐지이야기를 꿰뚫고 있는 미의식은 모노노아와레(もののあはれ)로 계절이나 음악, 남녀 애정 등의 조화된 정취를 나타내는 이념으로 우아하고 섬세한 미적 감각을 나타내는 말로 오늘날 장점의 日本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이백원다섯 번째 만남 _ 2008. 9. 12

오늘 밤도 가슴을 치며 내 자신을 나무란다.

오늘 밤 내가 말이 많았고 남의 말을 덜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 무리 중 스스로 자기가 우수하다는 착각이다.

그래서야 남들이 내게 다가올 수 있겠나.

자기들은 말도 못하고 들어야 하니 얼마나 괴롭겠나!

그런데 나는 노는덴 귀신이다.

255

이백원여섯 번째 만남 _ 2008. 9. 16

SERI CEO에 세링게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냥의 3대 원칙이 있단다.

첫째, 달아나는 짐승의 꿈무늬를 쏘지 마라.

둘째, 임신한 짐승(배가 부른)은 쏘지 마라.

셋째, 한방에 죽여라

(죽여가는 짐승에게 고통을 짧게 해주란 말이고,

고라니는 총을 맞고 사냥꾼을 쳐다보며 정말 눈물을 흘린단다)

그런데 진짜 사냥꾼은 신중하고 끈기 있게 다가가 급소를 갇힌단다.

무릇 기업도 그러하지 아니한가?

256

이백천일곱 번째 만남 _ 2008. 9. 17

에두아르 마네(1832~1883)는 인상파 화가들과 함께 전시회를 했기 때문에 인상파로 알려졌지만 사실 사회의 도덕성을 신랄하게 공격한 『폴발 위의 점심』, 『올랭피아』 같은 사실주의 작품들에 의해 그의 명성을 얻었다.

『폴발 위의 점심』은 스캔들을 일으킨 문제작이다.

그는 1863년 살롱전에서 처음으로 『목욕』이란 제목으로 출품했으나 낙선했다.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낙선한 화가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낙선전에 전시되었는데 관객이 이런 비평을 하였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천한 여인이 정장한 두 남자 사이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벗을대로 벗고 건방지게 앉아있다. 사내녀석들은 공휴일날 성인 행세를 하는 학생 녀석들 같다. 나는 이 수수께끼 같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의 의미를 찾으려고 헛되이 애썼다. 이건 한 젊은 화가의 짓궂은 장난이며 전시할 가치조차 없는 부끄러운 상처다. 풍경은 잘 그렸지만 인물은 제멋대로다.” 마네는 아카데미 살롱에 매춘부를 주제로 한 『올랭피아』를 출품하여 파격적으로 입선하였다.

1865년 아카데미 전시도록에 자카리 아스트뤼크의 다음과 같은 시구가 적혀있다.

꿈꾸는데 싫증나면
올랭피아는 잠을 깨고
붉은 안전한 흑인
메신저의 팔에
들려오네.

낮에 볼 수 있는
감미로운 꽃을
피우려고 사랑의
밤같이 하녀가
찾아온다네 젊고 예쁜
가슴에 불이 탄다네.
올랭피아란 제목은
아스트뤼크 시에서
따왔지만 프랑스

홍등가에서 즐겨 쓰던 여인의 가명이다.

미술을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올랭피아는 사실 티치아노(1518년)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거의 복사한 것처럼 닮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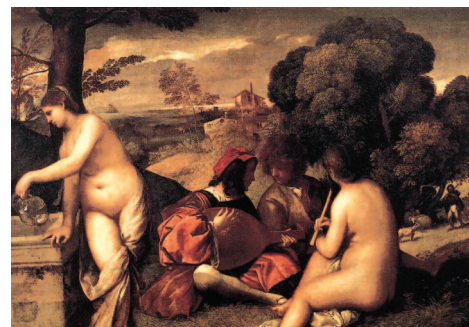
누워있는 상류층 대신 파리의 매춘부로 대치한 그림이다.

그리고 『폴발 위의 점심』도 사실은 조르조네 카스텔프란코(1477~1510)의 『전원의 연주회』와 너무 흡사하다.

조르조네는 『전원의 연주회』에서 저녁놀의 목가적인 전원풍경 속에 대담하게도 옷 입은 두 남자와 함께 숲 속의 비너스 같은 풍만한 두 누드



마네, 〈폴발 위의 점심〉, Oil on canvas, 214×269cm, 1863년



조르조네, 〈전원의 연주회〉, Oil on canvas, 110×138cm, 1508~9년

여인을 등장시켰다. 한 남자는 류트라는 현악기를 켜고 다른 한 남자는 피리를 들고 있다. 현악과 피리는 양 치는 목동의 시를 상징하고, 풍성한 육체의 여인들은 시적 영감을 주는 여신을 상징한다. 『밀로의

비너스』같은 풍만한 여인은 사상이 고인 샘에서 솟아나는 약간의 물방울을 뿌리며 관능미를 선보인다. 그녀의 등과 허벅지 피리를 들고 담소하는 풍류객들을 향한 여인의 고운 뒷모습을 닮았을 것이다.

남프 같은 여인들의

황금색으로 빛나는 흰 살결과 윤곽선이 나무 그늘에 접해 사랑과 임신의 여신같이 아랫배가 풍만하다.

피카소가 이런 애길 했다.

“현재의 그림은 이미 과거에 다 그려진 것을 살짝 바꾸어 놓았을 뿐이다” 요즘 전시회를 가보면 너무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다 생각이 되어 씁쓸해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 여러분!

어려운 미술공부 이렇게 재미를 맛봅시다.



마네, 〈올랭피아〉, Oil on canvas, 130.5×190cm, 1863년



티치아노, 〈우르비노의 비너스〉, Oil on canvas, 119×165cm, 1538년

이백신여덟 번째 만남 _ 2008. 9. 18

고르디우스(gordius)의 매듭이란 기원전 소아시아 고대국가 프리지아의 왕 고르디우스가 누구도 풀지 못한다는 매듭을 묶은 다음,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지배하리라고 예언한다.

알렉산더 대왕은 풀 수만 있다면 어떻게 푸느냐 하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칼로 이 매듭을 끊어버렸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에 얽힌 전설이 있다.

일본은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중이다.

일본의 정치 사회 체제는 지금 극심한 혼란에 있다.

특히 세계화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에 제기되는 갖가지 질문과 씨름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에게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몸부림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일본이 서방 세계에 문을 연지 30년 후에 유럽은 당시 프랑스어로 자포니즘(japonism)이라는 유행의 파도에 휩쓸려 있었고 드가, 마네, 모네, 르노와르, 뤼슬러, 피사로 등의 화가들이 일본의 이미지에 매료당해 파리 만국 박람회에 출품한 포장지의 그림이 일본의 우끼요에(浮世)로 서양 미술의 후기 인상파를 탄생시키게 되고 서양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 일본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 동북아시아 최강자 자리를 중국에 위협당하고 있는 이때 바로 우리나라가 그 매듭을 풀어야겠다.

나는 확신한다.

그 매듭은 우리가 반드시 풀어 아시아 강자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자.

미국 라이사워 교수가 천명했듯이.



이백원아홉 번째 만남 _ 2008. 9. 19

일본 이야기 또 해보자.

명함은 근대 일본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명함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나 소속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어느 지위에 있는지 서열을 알 수 있다.

누가 누구의 윗사람인가?

인사할 때는 머리를 어느 정도 숙여야 적당한가?

일본은 상대의 지위를 모르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절절매며 허둥대는 것을 가끔 보게 된다.

그래서 일본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충분한 나의 자료를 주어야
안심하고 편안하게 접근해준다.

그리고 서로 인사를 나누기 전에 명함부터 두 손으로 교환한 후
목례(눈인사)를 할 뿐 서양식 악수는 하지 않는다.

모르고 내 쪽에서 손 내밀면 마지못해 잡아주나 어색해한다.

그리고 받은 명함에다 본인 앞에서 메모하는 것은 큰 실례다.

일본인의 명함은 그 사람의 얼굴인데 얼굴에다 낙서하는 꼴이 된다.

일본사람은 자기 모국어의 발음표현 부족함에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유창한 영어를 하면 겁에 질려 한다.

예를 들어서 입국심사를 할 때 일본말로 꼬치꼬치 묻는 공무원에게
영어로 유창하게 대답하면 얼른 내보내준다.

내가 세계를 여행한 경험으로는 입국 심사시 제일 까다로운 나라는

**앵글로색슨족(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등) 국가와 약탈할
정도로 까다로운 나라는 일본이다.**

이런 나라들은 남의 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영국민은 백호주의가
형성되었고 일본인은 섬나라 근성으로 침략당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입국시 경계심으로 드러나고 있다.

재일 외국인인 일본인에게 받는 서러움은 비단 재일교포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게 거리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민족이다.

그런데 일본 여자들은 미국사람이라면 껌벅 죽는다.

그것은 패전국으로서 침략자에 대한 열등감이 존경심으로 바뀌는
정신 의학적 현상이다.

260

이백예순 번째 만남 _ 2008. 9. 22

이러다간 우리 인간 세상에 언젠간 하늘의 불벼락이 떨어질지 모르겠다.
저 우주에서 보면 지구라는 행성에 동식물들이 사는데 그중
인간만이 가장 지구를 많이 파괴하는 미생물이란다.
직선을 만든 인간들 말이다.

이백예순한 번째 만남 _ 2008. 9. 23

행복과 고통을 거의 같은 비율로 얻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지금 우리가 만일 고통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전에 받았거나 잃은
행복 때문일 것이다.

행복은 고통의 끝이 아니고

고통은 행복의 끝이 아니다.

2년마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건축 비엔날레의 한국관에
초대되었다.

파주시 출판단지 프로젝트가 승효상 건축가에 의해 참가하게 되어
민경식, 고기영, 박승홍 건축가들과 함께 베니스, 밀라노 볼로냐의
리모델링 현장과 미술 즉, 디자인이 어떻게 접목하는지 확인하러
왔다가 잠 못 이루는 밤에 **행복의 본질**을 생각해본다.

260

이백예순두 번째 만남 _ 2008. 9. 24

우리의 문화에서 “죄”란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내리는 판결이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벌한다.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내리는 처벌이다.

나는 이것만은 나 자신(유재성)한테 한 번도 저본 적이 없다.

물론 아직까지 쉽게 넘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지난번 이야기대로 **양심은 우리자신에 최대의 감시자임**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요즘 이런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특히 서울 사람)

인간들이 참 많더라.

이백예순세 번째 만남 _ 2008. 10. 6

스탕달 신드롬이란 걸작품을 보고 갑자기 흥분된 상태에 빠지거나
호흡곤란, 우울증, 현기증, 전신마비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
현상이라고 이주현 미술평론가는 말하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의 대문호 스탕달의 이름을 딴 가벼운 정신질환을
말하는데 이태리 피렌체 정신과 의사 **마게리니**가 명명했다 한다.

미술작품은 정신과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미술 작품을
아느냐 모르느냐 상관없는 주관적인 감정운동이란다.

나도 간혹 미술관에서 몇 번을 경험한 적 있다.

(에미르타주 미술관에서 「마티스의 춤」을 보았을 때 1시간 정지된 상태였다고 지난번
이야기했었다.)

여러분도 꼭 그런 기회가 있길 바란다.

그런데 나는 우리회사 여직원을 보고 이런 신드롬을 몇 번씩이나
겪은 적이 있다.

또 우리회사 최덕술 관장은 노래 부르다가 자기 노래에 그만 자기가
꺼뽀한단다.

세상을 살면서 이래저래 꺼뽀할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노.

이백예순네 번째 만남 _ 2008. 10. 7

여러분, 시간 나면 택리지(擇里志 이중환 著) 고전을 한 번 읽어봐주기 바랍니다.

擇里志란 조선시대 1751년(영조 27)에 실학자 청담(淸潭) 이중환(李重煥 : 1690~1756)이 저술한 지리서(地理書)입니다.

〈박종지(博綜誌)〉라고도 하는 택리지는 〈팔도총론(八道總論)〉과 〈북거총론〉 2편으로 나누어서 서술하였는데 〈팔도총론〉에서는 전국을 8도로 나누어 그 지리를 논하고 그 지방의 지역성을 출신인물과 결부시켜서 밝혔고(地人相關), 〈북거총론〉에서는 살기 좋은 곳을 택하여 그 입지조건을 들어 타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팔도총론〉은 지방지(地方誌)에, 〈북거총론〉은 인문지리적 총설에 해당됩니다. 사람이 살 만한 곳의 입지조건으로서 지리·생리(生利)·인심(人心)·산수(山水) 등 네 가지를 들었으며, 여기에도 여러가지로 구별하여 가거지류(可居地類)·피병지(避兵地)·복지(福地)·은둔지(隱遁地)·일시유람지(一時遊覽地) 등으로 분류하여 두었습니다. 특히 전라도 이야기, 경상도 이야기에서 저자의 탁월한 식견이 너무 정확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風水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풀어놓은 이 책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한국사람이 저술한 현대적 의미의 지리서라는 점, 둘째로 실생활에서 참고와 이익을 주도록 저술된 점, 세 번째로 한국의 지리학과 사회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회사가 신한만 건설 레이아웃을 검토하는데 연인원 15명의 임직원이 이틀간에 걸쳐 토론 후 결론을 가져왔으나 기초에 해당하는 風水를 모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도 주인정신이 필요한가요?

이백예순다섯 번째 만남 _ 2008. 10. 8

아름답고 순진무구한 존재일수록 죄책감 없이 악을 저지른다.
유머주의를 대표하는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예술적 주장을
담아 희곡 살로메(Salome, 1893년)를 썼다.

의붓아버지 헤로드 앞에서 춤을 춘 대가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요구했다는 성서의 '살로메' 소재는 1870년대부터 세기말을
거쳐가며 여러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귀스타브 모로나 에두아르드 뭉크 같은 화가도 '살로메'라는 제목의
그림을 남겼다.

그 외에 많은 화가들이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은 그림을 그렸다.
신약성서에서는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스의 사주에 의해 세례자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와일드가 그려낸 살로메는
요한의 목소리와 몸매 반해 헤로드에게 그의 목을 요구한다.
자기 어머니의 부정한 행실을 비난하는 요한이 못마땅해 죽이려 했던
게 아니고, 자신에게 처음으로 욕망을 느끼게 한 남자인 요한이
자신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라도 소유하려 했던 것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신음과 절규 같은 노래로 요한의 살결과 머리카락과
입술을 예찬하다가 결국 죽은 요한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는
살로메는 작가 와일드가 지향했던 탐미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
슈트라우스 오페라의 경우에도 작품의 최고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일곱 베일의 춤'이다.

오페라의 드라마적 중심이기 때문에 이 춤은 대개 전문 무용수가
아닌 살로메 역의 소프라노 가수가 직접 추게 된다.



장 베네르, 〈살로메〉, 1899년경

귀스타브 모로, 〈헤로데 앞에서 춤을 추는 살로메〉,
Oil on canvas, 144×103.5cm, 1874~6년

물론 이 점은 관객에게는 매력적이지만 성악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이 ‘일곱 베일의 춤’은 마치 ‘햇빛에 영롱하게 빛나는 오묘한 빛깔의 비단’ 같은 음악을 원했던 슈트라우스 관현악곡의 특색이 잘 드러난 음악이며, 낯선 이국풍의 관능적 음악으로 시작해 유럽인들에게 익숙한 왈츠 선율로 절묘하게 고조되어 가는 환상적인 곡이다.

어제(2008.10.3) LG아트센터에 오페라 살로메를 보러간 것은 살로메가 그 ‘일곱 베일의 춤’을 출 때 옷을 다 벗는 것 확인하러 간 것이었다. 하지만 벗기는커녕 속이 비치지 않는 드레스만 입고 나왔고 춤은 아예 추지도 않았다.

연출가가 시드루에 노브라에 빨강 팬티를 제안했으나 거절 당했다. 역시 한국판 살로메의 틀을 벗을 수 없는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젠 성악가의 목소리만 듣는 시대는 갔다.



잠피에트리노, 〈살로메〉, 16세기 초

빌렘 트리브너, 〈살로메〉, 1898년

현재 구미에서 일고 있는 오페라 해석은 훨씬 더 관객을 시각적으로 자극한다.

언젠가는 관객도 오페라 오브제가 될지도 모른다.

만약 여러분들이 살로메에 관심(있는 것)이 있다면 Convent Garden에서 Orchestra of the Royal Opera House의 DVD를 사서 보십시오.

살로메 역의 소프라노 Catherine Malfitano의 성숙하고 농염한 연기의 춤과 노래와 육체의 향연이 우리를 또한 스탕달 신드롬에 빠지게 할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메조소프라노 김선정의 헤로디아스와 바리톤 오승룡의 요한 역할은 그 전날 공연이라 보지 못해 섭섭했지만 10월 3일 초가을 나의 밤은 더욱 깊게 몰입하는 날이 되어 나를 또 한 번 스탕달 신드롬에 빠지게 하였다.

이백예순여섯 번째 만남 _ 2008. 10. 9

오늘밤에 우리회사 제품이 시장장악에 성공했다고 사장 이하 임직원이 축하 파티를 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우리회사 제품을 제압하는 제품을 내일부터 출시하는 축하파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기업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걸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된다.

세상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를 말리는 경쟁 속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피를 말리다 끝나는 게 人生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옆에서 우리를 이기기 위해 피를 말리고 있는 것을 왜 모르는가?

이백예순일곱 번째 만남 _ 2008. 10. 10

왜 사람들은 집단적 사고에 저항하지 못할까?

남들과 다른 사고를 한다는 사실을 불안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폭탄주 차례가 돌아왔을 때 술을 입에도 못대는 사람도 가뿐히 한 잔 주욱이다.

만약 거부하거나 주춤거린다면 소외당한다 라는 불안감 때문에 나중에 죽을 때 죽더라도 벌컥벌컥 들이킨다.

창의성에 최대의 적은 불안이다.

이백예순여덟 번째 만남 _ 2008. 10. 13

누가 쓴 각본에 따라서 울고 웃고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누가 쓴 대본에 따라서 슬퍼하고 행복하고 불행해 지는가?

그 대본은 하나님이 쓰는가? 붓다가 쓰는가?

부모인가 세상인가?

그 각본은 자신의 마음이 쓰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 마음이 쓰는 각본에 따라 우리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즐거워하고 불만스러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비움(反執着)의 철학이다.

이제 난 人生(63才)을 넘기고 다음 인생을 출발하는 지금,

이렇게 비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힘들더라도 한 번 가보겠다.

이백예순아홉 번째 만남 _ 2008. 10. 14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의 영화 「영웅(英雄)」을 보면 진시황(秦始皇)을 죽이러 간 자객 무명(리롄제 李連杰)은 막상 진시황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결국 그를 죽이지 못하고 대신 자신이 죽는다. 그것은 무명이 진시황을 대면하기 전에 만난 또다른 협객 파검(량차오웨이 梁朝偉)에게 설복당했기 때문이다. 파검은 무명에게 천하의 대의를 위해서는 사소한 은원(恩怨)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진시황을 죽이는 것이 개인의 원한을 갚고 명성도 드높이는 일이 될 터이나, 이미 천하의 대세가 진시황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고 있을진대, 그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필연적인 역사 발전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무명이 진시황을 향한 칼을 거둔 것은 개인적인 은원에 얽힌 소아(小我)를 버림으로써 천하의 대의를 실현하는 대아(大我)를 얻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무명은 애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나, 그럼에도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왕의 땅이 아닌 게 없다(普天之下莫非王土).

하늘 아래 모든 것은 하나의 세계이며, 그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한 사람, 곧 '하늘의 아들' (天子)이다.

그는 '하늘의 명' (天命)을 타고나 하늘의 뜻을 대신하는 유일한 사람이므로, 모든 백성은 그의 뜻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오직 한 나라만 존재하니 그것이 곧 중국이다.

중국을 제외한 이민족이나 다른 나라들은 모두 인간 이하의 존재인 오랑캐일 뿐이다.

안팎을 구분해 안에 속하는 것을 '중화(中華)' 라 칭하고 그 이외의 것은 '오랑캐(夷)' 라는 딱지를 붙여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고방식을 화이(華夷)관념이라 부른다.

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의 '하늘 아래' 통섭하려는 중국인의 '천하관' 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중국에 처한 우리의 시각은 달라져야 한다.

중국입장에서 우리는 東夷동쪽의 오랑캐다.

이제 중국은 반대로 우리를 업신여기기 시작함을 주목, 예의주시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림픽 당시 한국에서 중국인의 난동을 보지 않았는가 말이다.

지난번 이진태 會長 이야기를 명심해주기 바란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백일흔 번째 만남 _ 2008. 10. 15

중국의 근대사는 한마디로 중화주의가 민족국가들에 의하여 계속 도전을 받으며 그 환상이 깨어짐과 동시에 강력한 민족국가의 하나로 탈바꿈해가는 과정이었다.

흔히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라 말한다.

근대의 시작과 함께 중국은 중화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버릴 것을 강요당하고 한낱 종이호랑이를 넘어서 동네북으로 전락해 갔은 수모를 겪게 되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백 년 뒤, 상황은 다시 일변해 우리는 또다른 중국의 변신을 목도하고 있다.

그것은 새롭게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부상**이다.

21세기에 그들은 전 지구적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유일의 강대국 '팍스아메리카나'의 세력에 맞설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도 천하를 추구하고 천하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야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중국으로 몰리고 있으며 그 심장부인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중국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오랜 세월 중국의 수도였던 베이징이 새롭게 부각되고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은 또다시 세계의 수도를 꿈꾸고 있다.

그 베이징의 중국경성태창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 임직원은 심기일전,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슬기를 찾아 다시 TC의 중심에 우뚝 서는 큰 역할을 기대한다.

271

이백일흔한 번째 만남 _ 2008. 10. 16

여러분 베스트셀러를 읽지 말고 고전을 읽으십시오.
지금 베스트셀러는 나중에 고전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지요.
왜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270

이백일흔두 번째 만남 _ 2008. 10. 17

어제까지 이틀간 **협력의 마법 & 아시아 시대**란 주제로 매일경제 주관 세계경제포럼에 조희원 사장과 다녀왔습니다.

미국 금융 위기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시점이라 청중들의 청강태도가 열기로 달아올라 사뭇 긴장된 이틀이었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새로운 국제금융협력기구를 만들자라는 제안도 있었고 세계 석학들의 활기찬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이제 개인과 기업, 국가는 초경쟁 사회에서 벗어나야 하며 21세기는 협력만이 혁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개인, 기업, 국가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하였습니다.

협력을 통해서만이 지구촌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어느 청강생이 베이징대학 C.S.키앙 학장과 인텔 재단 사장 브랜다 무실리에게 이런 불확실의 시대에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갖추어야 할 핵심이 무엇이나고 질문을 했을 때 **어학**(영어 외에 몇 개 나라 국어)과 **커뮤니케이션**(소통)을 갖춘 인재를 키워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회사의 내년도 경영 화두를 **無所不通四通八達** 무소불통사통팔달로 삼고저 합니다.

위기를 극복, 성장의 동력원을 찾을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이백일흔세 번째 만남 _ 2008. 10. 20

세계경제포럼에서 **손성원** 주립대학 교수와 **크리스토퍼 콜 골드만삭스 IB부문 회장**은 이번 국제금융위기를 진단하면서, 미국의 금융시스템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실패의 원인을 **소비자(미국국민) 보호 실패, 금융리스크 관리부재, 상호간 금융정보 부재**로 요약했습니다.

또한 이 위기를 올 봄 경제포럼에서 **손성원**(前 LA한미은행장) 교수와 **스티븐 로치**(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가 미국 前 연방은행 총재 그린스펀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였지만 미국 정부와 함께 그당시 현실을 부인한 결과가 엄청난 위기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은 세계 금융가에 일약 대영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TC에서도 이 실패의 원인을 거울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연 중 기억에 남는 분은 리처드 레빈 예일대 총장으로 자기 대학에 매년 28억\$를 투자한다 하였습니다.

역시 이번 강연에도 핵심은 **어학**이고 **소통**이라면 이걸 위한 **교육**에 투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더불어 **체력단련**입니다.

모든 게 기초가 튼튼해야 하지요.

이백일흔네 번째 만남 _ 2008. 10. 21

중국 항주 근처 양청후(陽澄湖)에 사는 민물게 따자씨(大閘蟹) 대갑게는 상해 미식가에게 9월~10월은 최고의 별미를 제공해준다.

한국 남해안 가을전어가 그렇듯이 말이다.

세상에 싸고 맛있는 걸 찾는 건 오만이다.

그래도 영원히 싸고 맛있는 건 제철에 나는 과일과 생선이다.

여러분 새우가 왜 정력에 좋은지 아십니까?

세우니까.

275

이백일흔다섯 번째 만남 _ 2008. 10. 22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외모나 말, 행동을 어떻게 보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는 이미 했다.

남의 평가에 자유로운 독립형인간(反의존적인간) 이것이야말로 중심이고 근본이 아니겠느냐.

맹자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르는 개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하였다.

그런데 나도 지난날을 돌아켜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었다.

그저 흔들리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변명하고 피하고 달아나려고 발버둥쳐 보았다.

그 결과는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제 세계적인 위기가 확산되는 이 현실 속에 바깥에 흔들리지 않는 不動心의 두목이 되어보자.

우리 다 함께.

이백일흔여섯 번째 만남 _ 2008. 10. 23

모든 예술 작품에는 수명을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언젠가 내가 도자기 만드는 곳에 가서 그 장인이 가장 자랑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며 만져보라 하길래 만져보다 그만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그 당시 어쩔줄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그 장인은 빙긋이 웃으며

“너무 염려마십시오. 그 그릇은 바로 오늘이 그가 태어나서 죽는 날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는 리미트(運命)가 있다는 것이다.

수도 없이 만지다 깨어 본 경험에서 나온 그의 도자기 철학이었다.

그런데 서양 미술품은 끊임없이 복제되고 재생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것들이 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이 갖은 못된 짓을 하고

있기에 그 작품은 영원할지 몰라도 지난번 아프리카 스와힐리족

이야기 중에서 ZAMANI 즉, 기억하지 못할 영원한 침묵의 시간으로

갈 수 없는 것이다.

서양철학이 갖는 모순 때문에.

며칠 전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르네상스 미술사학을 전공해

우리회사를 방문한 김영준 씨에게 권한 말이 있다.

자기 스승이 미술품을 복제 재생하는 것은 인간의 속물 근성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말하기에 그 스승을 따르게 되었다고 해서

“동양철학을 공부 한 번 해보십시오”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 김영준 씨는 그 순간 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

동양인 장인의 그 도자기 정신 말이다.

이백일흔일곱 번째 만남 _ 2008. 10. 24

지난주 토요일 박대환 사장, 조희원 사장과 북경경성태창

다녀왔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 안고 공장을 한바퀴 돌고 배 사장과 백범 동사장, 이충파 부총경리, 임상호, 임종원, 이세형, 배성운을 불끈 안아주고 돌아왔습니다.

북경경성태창은 지난번 이야기한 대로 경기가 나빠져 178名을 권고퇴직시키고 지금은 211名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품은 일부직원이 방화를 하고 위협을 가하는 것을 잘 달래서 보냈단 얘기 듣고 가슴을 울먹였습니다.

나의 경영 40년에 IMF환란 이후 또 한 번 직원을 퇴직시키는 아픔을 겪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배돌암 사장은 우리들은 이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의지를 표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직원을 내보내는 그 아픔 속에서도 금연을 했더니 더욱 고마워 약속한 1,000만 원을 내 개인돈으로 오늘 송금했습니다.

우리 모든 직원에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빅핸즈(큰 박수)를 보냅시다.

북경 임직원을 향해.

그리고 이천석 고문의 따님이 사법고시 최종합격(2차 합격)했다는 소식 듣고 기뻐 어쩔 줄 몰라 오늘 비 오는 서울이 이렇게 밝아 보였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이 위기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태산을 옮기는 큰 삼을 함께 듭시다.

이백일흔여덟 번째 만남 _ 2008. 10. 27

여러분 중국을 알려면 중국 역사를 간파해야 한다.

이제 한 번 5회에 걸쳐 요약해볼 테니 바짝 긴장해서 외우다시피 읽어주기 바란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하였다.

거대한 중국을 알아야 함에 망설일 시간은 이제 우리에게 없다.

중국하면 떠오르는 것 중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다.

바로 중국이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이는 전세계가 인정하는 찬란한 역사임에 분명하다.

2세기 무렵의 인구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漢)나라의 인구는 약 5,950만 명이었다.

이는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제국과 그들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변방 지역까지의 인구를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16세기 초, 포르투갈인이 처음 중국에 왔을 당시 중국의 인구는 이미 1억에 육박하고 있었다.

이는 유럽 전체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그리고 19세기 중반 서구 열강이 강력한 대포로 무장한 전함을 앞세워 강제로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려 할 때 중국의 인구는 이미 4억 이상이었다.

“중국은 이처럼 거대한 인구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외의 발전 상황에 상관없이 시종일관 중화 민족의 특성을 지킬 수 있었다.

비록 몽골족과 만주족에게 지배당하고 끊임없이 서구 열강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중화 민족은 인구수와 우월한 문화를 바탕으로 이민족을 그들의 문화로 흡수하거나 침입자를 쫓아낼 수 있었다.

중국은 외래문화를 취사선택하여 그들의 전통문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변화시켰다.

중국은 유럽 원주민이 게르만족에게 정복당하고 중동과 인도가 모슬렘에게 정복당한 것처럼 외래 세력에 의해 자신의 문화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중국의 엘리트들은 전통적인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중국이 그들의 역량에 맞는 합당한 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들은 중국이 아시아 혹은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백일흔아홉 번째 만남 _ 2008. 10. 28

세계정세의 근본적인 변화 앞에서 중국은 여전히 '하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 라는 환상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1793년, 영국 정부는 중국시장을 개방하여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조지 매킨토니(George Macartney)**를 중국 특사로 파견했다.

매킨토니는 각 분야의 전문 기술자, 군사전략 전문가, 예술가 등 100여 명이 넘는 수행원을 이끌고 중국에 도착했다.

이 외에도 청나라 건륭제에게 바칠 선물 600상자도 함께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발명품과 대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혀 예기치 못한 엉뚱한 이유로 인해 이들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았다.

청나라 조정에서 매킨토니에게 건륭제를 알현할 때 전통 예법에 따라 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 전통 예법이란 바로 **삼배구고(三拜九叩,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였다.

그러나 고집이 세었던 매킨토니는 끝까지 삼배구고를 거부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겨우 황제를 접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건륭제는 매우 오만한 태도로 매킨토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청나라는 하늘이 내린 나라로 물자가 매우 풍부하여 없는 것이 없다”
건륭제는 근본적으로 서양의 공업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세계 흐름의 변화를 읽지 못했으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등한 외교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이 분명하다.

더구나 서양 국가들이 강자의 논리를 앞세워 정치적인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청나라는 자기중심적인 폐쇄 정책을 고집한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다.

1840년, 영국은 청나라를 상대로 아편전쟁을 일으켰다.

당시 90만 상비군을 보유했던 청나라는 겨우 1만 5,000명 남짓한 영국군에게 대패하고 굴욕적인 '**난징조약(南京條約)**'을 체결했다.

이후 영국의 뒤를 쫓아온 유럽 열강들은 중국이 아편전쟁의 후유증에 빠져 있는 틈을 타 저마다 한몫 챙기기에 바빴다.

그 결과 중국은 온갖 핏박 속에 **미국과 왕샤조약(望廈條約)**, **프랑스와 황푸조약(黃埔條約)**을 맺는 등 잇따라 불평등조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 외에도 포르투갈,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프러시아, 네덜란드, 덴마크 등도 한몫 챙기기 위해 중국으로 잇따라 몰려왔다.

얼마 뒤 중국은 다시 제2차 아편전쟁, 프랑스와의 전쟁, 8국(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일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연달아 패하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엄청난 재물을 약탈당했고, 영토마저 할양해야 했다.

과거 청나라 정부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고혈을 쥐어짜는 서양 도적떼들의 약탈이 이어지면서 중국은 철저히 무너져 갔다.

일례로 8국 연합군에게 패한 후 중국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무려 은화 10억 냥이었다.

지액의 배상금은 마치 흡착기처럼 중국인의 피땀 한 방울까지

빨아들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근대화 및 공업화를 추진할 자금이 절대 부족했고, 농촌마저 파탄에 빠졌다.

바로 이 틈을 타 본래 영토 면적으로나 인구 수로나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한참 뒤떨어져 있던 일본이 정면으로 도전해왔다.

중국은 서구 열강과의 싸움에서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도전 앞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1888년 이후 일본 해군이 중국을 향해 전력을 전진 배치하기 시작했지만, 중국 해군은 배 한 척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청일전쟁의 기운이 고조되어 가던 1892년 중국과 일본의 해군은 이미 활시위에 화살을 걸고 서로를 주시하고 있었다.

1894년, 일본은 먼저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온갖 재물을 수탈한 뒤 다시 상처투성이 중국을 향해 강력한 일격을 가해 결국 중국은 참패하고 말았다.

이백여트 번째 만남 _ 2008. 10. 29

청일전쟁의 패배 이후 중국의 지식인들은 고통스럽게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이즈음 민주혁명의 선구자 쑨원(孫文)이 등장하여 민주 공화정을 주장하며 반청 운동을 일으켰다.

1911년, 우창(武昌) 봉기로 반청 운동이 정점에 다다르면서 결국 청나라는 막을 내렸고, 이와 동시에 2,0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중국의 전제군주제에 마침표가 찍혔다.

이후 중화민국(中華民國)이 수립되고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는 듯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인들은 '뒤떨어지면 짓밟힌다'는 논리를 다시 한 번 실감했다.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일본은 서구 열강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 중국 침략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일본은 먼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독일의 조차지인 산둥을

점령했다.

곧이어 1915년 1월, 위안스카이(袁世凱)가 군주제를 부활시키자 일본은 중화민국의 멸망을 확고히 하는 '21개조'를 제안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7일, 북양 정부를 협박하여 48시간 안에 제안서에 동의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 결과 1920년대 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본은 중국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일본의 악랄한 수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1931년 9월 18일, 일본이 도발한 만주사변은 이후 장장 10년 넘게 계속된 일본의 대중국 침략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이후 1937년에 일어난 루거우차오(蘆溝橋)사건은 일본이 이미 중국의 심장부까지 침입해 왔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중일전쟁이 시작되었다.

만주사변 이후 중일전쟁이 시작되기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행위는 중국인에게 엄청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중화민족은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다.

일본 군국주의가 도발한 중국 침략 전쟁은 더 이상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중국의 항일전쟁은 중화 민족의 민족정신과 함께 약육강식의 논리와 침략전쟁에 항거하는 강인한 투쟁정신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세계 4대 강국으로 부상하여 제한적이거나 각종 세계 정상회담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백여든한 번째 만남 _ 2008. 10. 30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毛澤東)은 베이징(北京), 톈안먼(천안문) 성루 위에서 “인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 중화 민족은 지금부터 다시 일어설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아주 소박한 내용이지만 마오쩌둥 시대를 기점으로 세계에 중국의 존재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킬 것임을 암시했고 중국을 다시 일어서게 한다.

만리장성이 처음 축조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 고대 진(秦)나라 때였다.

당시 북방에서 큰 세력을 떨치던 흉노족(匈奴族)의 침입을 막고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장벽이었다.

이후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만리장성은 중화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철옹성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 역사상 중화 민족의 든든한 철옹성이 지켜준 평화와 안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특히 근대 이후 험준한 산맥 위에 우뚝 솟은 만리장성은 서구 열강의 강력한 총과 대포를 이겨내지 못했다.

거의 모든 서구 공업국가가 동방예의지국 중국의 국토를 짓밟고 폐허로 만들었다.

실제로 만리장성이 파괴되면서 중국인들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던 마음속의 만리장성도 무너져내렸다.

그러나 다시 일어난 중국인들은 더 이상 모욕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 번 위대한 만리장성을 쌓아 올리는 명예로운 사명을 완수해낼 것이다.

이에 대해 저우언라이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국 제국주의의 강자 논리에 반대하고, 서방국가의 약육강식 논리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이 필요하다.

실력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짓밟힐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文)과 무(武)를 겸비해야만 한다.”

이렇게 새로운 강철 만리장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을 심어준 것이 바로 핵무기 개발이다.

중국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로 손꼽힌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이어 다섯 번째로 핵 기술 보유국이 된

중국의 핵 기술 발전 과정은 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국내외 핵전략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국이 이미 세계 3위권의

핵 보유국이 되었다고 인정한다.

중국의 핵 기술력은 세계 전략 구도상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백여든두 번째 만남 _ 2008. 10. 31

중국은 아직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전체적인 국력 면으로 보더라도 아직 선진 경제 대국과의 격차가 크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정치 대국의 자리를 공고히 할 두 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부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핵미사일이다.

중국이 이 두 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는 한 세계의 어떤 나라도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중국을 상대로 경거망동할 수 없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국가 안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안정적인 국가 체제 유지로 경제는 더욱 탄력적으로 성장했다.

미국 학자 리처드 번스타인(Richard Bernstein)의 저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 중 이런 내용이 있다.

“마오쩌둥 집권 시절 그는 수많은 중국인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중국과 세상을 구할 구세주였으며, 중국은 세계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굶주린 거인일 뿐이었다.
그 이후 등소평의 리더십을 보고 서방세계가 중국의 개혁을 장려했던
것은 중국이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변화하여 다른 나라들처럼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작은 나라가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오늘날 중국은 서방세계에, 특히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중국의 현대사에서 100년 사이에 손문, 모택동, 주은래, 등소평이란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게 된 것이 오늘의 중국이다.
우리나라의 100년에는 신채호, 이승만, 박정희가 등장한다.
그 이후 대통령들은 나라 창고를 도둑질해가거나 자본주의에
위배되는 소인배들이 자가당착에 빠진 정신병자들이었다.
자, 우리 이제 나라에 康衢堙月(강구연월) 太平聖代(태평성대)할 대통령을
기대 못할 바엔 우리 스스로가 구국하는 국민이 되자.
중국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283

이백여든세 번째 만남 _ 2008. 11. 3

기업의 CEO는 누구의 고향선배도 누구의 대학선배도 아니라
경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고독한 최고경영자로서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을 잘 간직하여야 하고
직원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 마음이어야 한다.
11월 첫날 임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백여든네 번째 만남 _ 2008. 11. 4

人生을 즐기는 것은 내일부터 하자고?

그러면 너무 늦습니다.

즐기는 것은 오늘부터 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현명한 건 **어제부터 이미 인생을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즐긴다는 게 무언가 아십니까?

즐기는 것이 무언가를 알고 즐기지 말아야 할게 무언가를 아는가요?

284

이백여든여섯 번째 만남 _ 2008. 11. 6

회사가 어려울 때나 위기일 때나 큰 불행이

닥쳤을 때 나의 표정처리가 참 곤혹스럽다.

60살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다.

286

이백여든일곱 번째 만남 _ 2008. 11. 7

여행은 누구나 다 좋아한다.

그런데 막상 너 어디 가고 싶니? 하면 한참 망설이다 머뭇거리고 만다.

그리고 명지대학 김정운 교수는 자기가 독일서 차를 렌트했다가 반납하면 너 한국사람이지 한단다.

왜 묻냐면! 1주 동안 5,000Km 타고 반납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유일하단다.

이거야말로 走馬看山주마간산 말이 자동차로 바뀌었을 뿐이지 무슨 여행이 이 모양인가 말이다.

여러분은 人生을 살면서 놀거나 일하거나 치밀한 계획이 없다.

인간이 찢찢찢 거리며 죽을 때 웃는 것은 좀 더 베풀 걸, 좀 더 용서하고 살 걸, 좀 더 재밌게 살 걸하고 후회하면서 죽는 거란다.

287

이백여든다섯 번째 만남 _ 2008. 11. 5

흘러가는 것은 강물이 아니고 내가 흘러가네 ...

어느 선사가 다리 위에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다가 무심코

한 말이라고 우리회사 김진주 고문이 나에게 해준 말이다.

매일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 촌철살인 가슴을 탁 치는 말을

해주는 이런 친구가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285

이백여든여덟 번째 만남 _ 2008. 11. 10

나의 1분 메시지는 연재 단편소설이란다.

어떤이는 그날 어찌다 열어보지 못하면 하루 종일 불안하단다.

그 사람한테 거의 마약이란다.

토요일, 일요일 마약이 없는 날은 허전해서 찢찢 맨단다.

나는 1분 메시지를 우리 직원들에게 썼는데 이진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들 이야기다.

이백여든아홉 번째 만남 _ 2008. 11. 11

남편이라면 한 번쯤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결혼 10년 후에 일이다.

아내가 느닷없이 제주도를 자기 친구들 10명과 자기들끼리 다녀오겠단다.

나는 그 자리에서 NO였다.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은 전부 남편에게 확답을 받았는데 만약 내가

거절하면 날 의처증 있는 남편으로 생각하거나 웅졸한 인간으로 자기 친구들에게 비추어진다면 은근히 공감친다.

그래도 완강히 거절했더니 마누라가 자기 친구들에게 나는 못간다 너희들끼리 가라 하니까 그날 저녁 집으로 네댓 명이 찾아와 느닷없이 우리들은 남편한테 기꺼이 다녀오라며 재밌게 놀다오란 얘기까지 들었단다.

날보고 “유 사장님은 보기보다 웅졸하시네요”란다.

나는 못 보낸다고 만약 가게 되면 별거부터 수순을 밟겠다고 완강히 거부하였다. 어처구니가 없는지 왜 못 보내는지 이유를 대란다.

그래서 내가 “나는 제주도에 낚시하러 가는데 낚시한 후 저녁에는 제주시 그랜드 나이트클럽에 가서 여자들끼리 몰려와 춤추는 유부녀를 유혹해 잠자리를 해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해주었다.

나는 “당신네들은 모르지만 우리 마누라는 제주도 가면 바람날 것 같다”고 재차 알려주었다. 그녀들은 말문이 막혀 어처구니 없어 하다가 서먹한지 날보고 “의처증이 심하군요”란다.

그래서 의처증이 아니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돌아가버린 그녀들은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못 가게 되었다.

그런데 말이다.

며칠 후 그녀 남편들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받았다.

“유 사장 고맙소”

“유 사장 참 대단하오”

“유 사장 우리들은 부끄럽소” 다.

그런 이후 우리 마누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혼자 어디 가겠다는 이야기 내겐 없었다.

이백아흔 번째 만남 _ 2008. 11. 12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 Spanish)는
예술은 정숙하지 않는 것(Art is never chaste)이라 하였다.
이 말은 피카소 예술의 도처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성, 욕망의 주제를
설명해주는, 피카소 미술의 한 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회화뿐 아니라 판화, 조각, 무대 디자인, 그리고 도자기 등 92세의
나이에 타계할 때까지 남긴 수 만 점의 작품들 중심에는 피카소
자신과 연인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 있다.
그는 끊임없는 호기심과 창작욕을 가지고 새로운 여인을 만났으며,

그 여인들은 작품
양식과 분위기에 영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작품에서 모델로,
서커스 단원으로,
그리고 창녀로
등장하기도 한다.
영감이 고갈되면
피카소는 미련 없이 또
다른 여인으로
 옮겨갔다.

자, 그럼 피카소의
정숙하지 않는 작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공부해보자.

위의 그림은 서커스 무대 뒤, 뾰족한 모자를 쓰고 한 손에 스틱을
들고 정장을 차려입은 광대가 막을 열고 무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막 뒷편에서 한 올도 걸치지 않은 젊은 나체의 여인이 등장한다.
그녀는 광대에게 사랑스러운 미소로 익숙한 듯 환영하지만 광대는
놀란 눈으로 서있다.

회색과 진한 검정의 어두운 배경에 황색톤의 종이 위 목탄으로
표현된 그녀의 환한 얼굴과 풍만한 양감의 나체는 찬연하고 백색으로
빛난다.

화면의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외광은 광대의 얼굴과 코트의
여기저기에 밝은 하이라이트를 얹혀준다.

바지의 체크무늬는 어둠 속에 묻혀 어렵듯이 보이며 여인의 목에
걸린 장식 역시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다.

빛과 색채에 의한 강조와 적절히 생략된 자유로운 표현이 맛깔스럽게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백아흔한 번째 만남 _ 2008. 11. 13

살아있는 나는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진정 이롭게 하는
유혹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면서 실천하고 있다.

말초적인 자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환멸을 느끼지만 진정한
살아있는 유혹은 유혹 그 자체만으로도 황홀감에 빠질 수 있다고
프랑스 사회학자 보드리야르가 “유혹에 대하여”에서 이야기 한다.

292

이백아흔두 번째 만남 _ 2008. 11. 14

여러분 본사 헬스장에 가면 몽크와 클림트의 프린트화가 걸려있는데
두 화가의 화풍은 너무 대조적이다.
클림트의 그림은 에로틱 그 자체이다.
그러나 몽크는 북유럽의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를 잘 나타내기에 몽크
그림 3점을 소개할까 한다.

에두아르드 몽크(1863.12.12~1944.1.23)

몽크는 현대의 고독과 불안을 잘 담아낸 화가다.

그가 작품에 누구나 드러내지 않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섯
살 때 어머니가 죽고, 열다섯 살 때 누나의 죽음을 통해 얻은 상처
때문이다

어린시절 가족을 잃은 경험으로 몽크의 그림에서는 항상 사랑, 죽음,
불안 등이 내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몽크는 일찍이 노르웨이에서 재능을 인정받아 순탄하게 화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지만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은 몽크에게 상처만
남겼다.

몽크는 세기말 분위기의 새로운 사상 ‘보헤미아(사회문제와 성도덕 예술의
혁명. 철저히 개인의 자유를 위한 이념)’ 운동에 공감하며 철저하게 빠져든다.

암울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반항이었다.

이때 형성된 인생관, 여성관, 예술관이 뭉크의 평생을 지배한다.

연상의 유부녀와의 불륜의 사랑은 뭉크에게 새로운 쾌감, 육체적 욕망을 선사한다.

하지만 뭉크는 첫사랑의 설렘과 새로운 정열에 사로잡혀 있을수록 거침없는 그녀의 행동에 고통받았다.

뭉크는 연애편지 내내 순수한 자신의 사랑과 달리 자유연애주의자인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의심과 질투에 휩싸였고 그녀의 거짓말에 그는 끊임없이 격분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뭉크가 파리 유학을 떠날 때까지 지속된다.

뭉크는 사랑 뒤에 숨어있는 여자의 거짓을 알고부터 6년간의 사랑을 끝낸다고 그의 일기에 썼다.

“그녀는 내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가? 다른 어떤 그림도



뭉크, <달빛>, Oil on canvas, 140×135cm(부분), 1893년

그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나의 첫키스를 빼앗아 갔고 나로부터 ‘생의 향기’를 빼앗아 갔기 때문인가?”

뭉크는 3살 연상의

유부녀와의 금지된 사랑으로 전율하지만 애욕의 허무함으로 여자를 불신하게 된다.

<달빛>은 그녀와의 사랑의 경험이 나타나고 있는 작품이다.

나무로 지어진 집을 배경으로 달빛을 받은 여인이 뒷짐을

지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거의 전신상으로 그려진

여인이 뭉크의 첫사랑

헤이베르그 부인이다.

이 작품에서 나무로 된 갈색의

벽과 창문의 밝은 색은 화면

왼쪽 깊은 밤을 묘사한 어두운

녹색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오른쪽에 꽃 몇 송이가 보이고

왼쪽 화면에는 붉은색을 띤

인물이 보이고 있는데 인물은

뭉크 자신을 암시하고 있다.

<마돈나>는 삼각 관계였던 연인

다그니 유을을 모델로 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젖은 옷을 벗은 여자의 허리 아래쪽이 형체도 없이 흐르는 색채

속으로 사라지고 오른쪽 팔은 머리 뒤로 올려져 있고 왼쪽 팔은 허리 뒤로 묶인 것처럼 두르고 있다.

이런 역동적인 자세는 가슴과 복부를 내밀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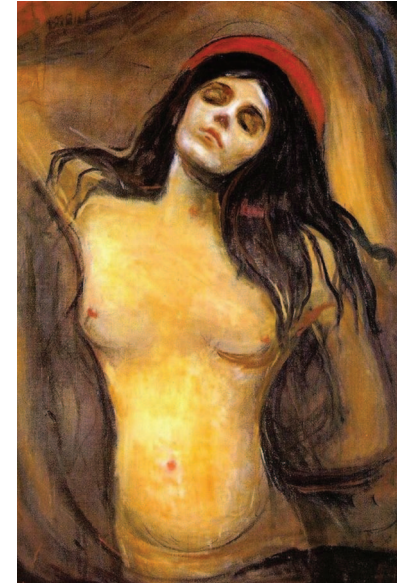
이 작품 속 모자의 강렬한 색은 풍만한 육체와 자유분방한

머리카락의 곡선과 어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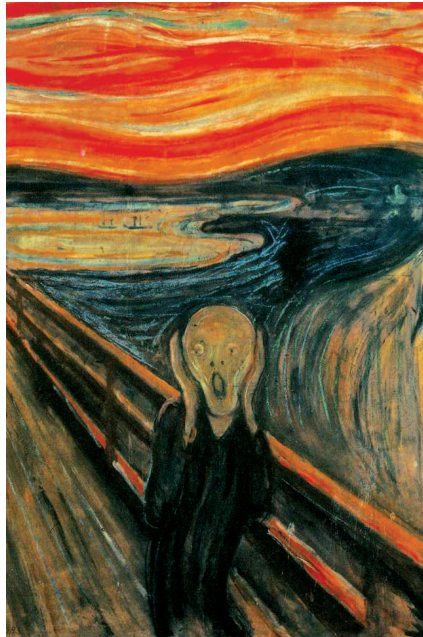
모자보다 큰 후광은 까만 머리카락을 감싸고 있어 색의 대비를 주고

있으며 여자는 깨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잠들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뭉크는 여자의 신체 각 부분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단순화시켜서 더욱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다. 뭉크는 1895년~1902년 석판화로 다시 제작한 <마돈나>에 시를 붙였다.



뭉크, <마돈나>, Oil on canvas, 91×70.5cm, 1894~5년



몽크, <절규>, oil, tempera and pastel on cardboard, 83.5×66cm, 1893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임을 멈춘 순간 너의
얼굴에 지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머문다”
<절규>는 그의 대표작이자
몽크의 예술세계를
상징하고 있다. 몽크는
<절규>를 유화나 석판화,
동판화 등등 다양한
재료를 써서 50여 점을
남겼다. 몽크는 마음에
드는 작품을 몇 년 동안에
걸쳐 여러 버전으로
제작했다. 이 작품은
자연을 배경으로 인간의
불안과 고독을
표현하였다. 깊은 절망을

느낀 인간은 절규하지만 자연은 핏빛 하늘 너머로 메아리를 던질 뿐
아무런 위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몽크는 이 작품을
대담한 사선으로 화면을 구성했다.

화면 위의 붉은 구름은 마치 하늘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몰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공포를 나타내고 있다.
화면을 지배하고 있는 인물이 귀를 막고 있어 공포에서 벗어나고
싫어하는 인상을 주지만 인물은 자연에서 메아리 되어 온 자신의
절규를 듣고 있다.

이렇게 조금씩 미술공부를 하면 세상이 훨씬 더 넓어 보일 것이다.
북구의 클림트, 몽크, 에곤 실레 중 나는 에곤 실레를 가장 좋아한다.

이백아흔세 번째 만남 _ 2008. 11. 17

나는 청개구리처럼 미리 알아.
그 다음날 비 온다는 걸.

293

이백아흔네 번째 만남 _ 2008. 11. 18

모든 것은 다 제자리가 있다.

나뭇잎에 꽃이 달릴 수 없고, 가지 끝에서 뿌리가 뻗어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제자리가 있다.

영업직이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꼼꼼하게 관리하는 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경영학에서는 사람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을

‘적합화(Fit)’라고 한다.

포부가 크고 원대한 사람은 자신의 포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장형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큰 욕심 없이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일을 처리하며

아기자기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업무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나 느긋한 사람도 각각 자신의 성격 특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어느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잘하는 외과 의사의 능력을 높이 사서 병원장을 시켰더니 3년 만에 그 병원이 빗더미에 올라앉고 말았다. 연구를 잘하는 박사를 승진시켜 다른 연구원들을 관리하게 했더니 부하들이 모두 다른 직장으로 떠나버린 경우도 있다.

이들에게는 수술하고 연구하는 것이 제자리였다.

다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빗어진 불행이다.

적합화에 실패한 사례인 셈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기란 생각만큼 그리 쉽지 않다.

사람들은 왜 자기적합화에 실패하곤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욕심이 있어야 발전과 성장이 있다.

문제는 자기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선택이 있고 난 후 그 안에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둘째, 자리나 지위를 자신이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면 자기적합화에 실패한다.

자리는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전문성도 없고 개인적 속성에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각종 공조직의 장으로 갑자기 날아드는 일이 많다.

자리를 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적합화의 실패로 귀결된다.

셋째, 자기발전의 노력을 게을리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특정한 일이나 자리에 적합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도 내고 잘해나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의 요구가 바뀌면

문제가 생기고 일의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은 갖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 또는 내면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갈고 닦지 않으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다.
어떤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차는 있지만 사람이 높은 직위에 임명되고
나서 약 3년 정도가 지나면 생각이 완전히 굳어진다고 한다.
생각의 틀이 고정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이때부터는 고집이 세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인의 장막을 두르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시하기에 이른다.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회사에 공채생 4명이 임원 승진되었다.
근데 나는 뭔가 그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느낀다.
“혹시 **적합화(Fit)**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나”하는 노파심에서 오는
걱정스럽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로 결정된 사항이고 그들이 더 긴장될 것이고
분명히 해내리라 확신한다.
여러분, 우리 다같이 TC를 휘젓는 인재를 우리가 스스로 키우도록
받들고 끌고 밀어줍시다.

이백아흔다섯 번째 만남 _ 2008. 11. 19

지금은 實로 어려움이 어디까지 갈런지 나로서도 단정하기 힘들다.
그렇더라도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放心).
위기일수록 항상 마음을 잡고 있어야 한다(操心).
먼저 내가 회사에서 사리사욕이나 고정관념이나 검소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사실은 내가 이 회사에서 제일 많은 변화를 일으켜야 할 장본인이다.
君子豹變군자표변이라 하였다.
군자가 잘못을 고치는 것은 새로운 표범의 털처럼 아름답다는
뜻이다.
리더부터 잘못을 고쳐야 모든 게 신속히 변한다 하였다.
이도李祹와 **하위지**河緯地처럼 경영기획실의 **분기탱천**憤氣撐天을
기대해본다.

295

이백아흔여섯 번째 만남 _ 2008. 11. 20

미술공부를 좀 애로틱한 그림을 보며 즐겨보는 것도 재미난 일이다. 19세기 중엽의 좀더 전형적인 작품으로는 쿠르베의 『개와 누드, Nude with a Dog』가 있다.

여자는 한 손을 가만히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고 다른 손으로 털이 복슬복슬한 푸들을 어루만지며 입을 맞추려 한다.

한쪽으로 약간 기울인 여자의 오른쪽 무릎에 올라있는 개의 발에는 성적인 분위기가 약간 풍기지만 전반적으로 그림은 순결해 보인다.

쉴레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여인, Kneeling Model with Deeply Bowed Head』에 나오는 옷을 약간 걸친 여인과 비교하면, 쿠르베의 나체 여인은 훨씬 과거의 방식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을 표현한 듯하다.

쉴레의 그림에서 여인의 두 손(하나는 위쪽에, 다른 하나는 아래쪽에)은 모두 자기만족을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

근육질의 팔은 걱정이 터져나오는 몸의 중심부로 이어진다.

손가락과 음부와 속옷의 주름은 한데 섞여서 강렬한 성적 욕망이 자아내는 혼란스러움과 고통의 환희 그리고 성적 욕망의 결정적인 순간을 나타낸다.

쿠르베의 나체 여인이 편안하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반면 쉴레의 여인은 잔뜩 긴장된 자세로 몸을 뒤틀며 앞으로 굽히고 있다.

마치 바퀴가 하나인 손수레처럼 머리로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 같다.

옷을 급히 걷어올린 것으로 보아 매우 급박한 순간임을 알 수 있다.

쿠르베가 지켜 든 모델의 오른쪽 발가락으로 성적 흥분을 슬쩍 암시한 데 비해, 쉴레는 여인이 절정에 도달하면서 부츠를 신은 발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통해 성적 흥분을 솔직히 표현한다.

쿠르베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면, 쉴레는 욕망의 근원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이 스스로 쾌락을 얻는 모습에 주목했다.

화실에서 인위적으로 꾸며낸 관습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한 쿠르베의 그림은 진짜 욕망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게다가 물가에 닿은 발은 어찌면 뜨겁게 타올라 수 있는 여인의 몸을 식히는 역할을 한다.

사실 흥분이 최고조에 이르면 배경은 희미해지게 마련이다.

쉴레는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배경을 없앴고, 여성의 자위장면을 마치 검은 스타킹과 부츠로 테를 두른 듯한 프레임 안에서 보여준다.

부츠의 각진 굽과 끝까지 졸라맨 끈은 모델의 성기 노출과 자기 성적 흥분에 의해 풀려난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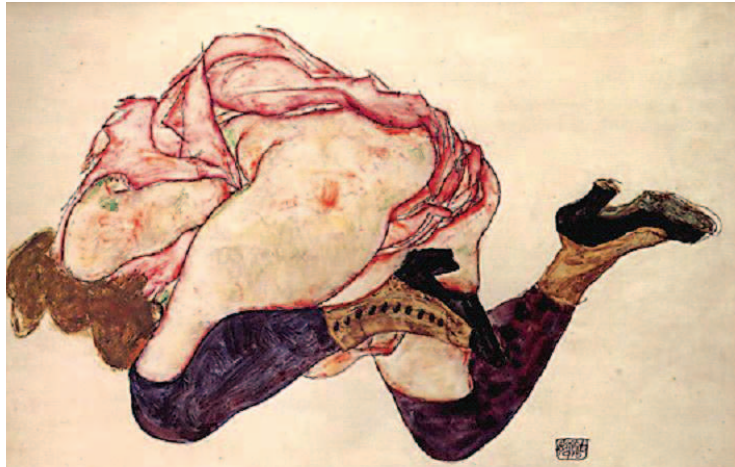
검은 개는 남근을 상징하지만 쿠르베의 흰 양을 닮은 푸들은 동물적 욕망에 대한 빅토리아 시대의 점잖은 비유로서 이 개가 시야에서 가려진 여인의 가장 내밀한 부위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관음증을 암시한다.

쉴레가 그린 여인의 욕망은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녀를 자극하는 남자가 곁에 있지도 않고 어떤 동물로든 상징되지 않는 여자는 오직 저홀로 화면 중앙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에곤 쉴레 그림을 정말 좋아한다.

집사람과 레오폴드 미술관(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서 쉴레의 그림을 실컷 만끽하고 왔기에 앞으로 쉴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할까 한다.



에곤 실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여인>, 1915년



구스타프 쿠르베, <개와 누드>, Oil on canvas, 65×81cm, 1861~1862년

이백아흔일곱 번째 만남 _ 2008. 11. 21

사람이란 다수를 모아놓으면 반드시 좌중을 지배하려 들거나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이가 나타난다.

그러다 보면 구성원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솔직한 의견을 드러내기 힘들어지며, 급기야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자제하려는 현상까지 벌어진다.

특히 대통령이나 최고 경영자와 같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구성원들의 자기검열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을 '집단사고Group think' 라고 부른다.

생사여탈권을 가진 최고 경영자 앞에서 그의 의견에 반하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 윗사람의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사회생활의 중심이 개인적 이익과 이해타산에 있기 때문이다.

비판은 고사하고 평범한 자신의 생각마저 절대 권력자 앞에서는 함부로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직장생활 몇 년이면 다 아는 상식이 되어버렸다.

우리회사도 내가 40여 년간 자수성가형 경영을 해오다 보니 복지 부동형 임직원들이 많아졌다.

이것을 최근 조흥원 사장이 들어오셔서 임직원들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상상 외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것의 완성이 四通八達 無所不通이다.

우리도 어서 빨리 세종대왕의 마음경영을 배워 실천해보자.

이백아흔여덟 번째 만남 _ 2008. 11. 24

살아가다 보면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머리는 똑똑한데 인간성이 엉망인 사람이 그렇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를 항상 긴장하게 만든다.
이것은 내가 벌써 몇 번째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대개 이렇다.

저 사람은 인간성은 참 좋은데 능력은 그저 그래.

저 사람은 능력은 탁월하지만 사람은 그저 그 모양이야.

이래서 우리는 살맛 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더라도 두목이 되려면 장점 두 가지 다를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서는 말이다.

이백아흔아홉 번째 만남 _ 2008. 11. 25

역사를 위해 생생한 출발점이 되어 줄 미술작품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에그Augustus Egg의 3부작 가운데 첫 번째인 <과거와 현재 I Past and
Present I >이다.

그림은 여행에서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남편이 편지를 가로채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즉, 배우자의 부정이 주제이다.

그는 편지를 찢어서 한 손에 움켜쥐고 있으며 나머지 종이조각들은
발 밑에 흩어져 있다.

이 부부의 재앙은 부인의 혼전 성 경험에서 기인한 게 아니다.

부인이 간통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림은 과거의 사랑에 대한 19세기 중엽의 가치관을
통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누가 편지를 썼는지 알 수 없다.

설령 부인이 쓴 것이라 해도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니다.

따라서 폭로한 당사자는 부인이 아니다.

폭로의 파국은 충격적이다.

화가는 그림 곳곳에 이를 암시하는 단서를 남겼다.

한때는 행복했던 가정이 어린 소녀들의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질 것이며, 남편은 멀리 보이는 그의 초상화 위에 걸린 그림에서 뚫대도 없이 바다에서 요동치는 배처럼 난파할 것이고, 부인은 뱀 모양의 팔찌와 그녀의 초상화 위에 걸린 그림에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로 암시되듯 부정을 저지른 잘못으로 파멸할 것이다. 게다가 반으로 찢어진 벌레 먹은 사과를 남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칼에 의해 관통 당하고 있다.

극심한 고통과 자기연민에 빠진 남편은 아내의 부정에 아무 책임도 질 생각이 없어 보이며, 아내는 설령 다시 일어설 힘이 있더라도 갈 곳이라곤 뒤편에 열린 문으로 이어진 지옥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그림이 암시하는 것을 조목조목 이해하고 본다면 미술에 훨씬 빨리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아우구스투스 에그, 《과거와 현재》, Oil on canvas, 1858년

삼백 번째 만남 _ 2008. 11. 26

나는 그동안 틈만 나면 자기계발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항상 작심삼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해내고야 말겠다고 이를 악물고 다짐하며 영어학원에 등록해 보았지만 며칠 다니지도 못하고 수강료만 날리고 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럭저럭 심지어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정신차릴까”

라고 미친지랄도 생각했었다.

그런 내가 지금은 못 해본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 중에

“오늘 내가 조금 하는 것은 하지 않는 놈보다 10년 후에는 조금 더 낫다”
가 있는데 지내놓고 보니 실로 다른 놈보다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

삼백한 번째 만남 _ 2008. 11. 27

세조 대에 이르러 성삼문, 박팽년 등과 단종 복위를 주도하다가 발각되어 국문을 받게 됐을 때 그는 추상 같은 목소리로 세조를 질타했다.

“나리, 우리는 잘못된 것을 되돌려놓으려 했을 뿐 역모를 꾀하지 않았습시다. 지하의 세종 선왕께서도 우리를 틀렸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리라니? 지금 누구를 보고 그리 부르느냐?”

군왕을 나리라고 부른 것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가장 강한 항의이자 세조에게는 실로 모욕적인 언사였다.

결국 이개는 사지가 소에 매달린 채 찢기어 죽는 참혹한 형벌을 받아 생을 마쳤다.

이개(李愷 1417~1456)는 세조 대에 死六臣사육신으로서 죽으며 이렇게 남긴 詩가 있다.

“... 까마귀 눈비 맞아 희난듯 검노매라

야광명월이야 밤인들 어두우라

임 향한 일편단심 변할줄 있으랴”

나는 왜 대쪽 같은 이개를 좋아할까?

우리회사에는 주영춘 상무가 이끄는 감사실이 있다.

그 밑에 오병열 계장, 이승민 등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회사의 기강은 바로 잡혀야 한다.

뒤에서 노력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301

302

삼백두 번째 만남 _ 2008. 11. 28

우리는 사람들이 미친 것이라고 말하는 행동을 해야한다.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면 이미 다른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

나는 평생 동안 수없는 미친 짓을 하고 살았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삼백세 번째 만남 _ 2008. 12. 1

여러분들은 지금!
두려운 시간이 아니고
힘든 시간이 되어주십시오.

삼백네 번째 만남 _ 2008. 12. 2

나는 중이다.

나는 이 국가의 노예다.

즉 나는 이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라는 걸 최근 깨닫고 있다.

나는 이 국가를 믿고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많은 세금을 내며 누구보다 열심히 나라를 사랑하며 살았다.

그런데 1988년 IMF 환란, 지금의 국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국의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달러보다 좋아져야 할 원이 50% 이상 나빠지고, 중국 위엔보다 50%, 일본 엔보다 50% 나빠졌다.

일본과 중국은 미국의 달러보다 위엔과 엔이 더 좋아졌다.

가장 비참한 건 아프리카 통화 정도로 생각했던 몽골의 투르크보다도 한국의 원은 15% 가치 하락했다.

그렇다.

이 국가의 대통령들은 박정희 이후 도둑놈들이거나 주위사람이 도둑놈들이었고 그 이후는 사상적으로도 한국을 망쳐놓은 대통령들이었다.

그 결과 대표적인 것이 촛불시위였다.

세계가 한국을 조롱하니 원이 좋을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겠다는 종의 근성에서 벗어나 내가 바로 노예근성을 버려야겠다는 것이다. 우리회사는 이 국가를 능가하는 수준에 올라서서 국가를 리드하는 기업이 돼야겠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저 영국의 유태인 금융 재벌 로스 차일드가 좋은 예가 된다.

305

삼백다섯 번째 만남 _ 2008. 12. 3

엄숙한 회의시간 중인데 어느 사람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린다.
그 사람은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급히 나간다.
그런데 그 사람 전화 받는 내용을 들어보니
잡담하더라!

306

삼백여섯 번째 만남 _ 2008. 12. 4

TC가

한국 최초의 코일서비스센터였다고 코스티스가 한국 최초의
철강정보시스템이었지만 그 다리를 건너간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럼 우리는 무언가 다리를 놓는 노동자였던 말인가?

삼백일곱 번째 만남 _ 2008. 12. 5

여러분 혹시 大国崛起대국굴기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大国崛起란 역사적으로 세계에 우뚝 선 선진강국을 말하는 것으로
얼마 전 CCTV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대국굴기>가 발돋움하려는
중국 국민을 뜨거운 열기로 달군 역사의 교훈으로 제작되었다.
이것은 대국의 발전을 꿈꾸는 중국인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절실한
정보였기에 여러분을 일깨워 근대 이후 아시아는 서구열강의 힘에
밀려 온갖 수모와 시련을 겪어온 우리를 진정한 강국으로 가야 할
길이 바로 지금임을 공감하고자 한다.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있는 우리에게 조금 더 심오한 역사적 시각과
세계를 보는 원대한 안목이 필요하기에 나는 임직원들을 틈만 나면 해외에
내보내고 있다.

우리의 찬란한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 각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이해하여 그들을 거울삼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 블루오션을 찾아 바다로 나간 포르투갈, 에스파냐
- 팔 수 있는 것은 전부 내다 판 바다의 상인 네덜란드
- 변혁을 주도한 산업혁명의 기수 영국
- 혼돈 속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한 프랑스
-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키운 독일
- 시대의 흐름을 간파한 메이지 유신의 선물 일본
- 유일무이한 슈퍼 강국을 갈망한 러시아
- 도전과 스피드로 진화한 세계의 초강국 미국

자, 우리들은 이 역사를 공부하여 세계무대로 나가 전 세계인과 어깨를
함께할 위대한 문화창조의 주역 TC인이 되자.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307

삼백여덟 번째 만남 _ 2008. 12. 8

오늘 임원들에게 大國崛起 冊과 DVD를 사서 발송하였다.
최근 보고 읽은 것 중 참 마음에 들어서 제일 먼저 임원들에게 보낸다.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임원은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어 앞날에 큰 것을 도모하기 위해 생각을 깊숙이 해야할 때로 좋은 지침서인 것 같다.
나는 몇 번 되뇌이며 보고 또 보고 있다.

힘이 불끈불끈 솟는다.

이 책에 9나라의 구국과 번영을 창조한 위인들이 나라마다 꼭 차 있다.

임원들은 이 두목들 중 4명을 선택하여 지난번처럼 내게 독후감을 제출해주시 바란다.

물론 철저한 평가가 있고 철저히 전 직원에게 공개하겠다.

나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미국의 대공황을 이겨내고 미국인의 자존심과 번영을 안겨준 루즈벨트 대통령이며 이에 관한 책을 사서 보고 있다.

임원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 몇 자 보고하는 정도는 전 직원이 다 평가할 것입니다.

힘을 내어 독파하시고 창조경영에 돌파구를 찾아 백년 천년 이어갈 회사를 만듭시다.

참고로 세계를 한때 지배했고 지금도 선진국인

그들의 대국굴기(세계에 우뚝 선 선진강국)는 文化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회사에 문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합시다.

삼백아홉 번째 만남 _ 2008. 12. 9

지식(知, Knowledge)이란 말이 있고, 지혜(智, Wisdom)란 말이 있다.
알 지(知)자 파자 해보면 알면 말이 입(口)으로 화살(矢)같이 날아간다는 뜻이고

지혜 지(智)는 말이 화살같이 날아가는 것을 태양(日)이 틀어막아 몸속에 녹아내린다는 뜻일 것이다.

윗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밑에 사람에게 知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智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런 知로 말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얼마나 물 전체를 오염시키는가 말이다.

조직에서 나쁜 행동은 좋은 행동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된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삼백열 번째 만남 _ 2008. 12. 10

조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착각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의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서로의 입장과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잘 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보다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상대방을 서운해 하거나 원망하는 감정이 앞선다.

그 결과 외면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극단적으로 서로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해 당사자가 문제의식을 느끼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서로 문제의식이 다르면 해결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그렇다.

지금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되도록 안한 자존심 제발 좀 다 버리고 바로 부닥쳐보자.

삼백열한 번째 만남 _ 2008. 12. 11

지난번에 전세계가 중국을 만나러 사절단을 파견했을 때 청의 순치황제께 三拜九叩(삼배구고: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를 하지 않아 황제를 만나는데 곤혹을 치렀다는 얘기는 했다.

그 당시 네덜란드는 청어 장사로 천하를 주름 잡고 동인도 제도에서 세계 무역을 장악한 국가로서 청 순치를 만날 때 삼배구고를 하게 되었다.

청 순치 황제는 기뻐서 네덜란드 사절단에게 많은 선물을 내렸고 후하게 대접하였다.

그 사절단의 일원인 요훈호프는 중국견문록에 이렇게 기록한다.

“우리는 단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이익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다.

우리도 이 금융 위기를 넘기고 우뚝 서야 할 이 시점

되도록 안한 자존심에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며 버려야 할 것들을 훌훌히 털어버리자.

나 자신과 가정 그리고 나의 주변, 우리회사에서 말이다.

삼백열두 번째 만남 _ 2008. 12. 12

회사에서 가장 많이 배워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1번 직원

2번 임원과 나 유재성

답은 2번이다.

우리는 조직의 운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엘빈 토플러는 21C의 문맹은 쓰고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재학습하지 않는 사람이라 말했다.

임원과 내가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학습 능력이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이고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위임을 하지 않기에 학습시간이나 기회가 정말로 적다는 것이다.

그런데 웃지 못할 사실은 평소에 책을 읽지 않는 임원이 어쩌다 한 번 읽은 책에 감동받아 직원에게 권하거나 술만 먹으면 그 이야기다.

삼백열세 번째 만남 _ 2008. 12. 15

The Chairman,
TC-Tech Company,
Pohang Plant,
Korea.

Sir,

I, Pradeepan's mother personally thank you for all your kind
helps given when my son was there. You have taken all the
troubles to look after him.

My expression is not adequate enough in thanking for your
help.

May God Bless you and your Family!

Thanking you,
Yours sincerely,

Mrs. Thiyagarajah,
Sheramadhana Mw.,
Aruppola,
Kandy,
6th November 2008

회장님께

회장님,

저는 퍼디판의 엄마로 제 아들이 그 회사에 있을 때 주신 모든 친절한

회장님의 도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을 돌보아 주시는 데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회장님의 도움에 감사드리는 말로 저의 표현은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회장님과 가족 분들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퍼디판(스리랑카) 어머니에게서 이런 편지가 왔다.

인간이 살면서 숙명적으로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지는

오직 창조자의 영역.

그러나 서로가 향하는 염원이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그때 다시 한 번 내 잘못을 사과하겠다.

그리고 퍼디판도 결혼해 아들, 딸 낳고 잘 살기를 바란다.

오직 하늘의 뜻대로 말이다.

314

삼백열네 번째 만남 _ 2008. 12. 16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서 사람의 기억은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되어 1시간이 지나면 50퍼센트 이상을, 하루가 지나면 70% 이상을 잊어버리게 된단다.

그래서 인간에겐 주기적인 반복만이 머릿속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내가 평소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 임원들은 짜증을 낸다.

잔소리 같다고.

메시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횟수가 많을수록 이해도는 물론 메시지 수용도와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잭 웰치는 “나는 어떤 중요한 전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수년에 걸쳐 온갖 종류의 회의 때마다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나중에는 아예 신물이 날 정도로 말이다”라 했다.

315

삼백열다섯 번째 만남 _ 2008. 12. 17

나는 경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의사 결정이다.

내가 지금까지 내린 결정에 한 번도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나도 간혹 “본인이 알아서 하시오” 한다.

본인인들 훨씬 더 어렵지 않겠나?

그래도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의사 결정을 내린 것을 잘 실천해온
때문이라 생각한다.

316

삼백열여섯 번째 만남 _ 2008. 12. 18

요즘 내가 힘들다.

왜냐면 두목이기 때문에.

나에겐 우리직원 800名の 꿈과 희망과 목표를 정해 이럴 때 진가를
발휘하여야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하기에 노심초사 하고 있다.

언젠가 두목이 왜 잘 아는가 하면 두목은 항상 높은 산에 올라서서
멀리 내다보기 때문이라고 1분 메시지에 이야기했다.

그리고 해일이 밀려오고 있는데 나 혼자 알고 있으나 이야기
해볼려니 코웃음 거리가 될까 걱정이 된다는 1분 메시지도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이럴 때 직면이라 하였다.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거란 현재 세계와 우리나라와 우리회사가 동시에 어렵다는 것이고
저거란 어려움을 두려워말고 직면하는 것이 저거다.

이럴 때 지금 우리 두목들을 확인해보니 내가 평소 이야기했던
것들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대단하고 또한 지난번 컨퍼런스에서
오전 녹음도 들어보니 무엇할까도 알고, 무엇이다도 알고 있더라.
모든 것이 다 어렵다고 직면하지 않고 마음을 놓는 것이

放心(방심)이라 하였다.

임원들 벽에 格物致知(사물에 다가가서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
몰입해서 해결한다)라는 글을 걸어놓고 임원들이 실천하지 않는지
여러분이 확인하라 하였다.

그렇다.

우리 다같이 너도 나도 직면해서 어려운 것부터 하나씩 서서히
풀어나가자.

나는 깨달았다.

헤쳐나가는 길을.

지난번에 어려움을 두려워말고 힘들어 해달라고 했다.

나도 스스로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임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며
불씨를 찾아내고 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실체를 확인하는 신나는 시간이
아닌가?

나부터 스스로 토요일도 일요일도 이 국가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국가를 원망하지 않고 국가를 살려내는 길을 선택하였다.

지금!

317

삼백열일곱 번째 만남 _ 2008. 12. 19

나는 중국을 다녀올 때 맛있는 茶를 사온다.

집에서도 즐기고 회사에서도 손님이 오면 손수 만들어 함께 즐기다가
간혹 맛있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있던 茶를 선물로 주며
당부한다.

어떻게 먹으라고...

그리고 틈나면 찻잔을 고르는 게 취미다.

찻잔을 고를 때 비싼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다.

내가 손수 고른 예쁜 찻잔에 마시는 차가 또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나?

어느 정도 찻잔이 싫증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조수영 비서가 씻다가
깨어준다.

그러면 나는 신나게 새 찻잔으로 또 마시게 된다.

그런데 조선족 차 파는 아가씨가 북경에 있는데 내가 간절히 초청을
했더니 오늘 오게 되었다.

이번에 오면 혼을 기울여 대접해야겠다.

그 여인은 내게 농약을 거의 치지 않는 차를 줄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준다.

그녀를 내가 안지 15년째다.

이렇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정성을 다해야지 마음이 배부르지 않겠는가?

참고로 내가 즐겨먹는 茶는 大紅袍(대홍포)로서 홍차에 가까운 향기가
기가 막힌 차이다.

삼백열여덟 번째 만남 _ 2008. 12. 22

뉴욕에 있는 김나희한테 메일이 왔다.

내가 일에 직면하고 미쳐야 한다고 했더니 서점에 가서 신간도서
“1년만 미쳐라” 책을 사보고 내용을 적어왔다.

1년만 미쳐라

당신이 미쳐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 당신은 서 있고 다른 사람은 뛰고 있다.
- 경쟁력이 없다면 라이프 플랜도 없다.
- 자기 경영에 실패한 사람도 신용불량자다.
-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도 바보다.
- 행동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
- 숨겨진 재능은 아무 가치가 없다.
- 성공하고 싶다면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라.
- 미치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

미치려면 자기 자신을 알라

- 성공의 씨앗을 뿌리려면 자기 점검을 하라.
-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같고 닮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재능을 찾아라.
- 지난 1년간 내게 가장 중요했던 일은 무엇인가.
- 능동적인 자세는 ‘미침’의 초석이다.
- 자신 안에 숨어있는 리더십을 찾아라.
- 자신의 역할과 이상을 자문하라.



제대로 미치려면 제대로 준비하라.

-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라.
- 자신이 하는 일에 큰 가치를 부여하라.
- 스스로를 누구보다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라.
-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라.
- 나만의 성공자산을 마련하라.
-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라.
- 전략적인 일탈을 하라.
- 1년간 할 수 있는 일들을 파악하라.
- Change me, 실천력과 지속력이 떨어지는 나.

무엇에 미쳐야 하나 - 1주일 동안 미쳐야 할 것 찾기

- 月 가장 하기 싫은 일 찾기
- 火 되는데로 하루 살기
- 水 24시간 소비하고 낭비하기
- 木 하루 동안 단식하기
- 金 하루 동안 자지 않고 성공스토리 읽기
- 土 아무 일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기
- 日 아무도 없는 곳에 찾아가서 느끼고 생각하기

어떻게 미칠 것인가.

- 환경 탓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 실천하지 못하면 죽을 각오를 하라.
- 기회를 포착하고 즉시 행동하라.
- 자신에 대한 믿음 없이는 시작도 하지 말라.
- 파격적인 생각으로 미쳐야 할 것을 찾아라.
- 마지막 1초까지 올인하라.
- 성패를 따지지 말고 미쳐라.

- 1%의 희망만 보여도 매달려라.
- 주인의식을 가지고 미쳐라.
-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 변화를 즐겨라.
- 정직하게 승부하라.
-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 최고가 되겠다는 도전의식을 가져라.
- 능력이 없으면 편하게 먹고 자지도 말라.
- 땀가를 바라지 말고 몰입하라.
- 자신을 칭찬하라.
- 정보를 확보하라.
- 실패를 성공자산으로 만들어라.
-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라.
-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라.
- 일관적인 행동 원칙을 세워라.
- 성공모델을 찾아라.

왜 내게는 성공의 길이 보이지 않는지 한탄하지 말라.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 생각은 일찌감치 멀리 던져버려라.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아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미쳤기에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고 싶은가.

그러면 미쳐라.

319

삼백열아홉 번째 만남 _ 2008. 12. 23

남북전쟁 당시 버지니아 북부에서는 치열하게 반격해오는 남군과의 싸움이 한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방위 경비를 담당하던 스캇 대령이 링컨 대통령을 찾아왔다.

스캇 대령의 아내가 아픈 남편을 간호하러 워싱턴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체사픽 베이 증기선 충돌사고로 사망한 직후였다. 대령은 슬퍼하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연대장에게 휴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워낙 전쟁이 급박해서 장교 한 사람의 몫이 아쉬운 때였으므로 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당연히 휴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스캇 대령은 이에 굽히지 않고 군대의 위계질서를 어겨가며 애드윈 스탠튼 국방장관에게 직접 휴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스탠튼 장관 역시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

결국 대령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급기야 통수권자인 링컨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게 된 것이다.

토요일 오후, 마지막 접견객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선 스캇 대령은 링컨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스캇 대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잠시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나? 밀려드는 요청에 조금도 머리를 식힐 수가 없어. 왜 이 따위 문제로 여기까지 오나? 인사과에 가란 말일세. 서류나 휴가문제는 인사과 담당이잖아!” 스캇 대령은 스탠튼 장관이 휴가를 허락해주지 않아 부득이 대통령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 못 가는 거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스탠튼 장관이 어련히 보내주지 않았겠나? 위계질서와 명령은 지키라고 있는 것일세! 게다가 지금 나보고 스탠튼 장관의 결정과 규칙을 반복하라는 말인가? 그러다 중요한 작전이라도 망치면 어떻게 할 텐가? 지금 내가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처럼 보이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네. 그깟 휴가 문제 따위로 낭비할 시간이 조금도 없단 말일세! 여기까지 오면 내가 동정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가?”

대통령의 역정은 계속되었다.

“자네 지금 전쟁 중인 걸 모르나? 아내가 죽어서 힘든 건 자네뿐이 아니네! 모두 힘들지만 꼭 참고 견디고 있어. 동정이나 사랑 타령은 평화로운 때나 하는 걸세.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그렇게 어리광이나 부리고 있을 시간이 조금도 없단 말일세!

우리가 할 일은 싸우는 것, 그것 하나뿐이야!”

링컨 대통령의 말에는 계속 짜증이 섞여 나왔다.

“자네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인가?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질 걸세. 그렇다고 다들 자네처럼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가? 나는 지금 내 일만으로도 벅차네. 인사과로 가져가게. 휴가문제는 인사과에서 처리하라고! 그리고 인사과에서 안 된다고 하거든 그냥 참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다 그래야 해! 지금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으니까!” 링컨 대통령의 분노에 스캇 대령은 크게 좌절하여 자신의 막사로 돌아갔다.

다음날 새벽녘, 스캇 대령은 누군가 막사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스캇 대령이 아직 잠에 취한 채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링컨 대통령이 서 있었다.

“스캇 대령, 어제 저녁 나는 사람도 아니었네. 정말 할 말이 없네” 링컨 대통령은 스캇 대령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제는 너무 심신이 지쳐 있었네. 그렇다고 해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아내를 잃어 실의에 빠진 사람을 그렇게 험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밤새 후회하면서 뒤척이다가 용서를 청하러 이렇게 왔네.”

링컨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스탠튼 장관에게 연락하여 부인의 장례식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령을 자신의 마차에 태워 친히 포토맥 증기선 부두까지 배웅해주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우리 임직원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어서 빨리 찾아내 마차 태워 휴가 보냅시다.

320

삼백스무 번째 만남 _ 2008. 12. 24

리더의 사과는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두목 여러분

사과는 상대방 마음속의 앙금을 제거하고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것도 왜 잘 못할까요?

직원들 가슴을 뭉클하게 말입니다.

삼백스물한 번째 만남 _ 2008. 12. 26

해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는 북경경성태창 임직원과 함께 보낸다.
이번에도 23일 몽골 울란바타르로 가서 일을 보고 24일 오후 북경으로
날아갔다.

북경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두집(鼎泰豐)에서 저녁에 모여 올해
고생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중국 술 한잔과 만두를 함께 먹었다.

24일은 임종원 부장 결혼기념일이었다.

축하도 해주며 중국 白酒 3병 거뜬히 비웠다.

올림픽 이후 경기가 떨어지고 북경 현대의 갑작스런 판매 방법의
변화로 급격히 물량이 줄어 중국 직원 200명을 해고했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고 그때 중국인으로부터 위협적인 행동에 사뭇
긴장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여러분 他國에서 목숨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하는 경성태창
직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회사 전체에서 제일 먼저 적자를 낸 경성태창이 배돌암 사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내년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보고를 받고 역시 중국에서 노력하면 결과가 빨리 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25일 새벽 비행기로 大邱에 돌아왔습니다.

임상호, 임종원, 이세형, 배성운 부장의 눈빛이 강렬함을 느끼고
TC가 구석구석 세계를 쓸어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배 사장 부부와 4명의 部長들은 이집트, 인도, 두바이를
본사 돈을 들어 가장 환율이 나쁠 때 다녀오게 한(TC가 결심) 것이
이 사람들을 강인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쓸개 빠진 임원은 부부동반으로 두바이, 이집트 다녀온
직후 회사를 그만두더라 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스리랑카의 퍼디판 팔목을 잘리게 한 그 임원 말입니다.

아래 임종원 부장이 내게 보내온 편지를 첨부합니다.

회장님께

어제 저녁에 집사람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사람이 물어보길 “결혼기념 꽃다발이 왔는데, 유재성이란 분이
누구야?” 하구요.

그래서 제가 대답 해줬습니다. “급여 통장에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누가 주는 걸까? 라는 관심도 좀 가져라.

바로 우리 제일 큰 두목님이시다” 라고요.

제가 너무 건방을 댄 게 아닌가? 싶어 죄송스럽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집사람에게 결혼기념 선물 해본 게 10년 전에 해보고,
매년 그냥 저녁외식으로 때웠습니다. 그것도 크리스마스를 겹해서
말입니다.

이번 기회로 아마도 회장님의 성함은 집사람이 평생 잊지 않을까
합니다.

회사 안팎으로 고민도 많으신 시기에 제 결혼기념일까지 챙겨주시는
회장님의 세심함에 거듭 감사드리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관심 기울여 주시는 것보다 더, 제가 관리하고 있는 현장을
정말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살피고, 개선해 나가는 게 회장님의 은혜에
그나마 보답이 되리라고 마음을 고쳐 잡습니다.

매일매일 건강하시길 바라오며, 온 세상 복 다 받으십시오.

- 북경에서 임종원 배상

321

삼백스물두 번째 만남 _ 2008. 12. 29

○○○회사 ○○○회장의 운영회의자료를 공개합니다.

모든 분야에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공부할 것을 수도 없이 찾아내어 실천해 들어갑시다.

12월 운영회의 개최결과

일시 2008. 12. 9(화) 9:00~9:50

보고사항 경영정보 / 2008년 11월 경영성과 분석

회장말씀

322

동사연구소 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세계 조선 수주잔량의 약 40%가 취소되었고, 자동차 판매량도 40%가 감소하였음. 자동차, 조선 등 철강과 직결되어 있는 수요 산업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임. 또한 세계 철강업체 대부분이 이미 30~40%의 감산을 하는 등 현재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국면임. 앞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내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임.

따라서 우리회사도 현실을 좀더 냉정히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감산을 할 필요가 있음.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생산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우리는 의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수립했으면 함. Stretch Target보다는 생존을 목표로 가장 보수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 시점에서 각 임원과 부서장은 자기부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함.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Cash Position이 가장 중요함. 재고와 매출채권 증가는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전 임직원이 극한적인 비용절감 활동에 동참해야 함. 특히 판매, 생산, 원료부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무부문에서는 최소한 주단위로 자금상황, 위기 징후 등을 점검하는 비상체제를 갖추는 필요가 있음.

하지만 우리회사에게는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음.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위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각 부문이 금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람. 마침.

공자님이 제자들과 길을 걷다 어느 집에서 음악이 들려오니 멈추어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제자(자로)가

“선생님도 음악을 압니까?”

라고 의아해하며 묻는다.

공자님은 빙그레 웃기만 할 뿐 한참 후에

“아마도 저 곡은 舜(순) 임금님이 작곡했을 것이다”라고 말하자 제자가

“그걸 어떻게 아시나요?” 하니

“저런 아름다운 곡은 舜 임금밖에 작곡할 수가 없지”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중국에는 전설의 인물 三皇(삼황) 伏羲氏·神農氏·燧人氏(복희씨,
신농씨, 수인씨)가 있고 五帝(오제) 堯, 舜, 禹, 黃帝, 顓頊(요, 순, 우,
황제, 전욱)이 있다.

사마천의 史記사기에는 3황은 전설의 인물로 伏羲氏는 사냥을,
神農氏는 농사를, 燧人氏는 불을 만들어 요리하는 법을 알려준
인물로 기술한다.

얼마 전에 堯舜요순 임금의 太平聖代태평성대인 康衢煙月강구연월은
이야기했다.

이제 중국의 三皇五帝 정도의 이름은 외우고 다녀야 할 때다.

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함을 우린 항상 잊지 말아야겠다.

오늘은 어제를 마감하고 또 시작하는 날이다.

내일도 그렇다.

2008年 1月 1日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다.

미국서 나희가 돌아왔다.

비록 개인 가정 문제지만 본인에 양해를 구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렵다.

어떻게 22살 난 아이가 이렇게 성숙할 수 있는지 우리
해를 마감하면서 잘 새겨보자.

아저씨!

오늘 아침에도 늘 그렇듯 바쁘시지요?

어제는 얼마나 바쁘셨으면 아침 8시부터 뛰어다니셨는가 모르겠네요.

인터넷고에서 같이 술 마실 때 아저씨께서 저한테

어린 나이에 오만 걸 다 겪어서 나중에 사회에 대한 복수

뭐 그런 악한 마음이 생기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이 된다고요.

그 말에 대해서 꼭 생각해봤는데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앞으로 더 있어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 보서는 적어도 누군가에 대한, 아니면

사회에 대한 맹목적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25살이 되기도 전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빠가 몇 번 부모나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아주 어릴 때에는 아빠가 부모나서 교도소 간 적도 있고
지금은 혼자 미국에 몇 년째 살고 있고.
그 전에 혼자 살기 전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밤에 청소하고, 또 아르바이트 일하고.
25살이 되기 전까지 많은 것을 겪었다고 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중간에 힘들어서 좌절한 순간이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밝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힘들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일어서서 무조건 혼자 헤쳐나왔다면
아마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저씨나, 친구들, 교수님들
그분들의 도움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오히려 제가 살고 있는 삶,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도요.
쇠는 때릴수록 강해진다고, 저를 힘들게 했으니까
저의 지금 같은 철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눈물 뺀 게 없다면
이번에 저희 부모님 이혼하시는 거 제가 견딜 수 있겠어요?
미성년자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이혼하시는데
왜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더군다나 미국에 전화와서 가끔은 엄마 하소연도 들어줘야 되고

어떨 때는 저도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속에 억장이 무너져서 미치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도 점잖은 척, 밝은 척, 강한 척 하면서
엄마를 위로해야 되는 게 요즘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아마 그 동안 나름 고생해오면서 숙련돼서
그런 연기도 잘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한국에 나와서는 친척들이 엄마랑 아빠랑 이혼했다고
특히 엄마를 무시해도, 저까지 덩달아 불쌍한 애로 취급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전혀 안 써요.
엄마가 섭섭하다고 하면 제가
“엄마! 섭섭해 할 것 없다. 한국에서 이혼했으면서
그 정도도 감수 안 하고 이혼 할려고 했나?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다들 저러지만
우리 잘 살면 나중에는 오히려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한다.
이럴수록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
섭섭하다고 마음 상할 이유도, 그렇다고 미워할 이유도 없다.
다들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자기들 어디 아픈데 없나 걱정하고
남이 뭐하나 입방아 찢는 거지.
엄마가 앞으로 친척들 섭섭하다고 하거나
아님 아직도 아빠에 대한 미운 감정이 남아있으면
나는 앞으로 엄마도 아직 덜 힘들어서 저렇게나 라고 간주할 꺼다.”
라고 그랬거든요.
아저씨, 저도 참 매정하지요?
매정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엄마! 엄마가 내보다 30년 이상을 더 살았지만

엄마는 그동안 부잣집 딸로 살고

아빠가 싫든 좋든 간에 어쨌든 의주해서 살아왔잖아

이제 이혼하고 나서 그야말로 독립된 삶을 살잖아.

독립된 삶을 살아온 년수로 따지자면 내가 좀 더 안 길겠나?

가끔은 내가 하는 말이 매정하게 들리더라도

엄마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것 또한 다 엄마를 위한 말이니까.

그렇다고 내한테 하소연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제일 가까운 내가 엄마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 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고요.

엄마가 사실 요즘 많이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도 엄마도 저도 둘 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아마 넉넉잡아 5년만 지나면 아마 잘 살지 않을까 싶네요.

희망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고요.

오늘은 밖에 날씨가 참 춥네요.

밖에 다니실 때 옷 잘 입고 다니세요.

나희 올림

삼백스물다섯 번째 만남 _ 2009. 1. 2

연말연시가 되면 문화 예술 분야도 활발히 움직인다.

그 해를 마감하는 의미도 있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도 있다.

그중 음악 쪽이 대단히 분주하다.

발표회와 송년잔치, 신년잔치가 연결되어 활약하는 분야이다.

오페라도 그중 하나이다.

내가 평생 소원이 있다면 오스트리아 비엔나 필하모닉 뉴이어 콘서트에서
내 자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공연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교향악단의 연말연시 활약은 서로의 경쟁들이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데 올 연말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성시연 지휘자 초청(이

여자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할 것 같은 여자) 베토벤 #9 심포니가 있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저 유명한 객승 지휘자의 베토벤 9番 심포니에
성악가 네 분도 함께 했다.

그들은 김승철, 하석배, 김정화, 유소영 교수들이었다.

그중 #9 심포니 4악장 합창 부분이 백미다.

오페라에도 합창곡은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 노예들의 합창(여기에
노예는 히브리족 즉, 이스라엘 민족)과 일트로 바토레 중에 병사들의 합창과

마스카니의 카벨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이전 지난번 글에 내가 제일 좋아한다고 썼다), 사냥꾼의 합창, 음모의 합창

등등 오페라 속에서 합창곡이 이렇게 많다.

그런데 베토벤은 #9 합창곡을 작곡해서 그걸 들고 천당의 하나님께

갔다. 하나님께 자기가 바칠 노래를 들고 말이다.

올해 국내에 서울, 대구에서 웅장한 이것을 동료들과 만끽했으니

이 어찌 내가 행복하지 아니한가.

합창(환희의 송가)

오 친구여, 이 곡조보다 더한 것 없으리!

더욱 희망찬 노래를 부르세

더 즐겁게

즐겁게, 즐겁게!

환희여, 하느님의 아름다운 섬광이여

천국의 딸이여!

우리는 그 불길에 이끌려 왔노라,

당신의 지성소가 천국이니.

당신의 마법으로 다시 뭉쳐

문화는 비록 다를지라도

모든 인류는 한 형제가 되도다.

당신의 날개가 펼쳐이는 곳에서

누구나 이렇게 태어났도다.

우정으로 하나되도록,

누구나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며

울도다, 누구나 서로의 영혼을 부르리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는 이 없으리

우리의 모임 안에는

모든 생명이 기쁨을 마시며

자연을 숨쉬고,

모든 선과 악

그녀가 뿌린 장미 꽃길을 따르리.

그녀는 입맞춤 그리고 포도주

어느 친구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기쁨은 따듯한 선물

케루빔이 하느님 앞에서 그를 맞으리라

태양이 떠오른다 기뻐하여라,

천국의 영광스런 계획속에.

형제여, 경주하여라,

그리고 승리의 영웅이 되어라.

모든 사람들아, 이 포옹을 받으라!

온 세상 위한 입맞춤을!

성좌에 오른 형제여,

살아계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포옹을 받으라!

온 세상 위한 입맞춤을!

환희여, 하느님의 아름다운 섬광이여

천국의 딸이여!

환희여, 하느님의 아름다운 섬광이여

삼백스물여섯 번째 만남 _ 2009. 1. 5

나는 간혹 젊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럴 때 가만히 내 나이가 그 사람일 때 나는 무얼했나 생각해보면 나는
더 못나거나 덜 성숙하였다.

이 세상에 젊은이는 왜 이렇게 빨리 다가와 나를 넘으려 하는지
나도 참 힘들다.

“가르치기엔”

그런데 여러분 뭐 조금 안다고 떠들 수 있나요.

옛날 고기영 소장에게 한 말이 생각난다.

“홍시여, 너도 젊었을 땐 젊었어”

삼백스물일곱 번째 만남 _ 2009. 1. 6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음의 준비를 한 후 경대병원에 가서
MRI촬영을 마치고 정형외과 전인호 교수의 진료를 받고 판정받은
병명은 오른쪽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인대(힘줄) 파열이었다.

오늘 아침 바로 병실(경대병원 6912房)을 정하고 수술 전 검사를 마치고
잠깐 회사에 들러 정리한 후 이 글을 쓰고 있다.

내일 아침 10시 수술이 시작되면 수술 시간 3시간, 수술 전후시간 3시간
전부 6시간 소요되는 어깨뼈에 볼트를 심어 인대와 묶어 고정시키는
수술이다.

오늘 저녁 먹은 후 바로 병실에 입원한 후 내일 수술하고 1주일 정도
입원 후 깁스를 하고 퇴원, 3개월 정도 깁스상태에서 고정 치료 후
깁스를 풀고 6개월 정도 근육 재활 치료가 끝나면 모든 것이

완쾌되는 것이다.

작년 12월 30일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문혜영)와 상체운동을 하다가
파열되었고 그 후 31일 근무 후 오후 퇴근하여 열이 38℃씩 올라간
상태에서 진통제, 해열제, 수면제를 먹고 1월 1일 제사를 지낸 후
포항 신항만에 가서 올해 해야 할 일을 직면하기 위해 일어서는 순간
그대로 쓰러져 오후 늦게까지 잠이 들었다.

1월 2일 시무식엔 참석을 못하고 다른 행사에 갔다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늘이 내게 금년을 잘 극복하라는 신체적 고통을 주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공교롭게도 2005년 9월 16일 경대병원에서 전인호 선생에게 왼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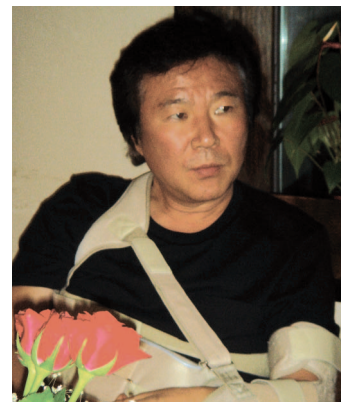
인대파열(몽골에서 오토바이 타다 처박혔다)로 수술, 이번에는 오른쪽 같은 곳이다.
내 나이 정도면 인대가 삭은 고무줄과 같은데 강한 운동하다 또 이런
벌을 받는다.

앞으로 조심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한다.

참고로 3년 전 모습을 사진에 담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나는 마취(마취가 잘 안됨)에 약한 게 걱정이다.

지난번 유귀훈 씨가 옆에 있다 혼쫓 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다.



삼백스물여덟 번째 만남 _ 2009. 1. 7

내가 좋아하는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비범한 능력을 가진 리더였으나 그의 성공 뒤에는 엄청난 인고의 세월이 자리했었다.

병약했던 어린 시절, 불우했던 청년기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암살자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었다.

그러나 그는 삶의 긴 여정을 통해 자신의 시련을 딛고 미국을 초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시대를 초월하는 그의 리더십은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에 고군분투하는 우리 경영자들에게 또한 두목에게도 훌륭한 모델인 것이다.

생전의 그는 키가 176cm에 몸무게 90kg 정도였다.

그의 신체는 건강했으며 균형이 맞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가슴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는데 끊임없는 운동과 육체노동의 결과였고 반면에 손과 발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 비교적 섬세한 편으로

어쩌면 나와 여러 가지로 신체조건이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는 1858년 10월 27일에 태어나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여 우등생으로 졸업한다.

22살에 엘리스 리와 결혼, 23살에 뉴욕의회 맨하튼 지역 대표의원으로 활약하며 24살에는 뉴욕 국가방위군 부대장으로 임명, 25살에는 대장으로 승진하다가 다시 뉴욕주의회 의원으로 당선된다. 그 다음해 첫딸이 태어나자마자 산모와 함께 죽게 되고 이틀 후 어머니마저 식중독으로 사망하게 된다(다음에 이 사실을 따로 글로 쓰겠다).

28살에 런던 출신 에디스케로와 재혼하여 4남1녀를 낳게 되며 많은 책을 발간하며 해군성 차관으로 임명되어 활약하다 1894년 스페인과 미국 전쟁에서 미국기병 중령으로 임명 대령으로까지 승진한다.

40살에 뉴욕 시장에 취임하였고 42살에 공화당 메켄리 대통령의 선거에 합류 부통령이 된다.

1901년 메켄리 대통령이 저격(미 대통령 사상 5번째 사망) 당해 43살에 미국 2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46살이 되던 해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지명, 그해 11월에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50살이 되는 해에 러일전쟁 중재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며 1907년 10월 공황이 월스트리트와 전국의 예금주들의 동요사태가 오늘 미국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다시 재선에 출마하기 위해 52살에 선거 유세 중 저격당한 상태로 90분간 연설을 마치고 의료진에 실려나가는 일이 벌어진다(이 글도 다시 써보겠다).

재선에 성공, 차기 월슨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고 세계 1차 대전이 월슨 대통령 재임 중 발발했을 때 서부전선에 참전하려 했으나 월슨 대통령에 의해 기각된다.

그러나 네 아들은 모두 지원 입대하게 되고 딸도 적십자 간호원으로 활약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도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막내아들

쿠엔틴은 조종사로 참전 중 프랑스 상공에서 전사하게 된다.

1919년 1월 6일 60才의 나이로 자택 사가모어 힐에서 새벽 4시 15분경 수면 상태로 세상을 떠난다.

뉴욕 오이스트 베이 교회에서 장례식이 거행되고 오이스트 베이 영스 기념묘지에 안장, 파란만장의 직면하는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참고로 그의 대통령 재임기간은 메켄리 대통령 저격으로 4년, 초임 4년 총 8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였다.

루즈벨트 인생의 최대실수는 초임 당선 직후 당선인 연설에서 재임하지 않겠다는 연설이 치명적이었다.

그 당시는 연임, 3임까지 가능한 시기였다.(본인이 초임 재임 중 권력 누수현상 생김)

그래서 초임 완료 후 루즈벨트가 발탁한 태프트가 당선된 후 루즈벨트는 월슨과 붙었지만 패배하게 된다.

내가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여러분께 소개함은 그는 소설가(작가), 장군, 의회의원, 시장, 탐험가, 대통령, 불우한 인생(어릴 때 부모 잃음), 체력 단련, 외국 여행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력을 가지며 자기 직면과 도전, 열정, 극복, 탐험, 극기(1차 대전 참가, 아마존 탐험) 등등 60년 인생에 나보다 훨씬 처절하게 살았기에 여러분께 소개를 하였고 다음엔 그 위대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겠다.

삼백스물아홉 번째 만남 _ 2009. 1. 8

1884년 2월 14日 루즈벨트는 25살 때 당일 새벽 3시에 어머니를, 오후 2시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재연해보겠습니다.

루즈벨트는 자정 직전에야 집에 도착했다.

그는 아내의 침상으로 뛰어 들어갔다.

아내는 혼수상태였다.

그가 붙잡고 흔들어 보았으나 그녀가 루즈벨트를 알아보지는 알 수 없었다.

새벽 3시경 그는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다른 세 형제들과 함께 어머니의 침상을 지켰다.

어머니는 곧 돌아가셨다.

그때 그녀의 나이 마흔여덟이었다.

그는 다시 앨리스에게로 돌아와 아내를 안았다.

마침내 오후 두 시경 그녀는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그녀의 나이 겨우 스물둘이었다.

루즈벨트는 1884년 2월 14일 목요일 발렌타인데이가 그의 삶에서 중요한 날이 되리라 예견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슬픔으로 가득한 날이 되어버렸다.

그의 나이 스물다섯 살 때의 일이었다.

루즈벨트의 아버지는 1878년에 돌아가셨으니 루즈벨트는 20才에 아버지를, 25才에 아내, 어머니를 잃는 인생 최대의 불운아가 된 것이고 이 역경을 자신도 이겼고 미국 국가도 100년 대국굴기를 이루어내었다.

삼백서른 번째 만남 _ 2009. 1. 9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수술 마쳤습니다.

역시 마취에서 일찍 깨어나다가 지난번처럼 死地사지를 헤맸습니다만
훌륭한 간호사(마누라) 덕분에 조금씩 회복되어 갑니다.

곧 출근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2009. 1. 7
會長



삼백서른한 번째 만남 _ 2009. 1. 12

시카고에서 국가진보당(불무스 당)이 창당되고 1912년 8월 5일, 루즈벨트는 대통령 지명을 받게 되어 그해 10월 14일 위스컨신주 밀워키에서 선거 유세 중 저격당해 의료진 치료 받기 전 90분간 연설했고 다행히 목숨을 건져 민주당 월슨과 경쟁하였으나 패배하게 된다.

그때 연설을 재현해 보자.

루즈벨트는 연단에 올라 외투 호주머니에서 원고를 꺼냈을 때 반으로 접어진 연설문이 50페이지나 된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듯 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읽자면 자신의 생명이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마이크 없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총에 맞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속에 박힌 총알 때문에 오랫동안 연설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사건을 십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충격을 당한 지 채 5분도 안 되었다고 해서 불성실하게 연설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피격된 사실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연대장이었을 때와 같습니다.

저는 이등병이 때때로 자신의 안전에 대해 초조해하는 것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전투에 임해야 하는데도 임무 수행 시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령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재킷과 조끼를 열어 피에 젖은 셔츠를 청중에게 보여주었다.

상처 입은 루즈벨트는 청중들에게 간절히 호소했다.

“우리 불무스 당의 도전을 큰소리로 말할 수 없으니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몸은 떨렸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던 루즈벨트는 연설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청중과 참모진의 요청을 물리쳤다.

그의 안색은 창백해졌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으며 어조도 불규칙했다. 때때로 연단 끝에서 위험할 정도로 몸이 휘청거렸다.

준비된 연설문을 가까스로 읽어나가던 루즈벨트가 마침내 다 읽은 연설문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1912년 선거운동 중 가장 위대한 순간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겨주었다.

삼백서른두 번째 만남 _ 2009. 1. 13

그리움

山 멀리 걸렸던 구름 어느사이 흩어져 가고
먼데 山 위 수줍은 달빛만 내맘같이 외로워 운다.
님은 떠나가고
달빛은 구름속으로 어둔 밤 어둔길 적막하여라.
사무치는 그리움 안고 이밤 다시 새워 보낸다.
봉은사 새벽종소리 비에 젖어 흐느껴 울고
먹구름에 가리운 달빛은 내맘같이 서러워 운다.
님은 가고 없어도 종소리 변함없어라.
사랑했던 날들을 잊지말라고 부딪쳐서
온몸으로 우는 종소리 영원하여라.

위의 시는 우리회사 조남필 사장(전직 신라철강 대표이사로서 일본어, 영어가 탁월하고 대인관계가 훌륭한 분이다. 1998년 1월 4일 전직 학원강사였는데 이사로서 사장까지 업무 수행 중 뇌출혈로 2002년 3월 25일 사망하게 됨)의 부인이 돌아가신 남편이 그리워 내게 보낸 시입니다.
여러분 詩 공부도 이제 좀 합시다.

334

삼백서른세 번째 만남 _ 2009. 1. 14

“재성아

장사를 제발 벌리지 마래이.

그냥 먹고 살면 된대이”

이것이 나의 아버지가 간혹 내가 사업을 확장하려들면 내 소매를 잡고 사정하는 말씀이었다.

그렇다면 그때 왜 나에겐 그렇게 강렬한 확장의 충동이 내재되어 있었을까?

40年 前 그 당시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회사에 근무했을 때 대구의 철재상은 12곳이 있었는데 태창철재의 판매순위는 11번째였고, 12번째 대구철재 김광섭 사장이 꼴찌였다. 그러나 그 어른들은 내가 볼 때 거의 성직자에 가까운 천성을 가진 어른들이었다.

333

삼백서른네 번째 만남 _ 2009. 1. 15

프란체스코 하이에즈Francesco Hayez의 〈입맞춤〉에서 남자는 모자에 눈이 가려져 있고 여자는 눈을 감고 있다.

어떤 위험이 생긴다 해도 두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반면 두 연인이 모든 것을 지나치게 분명하게 바라보는 피카소의 〈입맞춤〉은 전혀 다른 감성을 보여준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있다.

이 작품의 얼굴과 성기가 묘하게 결합된 모습은 기이한 장면을 만들고 있다.

마치 남자는 남근 형상의 코로 질 형상의 입술에 입맞춤하는 듯하다.

그의 눈은 고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며 그의 머리 부분에 있는 음낭의 표면에 붙어있다.

그는(눈으로) 욕망의 대상을 볼 뿐만 아니라, 그의 시각기관(눈) 자체가 욕망의 기관인 것이다.

하이에즈의 연인들은 눈에 보이는 손과 얼굴을 제외하면 몸 전체가 옷으로 감추어져 있어서 관객의 주의를 입술로 모으고 몸의 다른 부분은 시야에서 배제한다.

남자의 소박한 외투와 여자의 공단 드레스에서 암시되는 계급적



프란체스코 하이에즈, <입맞춤>
Oil on canvas, 112×88cm, 1859년

차이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끝나버릴 밀회의 덧없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부드럽게 포옹하며 입맞춤을 한다.
반면 피카소가 그린 연인들의 몸은 전통적인 미적 규범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해체, 변형되어 재구성된 것이다.
옷은 몸을 가린다고 보다는 보통은 머리 부분에 위치한 고상한 감각 능력(후각, 미각, 시각)까지 겸비한(형태가 합성된) 성기 모습을 두드러지게 한다.
피카소는 하이에즈의 낭만적인 입맞춤에 스며있는 천상의 순수성 대신에 펠라치오와 커니링구스를 동시에 구현한 '생식기의 입맞춤'으로 지상의 냄새와 맛을 암시한다.
하이에즈에게 입맞춤은 부드러움으로 가득 찬 행위이다.
모든 악함과 불완전함은 외부에서 올 뿐이다.



파블로 피카소, <입맞춤> 포스터,
1925년

그것은 화면 왼쪽의 아치형 문에 비친 그림자 형상에서 암시되고 있다.
하지만 피카소에게 불완전함은 내부에서 유래한다.
남자의 긴장한 왼팔은 주먹을 쥐고 여자의 머리를 으스러지게 끌어당기고 있으며, 여자의 오른팔은 손가락을 바짝 편 채 털이 뺏뺏이 곤두선 남자의 왼팔 위에 놓여있다.
두 번째 음부 상징(남자의 성적 욕망의 궁극적인 대상)은 마치 이 숨 막힐 듯한 입맞춤이 쥐어짜낸 듯한 노란빛의 달걀 모습으로 여자의 드레스 아래쪽에 나타나 있다.
두 그림은 구상과 비구상의 절묘한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삼백서른다섯 번째 만남 _ 2009. 1. 16

미술의 역사에서 사랑을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로댕**Rodin의 **〈입맞춤〉**과 **브랑쿠시**Brancusi의 **〈입맞춤〉**이다.

로댕은 본래 이 작품을 그가 1880년에 작업을 시작해서 1917년 사망할 때까지 매달렸던 **〈지옥문〉**의 한 부분으로 구상했었다.

로댕은 단테의 신곡에서 사랑과 파멸의 주제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지옥문인데 그 속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입맞춤이다. 물론 지옥문 그 자리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커플로 대체되었다.

로댕의 **〈입맞춤〉**은 여자의 왼발은 남자의 왼발 위에 놓여 있고, 여자의 오른다리는 남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걸쳐 있다. 여자의 왼팔은 남자의 목을 휘감아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반면, 남자의 오른손은 조심스럽게 여자의 엉덩이에 놓여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자의 성적 주도권은 현대적인 동등성을 나타낸다고보다는 여성의 유혹이라는 전통적인 상징을 암시한다.

〈입맞춤〉은 낭만적 이상의 관능적 버전이자 오랜 미술전통의 정점을 보여준 작품이다.

브랑쿠시의 조각품은 현대 미술의 혁명적인 변화를 보여주면서 많은 점에서 로댕의 작품과 대조된다. 로댕의 입맞춤이 사랑 이야기의 특정 순간에 벌어진다면 브랑쿠시의 입맞춤은 무시간적이다. 로댕의 입맞춤이 절정의 순간이라면 브랑쿠시의 입맞춤은 영원하다.

로댕의 입맞춤이 현실적인 어쩌면 도식적인 공개된 영역에 위치한다면 브랑쿠시의 입맞춤은 순수한 예술의 영역에만 존재한다.

로댕의 천상적인 여인들이 우아한 흰색 대리석으로 조각돼 있다면 브랑쿠시의 지상적인 연인들은 평범한 돌덩어리로 조각되어 있다. 로댕의 조수들은 연인들의 완벽한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대리석을 매끄럽게 손질했지만 브랑쿠시는 몸소 돌을 깎아내며 거친 표면을 그대로 놔두었다.

로댕의 연인들은 젊고 아름답지만 브랑쿠시의 연인들은 나이나 아름다움과는 무관하다.

로댕은 나체 모델에게 새로운 자세를 취하게 하는 한편 자유롭게 움직일 여지를 허용하는 혁신적인 기법을 적용했으면서도 막상 조각품 자체는 사랑스러운 입맞춤의 우아함을 강조하는 고전적인 자세로 표현했다.

반면 브랑쿠시의 연인들은 엄격한 예술적 의도와는 관계없는 자세이다. 성을 다루는 방식 역시 날카롭게 대조된다.

로댕의 걸작은 잘생긴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의 사랑을 이상화하고



콘스탄틴 브랑쿠시, 〈키스〉, 1907년



로댕, 〈입맞춤〉, 대리석, 1886년

있다.

여자의 주도적인 몸짓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우월한 힘, 더 큰 몸, 강인한 근육, 좀 더 곧추선 자세 등은 모두 성적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브랑쿠시의 연인들은 거의 남녀양성의 존재로 보인다.

희미하게 보이는 여자의 가슴과 좀 더 길고 굴곡진 머리칼을 제외하면 성적 차이를 암시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남자와 여자는 키와 몸집이 같고 대등하게 얼굴을 맞대고 있으며, 같은 힘과 같은 크기의 팔과 손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있다. 나란히 위치한 팔이나 하나의 하이픈(-)으로 표현된 입맞춤은 남녀의 동등성을 암시한다.

브랑쿠시는 전통적이고 아름다우며 사랑스러운 입맞춤 대신에 두 개의 육중한 물질을 예술적으로 병치해 놓았다.

사실 입맞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감어린 눈길의 교환이다.

로댕의 연인들은 눈을 감고 있지만 브랑쿠시의 연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있다.

나는 지금부터 15년 전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오귀스트 로댕의 〈입맞춤〉 청동 조각품을 운송계 100,000\$에 구입하게 되어 잘 보관하고 있다.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나 보여주겠다.

이래서 그림공부는 재미가 있다.

삼백서른여섯 번째 만남 _ 2009. 1. 19

오늘 새벽에 일어나 중앙일보 정진홍 박사의 위기를 돌파하는 “의지의 힘”이란 강의를 컴퓨터로 들었다.

의지의 힘이란 목표를 향한 의식적 노력으로서 혁신을 하려면 의지의 힘이 필요하다 하였다.

나는 그것을 직면이라 표현했지만 그 직면을 정진홍 식으로 풀어보면 견디는 힘이고

돌파하는 힘이고

그리고 이루어낸 힘이라 하였다.

그렇다.

여러분도 열정의 갑옷을 입고 몰입하는 방패를 들고 의지의 검으로 현실의 운명을 격파하는 것이다.

다 듣고 반가워서 새벽에 문자를 이렇게 보냈다.

“당신은 이천오백년 전의 고전들을 현대적인 해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아다”

라고 하였더니 그도 잠을 안 자는지 답이 왔다.

“전 지금 목 편도선이 부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걸요.

수술경과 좋으신거죠

빨리 뵙고 싶어요”

그렇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通도 이루어져야 무소불통사통팔달이 되는 것이다.

338

삼백서른여덟 번째 만남 _ 2009. 1. 21

TC가 겪거나 겪어야 할 사건에는 신비롭게도 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집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TC는 지금 운명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운명을 극복하는 것은 직면입니다.

339

삼백서른아홉 번째 만남 _ 2009. 1. 22

나는 간혹 폭탄주를 즐겨 마신다.

人生이란 맥주에다 위스키를 섞어 마시고 싶은 충동이다.

모든 두려움 중에 최악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일 것이다.

삼백서른일곱 번째 만남 _ 2009. 1. 20

내가 알고 있는 知性인 몇몇 사람은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

즉 同一視, 同質性(Identification)이란 병인데 정신의학적 용어다.

물론 나도 조금은 이 병에 젖어있고, 인간들 누구나 다 이 병을 앓고 있는데 모르고 있단다.

예를 들어 남에게 강의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공자님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다 하고 말하거나 지성인은 이렇게 말하기를 하면서 은근히 자기자신을 공자나 지성인처럼 그 사람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종교적 철학을 이야기하는 성직자도 마찬가지다.

즉 성직자이지 성인은 아닌 것이다.

공자나 맹자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공자적이지 공자는 결코 아니다.

그 철학을 전달하는 사람(메신저)과 그 철학이 자기 몸속에 녹아내린 것을 품어내는 사람은 다르다.

즉 言과 行행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달자(메신저)가 그 철학이 자신인양 거드름 피우는 이 세상을 우린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다루기 힘든 사람들은 내 주위에 바로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

337

삼백마흔 번째 만남 _ 2009. 1. 23

여러분이 듣거나 읽는 모든 정보를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먼저 확인하십시오

루즈벨트 프랭클린

1939. 9. 3 전쟁에 관한 유럽 노변담화에서

조직이나 국가 내에 떠도는 소문이란 것은 대단히 유용한 정보인 경우도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나 일부분에 불과한 왜곡된 사실, 심지어 악의적인 거짓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MB정권 출발 이후 쇠고기 파동에 촛불시위가 일부 좌파 친북 폭력 집단에 빌미를 주어 국가가 흔들렸고 국회가 엉망진창으로 경제가 멈춘 시점에 또 철거저항시민 사망사고사건이 이 국가를 흔들게 할 일부 좌파 친북 폭력 집단에 빌미를 주는 것이 현 시국에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고군분투하는 경제인으로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참고로 동아일보 2009년 1월 24일자 사설을 따로 싣겠다.

『빌미만 생기면 갈등과 증오 부추기는 세력들』

‘제2의 촛불’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용산 참사’ 현장으로 모여들고 있다. 사고 당일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석발을 내걸더니 어제까지 나흘째 촛불집회를 열었다.

대책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지난해 ‘광우병 대책위’에서 활동했던 단체들 거의 그대로다.

민주당은 진압 최고책임자의 파면뿐 아니라 특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민주당에 대해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더 강력한 투쟁을 주문했다. 빌미만 생기면 나라야 어찌되든 대(對)정부 투쟁 전선(戰線)부터 형성하는

것이 이들의 주특기다.

진상 규명은 관심 밖인 듯하다.

입만 열면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 투쟁한다”고 열을 올리지만 속셈은 갈등과 증오를 확대해 자신들의 정파적,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일 뿐이다.

DJ의 사주는 그가 한때나마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실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와 의 신년 하례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니 참 가슴이 아프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했다.

대통령 시절인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서해교전)으로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북한군의 선제공격에 의해 희생됐을 때는 눈물은 커녕 조문(弔問)조차 하지 않았던 그다.

DJ는 또 “내가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을 때 당시 독재자 편에 섰던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분한 마음이 든다”고도 했다.

대북(對北) 햇볕정책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면 용서와 화해, 비폭력을 이야기해야 마땅할 텐데 30년이 다 된 사건을 들춰내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

그는 용산 참사를 민주당의 2, 3월 대여(對與) 투쟁과 4월 재, 보궐 선거로 연결시키라고 작전 지시까지 했다.

국가적 갈등상황에서 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갈라 내 편에 불리하면 무조건 비난하고 투쟁하는 것이 DJ가 말하는 민주주의인가.

사회 원로든 운동집단이든 중재와 설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도와야 할 것 아닌가.

끊임없이 전선을 만들어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국가는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면 공멸(共滅)할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다.

삼백마흔한 번째 만남 _ 2009. 1. 28

우리 임원들에겐 임원이 되면 연간 1人當 百萬원을 들여서
“SERICEO”를 보게 한다.

출근하면 매일 자기 컴퓨터에 인류가 공유해야할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 알기 쉽게 우리에게 전달해준다.

나도 여기에 하루 정보를 거의 다 완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회사는 임원들에게 전부 2千여 만 원을 들여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별로 사용하는 게 신통찮다.

결국 음식을 입에 갖다 바쳐도 받아먹지 못하니 우리가 이 모양이 아닌가
말이다.

여러분도 임원들의 패스워드를 빌려보기 귀찮으면 1년에 1百萬원을
투자하라.

그러면 당신들 인생에 최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나라 지식인들 중 SERI CEO를 모르면 병신취급 당한다 요즈음.

정보의 홍수를 누군가 걸러서 잘 전달해주어야 하는데 바로

그 기능을 SERI CEO가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이야기해 드렸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삼백마흔두 번째 만남 _ 2009. 1. 29

10대 후반 이상의 젊은이들이라면 거의 누구나 포르노나

“아동(음란동영상)”을 접하면서 사는 것 같다.

약자 “SM(새디즘, 마조키즘)”이 무엇인지 그들은 금방 알아듣는다.

포르노 사이트의 접속자가 흘러 넘치는 것을 보면 포르노가 대중화한
반면 포르노의 개선과 미화 혹은 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은 없는 것
같다.

어떤 저급한 포르노라도 아랫도리 속옷을 적시기는 마찬가지다.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을 때 포르노를 보면 온몸이 붉은 녹듯 풀어지게
마련이다.

굳었던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정신 속의 온갖 잡생각이 잠을 방해했다면 포르노는 몸속의 깊은
본능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어 잡념을 잊게 하기 때문이다.

어젯밤 오랜만에 괜찮은 포르노를 보았다.

동안의 귀여운 일본여자와 역시 귀엽고 귀티나는 일본남자가
등장했는데, 남자는 먼저 혀로 한참동안 여자의 성기를 애무하더니
여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애무하기 시작했다.

애무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기에 저러다 끝나는 점잔 떠는

포르노인가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차 한 잔을 끓여와서 다시 들여다보니 드디어 남녀가 섹스를
하고 있었다.

따스한 포옹과 키스가 전율적이다.

포르노에서 흘러나오는 여자의 신음소리는 대부분 따로 녹음된 것이거나 가짜로 꾸민 것인데, 이 여자의 비명은 정말 실감났다. 진짜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저들은 리얼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아마도 서로 사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에게 쾌락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애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 정도로 충분한 애무를 받으면 저 정도의 비명이 당연히 흘러나오리라.

어느새 내 안에서 흥수가 일어나 내 마음뿐 아니라 내 몸의 땀이 무너지고 있었다.

포르노를 들여다볼 때마다 아쉬운 점이 있다.

많은 포르노가 남녀의 성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일 요리 강좌에서 접시와 칼, 도마와 감자, 날고기, 마늘과 양파만 오락가락하고 익어가는 맛있는 음식을 눈에 보이지 않게 가리고 모자이크 처리한다면 어떨까?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음부를 가리는 포르노다.

요즘은 음부를 뿌연 안개로 처리하거나 모자이크 무늬로 처리하지 않고 음부 부분에 작은 동영상 화면을 삽입해 비슷하게 야한 장면을 보여주고는 한다.

배우들이 한손으로 음부를 쥔 채 이동하기도 한다.

포르노의 목적이 그렇듯, 그 목적에 걸맞게 이를 성적으로 자극하고 그래서 성생활에 활기를 주려거든 마땅히 성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성기를 보여주는 포르노와 성기를 가리는 포르노의 자극 수준은 천지차이이다.

우리 몸에 왜 성기가 달려있는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만들었다면 그 분은 어째서 성기를 만들었는가?

가장 먼저 다가오는 대답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가 거부해 왔지만, 성기라는 존재의 또 다른 목적은 쾌락이다.

그런 거룩한 분이 만든 성기가 왜 추하고 더러운가?

음부를 추하고 더럽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 혐오가 아니라 신에 대한 혐오다.

‘맥주가 청소년에게 좋지 않다고 맥주공장 문을 닫게 할 것인가’ 하고 물었다면, 나는 거기에 덧붙여 말하리라.

“포르노가 청소년을 타락하게 만드는가?

아이들이 쥐약, 농약, 심장약을 만지면 위험하다고 해서 이 세상의 약을 모두 없애버릴 것인가?

아이들에게 위험한 것이 포르노 뿐인가?

예를 들면 등하곶길 아이를 덮치는 자동차를 모두 없앨 수 있는가?

포르노가 외로운 독신남의 성욕을 자극해 그를 성범죄자로 만드는가?

어떤 성범죄자가 포르노를 보고 나서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는 이미 포르노를 보기 전부터 성범죄의 씨앗과 싹을 가득 지니고 있던 사람일 것이다.

그가 본 포르노는 범죄의 필수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은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보다 섹시한 동물이다.

인간의 섹스는 발정기와 무관하게 장기간 지속되며, 대부분의 경우 종족보존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쾌락 혹은 남녀간의 유대를 위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종족보존을 배제한 섹스, 즉 피임 아래 이루어진 섹스나 생식의 가망이 전혀 없는 노년의 섹스, 임신의 두려움 속에서 행해지는 섹스가 너무나 많다.

인간은 보통의 동물과 달라 의도적으로 유달리 성적 쾌락을 추구한다.



포르노는 성적 쾌락을 상승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포르노를 잘 이용하면 성욕에 활기를 주고 우리의 삶을 더욱
 부드럽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포르노 전체를 싸잡아 배척할 것이 아니라 폭력적이거나 인간을
 비하하는 저급한 포르노를 혐오해야 한다.
 그리고 포르노를 개선해 인간 생활에 적절히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소금이 짠 것이 죄가 아니라 소금을 너무 많이 친 사람의 행위가
 잘못이다.

여러분 위의 글은 나의 글이 아닙니다.

월간 중앙 2009년 1月号에 게재된 조정옥의 글입니다.

그녀는 성대 철학과를 졸업, 서울대 대학원에서 철학 석사, 뮌헨
 대학에서 사랑을 주제로 철학박사를 받고 현재 성균관대 교수로서
 성, 예술, 철학, 문화에 대한 교양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족 보존과 무관하게 섹스하는 동물은 인간뿐이라며 성욕에 활력을
 주는 “포르노”를 금지 말아야 하며 더 야한 포르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물며 내전 중 잔인하고 끔찍한 살인장면을 찍은 사진은
 풀리처 상을 받고 누구나 하는 섹스행위를 찍으면 철장행인가?
 음부가 더럽고 추한가?

그렇다면 음부를 찍은 사람을 욕하지 말고 음부를 만든 하느님을
 욕하라고 거품을 물면서 혼전 성, 혼외 성, 성매매, 일부일처제,
 성문제에 얽힌 결혼과 이혼 등 우리 시대의 성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가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 인간의 숨겨둔 욕망을 영화
 <래리플린트>를 통하여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혹시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영화 “쌍화점”을 본 적이 있나요?

너무나 빠른 세상에 뭘 꾸물대고 있나요

여러분?

삼백마흔세 번째 만남 _ 2009. 1. 30

이번 구정에는(나는 신정에 제사를 모시고 그리고 추석 일주일 전 구미 산소에서
 제사를 모신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바 있다) 모처럼 연휴라 아들, 딸 내외와
 외손자 등 전부 7명이 모처럼 일본 오사카 나들이를 갔었다.

나는 수술후유증으로 호텔에서 쉬면서 TV를 보았다.

일본 동경 國技館국기관에서 大相撲(すもう스모 즉, 일본 전통씨름)를 이틀 계속
 보다가 왔다.

이번에도 몽골 출신 朝青龍(아사쇼류, 28才)이 같은 몽골 출신 白鵬(하쿠호,
 23才)에게 결승에서 이겨 통상 23회 우승을 아사쇼류가 쟁취하여
 통쾌한 즐거움을 내게 주었다.

아사쇼류는 이번 전적이 15승 1패(하쿠호에게 한 번 졌다)였고 하쿠호는 이번
 전적이 14승 2패(한 번은 다른사람 마지막 한 번은 아사쇼류)로 둘 다 日本
 相撲스모에 横綱(요코즈나 즉, 스모의 가장 높은 계급으로 神과 같은 존재로 성적이 좋지 않을
 시 은퇴 압력을 받는다)로서 올해 첫 시합에서 몽골 출신이 1, 2위를
 차지하게 되어 몽골에는 둘 다 국민의 영웅으로 칭기스칸 다음으로
 국위를 선양한다고 야단법석이다.

참고로 朝靑龍은 2011년에 은퇴, 2012년에 국회의원에 입후보, 2013년에 몽골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일본 すもう란 日本 國技국기로서 300년 전통을 가지고 오늘날에는 일본스모협회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프로 스모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스모 선수는 力士리키시라 하여 우리나라 씨름의 살바에 해당하는 廻し마와시를 차고 밀어내기, 당기기, 제치기, 비틀기 등 여러 가지의 기술을 사용, 상대를 쓰러뜨리거나 씨름판 바깥으로 밀어내 이기는 경기이다.

특이한 점은 시합 붙기 전 두 팔을 벌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쭈그리고 앉아서 상대를 노려보는 의식을 치르고 경기장을 정화시키기 위해 한 움큼 소금을 허공에 뿌린다.

승부 기술은 70가지나 된다.

스모 선수는 위엄과 침착함으로 일본인에게 존경을 받고 심판에 대한 항의나 나쁜 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경기는 매년 스모협회 주관으로 15일간 6회가 개최되는데 3번은 동경에서 개최되고, 오사가, 나고야, 후쿠오카에서 각각 1회이다.

스모 선수 계급에는 横綱, 大關, 關脇, 小結び, 前頭, 十兩, 幕下, 三段目, 序二段, 序の口 등이 있고, 東과 西에 60名 이상 선수들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일본 스모는 전 일본인이 열광하는 스포츠이며 날이 갈수록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 선수도 협회에 소속만 되면 국내선수와 함께 출전하게 된다.

344

삼백마흔네 번째 만남 _ 2009. 2. 2

배운 것을 내 몸으로 체득하고 실천하는 것을
나는 공부라 생각한다.

345

삼백마흔다섯 번째 만남 _ 2009. 2. 3

최근 내가 지난 과거 이야기를 종종 하기 시작했다.

가령 내가 40년 전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했다는니 “사사”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지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내 모습을 보고 있다.

언젠가 내가 한 말이 있다.

지난 일은 꼴도 보기 싫다고,

왜냐면 오늘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지 슬슬 지난 일을 이야기 하고 있는 나는 늙어가고 있던 말인가?

346

삼백마흔여섯 번째 만남 _ 2009. 2. 4

평생을 살면서 나는 여러분이 없었다면 평소에 공부를 게을리
했거나,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곧 여러분이 내 인생에 스승이었다.

게으른 두목

여러분은 본 적이 있는가?

347

삼백마흔일곱 번째 만남 _ 2009. 2. 5

성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대개의 인간은 사람을 무참히 찢러 죽이는 행위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성행위나 성적 관심이 발각됨을 더 부끄러워 한다.

더 나아가 잔인한 사진이나 영화는 태연히 지켜보면서도 적나라한 성행위를
보여주는 필름은 보기 부끄러워 하고 그것을 보고 있다는 죄책감마저
느끼며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들킬까봐 두려워 한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적인 것은 성이 바로 인간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신체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음식은 극도의 배고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갈망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성적 욕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솟아오를 수 있고
통제가 어려우며 완전한 충족이 불가능한 욕망이다.

인간은 성을 바라면서 어느 정도는 성행위를 바라보는 것을 즐긴다.

따라서 성행위가 담긴 영화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린다.

영화 속의 성관계는 유혹적인 미끼이며 맛있는 양념이다.

이렇게 성행위는 인간이 가장 갈망하면서도 가장 회피하는 것이며 가장 구경하고 싶어하면서도 구경을 부끄러워 하는 것이다.

성에 대한 부끄러움은 성의 의미와 역할의 중대함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간 생명을 생산하는 통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성에 대해서는 조심하게 되고 함부로 아무하고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을 구경하는 것까지도 주저하는 것이다.

셀러는 정신적인 존재일수록 성에 대한 부끄러움도 크다고 본다.

부끄러움은 정신과 성충동의 간격 차이에서 기인된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존재인 인간은 성관계를 맺을 배우자의 선택에서 어떤 동식물보다도 신중하고 까다로운 선택과정을 거친다. 인간은 보다 가치있는 배우자의 선택을 통해 보다 가치있는 2세를 생산하려는 더 큰 무의식적 욕구를 갖는 것이다.

전 생애를 통해 가치선택 종류나 구조가 단순한 동식물에서는 성 선택이 단순할 수도 있지만 긴 생애와 복잡한 인생을 누리는 인간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선택을 하면서 살고 배우자의 선택 기준도 까다롭고 복잡하다.

인간에 있어서 생식은 단순한 재생산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나은 것의 산출이다.

적나라한 성을 묘사하는 포르노는 대중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혐오의 대상이다.

실제로 포르노는 강력한 신체적 성적 자극을 줄 수는 있지만 마음 뿌듯한 전 인간적 충족감은 주지 못한다.

예술적인 각본과 영상 그리고 탁월한 연기를 통해 묘사된 성행위는

비록 그것이 암시적이고 단편적일지라도 성행위가 긴 시간 내내 연속되고 반복되는 조악한 포르노보다도 훨씬 더 에로틱하며 보다 더 완전한 충만감을 준다.

포르노가 예술영화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포르노를 보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영화든 소설이든 간에 적나라한 성을 묘사하는 작품의 제작자를 억압하고 구금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이다.

인간은 누구나 가치선택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

타인에게 직접적인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어떤 행위도 억압하고 금지할 수 없다.

포르노의 제작 여부 그리고 포르노의 시청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좋아하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것이든 표현할 권리는 있다.

그것이 싫다면 피하거나 한쪽 귀로 흘려들으면 그만이다.

표현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함은 지나치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며 진리탐구를 위한 초석이자 건강한 사회의 밑거름이다.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전부 들어보기 위해 (미국)수정헌법 1조가 존재한다”

귀족스러운 만찬으로 한끼를 먹을 수도 있고 싸구려 라면과 김치로 한끼를 때울 수도 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이다.

마찬가지로 숭고한 정열과 사랑이 있는 섬세한 섹스 영화를 만들거나 볼 수도 있고, 만나자마자 쏜살같이 이루어지는 지극히 경박한 섹스 행위로 구성된 포르노를 만들거나 볼 수도 있다.

그것도 개인의 자유이다.

나는 지난번에 뮌헨대학에서 서양 철학 박사를 취득한 **조정옥** 박사
글을 실었다.
나도 충격적이라 그녀 책 몇 권을 사서 보았다.
그중 “**성의 눈으로 철학보기, 철학의 눈으로 성보기**”란 책을 읽고 발췌한
것이 윗글이다.
나는 여러 경로로 책을 사서 읽어본다.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의 다른 책을 또 본다.
그래도 모를 땐 수소문해서 그 사람을 만나본다.
우리 회사에 모셔와 강의도 시켜본다.
그리고 훌륭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
물론 모자라는 부분은 내가 보충해준다. 살면서.
나는 살면서 이런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회사 55년사를 집필한 **유귀훈** 작가, 음악, 오디오의 권위자
윤광준 선생, 식물학의 대가 **강혜순** 박사, 협상의 기술 전도사 **안세영**
교수, 미술 평론가 **이주현** 선생, 중앙일보 **정진홍** 박사, 우리 회사
교육을 한 **김혜란** 선생, 된장, 마늘, 고추의 대가 **강순아** 박사, 오페라
갤러리 **권기찬** 회장, 극단 미추 **손진책** 사장과 부인 **김성녀**(마당놀이),
건축가 **승효상**, **박승홍**, **신승수**, 오페라 해설가 **유형중**, 넥타이 디자인가
이경순, 그 외에 예술 문화 분야에 국내외에 기라성 같은 포진을
내 주위에 하고 있다.
이것이 전부 나의 환갑 잔치 이후 친구를 다 결별한 후 새롭게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다.
우리 다함께 이렇게 주위부터 창조해보자.

삼백마흔여덟 번째 만남 _ 2009. 2. 6

세계의 지성 “**알랭 드 보통**”은 현대인의 불안의 주범은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능력사회**”에 있다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사회**에서는 똑같이 주어진 기회에서 실패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즉, 자신의 무능함, 성격적인 결함 등으로 탓해진다.
결국은 실패한 자신은 **능력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로 규정하여 자신을 올라미에 집어넣어 자학하며
불안해 한단다.
그 불안에 대한 처방으로 현 능력사회의 가치체계를 부인한다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다.
즉 마음의 태도를 “**능력사회**” 규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체계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불안은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란 것이다.
한마디로 조금 어렵다.
그러나 나는 그 해답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언젠가 여러분이 내게 여러분의 불안을 물어온다면(사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알고 있지만) 그 해결법을 다시 확인시켜 주겠다.
모든 것을 다르게 읽어라.
그것이 변화다.

삼백마흔아홉 번째 만남 _ 2009. 2. 9

우리는 어렵고 힘든 현실에 당면해 있다.

두려움으로 위기가 극복될 수는 없다.

리더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뿐 아니라 조직 전체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종의 근성을 가진 우리 주변부터 살살이 찾아내어

결단을 내어야 한다.

삼백쉰 번째 만남 _ 2009. 2. 10

두목은 자신의 신용을 관리해야 한다.

두목의 말은 스스로 찍어낸 화폐가치와 같다.

그 가치를 엄격히 관리하지 않으면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 가치가 떨어진 후에는 무용지물이 된다.

자신이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리고 따르는 자에게 그 약속이 지켜졌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런데 우리회사의 두목 중에는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고

자신이 떨어져 있다는 것도 모르는 이가 있다.

그래도 모르겠거든 나에게 와서 물어보라.

삼백쉰한 번째 만남 _ 2009. 2. 11

중국의 절세미인은 지난번 이야기했었다.

이번엔 중국 3대 악녀(惡女) 이야기다.

먼저 방해꾼을 모조리 죽인 호색의 여 독재자 측천무후(則天武后)다.

당태종의 후궁으로 들어가서 태종이 죽고 그의 아들 고종이 즉위하자 고종의 황후가 된다.

그후 스스로 황제가 되어 사상 최초의 여 독재자가 된다.

82살로 세상을 떠난 악녀가 측천무후이다.

그 다음은 한나라 초대 황제 유방의 아내 여태후(呂太后)다.

그녀도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 52才로 병사한다.

마지막은 권력에 매료된 냉혹한 여제로서 19세기 중국의 4억 민중 위에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고 온갖 악행을 일삼다가 청왕조 멸망의 길로 이끈 괴물 女帝(여제) 西太后(서태후)다.

그녀도 72才로 죽게 된다.

중국 5,000년의 3대 惡女 그들은 괴이한 매력으로 남성들을

손아귀에 넣은 요염한 바람둥이, 혹은 소유욕, 성욕, 권력욕에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사람이 상처 받는 일 따위는 상관없는 분방하고 우아하고 잔혹한 악녀들이었다.

중국 역사를 공부하면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숨긴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측천무후는 중국 당태종의 후궁이었는데 당태종이 죽고 나자 절로 보내져 비구니가 되었다.

당시 당태종의 아들 당고종은 측천무후의 미모에 반해 있었던 터라, 절에 있는 측천무후를 환속시켜 그의 후궁으로 만들게 된다.

당고종은 몸이 약해 제대로 정치를 잘하지 못하자, 영리한 측천무후가 섭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 후 당고종이 일찍 사망하여, 측천무후가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 최초의 여 황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색(色)을 밝혀 많은 남자 후궁을 거느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진주를 복용하면서 기력을 보충했다고 한다.

그래서 측천무후는 63세에도 그 젊음과 기력을 유지했다고 한다.

그리고 736년에 당나라 현종은 사랑하던 무혜비(武惠妃)를 잃었다.

무혜비를 잃은 현종은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후궁에는 아리따운 미녀가 3천명이나 있었으나 누구 하나 현종의 마음을 끄는 여인은 없었다.

이런 즈음 현종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한 가지 소문이 현종의 관심을 끌었다.

수왕비(壽王妃)가 보기 드문 절세의 미녀라는 소문이었다.

현종은 은근히 마음이 끌려 환관에게 명하여 일단 수왕비를 자신의 술자리에 불러오도록 하였다.

현종은 수왕비를 보자 한눈에 마음이 끌렸다.

수왕비는 빼어난 미모일 뿐 아니라 매우 이지적인 여성으로 음악, 무용에도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술자리에서 현종이 작곡한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의 악보를 보자 그녀는 즉석에서 이 곡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것이었다.

그녀의 자태는 마치 선녀가 지상에 하강하여 춤을 추는 듯 현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수왕비야말로 다름 아닌 양귀비(楊貴妃)로서 현종 황제와 양귀비의 로맨스는 이 만남을 계기로 그 막이 오르게 되었다.

양귀비의 본명은 옥환(玉環)으로 원래는 현종의 열여덟번째 아들 수왕 이모(李瑁)의 아내였다.

수왕 이모는 현종과 무혜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니 양귀비는 바로 현종의 며느리인 것이다.

56세의 시아버지 현종이 22세의 며느리와 사랑을 불태운다는 것은 당시로서도 충격적인 스캔들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듯 중국은 아들이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고 아버지가 아들의 여자를 취한

역사를 가졌기에 간혹 술에 취해 가까운 중국 사람들을 놀리면 중국 역사를 너무 많이 안다고 당황해 한다.

그런데 일본 황실은 근친상간의 교합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말짱다.

우리는 너무 말짱기 때문에 남에게 당하기만 한 민족이었던가?

아니다.

이런 민족이었기에 강대국 속에 슬기롭게 중심을 잡고 버티지 않았던가.

지금도 우리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위기에 처했다.

태풍에 출렁이는 돛대를 힘껏 움켜쥐고 밝은 태양을 향해 굳게 뭉치자.

삼백원두 번째 만남 _ 2009. 2. 12

삼백 마흔여덟 번째 1분 메시지에서 알랭 드 보통의 불안에 관한 글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익명으로 내게 글을 보내왔다.
글 내용은

보통의 사람들은 남의 말을 빌려 전하기 일쑤인데 유 회장님의 글 속에는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더불어 인용한 글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것 같군요.
유 회장님의 1분 메시지를 읽는 요즘 저의 생각은 하나의 일기 또는 자서전
이상, 독자에게 전하는 한 권의 자기개발서와 같다고 느껴집니다.

마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르게 읽어라 그것이 곧 변화이다!

불안은 곧 대상이나 상태에 대한 두려움일 텐데 두려움에 대해
회피하려거나 두려움 속에 끝없이 머물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척 하는
대부분은 인지상정일 듯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움, 곧 불안을 스스로 인식하고 겸허히
직면하였을 때 비로소 불안의 깊은 뿌리를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겸허히 직면한다는 것은 불안 앞에서조차 힘을 빼고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에서부터 깨달음이 아닐는지요.

그 후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개인에게 얻어진 나름의 깨달음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귀한 말씀 덕분에 저 또한 이렇게 상쾌한 자극을 받은 것 같아
말이 길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어제는 신라호텔에서 정진홍 박사의 알랭 드 보통의 불안에 관한
강의가 있었는데 우리회사에서 심장섭 사장과 이천석 사장이
참석하였다.

며칠 후면 SERI CEO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꼭 한 번 봐주기 바란다.

정 박사 강의에는 불안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352

353

삼백쉰세 번째 만남 _ 2009. 2. 13

내 마음을 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본래 엮고 푸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삼백쉰다섯 번째 만남 _ 2009. 2. 17

금융업의 역할이란 참 잔인할 때가 많다.
요즘 같이 지구력 때문에 대출은 않고 돈을 쌓아놓고 있는 현상이다.
돈의 역사는 인류가 시작되고부터다.
고리대금업자를 셰익스피어가 신랄하게 비평하고 있는 것도
그 점이다.
지금 퇴출이다 워크아웃을 보면 잔챙이뿐이다.
금융인은 자기들 고객인 고액대출자를 은근히 경멸하거나 자기의
종 취급하는 경향이 내재되어 있고 오히려 부채비율 제로인 자기
고객이 아닌 회사를 은근히 존경하고 있다.
이런 일부 금융들이 위기에 처하면(저희 마음대로 한 것도) 국가가 나서서
구제해 준다.

한국도 일천한 금융경력을 더욱 쌓아 오대양 육대주를 확보하는
금융 선진화로 가는 길만이 종의 근성을 버리는 것이다.

354

삼백쉰네 번째 만남 _ 2009. 2. 16

지금은 리더가 뛰쳐나가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어떤 리더는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
라고 변명한다.
성과가 낮게 나타날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또 성과가 높을 때는 자신이 더욱 돋보이기 때문이다.
직원의 역량을 탓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필사의 수단 방법이다.
지금은 두목 여러분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두목 여러분!!
제발!!

355

삼백쉰여섯 번째 만남 _ 2009. 2. 18

평소에 내가 여러분께 듣기 싫은 얘기 중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이란 이야기 귀가 닳도록 했고 조그만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말 듣게 되면 이보다 더 흥분되는 말이 없다.

생각해보면, 빙그레 웃는 것이 아니라(이 말을 듣고) 흥분이 심한 사람일수록 종의 근성이 더 강한 사람이다.

며칠 전 정진홍 박사의 불안이란 강의를 동영상으로 들었다.
그 이야기 중

헤겔의 정신현상학 4장 A절에 자기의식의 장에

“주인이란 동물적 목숨 곧, 생계를 걸고 인정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노예(종)란 동물적 목숨 즉, 생계 부지를 하기 위해 인정투쟁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 말도 알렉산드로 코제브가 헤겔 말이 어려워 풀어서 했단다.
무릇 실천하고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꼬여도 쉽게 이해되지만
망설였는 사람은 꼬인 것이 더 꼬이게 된다.

나 인간 유재성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본다.

우린 지금 불안의 시대에 있다.

여러분들은 꼭 정 박사의 1시간 동영상을 봐주시길 바란다.

삼백쉰일곱 번째 만남 _ 2009. 2. 19

미술사에서는 처녀성의 상실이 세기의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화단이 발각 뒤집힌 적이 있다.

이 사건은 1611년 5월 9일 로마에서 벌어졌고 피해자의 이름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Artemisia Gentileschi, 1593~1651)다.

아르테미시아는 바로크 시대 쟁쟁한 남성 화가들을 제치고 화단의 정상에 올랐던 신화적인 여성 화가다.

여성으로서의 최초로 영예로운 피렌체 한림원 회원이 되는 영광을 누렸고 최초의 직업 화가로 전 유럽에 명성을 떨쳤다.

이 전설적인 화가가 꽃다운 나이인 열여덟 살에 치가 떨리는 참혹한 일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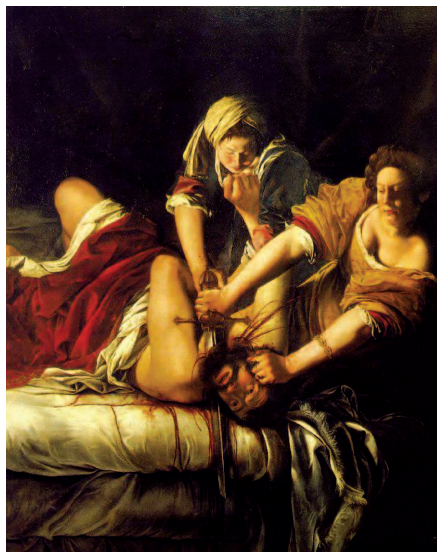
아버지의 절친한 동료인 **아고스티노 타시**에게 그만 강간을 당한 것이다.

해양화(海洋畵)의 전문 화가이며 원근법의 대가였던 타시는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아르테미시아에게 오랫동안 음욕을 품고 있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중, 그는 화실에서 작업하고 있는 그녀를 강제로 덮쳐 야욕을 채웠다.

로마 최고의 화가였던 아버지 오라치오 젠틸레스키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의 강간 사실에 격분해 성폭행범인 타시를 고소했다.

소송은 성폭행에 관한 최초이며 최대의 스캔들로 전 로마를 떠들썩하게 했다.

당시 사회는 트리엔트 종교회의 결의서에 따라 처녀성을 지극히 숭고하고 신성한 것으로 떠받드는 분위기였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
Oil on canvas, 199×163cm, 1620년

처녀성을 뺏은 남자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최소
5년에서 최장 20년 동안
갇리 선의 노를 젓는
중벌을 받아야 했다.
수치스런 소송은 아홉
달 동안 계속되었고,
아르테미시아는 힘겹게
승소를 해 명예를
되찾지만 순결을 뺏긴
악몽에서 평생토록
벗어나지 못했다.

최고의 걸작인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를 보면

순결을 짓밟은 아고스티노 타시에 대한 증오심이 극에 달한 것을
느낄 수 있다.
남자의 얼굴을 가차없이 짓누르고 짐승을 도살하듯 목을 베는 여인의
표정에서 시퍼런 살기가 뿜어 나온다.
실로 잔혹하기 그지없는 모습에 소름이 끼치고 등골이 오싹해진다.
서릿발 같은 여인의 복수심이 미술사를 통틀어 가장 끔찍한
살해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 그림은 화가들에
의해 많이 그려졌지만 이만큼 잔인한 그림은 드물다.
그 여인의 한이 그림으로 표현된 셈이다.
여러분들도 女子에겐 결코 한을 만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바란다.

삼백천여덟 번째 만남 _ 2009. 2. 20

북경에 임 부장한테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암 가능성 진단을 받으셨단다.
즉시 귀국(차비를 주어서)하게 하여 아버지를 설득하게 하였다.
그 후에 임 부장한테 메일이 왔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아프신 부친께 삼가 위로의 말을 올리고 마음 아픈 임 부장을
격려해주기 바란다.
힘들 때일수록 더 주위를 돌아보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먼저,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제게 걱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한 생각에 머리숙여 제 마음을 표현코저 합니다.

아버님 병환 문제로 토, 일요일 귀국해서 어머니와 가족들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아버님께서선 병원에서 검사도 해봤고, 위암이라는 병명을 안 것으로
소원은 풀었으니, 집에서 조용히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겠다는
입장이십니다. 어머님께서도 같은 입장이시고요..

현재, 제가 이틀간 같이 지내 본 바로는 지금 당장 통증은 없으시고
다만, 식사하실 때만 되면 물 한모금도 못 넘길 정도로 위가 죄여오는 게
밖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물론, 조심해서 조금씩 드시거나 죽을
드시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359

제가 옆에서 무릎꿇고 사죄도 드리고 부탁도 드렸지만, 한사코 치료를 거부하십니다. 평생을 오직 당신 뜻하신 대로 사신 분이라, 제가 하는 말은 아직 어린아이의 투정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85세 노인도 수술을 희망해서, 치료가 잘 됐고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얘기도 해 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됐을 때 죽는 것도, 사람의 도리다, 지금 나이 칠십 여덟에 오늘 죽어도 아깝지 않고, 내일 죽어도 아깝지 않다. 종원이 니가 고집피울수록 아직도 철이 덜 들었나 싶어, 걱정만 된다. 그만하고 니 할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 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떤 말씀도 못 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주위에 사시는 당숙도 찾아뵙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아버님의 연세에 암이라면, 그냥 아버님 뜻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이십니다.

자식된 도리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식이요법 등으로 해보려고, 산에 약초캐러 다니는 분과도 부탁을 해 뒀습니다.

지금 병마와 싸우시는 아버님께 그나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전화 자주 드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버님께 걱정이나 안 끼쳐드리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제 걱정은 접으시고, 더 중요한 일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회장님의 크나큰 관심에 감사드리며, 회장님 이하 강덕식 교수님, 배돌암 사장님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북경에서 임종원 배상

삼백천아홉 번째 만남 _ 2009. 2. 23

종교학자 막스 뮐러는

“하나의 종교만을 아는 사람은 종교를 모르는 사람” 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갈등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은 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려면

“창시자가 누구인지”

“경전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교리와 계율은 무엇인지”

“종파는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를 공부해야 합니다.

삼백예순 번째 만남 _ 2009. 2. 24

나는 24살부터 10년간 열대어를 키운 적이 있다.

그 당시 제일 좋아한 어종은 구뎀였다.

물론 부화까지 하며 종자 개량까지 했었다.

그 당시 부화가 어려운 고기는 네온테트라였는데 지금도 부화를 해본 적이 없지만 6층 현관에 키우고 있는 것이 구뎀, 네온테트라, 블랙 모리 등이다.

내 방엔 두 개의 어항이 있는데 하나는 수초와 새우만 키우고 있고 한쪽 책상 옆엔 수족관의 황제 디스커스(학명 Symphysodon discus)를 키운다.

1년 만에 그 디스커스가 부화를 해서 새끼 28마리를 낳아 지금 기르고 있고 출근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삼매경에 빠져 있는 것이 요즘 나의 행복이다.

열대어를 다시 시작함은 40년 전보다 장비가 엄청 개선되었고 이광희 애어가 수족관에서 많은 지도를 받아 나와 교감하고 있다.

문제는 생물을 키우는 것은 본인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곧 직면해야 하는 것이다.

행복은 노력한 만큼 온다 하였고 영원한 만큼 이루어진다고

Secret(비밀)의 Rhonda Byrne이 말한다.

디스커스는 열대 아마존 강 일대에서 자라며 열대어 중 가장 값이 비싸다.

비싼 것은 무려 1,000萬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물론 나의 것은

100,000원 안쪽이다.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내가 직접 골라 들고 왔다. 종류로는 헤겔 디스커스, 브라운 디스커스, 그린 디스커스, 블루 디스커스 등으로 모양 문양, 색, 디자인 등으로 품질을 구분한다. 40년 전 디스커스 키우다가 내가 출장 간 사이 마누라가 관리 잘못으로 죽게 되자 보파리 싸서 친정집으로 도망 갈 준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 집사람 만나면 한 번 물어봐주기 바란다. 디스커스 스트레스에 고기가 꼴도 보기 싫단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비서실 조수영에게 안내받아 관찰해주시기 바라며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꼭 한 번 키워보라고 권하고 싶다.



매너분 이제부터 더 감만 해보시라
 나부터 먼저 하겠음네
 고맙고 우리 한번 하는데 내직 해보시라

회장

삼백예순한 번째 만남 _ 2009. 2. 25

조직에서 위사람에게 많은 칭찬을 받는 사람을 항상 지켜봐야 한다.
 간혹 큰 실수를 저질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할 텐데 인간이기에 방심하기 때문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없다.
 나의 문제는 “어떻게 칭찬하느냐”란 것이다.
 나는 40년간 우리회사에서 이 문제 때문에 항상 울어왔었다.
 회사가 힘들었을 때.

363

삼백예순세 번째 만남 _ 2009. 2. 27

여러분 전세계가 格物致知 격물치지 할 때입니다.
요즘 1분 메시지가 불확실의 시간에 잘 맞지 않고 민감한 시기라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3月말에 다시 만납시다.

회장

364

삼백예순네 번째 만남 _ 2009. 3. 23

여러분!
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삼백예순다섯 번째 만남 _ 2009. 3. 24

중앙일보 정진홍 위원이 술자리에서 내게 슬쩍
“저 다음엔 다윈을 이야기 할건데요”

하기에 은근히 기다려졌는데 강의 소식이 왔다.

“생물은 개체마다 변이가 있고, 필연적인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데 이들 중
환경에 잘 적응된 유리한 변이성을 가진 개체는 살아남고 적합치 않는
것은 도태된다.”

다윈이 갈파한 자연 선택의 매커니즘을 변이와 선택, 그리고 진화를
설명하면서 무릇 살아있는 모든 것은 투쟁한다 하였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죽었는가?

삼백예순여섯 번째 만남 _ 2009. 3. 25

“회식”

직원들은 회식 문화가 불만족스런 이유를 강제적 동참 분위기와 항상
똑같은 진행방식과 폭탄주 강요와 밤늦은 귀가와, 난무하는 폭언 및
성희롱이라한다.

회식을 만드는 형태도 주기적 환영회나 송별회 그리고 사전 조율없이
즉흥적으로 아님 시도 때도 없이라한다.

조직생활에서 회식을 못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단다.

조직의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유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지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조직 분위기가 저하되어있다고 전체가 다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일부 또는 한두 명이 사기가 떨어져 분위기가 좋지 않아 보일 때도
있고 또 그것을 은근히 나쁜 분위기로 조장하는 부류도 있다.

그래서 무릇 두목은 어떻게 하여 분위기를 끌어 올릴 수 있을까?

“그것은 날 잡아서 한꺼번에” 라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시로” 그리고 “일대일” 방식으로 분위기를 향상시켜야 한다.

무능한 두목은 회식자리에서 술기운에 흐느적거리며 주정을 하고
술기운을 빌어 서로 친한 척 하는 직원들을 보며 비로소 조직의
분위기가 제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본인은 바쁜 시간을 쪼개 직원들에 대해 자기 책무를
다했다는 착각에 사로잡힌다.

더불어 직원이 앞다투어 자기에게 술을 권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리더십에 문제 없다고 착각하는 두목 말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랬다.

삼백예순일곱 번째 만남 _ 2009. 3. 26

이제 곧 여성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우리는 여성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여성이 남성보다 나은 점은

첫째, 여성은 남성보다 감성이 풍부하다.

이성이 기능이라면 감성은 디자인이다.

기능으로 경영하는 시대는 끝났다.

기능은 모방이 되지만 디자인은 창조다.

둘째, 여성은 남성보다 리더십이 뛰어나다.

인류 역사와 함께 여성은 사람을 육성하는 법을 본능처럼 가지고

있다. 유아를 키우는 어머니의 창조적 본성을 보아야 한다.

셋째, 여성은 남성보다 똑똑하다.

왜냐면 집중력이 남성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새로운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스펀지라면 남성은

콘크리트 벽이다.

넷째, 여성은 남성보다 직업관이 투철하다.

주변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다니는 여성을 보라.

치열한 경쟁터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 인내심과 의지력을 높게 사야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도덕적으로 말끔하다.

남자들이여 누가 더 도덕적인가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자 여러분 우리주위의 여성들을 이제 가만 둘 것인가?

여성과 함께 일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불편해 하는 리더는

그 자체도 경쟁력이 없고

기업은 이제 여성의 시대가 오는 대세를 받아들여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

삼백예순여덟 번째 만남 _ 2009. 3. 27

2008년 3월 4일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 후

123번째 1분 메시지 마지막 줄에

세계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중국은 우리를 덮치기 직전이다.

거대한 해일이 닥쳐오는 것을 혼자 알고 그래도 그래도 가야하는 나는

어쩌다...

의무란 나에게 참 힘들고 어렵다.

란 글을 시작으로 작년 3월 이후 즐기치게 어려워진다 라고

여러분께 이야기 했었다.

여러분 한 번 다시 읽어보라.

내가 몇 번을 여러분께 위기를 이야기했는지...

여러분은 그때 콧방귀만 뀌었다.

그것이 오늘 힘들어하는 우리들이다.

368

삼백예순아홉 번째 만남 _ 2009. 3. 30

‘불황기 생존 전략’이란 김경준의 글을 읽다 몇자 소개한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명심하라.

‘성공의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다.

미국의 짐 스톡데일 장군은 베트남전에서 포로가 되어 8년(1965~1973)동안 베트남의 하노이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했다. 그는 수감 기간에 겪은 20차례의 고문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살아남았다.

장군의 회고에 따르면 수용소에서 가장 일찍 죽는 사람은 비관론자가 아니라 근거없는 낙관주의자였다고 한다.

이들은 크리스마스에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자기 자신에게 일종의 최면을 걸고 희망을 불어넣다가 좌절되면 실망하고, 다음에는 추수감사절의 석방을 기대했다.

추수감사절 석방이 좌절되면 다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끝내 극단적인 실망에 빠져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는 분명 풀려난다는 신념을 가지되 단기간 석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용소 생활을 견뎌냈다고 회고했다.

이후 사람들은 극한 상황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합리적인 낙관주의를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출발점은 현실을 냉정히 받아들이되 성공에의 믿음을 잃지 않는 이와 같은 합리적인 낙관주의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말했다.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가 가진 자질의 우열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자질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달려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잠재 역량은 누구나 지니고 있지만 모두가 위기 극복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갖고 있는 자질의 활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이겨내고 한 단계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낙관주의로 무장한 가운데 보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등 생존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불황 극복에 대해 떠드는데 정작 극복하고 있거나 한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다.



370

삼백일흔 번째 만남 _ 2009. 3. 31

후배들을 위해 스스로 용퇴해주신 조흥원 사장의 용기를 본받아
그분의 빈 공간을 우리가 채워나갑시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용퇴할 곳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고독하답니다.

371

삼백일흔한 번째 만남 _ 2009. 4. 1

오늘은 4월 1일이다.

이 나이에 다시 한 회사를 책임진다는 게 행운인지도 모른다.

TC TECH 대표이사 회장으로 근무는 평생 처음 있는 일이다.

대표이사 회장 말이다.

내가 누군가를 그 속에서 한 번 보는 것이다.

지난 시간은 위임했던 경영이었다.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날 가르쳐 주기 바란다.

하나하나 서로 의지하며 이 힘든 시기를 꺾듯이 달고 나가자.

언젠가 우리에게 차려질 진수성찬을 위해.

삼백일흔두 번째 만남 _ 2009. 4. 2

조수영 비서가 전화가 왔다고 메모가 들어왔다.

누구나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대구 수창국민학교 동기생(현 대통령 부인도)

인데 ○○○이란다.

나도 잘 몰라 전화를 해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누구누구라며

소개를 하면서 자기는 날 아는데 나는 자기를 잘 모를 것이란다.

내용이 뭐냐고 했더니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단다.

그건 곤란하고 전화로 이야기 하자고 했더니 망설이다 하는 말이

나는 손해보는 게 없고 자기는 덕을 보는 것이란다.

그래서 담당이 박대환 사장이라 소개했더니 그 사람은 이미 만났다며

(신경환 사장이 소개해준 모양) 그 박대환이는 자기보다 2살 적은데

그 박대환한테 이야기 할 것 없고 나에게 바로 이야기 하겠단다.

그러면서 대환이 대환이라고 한다.

“아! 너 뭐하는 놈인데 내 회사 사장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거야?

그 사람은 우리 800명을 책임지는 나에겐 하늘 같은 사람인데 왜 너

반말이야 이 새끼야!”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탁 끊었다.

이게 내 동기생이고 64살 처먹은 대구놈이다.

예의라고는 개보다 못한 놈이 내게 뭘 부탁하겠다는 건가?

그 친구는 청와대 비서한테 반말(나이 적다고)하며 영부인 바꾸라고

전화질 할 것이다.

만약 그 자식이 내게 무안당하고 친구들에게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나는 두려울 게 없다.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언젠가 신경환 사장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다.

“어떤 놈이냐고”

그리고 실컷 더 욱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래서 대구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372

삼백일흔세 번째 만남 _ 2009. 4. 3

나는 재벌 2세인 최태원 SK회장을 좋아한다.
한때 위기의 선정(M&A)을 직접 일선에서 방어하는 능력을 발휘했고 지금도
일선에서 직접 경영을 하고 있다.
그가 두목으로서 작년부터 한 말이다.

최태원 회장의 말말말

-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상황이 올 것이다.(2008년 10월 28일)
- 스피드와 유연성, 그리고 실행력을 끊임없이 높여 최악의 상황이 와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자.(2009년 1월 2일)
- 대마불사 신화는 더 이상 없다. 지금을 위기나 불황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 생존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1월 8일)
- 거대한 쓰나미가 한국 경제를 향해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1월 29일)
- 2개월마다 여러 변수를 고려해 여러 시나리오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2월 13일)
- 어려운 때일수록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인 일자리를 만들자.(2월 24일)

두목은 위기가 닥치고 있을 때 정확하게 감지한 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망설이지 말고.

374

삼백일흔네 번째 만남 _ 2009. 4. 6

나에겐 항상 우연과 운명이 같이 내 삶속에 연속되어지고 있다.
즉 나에겐 결코 때묻지 않는 돈은 내게 오지 않는 우연이 있고 (Accident)
또한 내가 교만할 때는 반드시 나에게 경고를 주는 운명이 있다 (Destiny).
그래서 하늘은 치열하게 사는 내 인생에 우연과 운명을 동시에 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강렬한 의지와 뜨거운 물입이 내게서 살아 꿈틀거림을 보고 산다.

375

삼백일흔다섯 번째 만남 _ 2009. 4. 7

일곱 번째 만남에서
협신철강 이진태 사장 이야기를 했었다.
그는 금년에 결국 환차손, 판매대손, 가격인하의 악순환에 손들고
말았다.
지금은 동남아시아를 두루 방황하며 그의 조국을 떠나있다.
올해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런 식으로 도산할지 두목으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가 45년 사업을 접은 심정 헤아려 보며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다.

373

삼백일흔여섯 번째 만남 _ 2009. 4. 8

내가 좋아하는 포스코 윤양수 부장에 승진 축하 글을 보냈더니 답이 와서 여러분께 함께 공개한다.
무릇 여러분도 이 회사의 회장이 목표가 아니라 영원불멸의 업적을 남길 나를 뛰어넘는 회장의 꿈을 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부장님
드디어 정점까지 가셨군요
이제 임원으로써 정점을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임원으로써 정점에 가신 후 길이 길이 남는
남의 입에 회자되는 훌륭한 임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후학들이 가시는 길을 따라 가는
鵬程萬里 南行입니다.
멀리서 빙글이 돌고 있겠군요
2009. 3. 30 유재성

고맙습니다. 이제 곳곳에서 봄의 향연들이 시작되는 꽃봉우리들이 겨울내
숨겨놓은 자태를 뽐내기 시작하는데... 철강경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회장님의 친필 편지를 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행복합니다.

부장까지 오는데 21년이 걸렸습니다. 항상 멀리서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지켜봐 주신 회장님 이하 신라철강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80년대 회장님께서 직접 냉연 코일센타라는
설비를 갖추면서 지금까지의 냉연판매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신 것을 사람들이
까먹는 것은 아니겠죠!

또한 그 속에서 제가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을 뿌려 주신 것에 고마움을 늘
느낍니다.

앞으로도 남의 입에 회자될 수 있고, 능력은 없지만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봉정만리 남행길”을 갈 수 있도록 회장님께서 조언도 해 주시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꾸짖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려면 최우선으로 건강 유념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고, 늘
하시는 일에 만사형통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인사 올립니다.

- 윤양수 배상

377

삼백일흔일곱 번째 만남 _ 2009. 4. 9

우리회사에 조병상 고문은 포항상의 위원, 남익현, 이성진 전무는 대구상의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성진 위원은 태창의 보름으로 상임위원회에 선임될 것이다.

올해를 계기로 나는 국내 外 공식 직함은(대구상의 부회장 올해 퇴임함) 아무것도 없다.

아주 자유롭게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세계 공식 직함을 하나 갖고 싶다.

“허전한 女人 돕기 협의회 회장” 말이다.

삼백일흔여덟 번째 만남 _ 2009. 4. 10

길을

- 조병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다만 멀 뿐이다.

너를 잃은 것이 아니다. 다만 멀 뿐이다.

마음이 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멀 뿐이다.

人生이란 이러한 그리움과 열망으로 가득찬 간격을 갖고 산다 하였다.

우리도 지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먼 길을 참고 견디며 직면해서 가야한다.

그런데 막상 겪어보면 먼 길이 참 힘든 게 사실이다.

이런 때 나보다 더 힘든 옆사람을 돌아보고 도와주자.

그러면 그사람도 나도 편안해 질 수 있다.

그리고 먼 길을 함께 가는 것이다.

삼백일흔아홉 번째 만남 _ 2009. 4. 13

당신 기업은 불멸의 Moat가 있는가

라고 1分 메시지를 쓴 적이 있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난공불락의 Moat를 쌓도록 하자.

우리 다함께

여러분!

379

삼백여든 번째 만남 _ 2009. 4. 14

요즘 중국의 農民工으로서 도시에서 일하다 퇴직당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 짓는 사람이 2千萬名이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전체 농민공 수는 2억 2천만 명이니 중국인구의 17%가 되겠지요.
실례로 북경 인구의 25%가 농민공이고 선전 인구의 75%가 농민공이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농촌에 돌아가거나 도시에서 방황하는 게 중국 정부의 고통이지요.
폭동으로 이어지지 말아야 한국도 살아납니다.
중국 공산당도 무너지지 말아야 세계 경제가 살아나겠지요.
다행히 북경경성태창에서 4월부터 반가운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실로 올림픽 이후 피나는 구조조정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결과가 이제 조금씩 가락을 잡는 것 같습니다.
살다보면 절망 속에서도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삶의 보람을 느끼지요.

삼백여든한 번째 만남 _ 2009. 4. 15

나는 나무를 좋아한다.
그런데 나무를 키우는 화분에 물 주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긴커녕 저주한다.
나무를 키울 때는 나무를 위한 직분이 있다.
보고 즐기는 만큼 살려야하고 쾌적하게 해주어야 할 직분이 있는 것이다.
가령 화병에 꽃을 꽂아놓고 매일 물 안 갈아주는 너노모들은 실컷 패주고 싶다.
모든 것이 그렇다.
주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느 겨울날 밤 어떤 집을 방문하는데 그집 복도 깜깜한 구석에 행운목(드라세나)이 물을 못먹어 몇 달째 죽어가고 있었다.
화분의 물은 이미 다 빨아 먹고 마지막 죽기 전 자기 줄기의 물을 빨아올려 가지 끝에 노란 싹이 나오다 그것마저도 말라 죽고 있었다.
그 집 아파트 문을 열어준 여주인은 화장기 짙은 미모의 부인이었다.
그 집을 떠나올 때까지 내가 그 女人을 저주와 한에 맺힌 표정을 지으며 바라봤던 심정을 정말 그 女人은 몰랐으리라.
그 女人 보지만 나는 영원히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위에 생물을 보거든 먹이나 물 좀 주세요.
매정하고 잔인한 물 주지 않는 인간들이여!

삼백여든두 번째 만남 _ 2009. 4. 16

여러분, 우리 공부합시다.

참고로 SERI CEO를 보는 전국의 회사를 소개합니다.

우리회사가 25名으로 전국에서 37位 회사입니다.

어느 누가 보고 있는지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공부! 공부! 공부!

불황을 이기고 직면하는 길입니다.

SERICEO 신규회원 현황 (2008년 1월 ~ 2009년 1월)

No	법인명	회원현황			No	법인명	회원현황		
		기존	신규	총원			기존	신규	총원
1	행정공제회 (맞춤:회원용)	2	5,000	5,002	21	한독약품	33	7	40
2	국토해양부 (맞춤:간부용)	2	1,200	1,202	22	대상	35	4	39
3	교보생명 (맞춤:간부용)	47	811	858	23	르노삼성자동차	32	5	37
4	케이티 (맞춤:임원대우용)	79	301	380	24	아주산업	20	12	32
5	LIIG손해보험 (맞춤:부서장 및 영업관리자)		515	515	25	신한카드	8	23	31
6	동부	200	150	350	26	아시아나항공	28	2	30
7	케이티에프	199	45	244	27	엘아이지 손해보험	3	23	29
8	아모레퍼시픽	67	1	68	28	보건복지가족부	26	2	28
9	케이티엔지	60	6	66	29	삼익악기	7	21	28
10	케이티	61	3	64	30	금호산업	21	7	28
11	솔고바이오 메디칼	47	17	64	31	국세청	26	2	28
12	씨제이	51	11	62	32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17	10	27
13	대우조선해양	52	8	60	33	만도	23	4	27
14	하나은행	51	6	57	34	삼성에버랜드	25	1	26
15	삼성생명VIP	51	5	56	35	우리은행	25	1	26
16	교보생명	38	17	55	36	현대오일뱅크	11	15	26
17	한국타이어	49	2	53	37	태창철강	21	4	25
18	국민은행	42	7	49	38	신한은행	21	3	24
19	풀무원	45	2	47	39	한국서부발전	16	8	24
20	포스코	40	6	46	40	롯데정보통신	9	14	23
					41	웅진케미칼	20	3	23
					42	중소기업은행	18	4	22
					43	포스데이타	21	1	22

No	법인명	회원현황			No	법인명	회원현황		
		기존	신규	총원			기존	신규	총원
44	푸르덴셜생명	13	9	22	70	농협중앙회	2	8	10
45	지에스건설	18	3	21	71	평화발레오	9	1	10
46	두산엔지니어링	14	5	19	72	두산메카텍		10	10
47	한영회계법인	1	18	19	73	SK건설	5	5	10
48	SK텔레시스	10	8	18	74	강동구청	9	1	10
49	강원랜드	17	1	18	75	삼호	8	2	10
50	도레이새한	16	1	17	76	한국저축은행	7	3	10
51	한솔교육	4	13	17	77	휴비스	6	4	10
52	두산엔지니어링	16	1	17	78	한국토지공사	2	8	10
53	삼탄	10	7	17	79	농협중앙회	2	7	9
54	에이스테크놀러지	12	4	16	80	태신인팩	7	2	9
55	두산인프라코어	13	3	16	81	서울특별시	13	9	22
56	GS홈쇼핑	14	1	15	82	삼성전자로지텍	1	8	9
57	신세계	13	2	15	83	대우인터내셔널	1	7	8
58	유한킴벌리	14	1	15	84	포스틸	4	4	8
59	포스코건설	7	7	14	85	스페코	6	2	8
60	교보증권	10	4	14	86	한미파슨스	6	2	8
61	관세청	6	7	13	87	지에스리테일	3	5	8
62	파라다이스	8	5	13	88	한국투자증권	3	5	8
63	동서식품	1	10	11	89	웅진싱크빅	7	1	8
64	우남건설	7	4	11	90	유빈스	3	5	8
65	아시아나HDT	10	1	11	91	신한금융지주	7	1	8
66	비씨카드	1	10	11	92	해태제과		7	7
67	포스코특수강	9	2	11	93	금호타이어	6	1	7
68	파라다이스	7	3	10	94	엠베서더즈	1	6	7
69	석수와퓨리스	9	1	10	95	한국석유공사		7	7

No	법인명	회원현황			No	법인명	회원현황		
		기존	신규	총원			기존	신규	총원
96	한국전력공사	5	2	7	112	대우캐피탈	4	1	5
97	두산캐피탈	5	2	7	113	대한전선	3	2	5
98	한국수자원공사	6	1	7	114	삼천리	1	4	5
99	한국수자원공사	6	1	7	115	금호고속	4	1	5
100	세원엔테크	6	1	7	116	금호종합금융	2	3	5
101	한국섬유 기술연구소	1	6	7	117	한국공인 회계사회	1	4	5
102	SK네트웍스	4	2	6	118	서울신용 보증재단	3	2	5
103	머니투데이	1	5	6	119	에스코	3	2	5
104	한국정보 사회진흥원	2	4	6	120	국보디자인	4	1	5
105	한무개발	5	1	6	121	씨베이 케이블넷	2	3	5
106	에스엘	1	5	6	122	에스지 신용정보	2	3	5
107	케이티에프 테크놀러지	5	1	6	123	오렌지이엔지	4	1	5
108	송파구청	5	1	6	124	케이티링커스	4	1	5
109	아트라비맥스	1	5	6	125	크라운제과	4	1	5
110	안국약품	3	3	6	126	피에스케이	3	2	5
111	리치푸드	3	3	6					

2009년 1월 SERICEO 새 가족 소개 <가나다順>

No	이름	소속	직함	No	이름	소속	직함
1	강경영	간원엔지니어링	전무	27	김병추	금호타이어	사장
2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상무	28	김봉철	위더스노무법인	공인노무사
3	강명섭	현대오일뱅크	상무	29	김신양	두산메카텍	팀장
4	강석한	세라젬	상무	30	김신홍	대상	상무
5	강성열	SH공사	단장	31	김영란	에어리퀴드코리아	이사
6	강윤구	웅진씽크빅	상무	32	김영진	현대오일뱅크	상무
7	강준형	극동스텐	대표	33	김오연	예금보험공사	감사
8	고일영	중소기업은행	부행장	34	김용기	에이스테크놀로지	상무
9	고재경	노랑풍선	대표	35	김윤모	리딩투자증권	부사장
10	고현재	태창철강	이사	36	김윤수	뉴욕멜론은행	회장
11	공은성	삼천포교회	목사	37	김인배	한솔교육	팀장
12	공형택	리치푸드	팀장	38	김재학	하이젠모터대표	사장
13	곽광진	현대오일뱅크	상무	39	김정만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 연구원	원장
14	곽영순	에스코	부문장	40	김정자	교보생명	부지점장
15	곽우섭	씨앤에이치캐피탈	대표	41	김정현	SK가스	상무
16	구자관	삼구개발	대표	42	김종훈	ING생명	지점장
17	권영삼	한국철도시설공단	처장	43	김주원	석파랑	대표
18	김경기	웅진코웨이	상무	44	김준한	신생공업	이사
19	김규태	중소기업은행	부행장	45	김충호	Medtronic Korea	사장
20	김규태	현대오일뱅크	상무	46	김호철	SK텔레시스	본부장
21	김기용	비텍시스템	대표	47	김휘	키카	회장
22	김대연	나우콤	사장	48	김희영	aussino korea	지사장
23	김대현	엘라이지손해보험	본부장	49	남선일	솔고바이오 메디칼	팀장
24	김두성	LIG홀딩스	이사	50	노태균	태창철강	이사
25	김문영	비투엔컨설팅	이사				
26	김병섭	현대오일뱅크	상무				

No	이름	소속	직함	No	이름	소속	직함
51	류지수	태창철강	이사	76	소병걸	현대F&G	대표
52	류치화	중소기업은행	부행장	77	손규호	강동구청	국장
53	문규식	장원교육	대표	78	손삼달	아주렌탈	상무
54	문종국	리인터내셔널	변호사	79	손영기	서울상공회의소	팀장
55	문종민	현대오일뱅크	상무	80	송인석	SC제일은행	이사
56	민형동	현대홈쇼핑	대표	81	신용희	젠자임코리아	사장
57	박래익	GE Real Estate	대표	82	신종식	동부	팀장
58	박병규	현대오일뱅크	상무	83	신종호	아이하트	사장
59	박병근	TU미디어	대표	84	신예정	우리투자증권	팀장
60	박상신	보광헤미리마트	본부장	85	안경주	뉴욕생명	지점장
61	박상철	흥화산업	대표	86	안수영	한국서부발전	차장
62	박승현	솔고바이오메디칼	팀장	87	안영후	대상	그룹장
63	박영삼	현대오일뱅크	상무	88	양재호	SC제일은행	이사
64	박영수	메가스터디	팀장	89	양태훈	엘라이지손해보험	본부장
65	박용한	SH공사	본부장	90	엄태항	봉화군청	군수
66	박익숙	세아네트웍스	사장	91	오성균	한솔교육	상무
67	박준호	한솔교육	팀장	92	용세운	솔고바이오메디칼	팀장
68	박현수	건국대학교	부교수	93	위유정	위어소시에이츠	대표
69	박현주	선진ENT	이사	94	유재권	SBC인증권	사장
70	배규룡	엘라이지손해보험	팀장	95	유재범	현대오일뱅크	상무
71	배성환	예금보험공사	이사	96	이광원	콤텍정보통신	사장
72	변현수	태신인팩	이사	97	이규성	현대H&S	부사장
73	서갑주	롯데면세점	부문장	98	이규옥	중소기업은행	부행장
74	석금호	산돌커뮤니케이션	대표	99	이기영	제이플러스에프앤	대표
75	설재진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처	팀장	100	이기원	리차드프로에어	대표
				101	이길구	한국동서발전	대표

No	이름	소속	직함	No	이름	소속	직함
102	이남억	한국공항공사	변호사	128	이흥복	벨룩스소프트	사장
103	이상근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129	임정배	대상	상무
104	이상구	삼성정밀화학	상무	130	임택	한국남동발전	팀장
105	이상원	드콜레오인스티튜트	회장	131	장대성	세라젬	팀장
106	이상조	미래이에스씨	대표	132	장동철	현대오일뱅크	상무
107	이소영	마리아소아과의원	원장	133	장성숙	우신티크먼트	사장
108	이수영	오복만세치과	원장	134	장중호	신세계	팀장
109	이순인	서울디자인센터	대표	135	장창호	두산메카텍	상무
110	이승철	엑스퍼트컨설팅	사장	136	전상택	한국남부발전	팀장
111	이신재	대상	대표	137	전선택	태신인택	팀장
112	이우승	이우승 법률사무소	변호사	138	전진우	한솔교육	상무
113	이육상	삼성생명보험	본부장	139	정대제	그린엔텍	대표
114	이윤수	정보통신국제 협력진흥원	단장	140	정양택	페이퍼코리아	부사장
115	이재영	엘아이지손해보험	담당	141	정용후	정용후FC	대표
116	이재호	예금보험공사	이사	142	정재식	진선이앤씨	대표
117	이정원	한국동서발전	감사	143	정종구	에실로코리아	상무
118	이제연	솔고바이오메디칼	팀장	144	정지숙	한솔교육	팀장
119	이종언	SH공사	팀장	145	정진춘	현대오일뱅크	상무
120	이주현	한독약품	팀장	146	정진호	제일사료	상무
121	이지은	동부	사원	147	정해주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문역
122	이철규	영화초등학교	교사	148	정홍길	현대오일뱅크	상무
123	이학봉	코레일유통	대표	149	조동민	코어넷	부사장
124	이해영	대림B&Co.	부사장	150	조만석	대상	상무
125	이현서	이글루시큐리티	이사	151	조범구	후크화이버	전무
126	이형근	한국남동발전	실장	152	조영란	지멘스	팀장
127	이효승	네오와인	사장	153	조재문	한석유화	대표
				154	조정혁	화광교역	사장

No	이름	소속	직함	No	이름	소속	직함
155	조철호	동우국제	대표	169	최태섭	솔고바이오메디칼	팀장
156	주성계	대청기업	대표	170	최해준	한국서부발전	본부장
157	주영주	태창철강	이사	171	최현주	길성교역	대표
158	진길웅	한솔교육	팀장	172	성준윤	동부	상무
159	차형철	씨애치씨랩	사장	173	하상수	한국남부발전	팀장
160	최기남	엑셀리스코리아	대표	174	하월규	대상	상무
161	최병채	인카인슈	사장	175	현부성	바른공간	대표
162	최봉환	한국도로공사	처장	176	홍순우	동부	상무
163	최수환	에스원	상무	177	홍영기	경찰공제회	이사장
164	최승홍	현대오일뱅크	상무	178	홍형기	LSNikko동제련	팀장
165	최영민	삼성전자	그룹장	179	황근호	국본	대표
166	최영수	롯데면세점	대표	180	황인석	현대오일뱅크	상무
167	최용석	엔코리안	사장	181	황인원	문학경영연구소	사장
168	최의열	바디텍메드	사장				

383

삼백여든세 번째 만남 _ 2009. 4. 17

나에게
당당함이 있고
자연미가 있고
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후자는 이야기한다.

384

삼백여든네 번째 만남 _ 2009. 4. 20

두목은 비전과 목표 등 닥쳐올 호황에 대비해야 한다.
이 불황을 이기면 반드시 호황이 닥쳐올 것이다.
목표를 확실히 설정해 밀어부치는 것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자.
이제 이미 우리는 단단한 각오가 되었으니 반은 성공이다.
임원 여러분 책상 앞에 붙어있는
格物致知
현장으로 다가가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 현장에 몰입해야 하며
따르는 자는 성실히 지켜보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삼백여든여섯 번째 만남 _ 2009. 4. 22

일상의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감성을 일깨우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으로 그 사람의 주위는 원가 달라 보인다.

삼백여든다섯 번째 만남 _ 2009. 4. 21

君子豹變 小人革面

“군자가 표범처럼 변하면 소인은 얼굴 빛을 고친다”란 周易에 나오는 말로 BC 700년경에 만들어졌으며 점술의 原典이자 중국 정통사상의 자연철학과 실천윤리의 근원이 되는 冊이다.

易은 도마뱀의 상형문자로 변화를 뜻하는데 주나라에서 행해지던 易占(역점)의 책으로 송나라 이후 易經(역경)이라 불리게 되었다. 역경은 고대 중국의 점술 원리를 나타낸 책으로 원형이 형성된 것은 西周 말기에서 春秋시대 초기로 추정되며 전국시대 말기에 십익, 상전, 계사전, 문언전, 설괘전, 서괘전, 잡괘전이 차례로 작성되어 易의 철학이 완성된다.

오늘날 四書(논어, 맹자, 대학, 중용) 三經(서경(시경), 효경, 역경)이라 하는 것을 한·중·일 선비들은 필히 읽기를 반복하여 인격을 수양하였다.

보통 표변이라는 말은 태도나 입장을 바꾸는 것을 비꼬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원래는 혁명이 완성된 단계에서 사회지도층(君子)이 과거의 면목을 일신하고 새로운 건설에 노력하는 것을 말하며 소인혁면은 그와 같은 군자의 뜻에 일반 백성이 따른다는 뜻이다.

나는 평소 이 글이 좋아서 포스코 오인환 상무와 대구은행 하춘수 행장께 중국의 이덕서에 글을 빌려 선물로 전해줄 예정이다.



삼백여든일곱 번째 만남 _ 2009. 4. 23

내가 간혹 여러분들께 **호통**을 칠 경우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실수나 무지를 질타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뜻이다.

즉 **찍히는 개념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관심이 있어 지켜보고 **키워주겠다**는 뜻이다.

그 말 속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의 말 속에 **사랑**이 들어 있는지를.

제발 주눅들지 말고.

388

삼백여든여덟 번째 만남 _ 2009. 4. 24

간혹 우리들은 공연을 볼 때 당황할 때가 많다.

곡이 끝났을 때 언제쯤 박수를 치느냐다.

심포니 연주 중 1악장이나 3악장이 끝났는데 간혹 열나게 박수치는 사람이 있다.

또는 악장 중간에 끝난 줄 알고 치다가 급히 거두어 들인다.

그런데 옆에 사람은 멍모르고 덩달아 치지만 곧 아님을 깨닫고 멈춘다.

그리고 잠시 머쓱해지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그분들은 그 후부터는 심포니가 끝났는지 무슨 곡이 연주되는지

알 바 없이 공연중에 부끄러운 마음에 좌불안석이 된다.

집에 가서 다시 그 곡의 처음과 끝을 공부해서 다음엔 그러질 말아야지 마음만 먹을 뿐이지 말짱 헛일이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마지막 교향곡 4악장이 끝나기 **2초** 전에

제 판에는 그 곡을 안답시고 미리 치는 놈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놈들도 덩달아 치는 바람에 교향악단의 교향곡 마지막

2초를 못 듣게 된다.

사실 지휘자 입장에서 보면 마감하는 마지막 장면에 관객이 먹칠하는 셈이 된다.

내가 매년 DVD로 보는 비엔나 필의 뉴이어콘서트에는 라데스키 마치나 푸른 다뉴브로 항상 끝이 나는데 정확히 말하면 관현악이 마지막곡 피날레 0.5초 후 우뢰 같은 박수가 이어지며 모두 기립박수로 답례한다.

여러분 모르면 제발 남이 박수칠 때 본인은 3초 후에 치거라.

제발 좀 창피 좀 당하지 말고.

아님 철저히 공부해 0.5초 후에 치든지.

그리고 국악 공연 중 판소리 공연엔 관중이 중간에 추임새를 넣어 주어야 한다.

얼씨구!!

좋대!!

좋구나!! 등등.

이것도 언제 해야 할지 판소리꾼이 싸인을 주는데도 잘 못한다.

게다가 추임새 넣을 생각 하다 보면 곡이 하나도 귀에 안들어온다.

또 정가(궁중음악, 시조창)를 부를 땐 언제 끝나는지 모르다가 성악가가 다 끝나고 웃으며 인사를 해야 그때 박수가 터진다.

이것은 정확히 끝나고 0.5초 후다.

결국 판소리의 추임새는 판소리 안에서 관객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음악 즉, 관객과의 어울림, 한마당의 즉흥음악인 것이다.

어쨌든 여러분

공부 좀 합시다. 공부!!

그리고 한 번 이야기 하겠다.

여러분이 앉아있다 관객이 지나갈 때 제발 좀 일어서주세요.

앉아서 다리를 비트는 사람은 한국사람뿐이요.

삼백여든아홉 번째 만남 _ 2009. 4. 27

여러분 오페라 관람도 얘기해보자.

주인공 소프라노나 테너가 주옥 같은 아리아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오페라만큼은 공연 중에 중요한 아리아가 마치면 박수를 보낸다.

지난번 이야기했듯이

브라보!! 브라비!! 브라바!! 앵콜!! 이라고 하면서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이것도 관객이 아리아 곡을 좀 안다고 끝나기 2초 전 박수를 치기 시작하면 모두가 함께 지랄법석을 떠다.

박수는 성악가의 아리아가 끝나고 뒤따르는 관현악단의 피날레 곡이 마지막 끝난 직후 1초 뒤 우뢰 같은 박수가 나와야 한다.

중국이 심하고 그 다음 대구, 그 다음이 서울이다.

서구의 비엔나 필이나 베를린 필 때는 청중이 기계처럼 예절을 잘 지켜주어서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박수치는 게 힘들면 남들이 다 칠 때 2초 후에 손바닥이 터지도록 쳐주길 바란다.

390

삼백아흔 번째 만남 _ 2009. 4. 28

요즘 나는 날카로워져 있기 때문에 남의 실수를 빨리 알아차린다.

그럴 땐 여지없이 한 방 날아간다.

.....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울 땐 서로 다독거리며 삽시다.

여러분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런지...

391

삼백아흔한 번째 만남 _ 2009. 4. 29

지금 아는 것을 그때 몰랐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불안하고 부끄러웠을까?

삼백아흔두 번째 만남 _ 2009. 4. 30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훌륭한 CEO가 탄생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업 경영의 핵심이다.

그들은 선견력, 추진력, 포용력, 도덕성, 해당업종에 대한 지식, 경험,

인재활용 노하우, R&D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등...

이번과 같은 총체적인 위기에는 회사를 살아남게 해야하는 탁월한 CEO가 되어야 한다.

부하 직원을 견제하거나 오랜 자리 유지로 권위적인 사람이 위험하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놈은 탕을 남에게 돌리는 기회주의자다.

이제 우리 회사 CEO들이 드디어 발동을 걸기 시작했다.

실로 작년 3월 이후 긴 시간이 걸렸지만 나는 지금 그들이 있어 행복하다.

392

귀 회장님께,
어린 소녀에게
서늘한 마음으로
책을 읽어주시듯...

인 정석도집
09.04.22
하루인사 한영리역에서

작년 12월 24일 북경을 방문한 이후
장장 5개월 만에 토요일 아침 북경을
다녀왔다.

실로 나에겐 금년들어 첫 해외업무
출장인 셈인데 연일 신종
인플루엔자 병 확산으로 외국, 특히
중국 다녀오기 쉽지 않아 내심
핑계삼아 배 사장에게 못 감을
이야기했더니 못내 섭섭한
표정이었다.

그래서 가기로 작정하고 다녀왔지만 정말 잘 다녀왔단 마음으로
일요일 오후에 돌아와 내내 쉬다가 여러분께 글을 쓴다.
북경경성태창은 작년 9월경 200명의 감원으로 퇴직직원의 복수충동에
휩싸여 어려웠었는데 이를 견뎌낸 당당한 우리 직원 모습에 감명을
받고 왔다.

정말 위기를 극복한 늠름한 모습의 **배돌암** 사장과 **임상호**, **임종원**,
배성운, **이세형** 부장들이었다.

4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일량이 조금씩 넘치기 시작했던
반가운 보고를 들었다.

반가워 맛있는 저녁과 술을 함께 먹고 격려하고 왔다.

이제 어려운 회사는 태창과 TC TECH뿐이다.

역시 긴 아픔의 고통 후에는 환희의 즐거움이 반드시 돌아옴을
확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민경식 사장이
준 책 “더 리더”를 펼치니 책갈피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

394

여러분, 최근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1**과 **오프라북** 선정도서로서 이미
영화화된 책이 바로 민경식 사장이 내게 준 “더 리더 : 책 읽어주는
남자”로 **베른하르트 솔링크** 작가의 이 책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독자들에 회자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아름다우면서도 불안한 그리고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파괴하는 독자들을 자극적인 토론으로 몰아넣은 에로티시즘, 비밀,
죄의식에 관한 이야기라 하였다.

영화감독 **스티븐 달드리**는 책을 읽고 믿을 수 없이 복잡한 도덕적
미로에 매혹되어 반드시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단다.

15세 소년과 36세 여인의 나이를 뛰어넘은 사랑, 그 사랑이 한 남자의
운명을 뒤흔들었다.

“꼬마야 꼬마야 책 좀 읽어줘”

내가 책을 읽어주는 것은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녀와
이야기하는 내 나침의 방식이었다.

393

이렇게 강렬함, 철학적인 우아함, 도덕적 고정관념을 저자 베른하르트
 솔링크는 놀라운 솔직함과 단순함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감동적이며 도발적인 그리고 궁극적으로 희망적인, 국경을 초월해
 모든 이의 진심을 울리는 책이다.
 책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 다음날 그녀와 만났을 때 그녀에게 키스를 하려하자 그녀는 몸을 뺐다.
 “그 전에 먼저 내게 책을 읽어줘야 해”
 그녀는 진지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샤워실과 침대로 이끌기 전 반 시간
 가량 그녀에게 〈에밀리아 갈로티〉를 읽어주어야 했다.
 이제는 나도 샤워를 좋아하게 되었다.
 내가 그녀의 집에 올 때 함께 가져온 욕망은 책을 읽어주다보면 사라지고
 말았다…
 샤워를 하면서 욕망은 다시 살아났다. 책 읽어주기, 샤워, 사랑행위,
 그리고나서 잠시 누워있기 – 이것이 우리 만남의 의식이 되었다.
 이렇게 1950년대 독일의 어느 소도시에서 시작되는데 독자들은 얼핏
 열다섯살짜리 소년과 서른여섯살의 성숙한 여인 사이의 비정상적인
 애정관계를 묘사한 홍미 본위의 가벼운 소설이라 생각할 게 아니고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의 갈등과 두 세대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의 알레고리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죄지은 여인을 사랑하는데서 오는 이해와 책임, 이것이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주요동기다.
 이 책과 씨름하다 보니 5월 연휴가 훌쩍 지나간다.
 무엇보다 이제 내가 여유로울 때 책을 들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내게 고맙기 짝이 없다.
 참! 직분이란 무서운 거다.
 바로 그 – 직분!!
 나도 한 女인을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395

삼백아흔다섯 번째 만남 _ 2009. 5. 7

높은 사람은 왜 말이 많을까?
 그런데 나도 그렇다.
 높으지도 않으면서.

396

삼백아흔여섯 번째 만남 _ 2009. 5. 8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어린이와 함께라면 더욱) 영화가 있다.

최근 DVD로 출시된 **지구(earth)**란 영화로 이 영화 한 편이 전세계에
기적을 만들고 있다.(안되면 컴퓨터라도 보도록 하자)

여러분 생애 최고의 경험이 될 것이고 가장 신비롭고 스펙타클한
영화다.

생명의 땅을 찾아나선 동물 가족들의 지구 대장정 어드벤처인데
약 46억년 전 한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태양을 향해 정확히 23.5도로
기울어졌다.

그리고 이 커다란 사건은 말 그대로 기적을 낳았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축복받은 행성 지구가 탄생한
것이다.

40여 명의 촬영팀이 세계 26개국 200여 곳을 돌며 촬영한 전 지구
로케이션이다.

전세계에 기적 같은 흥행돌풍을 일으킨 영화로 상쾌한 스타일과
아름다운 영상, 감동적인 조화가 이루어낸 쾌거이다.

삼백아흔일곱 번째 만남 _ 2009. 5. 11

실수를 통해 人生을 깨달아 간다면
이번 우리회사의 어려움은 또 나의 실수다.

397

삼백아흔여덟 번째 만남 _ 2009. 5. 12

여러분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인류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하느님, 종교인, 철학자, 교황, 성직자, 목사, 대통령, 법관, 아버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류가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선과 악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정해왔습니다.

398

399

삼백아흔아홉 번째 만남 _ 2009. 5. 13

나는 人生을 살아오면서 제법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자리매김 되어지고 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나는 미처 몰랐다.

그런데 왜!

우리 가족이나 직원들한테만 유독 인정받지 못할까?

사백 번째 만남 _ 2009. 5. 14

좋은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주인은 절대 종이 될 수 없다.

400

사백한 번째 만남 _ 2009. 5. 15

지금 나는 평평 울고 싶다.
그런데 울 수 없다.
울려면 술을 먹어야 하는데
이젠 이 나이에 술 먹고 난 후 그 다음날 건디기 힘들다.
그리고 울고 나더라도 허전한 건 마찬가지일 것이다.

401

사백두 번째 만남 _ 2009. 5. 18

언젠가 현대 미국을 있게 한 위대한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이야기한 바 있다.

그는 1882년 1월 30일 태어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23才에 엘리스
루즈벨트와 결혼한다.

그 후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뉴욕주 상원의원으로 당선, 정계 진출 후
해군 차관보로 근무하며 1차대전에 참가한다.

31才가 되는 해에 소아마비에 걸려 두 다리가 마비가 된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뉴욕주지사로 재당선되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뉴딜” 정책을 천명, 1932년 50才에 32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공황을 구제하기 시작하여 1936년에 대통령에 재선된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1940년 3선 대통령으로 당선, 연합군을 미국이 주도하며
유럽과 극동지역 전선을 지휘하다 일본으로부터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을 당하게 된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이 일군을 격파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을
맞이하러 1944년 4선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의 나이 62才이다.

그 유명한 1945년 2월 4일 얄타회담에서 처칠과 스탈린이
만난다.(역사책에 3인의 사진을 우린 기억할 수 있다)

그의 나이 63才에 과로로 1945년 4월 12일 조지아주 스프링스에서
사망, 트루먼이 대통령 승계하며 1945년 5월 7일 독일 항복, 8월 15일
일본 항복으로 세계2차대전을 종결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일생 중 1, 2차 세계대전과 미국대공황을 치른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으며 20세기 가장 훌륭한 대통령,
현재 미국의 기틀을 만들어 놓은 지도자였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그의 말을 기억하자. 그 유명한
“가장 큰 두려움은 두려움 그 자체다”

우리는 왜 어깨를 들썩이면서 함께 춤을 출까?

신세대들조차도 전통음악이 흘러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시골 노인들처럼 일명 ‘보릿대춤’을 추게 된다.

한국춤은 막걸리 한 잔에 얼큰해진 노인들의 흐느적거리는 동작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린아이까지도 한국음악에 맞춰 어깨를 들썩거리며 서로 흥을 돋운다.

매우 단순한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모두를 손쉽게 춤판으로 끌어들이며, 함께 웃고 울며 판을 즐긴다.

어깨춤은 참으로 자유분방하다.

팔을 어느 정도로 수평이 되도록 들어야 한다는 것도 없고, 허리를 얼마나 굽혀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도 없다.

또한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야 하는 순서나 형식도 없다. 그저 내 멋과 흥에 겨워 팔을 이리저리 흐느적거리며 춤판을 즐기면 된다.

한국인은 오랜 역사에서 쌓인 한을 덩실덩실 어깨춤으로 달래가며 잘도 견뎌왔다.

더 재미있는 것은 별 움직임도 없이 제자리에서 맴도는 듯한 우리춤의 발동작이다.

세계의 어느 춤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동작이다.

주체할 수 없이 흥에 못 이길 때 어쩌다 가끔 한 발 켑춤 뛰어 오르거나 한바퀴 도는 것이 전부다.

그런데 대구 권번예기조합 출신인 권명화(대구 무형문화재 제9호 살풀이춤 보유자)

선생의 한이 담긴 이야기를 들어보자.

“난 요즘 옷들이 마음에 안들어요.

색상만 다르지 똑 같은 한복들을 입고 춤만 달리 출 뿐 진정 춤이 어디에 멋이 있는지를 모르고 순서만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몸을 다 숨기고 길게 내리 뻗은 치마에 발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예쁜 그림 같은 춤만 추지 도통 멋이 안보여요.

치마춤을 채서 허리에 묶으면 발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내 호흡과 척척 들러붙은 멋이 보이는데, 치마를 돌돌 묶어 살짝 몸매를 드러내면 요래 저래 움직일 때마다 허리와 엉덩이 태가 드러나서 움직임이 살아있다는 것을 몰라요.

사실 내가 춤추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삼현육각이 다 악기가 아니고 징과 구름, 장구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멋졌습니다.

지금은 악기가 많다보니 다 똑 같은 시나위 음악에 춤이 묻혀서 화려함만 더하지 오히려 춤의 맛을 기막히게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똑 같은 음악과 화려한 의상이 오히려 진정한 춤을 숨겨버렸어요.”

자, 여러분 한국 춤의 경지가 전문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정도죠.

참고로 한국춤은 승무, 살풀이춤, 무당춤, 태평무, 검무, 산조무, 한량무, 학춤, 장고춤, 소고춤, 북춤, 부채춤, 탈춤, 춘앵전, 처용무, 불교작법무, 강강술래 등이 있습니다.



대구 무형문화재 제9호 살풀이춤 보유자인 권명화의 소고춤

사백네 번째 만남 _ 2009. 5. 20

살풀이춤에서 수건은 무슨 의미일까?

살풀이춤을 자세히 보면 한시도 수건을 떼어놓지 않는다.

잡았다 다시 놓고, 놓았다가도 다시 감는 것이 어찌보면 영락없는
님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情을 나눴는데 정을 잃고 난 후 회한과 집착도
있을 것이고 눈물겨운 갈등도 있어 보인다.

그러니 수건에게 낫두리를 늘어 놓기도 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 자신을 추스르기도 하면서 잡았다 풀었다 다시
영키기도 한다.

살풀이춤은 아름다운 한 편의 시다.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될 때 무용가는 살풀이 수건을 구기는
일이 거의 없다.

무용가의 소품을 눈여겨 보라.

아마 건축가의 설계도면 못지않게 수건이 신주단지 모시듯 구김 없이
곱게 말아져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살풀이 춤을 배울 때는 스승으로부터 수건을 애인으로
생각하란 이야길 듣곤 한다.

살풀이춤은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로 지정되어 있다.

호남 기방계열의 이매방류와 경기무속에 기원을 둔 김숙자류, 한성준의 맥을
이어 손녀 한영숙과 정재만 등으로 이어지는 살풀이춤이 있다.

이 밖에 다수의 살풀이춤이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승무와 더불어 우리춤의
백미로 불리는 아름다운
춤이다.

**살풀이는 말 그대로 '살'과 '풀이'
의 합성어다.**

살이라는 말은 우선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살기 돈다', '살기가
가득하다'는 말이 연상되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죽음과 재앙
앞에서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살을 풀고자 부단히 애썼던 것은 비단 우리 민족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 살풀이춤이 한국을 대표하는 춤이 되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풀이'가 살을 예방하거나 막는, 강한 부정이나
물리침도 아니라는 점이 더욱 아이러니하다.

'풀이'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한다.

일이 잘 성사된 기쁨도 '뒷풀이', 주체할 수 없이 화를 막 쏟아낼
때도 '화풀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포스럽기만 한 살을 '물리침'이 아니라 '풀다'라고 했으니
어찌보면 같이 한 판 놀자는 것이다.



'살'을 '푸는' 것을 무용으로 승화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춤이 된 살풀이춤.
춤추는 이는 김지원

사백다섯 번째 만남 _ 2009. 5. 21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서 1596년 중세 가장 매력적인 도시 베니스에 사는 귀족 출신이자 세계 무역 상인 안토니오는 기독교인으로 절친한 친구 베사니오가 돈이 필요하단 걸 알고 본인이 보증을 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사일룩에게 돈을 빌려 베사니오에게 준다.

하지만 무역하던 배가 침몰하여 빚을 갚지 못해 법정에 서게 되며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내게 되는 봉변을 당하게 된다.

소설 마지막에는 우여곡절 끝에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사일룩이 망하고 기독교로 개종까지 당해야 하는 천벌을 받는다.

지난번 1분 메시지에 최근 종교전쟁은 기독교와 회교의 갈등이라 하였다.

500년 전 셰익스피어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갈등을 고리대금업자 사일룩을 내세워 소설로 썼다.

그 유대인이 지금도 세계 금융업을 지배하고 온갖 갈등의 요소를 지구촌 구석구석 괴롭히고 있고 최근 미국 사태도 유대인의 금융시스템의 힘겨루기로 보고 있는 시각이 있다.

최근 중국인이 쓴 책 『화폐전쟁』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도 그것이다.

406

사백여섯 번째 만남 _ 2009. 5. 22

나의 지난 과거는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불안했었다.

사백일곱 번째 만남 _ 2009. 5. 25

우리는 이제부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

405

407

사백여덟 번째 만남 _ 2009. 5. 26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어릴 때 놀던 추억의 봉하마을 뒷산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져 비운의 대통령이 되셨다.

한 기업인으로서 토요일, 일요일 일정을 다 취소하고 앞으로 한국에 닥칠 운명을 생각하며 못내 불안해 한다.

실로 한국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하는지, 어디로 갈지 걱정이 한둘이 아니다.

100년 전 구한말 **동학난**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우리도 일본의

명치유신(1868)과 같은 절호의 타임을 잡을 수 있었지만(그 당시 동학사상의

근본은 人乃天 즉, 인간이 곧 하늘이다) 일본 세력을 업은 우리나라 대신에 의해

손병희와 그 세력들이 처형된다.

그 후 한국의 국모 민비가 일본인에 의해 시해된다.

그리고 한일합방이 되어 버리고 나라가 없어진다.

그동안 해방이 되고 북한은 러시아, 중국에 의해 접수되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나 독재자로서 하와이 망명길에서 운명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에게 암살당하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돈먹다 감옥에 들어간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들이 줄줄이 감옥행에 이번엔 노무현 대통령 형님이...

참 기가 막힌 해방 이후 60년 세월이다.

반토막의 나라에서 민족과의 사상전쟁 60년.

앞으로 김정일 세력이 우리나라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지...

1894년 전라도 고부군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나서 완성되었다면 우리나라도 **대국굴기**의 국가가 되었을 텐데.

나는 못내 그 고부군 저력을 안타까워한다.

지금 현재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대통령들은 우리가 뽑았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이 회사를 위해 위기에 두목으로서 해야 할 일을 거의 다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불황을 여러분이 힘들지만 극복해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펼쳐질 진수성찬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대통령들을 정말 잘 뽑아 잘 살아 봅시다.

대국굴기의 국가들처럼.

사백아홉 번째 만남 _ 2009. 5. 27

5월 23일 대구시립 소년소녀합창단 75명은 수성아트피아에서 불쇼이 소년소녀합창단 내한 공연을 우리회사 장학재단의 배려로 전원 다녀와서 관계자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었다.

요즘 나는 가곡을 배우고 피아노에 관한 공부를 김혜린(친구 딸)으로부터 개인교습을 받고 있다.

김혜린은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의 상임 피아니스트다.

내가 강의를 받다가

“너 수성아트피아 가니?”

“원데요?”

“이놈아 불쇼이 합창단이 대구오잖아?”

“몰랐습니다”

“큰일났네 그럼, 합창단은 가느냐?”

“아무도 가지 않는 걸로 압니다”

이런 대화 후, 부랴부랴 태창 장학재단에 이야기해서 돈 1,225,000원을 주어 전원 참관시켰다.

이게 대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귀여운 자녀를 데리고 그 곳에 다녀오셨나요? 세계적인 합창단이 대구까지 왔는데 가지 않았다니 이게 어떻게 대구놈이 아니란 말입니까?

물론 내 딸 아들(준회)도 안갔겠지만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은 문화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뽑은 지난 대통령들이 엉망이지요.

합스부르크 700년 왕가에서 탄생한 빈 소년 합창단은 100명으로 10세에서 14세 소년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선명회 지금의 월드비전 어린이합창단도 유명하지요.

과거 여기 출신들이 지금의 훌륭한 성악가들이 많죠.

참고로 일본은 마에스트로 SEIJI OZAWA를 길러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이 지휘자가 1980년대 일본의 Shin-Yu-Kai Chorus 100名을 이끌고 독일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필하모니 객원 지휘자가 되어 그 유명한 합창곡 Carl Orff(1895~1982)의 Carmina Burana와 Beethoven(1770~1827)의 Symphony No.9 “Choral”을 베를린 시민에게 공연하여 베를린을 경악케 합니다.

물론 신유카이 합창단의 음량은 대단히 적지요.

유럽에 비하면 말입니다.

지난번 베토벤 “합창”은 이야기했지만 카르미나 부라나는 꼭 다운받아 들어보세요.

당장

“아 이 곡이구나” 할 겁니다.

사백열 번째 만남 _ 2009. 5. 28

그러나 요즘은
주인도 종노릇 하더라.
주인이 뭔가로 모르는 주인 말이다.

410

411

사백열한 번째 만남 _ 2009. 5. 29

1880년 왕정러시아 시절 대지주의 부인 **안나 카레리나**는 젊은 장교 **부론스키 백작**과 운명적인 만남에서부터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오가며 사랑을 나누다 처음 만난 열차역에서 첫만남을 회상하며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진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 소설의 줄거리다.

이 내용을 러시아 대표적 안무가 **보리스 에이프만**이 발레단을 이끌고 대구 오페라하우스에 왔는데 영남대 **우혜영 발레교수** 초대로 함께 보게 되었다.

에이프만은 몇 년 전 LG아트홀에서 본 적이 있다.

실로 오랜만에 러시아 발레의 진수를 주옥 같은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배경으로 화려한 의상, 무대, 조명 모두 거의 완벽한 공연이 대구에 온 것이다.

세계 최고의 몸짓을 통해 느끼는 격정적인 사랑의 표현은 톨스토이를 섬짓하게 했으리라.

만약 그가 살아서 보게 된다면.

보리스 에이프만은 이렇게 외친다. 요즘 나처럼.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의무와 감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과거 톨스토이를 괴롭혔던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린 여전히 피해갈 수 없다.

삶 속에 혹은 죽어서라도..

톨스토이가 인물들의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러시아인 삶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 이것이 나를 매료하게 했다.”

또 이렇게 말한다.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은 매우 감성적이며 그 속에 비극이 있다.

물론 작곡가의 영혼도 담겨 있어 그의 삶과 음악이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외친다.

“발레는 무의식과 심리드라마의 중심부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매우 특별한 예술이다.

각각의 새로운 발레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과 같다.

나의 무대는 열려있는 감정의 경험이다.

나는 내가 사는 삶 속에 미스터리를 창조하여 나만의 세상을 만든다”

여러분 어려워 마시고 이런 대작이 대구에 오면 한 번 보셔야
쉬워집니다.

처음에 안 어려운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사백열두 번째 만남 _ 2009. 6. 1

TC는 오늘이 특별한 새출발의 날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본인은 작년 9월부터 회사의 위기에 한치 물러섬 없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 구조조정을 해왔었다.

즉, 내가 회사를 경영한 이후 최대의 위기에 격물치지(格物致知) 해온
셈이다.

이제 TC TECH만 남고 모든 회사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물론 세계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회사가 썩 좋아졌다는 건 물론 아니다.

TC TECH도 김정태 사장 중심으로 톨돌 뭉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지금부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몫이다.

사백열세 번째 만남 _ 2009. 6. 2

우리회사의 식당은 他會社에 비해 모든 것이 화려하다.

이것은 끊임없이 본인이 추구해온 인생관이다.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분위기가 쾌적해야 한다.

맛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우리회사는 어제로 포항공장 식당을 작년 봄부터 우여곡절 끝에 박대환 사장 덕분에 완공되어 직원이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북경, 평택, 대구, 포항의 남다른 식당문화를 갖게 되어 내 나이 64세에 티시테크 창립 15주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헌정하게 됨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한다.

식당마다 현판이 이렇게 걸려있다.

王者以爲民天 而民食以爲天왕자이위민천 이민식이위천

중국 사서삼경 중 詩經에 나오는 군자를 가르키는 글로 대충 뜻은 이렇다.

왕은 백성을 하늘처럼 섬겨야 할 것이며

무릇 그 백성에게는 풍요롭게 먹여야 함이 곧 하늘의 뜻이다.

식당 종사자들은 나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여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백열네 번째 만남 _ 2009. 6. 3

우리회사에 자주 오시는 김정길 명예주필님의 2009년 6월 1일자 수암칼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의 홈페이지 글 기사를 소개합니다.

〈수암칼럼〉 ‘천국서 보내는 두 번째 유언’

國民葬국민장이 끝났다. 그리고 그(노무현)도 떠났다. 그의 혼령이 있다면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자신의 죽음을 슬퍼해준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감회에 젖었을까. 어쩌면 하늘나라에서 남은 우리에게 두 번째 유언처럼 당부의 말을 쓴다면 이렇게 써 보냈을지 모른다.

“국민 여러분, 못한 저를 위해 울어주고 꽃을 뿌려주신 연민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노릇도 부족했고 修身齊家수신제가도 제대로 못하고, 나라와 국민 여러분께 번듯하게 남겨 드린 것도 없는 저에게 국민장까지 치러준 배려 또한 고맙습니다.

요 며칠새 저는 천국에서 만난 많은 분들의 말씀과 위로를 들으며 문득문득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깨우치게도 됩니다. 권위주의를 깨고 개혁을 위해 애썼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방송들이 고맙게도 저의 모자란 모습들을 좋은 모습으로 비춰 보여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는 천국에 와서 제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의 죽음은 왜적의 총탄을 맞고 쓰러진 이순신 장군의 호국의 죽음도 아니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한글을 창제하다 병고로 쓰러지신 세종대왕의 愛民애민의 죽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슬퍼해주신 사랑, 가슴 아리도록 고마울 뿐입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은 더 이상 저를 마치 희생당한 영웅인 양 그리지 말아 주십시오. 겸손이 아닙니다. 저는 저를 사랑한 노사모와 아끼고 믿어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서 당부하고 싶습니다.

외국인과 해외 TV가 중계되는 영결식장 앞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른 나의 옛 비서에게도 당부합니다. ‘자네 같은 친구를 비서로 썼던 내가 부끄럽다’고…, 국민장이 끝났음에도 광화문에 분향소를 고집하고 곡괭이와 각목으로 국가경찰을 치는 분들, 그리고 ‘책임을 묻겠다’며 법무장관, 검찰총장 사퇴를 떠드는 민주당 후배들에게도 저는 충고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는 법치국가고 두 사람은 법치와 공권력을 지키기 위해 전직 대통령이었던 저까지 의혹이 있나 없나 수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용기와 원칙적 자세는 칭찬하면 했지 탓할 일이 아닙니다. 본분을 다한 공직자에게 무슨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까?

저와 가족을 위해 울어주신 DJ님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저의 반쪽이라시면서 ‘나도 똑같이 했을(자살) 것이다’고 하신 것은 큰 지도자가 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 와 보니 그런 말씀은 저에게 결코 위로가 아닌 화합을 깨고 분열을 부추기는 선동이란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아, 검찰이 내 처지를 감안해 행여 수사를 중단하더라도 이 아버지가 미국 땅에 계약서 찢었다는 아파트 얻어 준 게 정말 있다면 끝까지 되돌려 주거라. 그것이 우리 집안과 이 아버지의 남은 자존심을 지켜주는 길이다. 그리고 엄마랑 함께 대우 南(남) 사장 유족을 찾아가 나 대신 위로와 사죄를 전하거라 그게 사람사는 도리였다. 그리고 이광재, 이강철, 자네들은 喪主상주도 아니면서 감옥에서 참회하며 기도나 하고 있지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왜 해서 TV 앞에 얼굴을 치들고 다녔나? 자네들을 풀어준 MB도 고맙거나 인자하다는 생각보다는 겁먹은 것 같은 유약함과 법 정신의 원칙을 허무는 것 같아 앞날이 걱정스럽네. 이 대통령이 배짱 하나는 나에게 배워야겠다는 생각마저 드네. 일부 전교조 여러분도 이젠 교실로 돌아가십시오. 장례 끝난 밤거리에서 촛불 들 시간에 복핵 안보교육이나 더 시켜주십시오. 민노총, 화물연대 여러분도 힘들지만 참으십시오. 복핵이 난리인 이때 여러분의 손에는 아직 만장지발이나 촛불 대신 工具공구와 핸들이 쥐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양보와 희생은 언젠가 나라와 국민이 모아서 갚아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천국에서 보내는 저의 두 번째 유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고맙고 미안합니다.”
- 金 廷 吉(명예주필)

“비리 연루된 前 대통령이 자살한 순간부터 聖者가 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나”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부정과 비리에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이 자살한 그 순간부터 성자(聖者)가 되는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게 뭘니까라는 말이 저절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언론이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성자로 만들며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언론이) 국민장 기간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취지에서 훌륭했던 점과 잘한 일을 골라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일은 참을 만하다”면서도 “방송사들은 왜 노사모파와 반 노사모파가 TV에서 한 번 붙어 국민 앞에서 누가 옳은지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냐”고 했다.

김 교수는 앞서 노 전 대통령 서거 전인 4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먹었으면 먹었다고 말을 해야죠’ 제목의 글에서 “(노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자살을 하거나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겠다”고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뿐이다. 비극의 책임은 노씨 자신에게 있다”(5월 25일), “그는 순교자도 아니고 희생양도 아니고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누렸고, 저승으로 가는 길도 본인이 선택한 것일 뿐 누구의 강요나 권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5월 30일)”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 신은진 기자

여러분 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두 분의 충고 명심하며 이제 자중하고 대국굴기의 국가로 향합시다.

사백열다섯 번째 만남 _ 2009. 6. 4

이명박 정부는..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국민의 문화수준이 낮고 질서 의식이
희박하다면 그 나라와 국민은 존경받을 수 없다.

한 국가의 격조는 그 구성원 각자가 표현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수준 높은 시민의식의 실천 없이는 국가 품격이 높아지지
않는다.

또한 이를 장려하고 담아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선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IMF이후 사회주의 시스템이 등장 잃어버린 10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현 시국을 보라.

선진국이 도저히 하지 않는 죽창 시위 말이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10년이 대국굴기로 갈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때다.

사백열여섯 번째 만남 _ 2009. 6. 5

우리나라 사람 중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丹齋 申采浩(단재 신채호;
조선상고사 집필)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천년에 한 번 일어날 사건이
요청의 난(고려 인종 1135년)이라 하였다.

그리고 살아있는 분 중 내가 존경하는 이동식 박사(정신과)는
동학난(1894년)이라 하였다.

나는 이 두 사건을 민중봉기 또는 혁명으로 생각한다.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대혁명은 대변혁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둘 다 실패했다.

2,000년 동안에.

지금 우리 민족의 정신 혁명이 필요한 시기다.

사백열일곱 번째 만남 _ 2009. 6. 8

『일생을 통해서 내가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여러 감각의 기쁨을 개발하는 일이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여자를 위해 태어났으며, 늘 여자를 사랑했다.

그리고 여자들도 나를 사랑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사랑했고, 호기심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열렬히 사랑했다.

희대의 바람둥이 조반니 자코모 지롤라모 카사노바의 자서전 『불멸의 유혹』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다.

최초의 피임법 발명자, 친딸과의 근친상간, 40년 동안 수백 명의 여성과 사랑을 즐긴 정력가, 공개 처형을 바라보며 사랑의 행각을 벌임으로써 이중의 짜릿함을 느끼는 기상천외한 방식 등, 과장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수많은 신화에 둘러싸여 ‘바람둥이’, ‘섹스의 화신’의 대명사가 된 카사노바이지만, 그는 생전에 프리메이슨



프랑수아 부세, 〈외르피〉, Oil on canvas, 53×64cm, 1745년

외르피라는 이 소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카사노바가 친구 부세에게 부탁하여 특별히 제작한 그림

단원이기도 했고 스스로 철학자이자 문인으로 생각했다.

그는 베네치아에서 배우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공연 때문에 늘 집을 비우던 부모 대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카사노바가 처음으로 집을 떠난 것은 아홉 살 때였다.

그는 병도 치료하고 공부도 하기 위해 파도바로 향하고 거기서 고치 박사에게 지식의 기초를 배우며 여자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그는 열다섯 살인 1740년에 성직에 입문했고, 2년 뒤 파도바 대학에서 민법과 교회법 박사 학위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성직자, 군인, 바이올린 연주자 등 직업을 전전하며 전 유럽을 떠돌면서 수많은 여자를 만나고 수많은 염문을 뿌렸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 신비주의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브라가딘이나 뒤르페 후작 부인과 같은 재력가를 든든한 후원자로 만들어 사치와 향락을 맘껏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단적인 지식과 파격적인 행동, 그리고 정부 인사들과의

접촉으로 위험인물이 된 그는 베네치아 종교재판관들의 미움을 사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다.

곧 감옥을 탈출한 그는 파리로 도망가서 다시 화려한 생활을 하지만, 이후 18년 동안 그는 고국 베네치아에서 추방된 도망자 신세였다. 파리에서 그는 복권 사업으로 큰돈을 벌기도 하고 프랑스 정부의 밀명을 띠고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끊이지 않는 염문과 사기 행각, 위법 행위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전 유럽을 떠돌아야 했다.

1744년 그는 18년 만에 귀국을 허락받지만,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켜 다시 추방되고 만다.

1786년 예순한 살의 카사노바는 늙고 지친 몸을 이끌고 마침내 보헤미아 독스 성의 사서직을 맡아 정착한다.

하지만 고립감과 독스 성 하인들의 노골적인 괴롭힘, 그리고 성적 능력의 상실로 그의 노년은 우울했다.

그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자서전 집필에만 매달렸고, 1792년 예순일곱 살에 마침내 초고를 완성, 그 후에도 계속 수정 보완 작업에 매달렸다.

1798년 일흔세 살의 카사노바는 병상에 누워 조카 카를로 안조리니에게 원고를 건네주고 눈을 감았다.

지난 시간에는 돈 주앙에 대한 글(199번째 만남)을 쓰며 잠깐 소개한 인물이 카사노바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배신당하고도 결코 그를 잊지 못한다.

나도 그럴 수만 있다면...

사백열여덟 번째 만남 _ 2009. 6. 9

같은 우리나라 속에서도 지역마다 같은 언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고2때 전라도 남원으로 수학여행 간 적이 있는데 그날 밤 여관의 주인집 딸이 그 해에 춘향이로 뽑혔다고 수학여행 온 우리들에게 주인이 자랑스럽게 은근히 알려주는데 우리 친구들 전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쏠리게 되었다.

장독대에서 심부름하는 그 여인에 고2의 우리가 모든 상상력과 접근성과 치열한 투쟁의 우여곡절 끝에 나에게 행운이 돌아왔다.

몇 년을 편지 왕래하던 중 대학 2학년 때 **지리산 종주 최초등반**(한국최초 처녀정복)을 마치고 그 집에(남원여관) 다시 찾아가 3년 만의 해후를 즐기게 되었다.



1966년 12월
18~24일
지리산 적설기
동계초등반 후
기념촬영



그때 이야기하던 중 무슨 일이 잘못되어 무심코

“신세 조졌네”

라고 경상도식 푸념을 하게 되었다.(경상도에서 뜻을 일을 망쳤다고 해석함)

그후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미스춘향(정문의)**에게 편지가 왔는데

한마디로 절교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전라도에서 그 말은 듣는 사람 그 말 그대로 신세

망쳤다는 즉, 몸을 버렸다는(정조를 잃는다는) 자조적인 말로 해석한단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조를 잃은 여자가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느낌을

그 말 때문에 내게 받았단다.

나로서는 참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그 후 언젠가 한번은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

자기가 여자를 유혹해 잠자리를 하다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여보!! 여보오~!!

하고 튀어나왔더니 같이 자리하던 그녀가 벌떡 일어나 자기 뺨을 철썩 때리더니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는 한다는 말이

“이 자식이 왜 결정적인 순간에 저거 여편네 이름 부르고 지랄이야!”

하며 가버리더라.

그도 처음엔 몰랐단다.

절정의 순간에 여보가 뭐가 나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하다 나중에 알았단다.

이 말은 경상도 남녀가(서로 부부가 아닐지라도) 절정의 순간에 내뱉는 환희의 소리짓인데 다른지역 사람은 오해한단다.

여보는 자기 부인한테만 부르는 말이라고.

그렇다.

경상도는 다른 여자한테도 특히 남자들은 더욱 다정한 표현으로 그 순간에는 대개 사용한다.

그러하니 말은 잘 분별하여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처럼 봉변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도...

사백열아홉 번째 만남 _ 2009. 6. 10

나부터 그렇겠지만,
 “인재가 없다,
 인재가 없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보는 눈이 없는 것이다.
 곁에 두고도 인재가 없다 타령이다.
 이것이 고정관념이다.
 나는 주위의 사람을 부릴 줄 모르는 내 자신을 항상 탓하고
 원망하지만
 60이 넘은 지금도 안 되는 것이 이것이다.

사백스무 번째 만남 _ 2009. 6. 11

4월에 대구시립오페라단에서 “오텔로” 정기공연이 있었다.
 3일간 각각 다른 성악가들이 공연했는데 나는 3일 공연 전부를 보았고
 마지막 토요일 공연을 마친 출연진과 스태프 30명을 모두 불러
 별라홀에서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물론 이태리 지휘자 카를로 팔레스키 부부도 초청되었다.
 “오텔로”는 지난시간 여러분께 이야기했었다.
 셰익스피어 원작을 보이토가 이태리어로 각색해 세계에 무수히 단골로
 공연되어지는 것은 오텔로 역의 테너와 데스데모나 역의 소프라노, 야고
 역의 바리톤 외에 카시오(테너), 에밀리아(메조 소프라노) 등 다양한
 성악가들이 배역이 되어지는 것이 이유다.
 첫날엔 김남두(오텔로), 우주호(야고)가 돋보였고 둘째날은 오승룡(야고),
 셋째날은 이정아(데스데모나), 김승철(야고)이 잘하였다.
 다 잘 아는 성악가들이라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이제 우리도 성악가의 목소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성악가의 연기력, 연출, 조명 등 독일이 지향하는 바대로 200년이
 지났으니 획기적인 오페라의 변화가 와야겠다.
 오페라 오텔로 역은 역시 플라시도 도밍고의 1996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내겐 가장 인상이 남은 오페라이다.
 그 나이에 의처증의 무어인 장군역을 얼마나 훌륭한 연기로
 소화해내는지.

사백스물한 번째 만남 _ 2009. 6. 12

현정은 현대 회장이 메일을 통해 세계경제 불황에 따른 위기 경영 전반에 걸쳐 “Keep It Simple & Speedy”를 마음에 새기자고 “여러분 매일 KISS하세요” 하였단다. 6월 14일은 Kiss Day란다.

그날 여러분은 어떤 키스를 할 것인가?
여러분 월하정인 신윤복 그림 생각나는가?



月沈沈夜三更
兩人心事兩人知
달빛 흐린 깊은 밤
둘 마음 둘만 알지

그런데 이 늙은 내겐 누가 찾아올꼬?

422

사백스물두 번째 만남 _ 2009. 6. 15

나는 받지도 않을 사람한테 줘놓고
내 혼자 꺽꺽 댄다.

423

사백스물세 번째 만남 _ 2009. 6. 16

깨달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똑똑한 사람일수록 깨달았던 말을 함부로 하더라.
깨달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일요일 열핏 텔레비전에 이런 이야기를 듣다보니 대장금의 장금이가 스승에게 꾸중듣고 있었다.
그렇다.
부처는 우수마발이 다 나의 스승이라 하였듯이
TV 중에도 이런 보석 같은 말이 녹아 있는데 우린 뭘 보고 있는자...

421

사백스물네 번째 만남 _ 2009. 6. 17

어제 저녁은 모처럼 포스코 임원과 신라철강 임원과 함께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임원에게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면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 것에 직면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튀어나오는 대답이

“회장님, 그게 글썄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0.1초 후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한참 쳐다보며

“너는 내가 400번씩 1분 메시지를 보내는데 너야말로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놈이다”

속이 상해 그 자리에서 내뱉어 주었다.

난 그 사람을 20년 관찰하며 상세한 방법론까지 가르쳐주는데도 말이다.

인간들은 참 잔인하다.

사백스물다섯 번째 만남 _ 2009. 6. 18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에게 쓴 충고를 해줄 때는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위의 대답은 변명이고 밑에 대답은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사백스물여섯 번째 만남 _ 2009. 6. 19

*미래를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것과 같다*

– 윌리엄 할랄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

*한국 학생은 하루 10시간 이상 미래에 필요치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 엘빈 토플러

나의 오랜 친구 이영탁 이사장(전직 장관)이 세계미래포럼을 설립하였다.

내가 평소 관심과 실천을 해왔던 분야다.

설립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의 예를 들었다.

이제 우리 이 분야를 섭렵해보자. 정말!!

나는 여러분께 SERI CEO를 통해 지식을 열어주었고

세계미래포럼과 여러분을 접목시킬 방법을 곽형원 직원에게
지시하겠다.

사백스물일곱 번째 만남 _ 2009. 6. 22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品格이 있다.
그 格의 뒤에는 내가 살아온 人生이 있다.
나는 당당하다.
왜?
내가 살아왔던 나의 人生이 있기에.

사백스물여덟 번째 만남 _ 2009. 6. 23

지난해 외환 차손을 130억으로 결산처리하고(이월 외화잔고 3,184萬\$을 1,257원으로 마감), 금년 들어 2,223萬\$을 상환(환차익 3억)하고 960萬\$ 남았는데 다행히 작년 연말 1,257원보다 외환은 내려가고 있다. 그동안 박대환 사장 이하 관리부는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다. 나는 박대환 사장이 혹시나 할 정도로 노파심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어느날 박 사장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일까지 벌어져 정말 노심초사 함께 고통을 나누었다. 잠시 방심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나는 서둘러 당진 땅 판매 차액으로 환차손 130억 원을 메꾸고 서해안 사업을 접게 되었다. 실로 엄청난 결과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하여 빠져진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달 5월 10일 일요일 박대환 사장 부부를 초대하여 우리 가족과 함께 호세 카레라스 내한 공연을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작년에 TC가 1억 기증에서 보게되었다.

테너 José Carreras와 메조 소프라노 Fiona Campbell, 소프라노 이정아가 Euro-Asian Philharmonic Orchestra 반주로 좋은 공연을 보게 되었다. 카레라스는 쓰리 테너로 명성을 날렸지만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71才로 2007년 9월 6일 타계하고 본인과 플라시도 도밍고와 현역에서 활동 중이다. 카레라스는 매력적인 목소리와 체격, 무대에 어울리는 외모와 재능을 골고루 갖춘 특별한 테너이다. 그의 소리는 귀족적인 특색과 함께 지중해의 태양을 닮은 풍성한 색감과 화려한 울림, 풍부한 볼륨 넓은 음역 등이 잘 조화를 이룬다. 젊은 나이에 빠르게 세계 오페라계를 평정한 그는 백혈병에 걸렸었으나 강한 의지력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소생, 1988년 컴백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뤄 화려하게 컴백한다. 그는 병을 이겨낸 후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설립, 재단 운영비의 43%를 공연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집념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사백스물아홉 번째 만남 _ 2009. 6. 24

대학 1년 시절 아버지께서 마음에 안든 날 향해

“넌 잉여인간이야

인간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놈이지

넌 인간으로선 가치가 없는 놈이야”

라고 내게 화를 내시며 나무라셨다.

그때 처음 신문에 잉여인간이란 말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일이었다.

난 아버지에게 혹독하게 직설적으로 곤혹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수도 없이 꾸지람과 수치를 받으며 커온 내가 지금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난 내 자식들에겐 그냥 방향만 정해주고 기다릴 뿐이다.

그렇다.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결행하는 것이 인생이다.

사백서른 번째 만남 _ 2009. 6. 25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전립선암으로 죽음을 앞둔

1995년 12월 31일 마지막 만찬이

준비되었다.

메뉴는 4가지로 마렌느 굴,

푸아그라, 구운 거세 수탉과

멧새의 한 종류인 오테런이었다.

이 멧새 요리의 전통적인 방법은

새의 눈을 가려서 먹이를 실컷 먹게 한 다음 코냑에 폭 담가 절인 뒤

구워 낸단다.

소문에 의하면 미테랑은 오테런을 두 마리나 먹었다. 그 후 일주일 후 사망하였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 주지사로 있을 때 주정부는

사형수의 식사와 관련된 법안을 개정하였다. 사형이 결정된 사형수가 마지막 식사를 마친 뒤 티오펜탈 나트륨, 브롬화판큐로늄, 염화칼륨 등이 섞인 액체를 주사하여 사형하는 법이었다.

그리고 주정부는 사형수에게 허락했던 마지막 끼임을 “건강상의 이유”로 금지시켰다.

며칠 전 스웨덴 스톡홀름의 카로린스카 왕립 병원의 나의 주치의

“곤잘레스”가 주사를 가지고 왔다.

그때 내가 강덕식 교수와 식사할 때 트러플을 대접했더니 아무도

몰랐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맛을 가진 명품이 트러플(송로버섯),

푸아그라(거위 간), 캐비어(철갑상어 알)이다. 여러분은 꼭 이것을 맛 보아야

한다. 그런데 나를 연구하는 곤잘레스가 내게 100~120살까지는 무난히

살 것 같단다.

부라부라 오늘부터 나의 미래에 포트폴리오를 새로이 작성해야겠다.



살인혐의로 31세의 나이에 사형선고를 받아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처형된 존 윌리엄 룩의 마지막식사

사백서른한 번째 만남 _ 2009. 6. 26

은(殷)나라의 진짜 국호(國號)는 원래 '상(商)'이었다.

반경(盤庚)이 은(殷)이라 불리는 지방으로 수도를 옮기고부터 나라 이름이 은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상나라를 집어삼켰던 주나라가 지배자로서 이전의 상나라 사람들을 참으로 우습게보기 시작했다.

주나라는 상나라 백성들로부터 토지를 말끔히 다 뺏었고 그들한테 손바닥만한 크기의 척박한 땅을 넘겨주었다.

상나라 유민(遺民)들을 아예 굶겨 죽일 작정인듯 싶었다.

이 유민(遺民)들은 살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유민(流民), 떠돌아다니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게다가 동족들까지 일부는 벌써 먹고 살기 위해 이미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2,000년 전 망국(亡國)의 서러움을 안고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다.

이들은 장사를 시작했다.

목숨을 이어 나가자니 그 길 밖에는 없었다.

상나라 유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상 유민들도 장사 길에 나섰고 뜻밖에 장사를 해보니 재미도 있었다.

값 싼 곳에서 물건들을 사들여 값 비싼 곳으로 가지고 가서 팔아 이문을 크게 남겼다.

또 동족들이 삼지사방(三支四方)으로 널려있기도 해서 알음알음으로 장사하기도 쉬웠다.

주나라 원주민들은 그런 천해빠진 일이란 것은 '천하고 별 볼일 없는 상(商)나라 사람 따위나 할 일(業)'이라며 장사를 우습게 보기도 했고 또 깔보기도 했다.

아니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았다.

'상업(商業)'이란 말이 생겨난 뿌리가 이렇게 슬펐다.

그래서 상업이라면 천한 직종으로 이렇게 일찍부터 자리매김이 되어 있었다.

우리들의 왕조시대(王朝時代)에서 일반 백성들의 계급을 나누는데 농(農), 공(工), 상(商)으로 순서를 매겨 놓고 상을 제일 꼴찌로 쳐놓았다.

농, 공의 사람들은 상의 사람이 천하다며 그들과는 혼인도 하려 들지 않았다.

'장사치', 좋은 말은 아니다.

오늘날까지도 장사하는 사람들을 '장사치'라고 폄하(貶下), 우습게 불리고 있다.

이렇게 한(恨) 맺힌 깊은 뿌리 때문이다.

나의 장사 40여년 이제 완성의 길로 접어들었다.

남은 일은 여러분의 몫이다.

나 또한 새로운 공원 사업의 길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갈 작정이다.



딸과 외손자와 나의 아내

사백서른두 번째 만남 _ 2009. 6. 29

일본 말에 무시아즈미란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 가미술더위란 말로 장마철인
지금이 바로 그 괴로운 습도와 무더위가
우리를 괴롭힌다.

그런데 이즈음 어김없이 하늘은
우리에게 여름 한철 붉게 피었다
통째로 뚝 떨어지는 꽃을 구석구석
흐드리지게 안겨준다.

치명적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을 때
우리가 스탕달 신드롬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듯이, 이 꽃 능소화(日 아이생 가슈라)

떨어지는 시간이 아편보다 더욱 치명적이다. 송이째 뚝 떨어지는, 예측
불가의 멈춤의 미학을 간직한 채 우아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미련없이
뚝이다.

우리도 시들기 전에 현란하게 최후를 마감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아름다울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적 안락사 이런 것 말고 말이다.

참고로 일본 사람은 꽃을 유난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도 동백꽃(쓰바키),
능소화(아이생 가슈라), 벚꽃(사쿠라)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도 꽃잎이
가지에 달려 시들지 않고 확실히 뚝이라 그들은 환장하고 있다.

동백꽃이 눈 위에 떨어진 모습을 촬영해 즐기고 시를 써서 즐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쿠라도 花吹雪(はなふぶき, 花嵐(はなあらし)이라고 이야기 했었다.

찔뚱 더위에 환하게 피어 붉고 요염한 자태로 담장에 걸쳐진 능소화를 보며
문득 내 님 생각에 얼굴을 붉힌다.

사백서른세 번째 만남 _ 2009. 6. 30

뮤지컬 축제 중 “비내리는 고모령” 악극단 공연을 대구지역 임원
부부와 함께 보게 되었다.

그런데 웬 늙은 사람들이 이리 많이 왔는지 이상하다 생각해서
가만히 돌아보니 내가 늙어 있더라.

1950년 6월 나는 김천서 5살 때 경산군 안심면까지 부모님과 함께
걸어서 피난길을 오른 적이 있었다.

6.25사변이 터져서 그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지계에 가재도구를
몽땅 지고 어머니와 누나는 재구(3살), 재철(2살)이를 업고 양손에 짐을
들었으니 나는 오직 그 나이에 의지할 수 없이 밤낮을 걸어서
안심면까지 가게 되었다.

그때 다리 아프다고 징징대는 날 부모님이 안타까워하며 연신
“장하다 재성이”하며 칭찬해주시던 피난길을 난 잊을 수 없다.

대구를 지나 고모령에서 대포소리를 들으며 피난길 그 고개에서 밤을 새운
적이 있음을 내 어찌 기억하지 않겠는가(고모령은 지금 인터볼고 호텔 근처)

비내리는 고모령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엔

부엌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소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 마루턱을

넘어오던 그날밤이 그리웁고나

어머니~~~~~!!

(내친구 이영탁은 술만 먹으면 울며 일찍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이 노래를 부른다)

그렇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호강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다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 세대가 돌아갈 차례다.

433

432

사백서른네 번째 만남 _ 2009. 7. 1

이탈리아 영화 “해바라기”에 주인공으로 소피아 로렌과 마르첼로 마스트로안니(이탈리아 남자 중 가장 아름다운 남자로 선정)가 열연하는데 감명 깊은 장면으로 해바라기가 바람에 출렁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얼마 전 에스토니아에 갔을 때 하루 종일 달리는 차창에 비치는 유채꽃 또한 지워지지 않는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된 풍경이었다. 나는 요즘 중독성으로 아침 6시면 벌떡 일어나 2시간 가량 신천고수부지에서 산악자전거를 즐기는데 문득 해바라기가 신천에 피어있어 영화 생각이 나 DVD를 주문해서 다시 볼 예정이다. 인생을 살면서 이것저것 각인된 것들이 고리고리 연결되어 나를 깊숙이 빠져들게 하여 연정을 뜨겁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너편의 여자 때문에 요즈음 들어서 더욱 그렇다. 요즘 꽃이 한창인 접시꽃에 반해 정신없이 패달을 밟노라면 낚시꾼이 보인다. 부채살 같은 낚싯대 12대에 가물치 잡기 위해 멀리 두 대 더 던져 놓고 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자주 보는데 신기한 것이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다녀 봐도 낚싯대 1대 이상 펼친 낚시꾼을 본 적이 없다. 이게 한국인이다. 낚시터에서 언제 자기 마음을 본단 말인가. 낚시의 프로 정신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일인 것이다. 그런데 옛날엔 내가 그랬다.

사백서른다섯 번째 만남 _ 2009. 7. 2

人生을 살면서
여러분은
건너편의 여자가
혹시 누구일지
잘 살펴야한다.

사백서른여섯 번째 만남 _ 2009. 7. 3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리더의 역할이다.
그러나 어떤 리더가 미래의 역사를 창조해 갈 것인가?
미래를 창조할 리더는
첫째 창조적 리더여야 한다.
미래를 구상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하고 미래를 선점하는 크리에이티브한 리더가 첫째 요건이다.
두 번째는 다소 엉뚱한 리더여야 한다.
과거를 통해 검증된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쫓기보다는 엉뚱한 발상으로 때로는 괴짜처럼 생각하고, 기꺼이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미래의 주역이다.
세 번째는 행동하는 리더다.
말과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짐으로써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이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들이 미래 사회와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될 것이다.
나 유재성은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

평균수명 120세, 새로운 인생설계가 필요하다

김용현(세계미래포럼 미래연구가족연구센터장)

수명 120세 시대의 도래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은 79세(남자 76세, 여자 82세)로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 선진국가들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수국가에 속한다. 1960년 52세에 불과하던 평균 수명이 50년 만에 27세가 증가하였고, 의료 기술의 발달, 건강 및 웰빙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으로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는 인간의 수명은 가까운 미래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점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인간의 수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치아, 관절, 심장, 혈관 등을 반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생명공학, 의공학, 나노공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30년이 되면 우리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 한, 인공치아(임플란트), 인공관절, 인공심장, 인공혈관으로 무장한 6백만 불의 인간, 즉 사이버 인간이 되어 120세의 수명을 거뜬히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대책 없이 맞이하는 은퇴

지금까지 대부분의 직장인은 은퇴 후 인생 2모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중·소기업이나 산하기관에 가서 2~3년간 취업을 한 후 은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귀향하여 농사를 짓거나 취미 생활을 하며 대책 없이 지나간 여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여생은 너무나 길다. 예전에는 은퇴 후

10년, 길어봐야 20년이었으나, 앞으로는 50년, 60년의 건강한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평균 57세에 은퇴한다. 은퇴할 때까지 살아온 기간만큼 창창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

이제는 은퇴 후 10년이 아니라 30년, 50년을 하며 지낼 일을 찾아야 한다. 본인이 하고 싶었던 분야를 전문가 수준으로 익혀 취미도 살리고 돈도 벌 수 있는 정도의 경지까지 올려야 한다. 평생교육원에서 배우는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라 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신학, 철학, 문학 등)도 하고 기능사 자격증(안경사, 조경, 화훼 등)을 취득하며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활기차게 보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사진을 배운다면 일류 사진작가가 되어 전시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할 수준으로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뜻이다.

자원봉사 활동도 단순한 시간 때우기나 체면치레가 아닌 인생의 의미를 되찾고, 실질적으로 사회와 국가에 도움을 주는 진정한 의미의 노블리스 오블리쥬(noblesse oblige)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 3가지, 즉 빈곤, 질병, 외로움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와 사회와 개인이 함께, 그러나 나부터 스스로,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창조해가면서!

자! 여러분

평소에 내가 여러분께 이야기하던 것이 이제 더욱 현실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씨 말대로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120살까지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준비를 막연히 해야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재설계를 해야합니다.

요즘 내가 부쩍 분주해지기 시작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백서른여덟 번째 만남 _ 2009. 7. 7

작년 9월이후 줄곧 이제까지 밤잠이 괴로워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나의 인생에서 처음 있는 긴 기간이었다.

최근 은근히 수면제 양이 늘어나기 시작해 걱정되어 주변에 이야기하기 시작했었다.

모두가 관심있는 척도 하지 않았다.

자기들은 “뭘 별거겠어”라며 시큰둥한 표정들이었다.

그런데 어떤 젊은 女人在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인터넷을 찾아 수면제 끊는 방법에 대해 길게 설명된 메일을 보내왔다.

그래서!!

몇 번 시도해 보았지만 그 다음날 견뎌야 할 괴로움 때문에 참고 뒤척이다 그만 두 시쯤 약을 털어놓고 잠을 청한 적이 한두 번 아니었고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마누라는 본인이 견디기 힘들면 자기는 나 때문에 20년 동안 먹었으니 니도 먹으란 이야기다. 마이클 잭슨도 죽었다니 뭔지 모르겠지만 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때 그 젊은 女人在 내게 한 말은

회장님은 우리들에게 직면! 직면! 말씀하셨는데 회장님은 왜?

직면하지 않으시는데요?

직면이 뭔데?

수면제 안 먹는 거잖아요!

그 후 나는 오늘밤까지 16일째 수면제를 먹지 않았다.

그렇대!!

인생을 살면서 뭐가 잘 안되는지 우리 관찰하면서 살아보자.

사백서른아홉 번째 만남 _ 2009. 7. 8

우리는 예술가와 친구가 되고

문화 예술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 후에 경영자는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영자의 숙명이다.

439

438

사백마흔 번째 만남 _ 2009. 7. 9

지난 6월 30일 암(아마도 평소에 출담배라 폐암일 가능성)으로 세상을 떠난
현대무용가 피나 바우쉬(1940. 7. 7~2009. 6. 30 독일)는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예술가 중 하나다.

피나 바우쉬는 독일 평론가 요헨 슈미트의 인터뷰에서

“나는 어떻게 사람이 움직이는 지에는 관심이 없다,

대신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지에 관심이 있다”

그만큼 피나 바우쉬의 작품은 무용수들이 쏟아내는 고통, 증오,
욕망을 충격적으로 폭로하는데 이는 적나라하고 노골적이며
자기고백적이다.



아름다운 동시에 낯설고, 비극적인 동시에 희망적인 그의 작품은
언제나 관객을 매료시킨다.

그는 2003년 4월 30일 우리회사를 다녀갔고 기념식수를 했다.

우리회사에 가장 큰 손님이다.

대통령보다도, 나에겐.

지금도 잊지 못할 2003년 LG아트홀에서의

“마주르카 포고” 공연은 내 영혼에 깊이 각인된

명연출이었다.

그녀는 갔지만 우리에게 남긴 흔적은 영원할 것이다.

40

사백마흔한 번째 만남 _ 2009. 7. 10

달이 떠오른다.

노르마는 드디어 점술로 신탁을 부르는 기도의 카바티나(정결한 여신이며 Casta diva)를 부른다.

이 장대한 아리아는 이탈리아 전 오페라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명곡이다.

어려운 장식적인 기교에 난해한 멜로디 라인을 잡아야 하고 넓은 음역을 자유자재로 누벼야 하고 복잡한 심정을 심리적인 표현으로 표출해야 하는 난곡으로 유명한데 이것을 스웨덴에서 온 곤잘레스와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인 소프라노 박현주로부터 듣게 되었다.

노르마 역의 소프라노 박현주와 폴리오네 역의 이정원에게 듣게 됨이, 실로 한국에서는 1988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소프라노와 테너 찾기가 한국선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마리아 칼라스(1923~1977)**의 전설적 노르마 명연기에 압도당한 성악가들이 고음과 저음을 미친 듯이 넘나들며 조국과 사랑, 모성애와 질투, 배신과 복수, 용서와 희생 사이에 번뇌하는 여인을 맡기 힘들어 해왔기에 나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장마 시즌에 땀을 잡게 된 것이다.

작곡가 벨리니는

“만약 나의 배가 바다에 빠진다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노르마 하나만을 건지겠다”

하여 명작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자긍심을 표현한 바 있다.

참고로 마리아 칼라스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 한국 관객에 잊지 못할 공연을 선사하고 3년 뒤 갑작스레 죽게 되어 그의 영원한 아리아 정결한 여신은 다시는 못 듣게 되었다.

여러분 꼭 한 번 CD로 들어봐주길 바란다.

나는 Casta Diva를 나의 친구 소프라노에게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사백마흔두 번째 만남 _ 2009. 7. 13

의무 있는 외부세계를 정의한다.

핵심 비즈니스를 결정한다.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추구한다.

가치관과 기준을 확정한다.

이것이 CEO가 해야 할 일이라고 P&G회장이 이야기하였다.

무릇 외부세계는 변화한다.

변화 속에서 내부조직과 외부세계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CEO란다.

여러분 나를 비롯해 우리회사 CEO가 위의 길을 가지 않고 있으면 강력히 요구해야 할 **직분이 곧 주인정신**이다.

오페라 나부코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곡은 오페라에서 꼭 앵콜을 받고 있음)

곡 내용을 “가라 내 마음이며, 금빛 날개를 타고...”

이전 1분 메시지에 소개한 적이 있다.

이처럼 유대인이 바빌론(아시리아)왕에 잡혀가 먼 이국땅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하늘에 기도만 올린다(물론 하늘은 그 오페라에서 히브리인을

돌려보내준다)

여러분 위기에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피와 땀이란 이야기도 한 적이 있다.

결코 노예가 되어선 안 된다.

사백마흔세 번째 만남 _ 2009. 7. 14

오페라는 테너와 소프라노가 사랑하지만

바리톤 때문에 침대에 들어가지 못한다

- 버나드 쇼

일반적으로 테너와 소프라노는 연인, 바리톤은 악역임을 대신하는 말이다.

얼마 전 천마아트센터 개관 기념(작년 태창장학재단에서 건립기금 1억 제공) 공연으로 오페라 '박쥐'가 공연되었다.

요한 슈트라우스 II세가 오페레타 박쥐를 작곡, 성공했던 이유는 폴카와 왈츠를 번갈아 추면서 매일 무도회를 열었던 19C 빈의 풍경을 담았기 때문이다.

그 시절 점잖은 남녀가 왈츠일 경우 여자의 허리춤에 손이 들어가고 남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신체 접촉이 가능했기에 빈에서 시작 유럽 전역에 열병처럼 퍼지게 되었다.

2박자 폴카, 3박자 왈츠, 4박자 행진곡을 남녀가 각각 번갈아 파트너를 바꾸며 춤 춘다는 건 정말 스릴 만점이다.

뮤지컬 왕과 나에서 추는 "Shall We Dance?"가 바로 폴카다.

안나 카레리나에서 브론스키와 안나는 처음 만나 왈츠를 춘다.

그런데 영대 공연에서 박쥐 여주인공 헝가리 여인 로자린네는 한 번도 왈츠를 추지 않았다.

박쥐는 주제가 삼페인, 왈츠, 키스다.

사백마흔네 번째 만남 _ 2009. 7. 15

여러분 우리 잠깐 쉬어갑시다.

자네 집에 술 익거든

- 김육

자네 집에 술 익거든 부디 날 부르시소.
내 집에 꽃 피거든 나도 자네 청하옵네.
백년 덧 시름 잊을 일을 의논코자 하노라.

이게 한국인이다.

사백마흔다섯 번째 만남 _ 2009. 7. 16

여러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농지확보전쟁 중입니다.

3년 전부터 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나훗카, 하바로스크 일대의 연해주 지역에 땅 확보를 위해 뛰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몽골은 거의 일년간 박진우 과장과 함께 집중했었습니다만.

참고로 일본 종합상사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해외 농장지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규모는 1,200萬hr(서울시의 200배)입니다.

중국 기업도 아프리카 남미 농지 취득에서부터 필리핀, 라오스, 러시아, 호주 등 210萬hr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해외 농업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러시아 영사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51%로 OECD 29개 국가 중 26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향후 국가발전과 식량위기 대비책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사백마흔여섯 번째 만남 _ 2009. 7. 17

나는 나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지 않는다.

나의 시간은 남이 돌아보게 해야한다.



사백마흔일곱 번째 만남 _ 2009. 7. 20

외손녀 채린

어딜 며칠 다녀왔더니 딸이 딸을 낳았단다.

이제 내 딸 아이도 아들, 딸을 낳았으니 차츰 인간의 길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외손녀를 잠깐 보고 오는 길이다.

그런데 그 외손녀가 예쁘게 태어났다면 집사람은 걱정을 한다는 것이, 어릴 때 예쁘게 태어난 아이가 크면 못나진단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면 크면서 마음이 예뻐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내 사랑하는 외손자, 외손녀는 몸과 마음이 다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면 그들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人間이 태어나서 살다보면 조금씩 완성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사라지는 것이다.

오늘은 참 기쁜 날이다.

448

사백마흔여덟 번째 만남 _ 2009. 7. 21

어느 성악가가 내게 준 저자 주제 사라마고(José Saramago)의 책
『죽음의 중지(Death With Interruptions)』를 주말에 쉬면서 읽어보았다.
책의 내용 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모두 다 일어날 것이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

살아서 그것을 다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무도 죽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될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좋은 일만이 아닌 요즘이라면 산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해서 못 볼 꼴을 다 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혹시 오래 산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아예 죽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꼴을 보게 될까?

449

사백마흔아홉 번째 만남 _ 2009. 7. 22

여러분, 미술공부하다 보면 이런 재미있는 그림도 있답니다.

리베라의 수염 달린 여자(La Mujer Barbuda)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聖女는 이렇게 아름답다고 엘 그레코는 그리고 있습니다.



José de Ribera, <La Mujer Barbuda>,
Oil on canvas, 196×127cm, 1631년

El Greco, <Holy Family>,
Oil on canvas, 127×106cm(부분), 1595년

450

사백췌 뵐째 만남 _ 2009. 7. 23

여러분! 시인 고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사랑에 주려 아래로만 흘러가고 있소”
 우리 인생도 사랑에 주려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끝 바다에는 “사랑없소”
 그렇습니다.
 사랑도 췌이 흘러가는 동안입니다.
 그 흐름 속에 인간의 거대함이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이 순간,
 나는 여기 이곳이어야 합니다.

451

사백췌한 뵐째 만남 _ 2009. 7. 24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을 화합 통합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분해 분열시키는 집단이다.
 우리는 왜 훌륭한 두목이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 아니란 말인가?

사백췌두 뵐째 만남 _ 2009. 7. 27

요즘 난 벌컥 화를 잘 낸다.
 아마도
 올분인 것 같다.

452

사백췌세 뵐째 만남 _ 2009. 7. 28

여섯 번째 만남에서
 당진 부곡지역에 땅 18,000坪 있다는 이야길 했었다.
 그 땅을 작년에 8,000坪을 팔고 올해 10,000坪을 처분했다.
 그것을 처분한 땅값과 차액으로 태창·신라 불항기를 꺾으며
 환차손과 어려운 자금원에 대체하였다.
 나로선 서해안 시대를 열자는 큰 포부를 접은 셈이다.
 그리고 다시 포항 신허만 땅을 반납하여 150억을 돌려받아
 티시테크를 정예화 할 것이다.
 이것도 동해안 시대를 열자는 포부를 접은 셈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더욱 섬세하게 회사들을 정비해야겠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샅다가 팔기도 한다.

여러분과 만난지 곧 500번 췌가 다가오네요.
 그땐 제게 파티 한 번 해주세요.
 휴가라서 며칠 쉬다 다시 만납시다.
 劉財成

3
2
4

사백쉰네 번째 만남 _ 2009. 8. 17

예술가들과 애호가들의 관계는 대충 이렇다.

예술가들이 무대에 서거나 전시회를 열거나 할 즈음이면 예술가와 애호가들은 마치 평생 함께 살아갈 사람처럼 서로 호들갑을 떨기 시작한다.

갑은 마치 매일 만나는 것처럼 공연이나 전시가 있다고 부쩍 나대기 시작한다.

또한 을도 그때부터 마치 영원한 팬인 것처럼 갑에 대해 공부도 하고 관심을 평생 가진 것처럼 분주하기 시작한다.

그리곤 공연장이나 무대에서 서로 부딪칠 땐 엄청난 소리들을 낸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서로 잊어버리기 시작한다.

갑은 다음 공연이나 전시가 있을 때까지 조용히 사라진다.

그리고 을도 다시 연락 올 때까지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다가 다시 때가 되기 시작하면 서먹해지기 시작한다.

갑은 어떻게 연락할까 고민하고 을은 어떻게 갈까 고민한다.

이런 모든 것이 인생이다.

나도 그렇고.

그런데 간혹 갑과 을이 오버하면 서로 긴장하게 되고 주위사람들도 괜히 긴장한다.

사실 인생은 갑과 을이 서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깊이 깊이.

또한 갑이 프로일 땐 더욱 을을 무시한다.

을도 역시 갑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자기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면서 말이다.

사백쉰다섯 번째 만남 _ 2009. 8. 18

작년 러시아 연해주에 쌀농사 지으려고 땅 사러 다녔다는 이야기했었다.

우슬리스크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었다.

하나는 **김일성**이 독립운동하러 러시아를 헤매다 우슬리스크에서 **김정일**을 낳는다.

아래 사진이 바로 그가 태어난 집인데 들어갈 순 없었다.

또 하나는 **이상설** 선생 **유허지**에서 묵념을 하고 왔다.

그 선생도 하루 빨리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덜 쓸쓸하실까?

우리 국회의원들 제발 좀 싸우지 말고

국가가 누구인가 생각해보자.



2009년 6월 5일 수성아트피아 용지홀에서 카르멘 모타 “푸에고” 공연이 있었다.

집시들의 뜨거운 피를 기반으로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일궈진 유럽과 동양 문화의 절묘한 어울림, “플라멩코”는 스페인의 뜨거운 태양과 만나면서 탄생한 지극히 문화적인 산물이다.

우리에게 흔히 민속춤으로 알려져 있는 “플라멩코”는 유럽의 위대한 음악 형식 중의 하나로 이미 세계적인 인지도를 획득, <월드뮤직>으로 자리 잡은 장르이다.

<플라멩코>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 캐스터네츠를 들고 리듬을 맞춰가며 추는 열정적 춤 이상의 문화로서 음악과 춤, 노래가 공존하는 영혼의 집합체이다.

이것은 집시들의 뜨거운 피와 스페인의 붉은 태양이 만나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플라멩코’라는 문화는 집시들의 슬픔을 승화시키는 축제나 펍박 받는 영혼이 재료가 되어, 문화의 전이와 유럽 계급문화에 대한 저항정서, 그리고 스페인의 뜨거운 태양이 만들어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푸에고’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란 뜻으로 가슴 속 사랑을 불꽃처럼 일으키는 플라멩코 댄스 뮤지컬이다.

플라멩코의 국보라 칭송받는 카르멘 모타가 이끄는 국보급 무용단은 푸에고를 통해 집시의 깊은 춤 전통 플라멩코를 세계적인 공연으로 등극시키며, 플라멩코의 고전과 현대를 가장 완성된 공연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플라멩코의 세계화를 이뤘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브로드웨이 스타일의 화려하고도 세련된 쇼적 구성과 함께 집시들의 영혼을 태우는 몸짓인 플라멩코의 춤 동작(바일레)은 황홀경과 함께 관객들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고, 집시의 애절한 노래(칸테)와 기타 연주(또케)는 울컥하는 감정의 폭발을 느끼게 하면서 관객들을 특유의 매력으로 이끌어 절정적 도취와 함께 전율의 순간 두엔테를 경험하게 한다.

나는 여행을 하다보면 그 나라 그 지역 민속춤을 접하게 된다.

집사람과 55주년 사사 완성의 공을 세운 나윤정 차장과 함께 스페인 여행 중 플라멩코 춤을 잊을 수 없어 서울 LG아트홀에 마드리드 국립 발레단이 오면 어김없이 보러 간다.

얼마 전 이정아 선생 제안으로 이윤경 선생과 우혜영 선생이 플라멩코 강사 초빙해 함께 춤공부하는 걸 도와주기로 약속했다.

이집트 여행 중 우리 임원들에게 벨리 춤은 대부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브라질 리오 카니발 때 강원구 회계사와 박연묵 교수와 함께 삼바춤을 추며 브라질 여인과 함께 어울렸던 것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춤 실력은 빵점이다.

왜냐면 나의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춤바람이 나서 어머니와 싸움하던 것이 어릴 때 나에게 충격이어서 결코 춤을 추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었다.

어린시절 무용선생이 내 긴 다리를 탐내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날 춤을 배우게 하겠다고 아버지를 조른 적이 있었다.

그때 만약 내가 춤을 추었다면 지금쯤 무엇이 되어 있을까?

그 긴 다리로 여자를 얼마나 울렸을까?

사백원일곱 번째 만남 _ 2009. 8. 20

작년 TC TECH 재고조사 결과 전대미문의 대형 과실을 초래했었다.
 나의 40년 경영에 치명타를 맞은 셈이다.
 그것의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금년 8월 재고조사에서 과실이 또 발생했다.
 현재 TC TECH 대표이사는 나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박대환 관리본부장에 9월 급여 50% 삭감 신청을
 했다.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다음 재고조사엔 다시는 대표이사가 감봉 당하지 않는 선례를
 남겨야겠다.
 그럴려면 재고부터 전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맞추어 주셔야겠다.
 다음에도 완성이 되지 않으면 내 자신 더욱 큰 벌을 받겠다.

사백원여덟 번째 만남 _ 2009. 8. 21

내가 지난해부터 고민과 고통과 불면의 연속이었던 시간을 직면해보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었다.
 지금 보면 허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두목은 항상 닥쳐올 미래에 대한 직면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민을 자세히 분석해보세요.
 지금 현실이 아니고 닥쳐올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것입니다.
 즉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불안해 하지
 말고 바로 척결하세요.
 그런데 法頂스님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행복 또한 “스쳐지나간다”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길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오만한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이르기를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한 것이다”
 어쨌든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닥쳐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걱정하자.

사백선아홉 번째 만남 _ 2009. 8. 24

여러분 自我(ego)가 무엇인지 아는가?

나는 30年前 정신과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정의했다.

“現在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를 관찰하고 있는가?

자아도 항상 직면해야 한다.

공자님은 중용에서 이것을 시중(時中)이라 하였다.

철학적으로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 서양 철학자(사실 그리스 문명의 전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출발선이다)는 말하고 있다.

정확히 자아는 기억, 평가, 계획하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물리적, 사회적 세계에 반응하며 그 속에 행동하는 부분이다.

정신분석이론에서 프로이트나 융은 외부세계와 내부세계의 통합자라 표현한다.

여러분은 잘 발달된 자아를 전 생애에 걸쳐 변화시켜야 함이 직면이다.

나는 간혹 신입사원 면접 시험을 볼 때

“너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톱 던진다.

그 친구曰

“저는 지금 면접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 채용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사백예순 번째 만남 _ 2009. 8. 25

노자는 自然은 의도적이지도 않고, 소유하지도 않고, 목적이 없다 하였다.

하늘과 땅은 만물을 돌봐주지만 자랑도, 군림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

하였고,

해서 두목은 천지의 마음으로 무위의 리더십을 발휘해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자연의 결과에 도달하도록 하라는 무위철학 즉

無爲自然을 주장한다.

나도 요즘 사람을 만날 때는 의도적이지도 않고, 소유하려고 마음먹지도

않고, 만나는 특별한 목적도 없다.

나 또한 그들에게 나누어 주지만 자랑도, 군림도, 간섭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나의 문제인 것이다.

461

사백예순한 번째 만남 _ 2009. 8. 26

국악 정가(시조창)하는 아이 민희의 공연이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있었다.

초대 혹은 고백

가곡은 노래입니다.

그렇게 고상하지도, 어렵지도, 별나지도 않은
그저 노래입니다.

흔해 빠진 사랑노래
가곡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노래가 이토록 듣기 어렵냐구요
사랑을 기다리던 마음으로 찬찬히 노랫말을 기다려보세요.
아마 들릴 거예요.
사랑을 노래하던

그리움을 노래하던
이별을 노래하던
기다림을 노래하던
당신의 마음이 가곡의 느릿한 떨림을 빌어.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그냥 노래하고 싶습니다.
길다란 사랑노래 말이죠.

박민희

노래를 두 시간 가량 듣고 있으려니 참 어렵기도 했지만 꼭 참고
열심히, 열심히 목소리도 듣고 **가아금, 양금, 해금, 대금, 피리, 장구,**
거문고의 연주 소리도 하나하나 구분하여 들으려고 노력하며 한참
지나니 조금씩 구분이 된다.

양금과 해금은 소리가 따로 나질 않고 다른
악기와 합쳐진다.

국악의 악기는 역시 어울림이고 철저한
비빔밥 소리다.

여러분, 노래 가사를 한 번 읽어보시라.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돌에내여
춘풍 이불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룬님
오신날 밤이어든 굵이굽이 펴리라

청조야 오도고야
반갑다 남의소식



박민희

약수 삼천리를 네 어이 건너온다

우리님

만당정회를 네다알가 하노라

한숨은 바람이 되고

눈물은 세우되어

님자는 창밖에 불면서 뿌리과져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어저 내일이여

그릴 줄을 모르던가

이시라 하드면 가라마는 제구타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몰라 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인가

여창자 박민희는 국립 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 음악대 대학원을 졸업, 중요 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전수 장학생으로 이번 공연은 태창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공연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무엇이든 닦치는 대로 공부합시다.

사백예순두 번째 만남 _ 2009. 8. 27

SERI CEO를 읽다보니 최근 나의 삶과 함께하는 글이 있어 반갑다.
영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첫째, 현재 자기 몸의 고통과 질병을 완치하는 것

둘째, 현재보다 강한 내 몸을 만들 것

셋째, 죽을 때까지 은퇴는 하지 말 것

넷째, 보다 창조적인 방향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란다.

다행히 나는 이미 이것을 다 이루었다.

남은 것은 120살까지 어떻게 사느냐다.

난 이것도 알고 있다.

슬슬 실천할 뿐이다.

사백예순세 번째 만남 _ 2009. 8. 28

내가 처음 스쿠버 다이빙을 했을 때 촬영부터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남들처럼 삼지창을 들고 작살질이나 해서 고기를 잡아 회를 쳐 먹던
시절도 있었다.

그 후 어쩌다 내 신세가 처량하단 생각이 들어 작심하고 바꾼 게

수중촬영이었다(한국 최초 수중사진 전시: 서울 갤러리)

그것도 많은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는답시고 바닷속 산호초를
다 파괴하는 바람에 걷어치우고 요즘은 유유자적 맨몸으로 바다 속을
헤매고 다닌다.

작살질하던 시절 동해바다에 입수했다 하면 1m급 대형 문어를 사투
끝에 잡아나와 내 손에 요리되어 술상에 오르게 되고, 그때 문어 잡는
이야기가 술상에 느즈레 오르게 되어 감포 조성근 아저씨와 해녀
아주머니들은 나를 文魚 도령이라 하였다.

문어는 선비들이 물고기 중 으뜸으로 쳤다.

이름에 글월 文자가 있듯이 바닷 속에서 몸을 낮추어 살아 겸손한
선비를 닮았다 하여 양반동네 잔치나 제사상에 오르는 것이 文魚다.

문어와 사촌형제로 낙지와 꾸꾸미가 있는데 몸 크기가 다르다.

문어(3m)가 가장 크고 낙지(70cm)가 그 다음이고 꾸꾸미(20cm)가
볼품없는 못난이 막내다.

3, 4월 산란기의 꾸꾸미는 살이 통통하고 먹통에 밥알이 가득하며
칼로리가 낮으면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빈혈에 좋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영양만점의 물고기다.

그래서 봄 꾸꾸미, 가을 문어·낙지다.

이제 옥잠화 필 즈음이면 동해안 문어가 여러분을 기다릴 것이다.

마침 포항 관리부 주영주 이사가 감포 별장을 잘 수리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단다.

사백예순네 번째 만남 _ 2009. 8. 31

지난 시간 잠깐 언급했던 판소리 이야기 해보자.

판소리는 소리, 광대소리, 타령, 잡가, 창, 창악, 극가, 창극조라 하여
왔는데 지금은 판소리로 통일되고 있다.

판소리 작품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변강쇠가,
웅고집전, 장끼타령, 배비장타령이 있지만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가 대표적 판소리다.

판소리 창법에 따라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로 나누는데 동서의 구분은
섬진강 동쪽(운봉, 구례, 순창, 흥덕), 서쪽(광주, 나주, 보성)으로 나누며 송홍록
명창에서 비롯한 씩씩한 우조의 창법을 동편제라 하고 서편제는
박유전에서 비롯한 애절한 느낌의 계면창법(唱法)이고 중고제는 경기
충청 지방에서 유통된 염계달 명창류 창법이지만 오늘날에는
이 소리를 전하는 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한국의 소리 공부를 해야 서양의 소리와도 비교가 되니
얼마나 재밌는가?

사백예순다섯 번째 만남 _ 2009. 9. 1

소리꾼은 소리를 부채처럼 펼쳐 놓아야 하는데 떡묵처럼 딱딱하고 구성이 없으면 소리가 싱거워진다.

세성이란 얇은 소리를 말하는데 일본의 엔가는 더욱 가공된 세성이라 하겠다.

소리의 키포인트는 소리의 구성과 공력(쌓이는 기술, 내공)이 깊어야 하는데 타고난 명창을 우리는 **천구성**이라 하며 그들은 좋은 목을 가지고 태어난(안숙선, 정은혜) 사람이 단련과 훈련을 통해 수리성이 되는데 자칫 목을 상하게 하기 일췌이다.

탁하면서 맑고 높은 소리일 때 감아채는 기술이 실려야 한다고 선배들이 “넌 목이 아직 안 터졌어” 라고 정마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얼른 서방을 얻고 난 후 선생에게 “선생님 저 목 터졌는데요” 하더라.

위에 목을 밑에 목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가령 소리꾼 중에 나쁜 목을 가졌거나 잘못된 목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사람을 **노랑목** 졌다고 하는데 비음을 내거나 구성이 나쁜 발성법이고, 일부러 귀여울려고 켜시한 소리를 내면 **내송목**이라 하며 그래도 **마른 목**, **가물진 목**(고목나무 등껍질처럼) 보다는 낫다.

소리 공부도 이렇게 어렵다.

세상에 안 어려운 게 어디 있을까?

좌우지간 이것도 한 번 우리 섭렵해보자.

466

사백예순여섯 번째 만남 _ 2009. 9. 2

판소리의 음색도 서양음악과 같다.

최상성이 콜로라투어이고 **중상성**이 리릭이며 **평성**은 드라마틱한 음색이고, **하성**은 메조소프라노며 **중하성**은 알토이며 **최하성**도 있다. 또한 판소리에서 “조”는 곡의 분위기(mood)를 의미하는데 여러분이 영화 서편제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곡은 **계면조**이다.

계면이란 구슬프고 애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슬픈 곡조**를 말한다.

인간의 삶이 한숨과 눈물로 가득찬 人生이거늘 그것을 판소리 계면조로 승화시켜 천년의 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 국악인 정은혜의 판소리가 9월 15일 국립국악원에서 춘향가를, 서울대학 콘서트 홀에서 9월 20일 홍보가로 이어지며 10월 23일 남산국악당에서 수궁가가 이어진다.

우리 오페라만 공부할 게 아니라 우리 국악에도 폭 빠져보자. 다음엔 경기민요를 들려주겠다.

465

정은혜 프로필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_ 2006. 2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석사 과정 _ 現
- 21C를 빛낼 우수인재상 대통령상 _ 2002. 2
- 제8회 완산국악대제전 판소리 일반부 대상(국무총리상) _ 2003. 9
- 제17회 동아국악콩쿠르 학생부 판소리 금상 및 종합 특상 _ 2001. 5

정은혜 노래 시리즈

- 정정렬제 춘향가 완창 _ 2001. 7
- 정은혜 심청歌 완창 _ 2008. 9
- 정은혜 심청歌 실황음반 발매. _ 2009. 1
- 정은혜 흥보歌 공연 예정. _ 2009. 9. 2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 홀
- 정은혜 수궁歌 공연 예정. _ 2009. 10. 23 서울 남산국악당 금요상설무대
- 국악방송 새음원시리즈 젊은 명창이 꿈꾸는 판소리 사랑 발매.
- 젊은소리꾼5인 유네스코 선정 판소리 CD 제작 국내 및 해외발매 <신나라 뮤직>
- 영화 <라디오데이즈> OST 참여
- 전주 MBC “얼췌 우리가락” 방송.
- ‘전라도의 멋, 전라도의 가락’ 초청공연.
- 비빙 불교음악프로젝트 <이와 사> 3회 공연.
- 독일 부퍼탈 피나바우쉬페스티벌 초청 심포카 “바리” 공연.
- 백남준페스티벌 ‘NOW JUMP’ 남화연 & 장영규프로젝트 “6.1채널” 공연.
- 벨기에 한국문화의 달 초청 심포카 “바리” 공연.
- 정은혜 소리판 정정렬제 춘향가 “빙설옥결 <氷雪玉潔> 열녀춘향” 공연예정 _ 2009. 9. 15 국립 부산국악원
- 전북도지정 문화재 자산 최승희 선생께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사사
- 국가지정 문화재 운산 송순섭 선생께 박봉술제 적벽가 사사
- 서울대 국악과 강사 김수미 선생께 유관순 열사가 사사
- 안은미 COMPANY 음악팀으로 활동. _ 2006~2009
- 음악그룹 BE – BEING 멤버. _ 2007~2008



467

사백예순일곱 번째 만남 _ 2009. 9. 3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잊혀지는 것이다”

얼마 전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의 말이다.

그러면서 또

“이 세상은 살 만한 곳이야”

라고 하였다.

그분의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사서 읽어주기 바란다.

여러분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그 자리가 얼마나 꽃방석인지 말이다.

사백예순여덟 번째 만남 _ 2009. 9. 4

내가 여러분께 쓰기 시작한 “아름다운 경영 유재성 회장의 1분 메시지”는 10월 21일 정이면 500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젠 그만 쓸 작정이다.

확실히 이 글은 내 영혼을 여러분께 다 보여준 글이었다.

적어도!!

물론 출발은 우리회사 고문으로 있던 이재규(前 대구대 총장) 씨가 나의 이름으로 자기가 쓰기 시작했다. 나는 무심코 쓰는 걸 허용했더니 그 글은 나의 글이 아니고 자기(이재규)의 글이었다.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쓰겠다” 한 것이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 중단하고 우리 서로가 돌아보자.

나는 누구였던가,

여러분의 나는 누구인가를.

나의 글을 통하여!

기획실에서 나의 1분 메시지를 정리 분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10월 31일 전 임직원들이 나의 글로 자유토론을 계획한단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좋은 제안이라 받아들이고 한 번 함께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社外 나를 아는 知인들이 내 글을 읽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

그날은 함께 신나는 놀이마당이 되어 서로 人生을 토론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 기꺼이 초대하고 싶다.

참석하실 분은 비서실이나 기획실로 연락주시면 정중히

대접하겠습니다. 꺼리지 말고 오셔서 충고와 질책도 바라겠습니다.

비서실 : 053-589-1112

468

사백예순아홉 번째 만남 _ 2009. 9. 7

지난주 금요일 태창, 신라 상반기 매출, 영업 이익 포스코 판매점
대비 우리의 위치를 보고 받았다.

신라는 약진, 태창은 저조한 상태다.

10년 이익 평균도 신라가 앞선다.

태창의 즉흥적인 경영이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분발해야겠다.

태창도!!

신라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향후 이익도 가장 선두에 서는 신라가 돼주기 바란다.

사백일흔 번째 만남 _ 2009. 9. 8

오늘은 내가 교만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지금 이 시간도 나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런데 천명을 만나봐도 그 사람은 없다.

이 나이에, 또 이 시간에.

나는 지금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잘 찾아지지 않는다.

그래도 한 번 찾아보고 싶다.

그런데 왜 나는 새사람을 찾을까?

나와 함께 하는 그 사람도 내겐 충분한 사람들인데

그럼 나는 언제까지 사람을 찾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밤 고민하는 나의 문제다.

사백일흔한 번째 만남 _ 2009. 9. 9

나의 할아버지 炳文(병문)公은 白壽(백수)하시고 돌아가셨다.
 나이가 많아서 자주 드러눕게 되면 항상 의사를 찾으셨다.
 그때마다 나의 친구 조호철 원장이 동원된다.
 흰 가운과 청진기를 들고 여간호사를 대동하고 진찰한 후
 조 원장은 항상
“할아버지 아무 병도 없습니다.
내일이면 일어나실 겁니다.” 말했다.
 그러면 정말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셔서 마당을 쓸고 계신다.
 한 번은 조 원장이 진찰 후
“할아버지 백수하십시오”
 하며 절하고 나오는데 내가 원장에게
“우리 할아버지 구십아홉살이다 지금”
 했었다.
 조 원장과 술자리서 이야기 중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평생 최대의 실수가 백수하시란 말이었던단다.
 이제 우리들은 백수, 이백수 시대에 살고 있다.
 흰 가운과 청진기와 여간호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사백일흔두 번째 만남 _ 2009. 9. 10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 꼭 가르치려 하는 사람 말이다.
 그 사람은 하는 말이 구구절절이 다 맞다.
 그런데 나는 아는 것도 없으면서 가르치려 하니
이게 곧 내 병이다.
 부처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득도한 후 자신의 본색을 감추고 쉽게
 불법을 설파하였다고 한다.
 부처는 자신을 낮추어 세상의 상식에 눈높이를 맞춘 것이다.
 이것을 老子는 도덕경에서 화광동진(和光同塵)이라 하였다.
 리더의 화광동진 철학은
 지자불언(知者不言) 진정 아는 자는 말이 없다.
 언자부지(言者不知) 말이 많은 자는 정말 아는 자가 아니다.
 색기태(塞其兌) 당신의 입을 닫아라.
 폐기문(閉其門) 당신 머리 속의 의도를 닫아라.
 좌기예(挫其銳) 당신의 날카로움을 버려야 한다.
 해기분(解其紛) 당신의 현란한 말을 쉽게 풀어야 한다.
 동기진(同其塵) 상대방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이런 리더는 현동의 철학을 가진 자(是謂玄同)라 했는데 진정 내가
 모자랐던 것이 바로 이 점이다.
 SERI CEO에도 우수마발이 다 나의 스승이라 했듯이 찾아보면 새길
 것이 참 많다.

사백일흔세 번째 만남 _ 2009. 9. 11

나의 바다낚시 경력은 이미 40년이 넘는다.

대학시절 몇 년 민물낚시를 제외하고는 나의 바다낚시는 전문가 수준에서도 톱일 것이다.

첫째 전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고 어종도 고래, 상어를 제외하곤 대상 어종은 찬란하다.

잡은 제일 큰 고기는 20년 전 집사람과 동대구외과 부부와 괄에서 트로링으로 바다와 노인(헤밍웨이 作)에서 트레시 하워드(노인 역)가 잡은 **섬머마린(녹새치 2m크기)**을 1시간 사투 끝에 끝내는 선장의 도움으로(혼자는 불가능) 잡아올리게 된 것으로 모든 세계 낚시꾼에게 환상의 어종이다.

그 외엔 국내에서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일대와 제주도 낚시가 주요 포인트였다.

대상 어종도 돔 종류, 능성어, 갈치, 한치, 복어, 쥐고기, 만세기, 가다랭이, 방어, 참치, 다금바리, 볼락, 송어, 민어, 농어, 문어, 저림, 고등어, 전갱이, 보리멸, 황어, 망상어, 게루치, 넙치, 따찌, 가자미, 전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심지어 삼지창 들고 물 속 사냥까지 감행했던 이야기는 했었다. 결국 모든 대상 어종과 모든 장소와 물속 다이빙 사냥까지 했으니 얼마나 다양한 낚시를 했는지 짐작해주시 바란다.

물론 요즘도 제주 당일치기 트로링(끄심바리)으로 방어, 참치, 가다랭이, 만세기 등을 잡아 예술인들과 소주잔 기울인다.

사십년 낚시 인생에 나와 동행한 낚시인도 수백명은 족히 넘을 것이고 그 경험을 평생 못 잊어 하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특히 한치라면 맛은 더욱!

난 이렇게 항상 나누고 베풀어 왔다.

나의 바다낚시 친구 1호인 제주도 부창옥(제주 바다낚시협회장) 씨가 나의 선생이고 친구다.

30년 전에 제주에 토요일 낚시 가면 비행장에 부 선생이 모든 정보와

낚시 채비를 준비해서 기다렸다가 함께 서귀포시나 제주시 부근으로 직행하여 밤새워 고기를 잡아(주로 참돔) 아이스박스에 가득 채워 집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그땠 그 재료로 한달 부식이 냉장고에 채워져 마누라는 항상 싱글벙글) 깨끗이 장만, 일요일 잡은 고기로 현장에서 회 쳐먹고 비행장으로 직행한다. 그땠 짐검사를 일일이 손으로 할 즈음이라 검사요원도 낚시꾼인지라 나의 낚시집과 아이스박스에 항상

관심을 가진다. 매주 낚시 와서 아이스박스 한가득 잡아가니(물론 함께 간 부 선생 고기도 내 아이스박스에) 화난 소리(지는 잘 못잡는지)

“오늘도 잡았는교?”(볼통스럽게, 왜냐면 미우니까)

“예, 잡았심더”(그 전에 시장에서 산 거 아니냐 묻길래 낚시에 걸린 고기 모양을 일일이 설명해주었다)

뚜껑 열어보니 차곡차곡 한가득(물론 그 친구 약올릴려고 큰 것은 제일 위에 채워져 있는 걸 보다 뚜껑을 탁 닫으며

“씨발 이거는 어부대!! 어부!!”

나는 속으로 싱긋 웃으며 얼른 가방을 짊어지고 탑승구로 들어간다. 그날 저녁은 우리 친구 10여 명이 은성식당에 불려나와 술과 갓잡은 고기로 파티가 벌어지는데 그때 주방장이 지금 석정식당을 운영하고 그 부인이 카운터를 본 여인이다.

그런데 요즘은 과거만큼 고기가 적어졌다.

더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도 얼른 낚시메고 감포별장으로...





사백일흔네 번째 만남 _ 2009. 9. 14

낭비의 시간 속으로 자신을 던져보자.
그리고 낭비의 시간 속에 흘러 떠내려가는 자신을 관찰해보자.
이런 것도 여행의 한 종류다.

사백일흔다섯 번째 만남 _ 2009. 9. 15

무릇 학문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에 몰입해야 하는데 기업에
기웃거리거나 정치에 줄을 대고 뛰어 들어서면 학자로서는 끝장이다.
또한 학교 교직에 매달려 대롱대롱거리는 학자나 못난 학생들이나
부추겨 자기 존재를 확보하려는 못된 학자도 많다.
거기엔 종교인도 기업인도 다 마찬가지다.

하늘이 준 천성에 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옆길로 가는 쉬운 길을 선택할까?
내가 좋아하는 비뇨기과 교수 친구는 명예욕이 강하고 현시욕도
강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의학 논문 300편이라는 한국 초유의 업적을
남긴 멋진 남자다.

일부 학자가 책을 쓴답시고 온갖 옥편, 사전, 인터넷, 다수의 책을
뒤져 낱말 끼워 맞추기식 논문이니 이거 모르는 사람을 얼마나
희롱하는 논문인가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료학자 것을 적당히 복사하거나 조교들에게 거의
대부분 논문을 위탁해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다.

그리고 제자에겐 혹자는 상당한 향응을 받고 박사 논문을 수여하는
학자도 있단다.

이게 세상이다.

이러니 우리 젊은이들이 그 청춘의 꿈을 접어버리고 빨리 타협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공자께서도 “君君臣臣父父子子”라 하셨다.

임금은 임금된 도리, 신하는 신하된 도리,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학자는 학자다워야 하는 것이다.

우리 임직원들도 맡은 바 직분에 직면함이 임직원다운 길이 아니겠는가.

사백일흔여섯 번째 만남 _ 2009. 9. 16

내가 공원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어릴 때 태어난 김천집은 채송화, 봉선화, 장독, 우물이 있던 초가집이었음은 이야기 했지만) 지금 경대 후문 집에서 40年째 살다보니 커서도 집마당에 나무를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공장을 짓게 되니 공장 정원을 가꾸게 되었다.

그때 우리회사 정원사로 일했던 **박유상** 씨가 느닷없이 내게 **모과나무 300년** 된 것이 일본으로 팔려 나간다는 소식을 전해주길래 부산에 달려가 출항 직전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나무 네 그루를(주당 500만원으로 2,000만원, 1989년 2월경) 웃돈 더 주고 대가로 다시 가져와 회사 마당에 심게 되었다.

한국의 모과나무가 일본 부잣집으로 팔려 가는 것을 잡은 것이고, **나무 수령 4点 1,200년**이 단돈 2,000만 원에 팔리는데 **흥분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20년 전 일이다.

그 후 애지중지 그 나무를 키우며 공부하며 일약 나무에 관한 부분은 상당한 경지까지 오르게 되었다.

후로 20년간 모든 나무들(주로 소나무, 모과나무, 소사나무, 백일홍 등등)을 **군위군 부계면(15만 평 부지)**에 옮겨 공원 사업을 시작하려는 참이다.

철강 외 우리회사가 내년부터 나갈 새사업의 개념은 **Human Museum**이다.

이 부문에 새로운 한상철 이사가 영입되었고 **나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직면해보고자 한다**.

그 사업을 해야하는 우리 티시그린, 파크 임직원은 이제부터 천신만고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기본에 충실하여 나무를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다.

이 사업엔 나의 부인(김경영 사장)과 나의 아들(유준혁 차장)이 향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477

사백일흔일곱 번째 만남 _ 2009. 9. 17

레마르크의 <개선문>에서 남자주인공 라비크가 결혼을 애원하는 여자주인공 장느마두에게

“여보, 당신은 사랑이 뭔지 아오?”

“나는 사랑은 뭔지 잘 몰라도 다만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였다.

그렇다.

사랑은 그냥 단순한 것이다.

476

사백일흔여덟 번째 만남 _ 2009. 9. 18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지 않는 것이 있다.

부정(저울 중량 속이는 거 등등),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나도, 내 아들도, 나의 형제들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일제시대 징병당하기 싫어 광산에서 광부도 하였고 일본인 양복점에

종업원(?) 근무경력도 있었다. 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하였고 그래서 오늘 내가 있기도 함),

투기성 사업, **노름**, **마약** 등 나 유재성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확실히 구분되는 사람이다.

이것이 나의 트레이드마크다.

즉,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걸 실천해왔고 그것을 가까이 사람들이 보아 왔었고 또 하겠다는 것도 전부 실천해 왔다.

그것도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제 겨우 반평생 살았으니 남은 인생도 뭐가 겁나겠는가.

그리고 나를 알았던 여인도 울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야 할 것이다.

사백일흔아홉 번째 만남 _ 2009. 9. 21

빌 게이츠의 아름다운 퇴장

빌 게이츠가 경영일선에서 은퇴했다.

그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자신의 후계자이자 오랜 친구이며 사업 파트너인 스티브 발머와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게이츠의 은퇴는 한 시대를 풍미한 위대한 기업인이 물러난 역사성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게이츠가 기업가로서 인류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는 그에게 ‘컴퓨터 황제’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가늠해볼 수 있다.

그가 대학을 중퇴하고 33년 전 창업한 MS는 ‘누구나 쉽게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는 이상을 실현해 컴퓨터 대중화를 이끌면서 세계 PC 운용체계(OS) 시장을 사실상 독점할 정도로 승승장구했다.

이러한 화려한 성공을 이룬 천재적인 기업인이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게이츠라는 기업인의 위대성은 그가 거둔 사업상의 성공이나 세계 최고의 부를 일군 인물이라는 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은퇴 후 부인 멜린다 게이츠와 함께 지난 2000년 설립한 보유자산 373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선단체인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제3세계의 질병과 빈곤 퇴치 등에 전념할 계획을 밝혔다.

그의 은퇴가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다.

정상에 있을 때 떠나는 모습도 아름답다.

그는 2년 전인 2006년 6월 은퇴를 이미 예고했으며, 53세로 한창

정력적으로 활동할 나이임에도 이런 약속을 정확히 지켰다.

게이츠는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여기(MS)서 비켜야 한다”

“나의 은퇴는 나와 MS 모두에게 설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남은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도력과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가 여전한데 후진들에게 길을 내주고

물러나는 일은 결코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이츠의 아름다운 퇴장은 우리나라의 기업풍토를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경영권의 무리없는 승계도 생각해볼 점이 많다.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모습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몇몇 기업에서 모범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아직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음은 아쉬움이 크다

— 매일경제

나는 앞에 글을 사설을 통해 읽고 나의 퇴장은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 중이다.

우선 내가 죽게 되면 화장해서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흠어져 뿌려져야겠다.

물론 묘비나 표식도 수목장도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장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즐겁고 신나는 잔치가

열려졌으면 좋겠다.

왜!! 퇴장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에.

죽음은 준비된 자만 영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성인들처럼!!

물론 나는 공원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 전부를 영생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사백여든 번째 만남 _ 2009. 9. 22

2009년 7월 21일 우리회사 지원으로 경기민요 이희문의 두번째

소리연주회 “大丈夫 거동봐라” 공연을 잘 마쳤다.

경기민요는 1975년 7월 12일에 중요 무형문화재 57호로 지정되었으며

목계월(본명 이찬옥 1921년생), 이은주(본명 이윤란 1922년생), 안비치(본명 안복식 1926~1997)의 세 경기 명창이 첫 예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그 이후로 안비치의 직계제자 이춘희(1947년생)가 1997년 11월 11일 재지정되었다.

현재의 경기민요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지방에 전승되는 민요 전체를 의미하며 이를 대표하는 것은 경기좌창이라 부르는 경기 잡가이다.



경기잡가 공연모습, 왼쪽부터 이은주, 목계월, 이춘희 예능보유자



잡가는 민간에서 통용되는 노래 중에 양반들이 짓고 불렀던 가곡과 가사, 비전문가들이 주로 불렀던 향토민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래를 말하는 것이며 신분이 중인 이하로 낮은 계급이지만 비교적 전문인들에 의하여 전승, 공연되는 성악곡이다.

경기잡가의 대표적 12곡은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평양가, 선유가, 소춘향가, 출인가,

방물가, 집장가, 십장가, 형장가, 달거리가 있다.

경기민요는 음악, 문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전승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춘희 선생의 직계제자 이수자가 바로 이희문이다.

우리의 옛것들이 이렇게 젊은이를 통해 이수되고 우리회사도 자랑스럽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사백여든한 번째 만남 _ 2009. 9. 23

이제야 겨우

여자가 나에게 무엇인지 알겠다.

482

사백여든두 번째 만남 _ 2009. 9. 24

여자들은 참 이상하다.

남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틀어쥐려고 한다.

모성애적 본능으로.

483

사백여든세 번째 만남 _ 2009. 9. 25

40년 전 장사 이야기 해보자.

새벽 여섯시면 일어나 북성로 철재상인 **태창철재**의 상점문(여덟짜 미닫이문)을 열고 문 앞 길에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한다.

첫 신문을 보고나면 새벽 장보러 오는 손님(철공소 주인)에게 **평철, 환봉, 앵글** 등(철재 대문 제작용)을 손수 중량을 다는 저울에서 계근(저울질)한다. 대개 200kg정도 새벽 판매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라 **입금누락** 시킨다.(그 당시 재고 수불을 하지 않을 때다)

그 돈은 그날 저녁 요정행 술값이다.

이렇게 하여 아침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그날 저녁 술집에서 친구들 중 어느 놈을 불러 함께 술 먹을까 생각하며 신나게 일한다.

그 당시 군 제대 후, 학교는 대명동 구 대구대학(현 영남대학) 야간부를 다닐 때다.

저녁이면 샤워하고 친구들을(그 당시 대학 3학년생) 불러 술집으로 직행한다.

그날 점지된 친구들은 낮부터 공부느커녕 그날 만날 술집 아가씨 생각만 하다 혈레벌떡 술집으로 직행이다.

만경관 극장 뒤에 있는 춘앵각(나미담, 바둑이 박마담, 단추구멍 김마담: 웃을때 눈이



단추구멍처럼)에 예약해 놓으면 그날 그들은 잔뜩 흥분한 상태에서 우릴 기다린다.

맨날 늙은 놈만 상대하다가 저희 또래 젊은 대학생들이 들이닥치니 거나하게 함께 취한 후(그땐 12시 통금이 있을 때) 호텔 나이트로 직행 4시(통금해제)까지 흔들다 5시경 **청도식당**에서 해장국 하고 **사보이 호텔**에서 사우나 하고 바로 집(북성로)으로 가서 한 시간 눈불이고 다시 가게 문을 열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의 장사가 시작되었다.

484

사백여든네 번째 만남 _ 2009. 9. 28

내가 가진 모든 고민은 인간이 해결해준다.
내 주위에 그 인간을 찾아내어 직면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왜 법당가를(밖을) 돌고 있나요?

485

사백여든다섯 번째 만남 _ 2009. 9. 29

보낸사람	"하경득"kdha@tc.co.kr
받는사람	"유재성"jsyoo@tc.co.kr
참조	
제목	1분 메시지 답변입니다.
받은날짜	2008.9.24 오후 11:45:41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 인턴사원 하경득입니다.

오늘 점심시간 회장님과 식사하면서, 언제나처럼 또 무언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아끼셨지만,

술에 물을 타더라도 향이 변치 않는 위스키 관련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또 하나의 정보를 얻었고, 지식을 얻었습니다.

늘 회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글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금일 점심 식사 중, 회장님의 1분 메시지를 화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죄책감)만은 나 자신한테 나는 한 번도 저본 적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세상 사는 인간 모두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크리스찬의 원죄론을 들면서), 회장님께서서는 자신에게조차 당당할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신 적이 진정 단 한 번도 없으신지”가 바로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신라철강 배은정 대리로부터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덕이라는 측면과 법규, 규범이라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의 비교를 통해

양심(죄책감)과 불법(법을 어김)의 차이를 다시 한 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회장님께서,

“이것(죄책감)만은 나 자신한테 나는 한 번도 저본 적이 없다.”

다음 내용이 무어나고 질문하셨을 때,

제가 많이도 당황하고, 앞선 문장의 내용이 제게 너무 강하게 다가와,

잠시, 뒤의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식사 후에, 몇 번이고 다시 1분 메시지를 읽으며

내용을 이해하고, 숨은 뜻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다음 문장

“물론 아직까지 쉽게 넘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문장에서 회장님 본인도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시면서

당신의 굳은 의지를 표현하신 듯 합니다.

다시말해, 앞선 문장에서, “한 번도 저본 적이 없다”고 표현하셨지만

다음 문장에서, “쉽게 넘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이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앞선 문장의 강조)

본인도 당연히 ‘죄책감’ 을 느낄 수 있지만,

‘죄책감’ 을 느끼지 않으려고(심적으로, 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의도를 표현하신 듯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요즘 이런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특히 서울 사람)

인간들이 참 많더라”라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내리는 처벌(죄책감)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며

세상을 한탄하시고 있는 듯 합니다.

회장님 말씀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알기에는

아직 제 지식이 많이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참으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짧은 글 마치겠습니다.

위의 글은 2008년 9월 24일 내게 보내온 하경득 사원의 메일이다.

여러분 이제 나의 글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되새겨 보아야 할 글들이 있는지 하경득 사원처럼 한 번

찾아봐 주세요.

20년 전 어느 날 도경에서 형사 두 명이 회사로 와서 경찰국으로 가잔다. 토요일 오후라 나무 보러 가던 참이었다.

불법으로 나무를 구입했다는 고발이 들어왔으니(영창에 들어갈 각으로 옷을 준비하라 하며) 지금 당장 끌고 갈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한 그루도 불법으로 구입한 적이 없으니

데려갈려면 영장을 가져오라” 하며 버텼다.

한참 다투다가 결국 월요일 자진해서 경북도 경찰국으로 가기로 했다. 그곳에는 평소에 나를 괴롭혔던 황 경감이 너 잘 걸렸다며 빙긋이 야릇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옆엔 산에서 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하는(아라끼꾼) 사람이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힐끗 보니 우리회사에 나무를 납품한 사람이었다. 결론은 그 아라끼 하는 사람이 우리가 불법으로 나무를 취득했을 것이란 상상하며 황 경감과 작당한 일이었다.

나의 나무 수천 그루에는 나무 하나하나 다큐멘테이션을 다 지니고 있다. 그래서 나의 나무는 파란 명찰이 다 달려있다.

나무 한 그루도 불법으로 사들인 적이 없다.

20살 때 아버지가 가게를 물려주며 저울 도둑질은 하지말라 하셨다. 그 당시 중량을 7, 80%는 속이며 장사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결국 나는 그것을 극복하였기에 남다른 창조경영을 이룰 수 있었고 오늘이 있게 한 것이다.

물론 경찰국장이 이 사실을 다 알고 난 후 나에게 표창장을 상신하겠다는 이야길 하길래 하도 화가 나서 경찰국장의 구두 사과로 일단락 지었다. 그 사람들 이야기론 정말 태창(그 당시)의 나무는 있을 수 없이 정직하게 가진 나무임을 깨닫고 한 솔직한 사과였기에 받아들였다.

나의 임직원들은 나의 아버지가 물려준 정신철학, 정직함은 장사의 기본임을 명심하며 어떤 것도 法 질서를 지키는 상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TC 모두 미래파가 됩시다!!

미래를 선점합시다.

미래는 곧 현재가 되고 나아가 과거가 됩니다.

미래를 남보다 먼저 파악하고 개척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를 창조합시다.

미래는 무궁무진합니다.

미래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 가운데서 각자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개인으로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국가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다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미래파가 됩시다.

과거에 연연할 겨를이 없습니다.

현재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와 끈질긴 인연으로 따라다녔던 우파, 좌파의
굴레에서 벗어나 모두 미래파가 됩시다.

미래파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한결 밝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성공은 미래파의 것입니다.

과거 연연파나 현실 안주파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미래 개척의 선구자로서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합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훌륭한 Futurist로서 성공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488

사백여든여덟 번째 만남 _ 2009. 10. 5

여러분의 고민은 나와야 문제가 많을 거요.

그럼!!

날 찾아오시오.

괜히 양푼이(양재기)가로 돌지 말고,

사백여돈아홉 번째 만남 _ 2009. 10. 6

몽골에 15년 동안 60회 이상 다녀왔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내년에 남은 우리 직원도 다 다녀오면 우리 전직원이 몽골을 모두
다녀오게 된다.

내가 좋은 것은 여러분도 좋은 것이다.

물론 15년 전 처음 몽골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울란바타르에
도착해서 **No비자로 입국신청**을 했더니(못 받으면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한국인은 처음이라며 3시간 후에 입국시켜 주었다.

그때 4泊5日 함께한 강원구, 배기택, 최충경, 이은희는 돌아올 때
비행장에서 침을 탁 뱉으며 전부 영원히 몽골 오지 않겠다며 고생한

올분을 토해냈다.

그런데 나는 반드시 내년에 오토바이를 배워서 오겠다 결심해서
실천했다.

나의 산악 오토바이 최고 최대의 기록은 **울란바타르에서 흡스쿨까지**
왕복 6泊7日 일정(당시 2002년 월드컵 축구 결정전이 한국에서 열리고 있었다)
2,500km를 주파하며 하루 평균 15시간을 혼자 비포장 산악지대를 달렸던
것이다.

그때 일행은 **함석규**, **몽크**(아가이드), **아디아**(오토바이 가이드)였다.

오토바이 두 대와 지프차 한 대로 강행군 했었다.

그동안 몽골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만나는 영광을 얻었다.

첫 대통령 **오치르 바트**를 대통령 궁에서 만나 제안했던 것(동석 몽골
국립대학 총장 나랑 차처를트)은 **뉴 이코노믹 몽골리안 벨트**를 구축하자는
제안이었다.

참여국은 **한국, 북한, 중국(동북삼성), 중국(내몽고), 몽골**로서 국교보다
경제교류로써 길은 트자 하였고 대통령도 특이한 제안이라 만족해
하였다.

물론 그 다음날 몽골 신문(지금도 가지고 있음)에 대서특필 되었다.

두 번째 대통령은 **앵크 바야르**로 그 당시 제안은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시**
북한 인구 천만 명은 몽골에 이주시키자는 제안이었다.

그 이유로는 몽골이 사막화 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사람밖에 없어서 라고 하였더니 빙긋이 웃으며 나는 찬성하니
너희나라 대통령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그때 내가 정치적 라인이
없어 **김만제 포스코 회장**에게 말씀드렸었는데 **김영삼 대통령**께 전달이
되었는지는 그후 나는 모른다. 이것이 몽골 정부 관료들 사이에
소문이 나 우리나라 고위 요직 인사들(서울 시장, 박근혜 등)이 몽골 방문할
때마다 **국가연합**이란 분위기의 대화가 오간 것을 후일 어느 대통령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거론한 바 있다. 결론은 자원이 무기화 되기 전
이야기였지만 결코 우리와 가까워지는 것을 **중국, 미국, 일본**이 좌시



않을 것이란 것이 나의 결론이다.

그 당시 몽골 대학이 외국인으로부터 태창 장학금을 매년 10,000\$ 받은

것은 국가 건설 후 최초란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들은 바 있다.

중국 북경대학도 20년 전 매년 10,000\$를 태창 장학재단으로부터
기증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 최초 장학금이라고 북경대학 총장이
말씀하셨다.

원지 모르지만 내 걸음걸이도 빠르지만 나는 모든 게 빠르다는 것이다.



몽골 초청자 명단

년도	일자	명단
2005	6.26 ~ 7.2	김일창, 유귀훈, 김명선
	7.14 ~ 7.18	이석조, 민경식, 고기영, 윤광준, 이영혜
	8.3 ~ 8.7	최용호, 강덕식, 박연목, 김정길, 이정래, 정마리, 노부호, 황평, 이재규, 김기재, 변종국
2006	6.8 ~ 6.11	박광업, 고학봉, 이재용, 김성진, 전하은, 안은미, 정마리, 홍미희
	6.21 ~ 6.24	박재천, 이채욱, 김혜란, 정진홍, 승효상, 최경희, 이진태, 이자람
	7.2 ~ 7.6	최시영, 서주희, 박대환, 김경영, 권영남, 신용덕, 김일창
	7.30 ~ 8.3	회장님 내외, 이태열 내외, 강신복, 오가와, 유지연, 준희, 유준혁 내외
	8.23 ~ 8.27	민경식, 하민희, 한승원, 이경순, 김금희
2007	10.4 ~ 10.7	이정아, 손현진, 김일창, 이순주
	3.1 ~ 3.4	최영은, 배선주, 이자람, 이은기, 윤광준
	6.14 ~ 6.18	안은미, 전미숙, 김성희, 이재용, 장영규, 강기영, 정은혜, 박민희, 안이호, 몽크 외 2명
	6.21 ~ 6.24	임원 13명(이재규, 박대환, 조병상, 김경태, 심장섭, 배돌암, 남익현, 주영춘, 박을영, 이형우, 이성진, 김대영, 김병조) 강승민
	7.4 ~ 7.8	임원 부인(김경영 사장님 포함) - 회장님 제외
2007	7.21 ~ 7.25	고기영, 강순아, 김이정, 홍미희, 가와기시, 김혜란, 정진한, 이연준, 이연제, 윤한선, 강신우, 김주영
	8.2 ~ 8.7	배선주, 황원구, 최덕술, 김완준, 김승철, 류진교, 오승용, 김정화, 이정아, 민경식, 윤광준, 남성희, 유귀훈, 유형중

년도	일자	명단
2008	2.2 ~ 2.10	강덕식, 박연목, 박진우
	6.11 ~ 6.15	민경식, 고기영, 안세영, 유귀훈, 윤광준, 신솔, 서주희, 김은화
	7.10 ~ 7.13	이정아, 정진홍, 김성녀, 박진, 김나희, 박연목
	8.7 ~ 8.11	고기영, 강순아, 김수진, 권기찬, 우동기, 강덕식
2009	7.14 ~ 7.19	강원구, 김세철, 강순아, 박연목, 윤광준, 유귀훈, 이윤경, 우혜영, 요한나, 다카시마
	8.21 ~ 8.26	신일희, 이화연, 곽승 부부동반

(박동권, 강승민, 몽크 동반)

사백야흔 번째 만남 _ 2009. 10. 7

우리 TC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실천해야 할 직분**이 있다.
일상적인 업무를 문서화하여서 아래, 위 모든 사람이 본인이
없더라도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공유해야함이 중요하다.
본인이 하는 일을 남이 할 수 없도록 혼자만 즉, 자기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을 회사는 앞으로 그 사람의 부정을 의심해야 한다.

우리 회사에는 임원부터 이런 사람이 있다.

내가 부단히 충고하는데도 이런 유형의 사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혼자만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런 사람 밑엔 절대 人材가 배출되지 않는다.

결국은 본인도 일만 틀어쥐는 인간이라고 주위에 지탄만 받게 되고
본인이 그만두거나 그것을 무기로 회사에 대해 시위를 하면 회사도
타격을 받게 된다.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옳은 회사가 되고,
옳은 국가가 된다.

사백아흔두 번째 만남 _ 2009. 10. 9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갈 건가?

과거 나도 여러분 시절엔 이게 뭔지도 몰랐다.

人生에서 평소 여러분들은 스승, 형님, 동반자, 멘토, 구루 등 이런
분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구하러 다닌다.

나도 나의 人生에서 가장 많은 결정적인 영향을 주신 분이

이동식 先生이다.

그분이 심포지움에서 정신과 의사들을 향해 “정신치료에서 치료자의
태도”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한다.

정신치료란 한마디로 동토(凍土)에서 떨고 있는 환자에게 봄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봄은 정신치료자에게서 우러나는 자비심이다.

자비심을 느낌으로써 환자의 마음에 봄이 와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한
힘이 살아나서 마음의 평온과 즐거움이 살아나서 건강을 회복한다.

자비심이란 유교에서는 인(仁)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자비심이라고 한다.

자비심이란 타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배려, 관심, 이해, 사랑이고
Heidegger가 말하는 Sorge다.

정신치료는 공감과 공감적인 응답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공감이 되려면 자비심이 있어야 한다.

자비심이 생기려면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한다.

Freud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中立性, 골고루 가는 주의(evenly
hovering attention)라고 한다.

사백아흔한 번째 만남 _ 2009. 10. 8

지난날 젊었을 땐 내가 가진 내 몸과 정신이 소중한지 전혀 몰랐다.

지금 난 내 몸과 정신이 참 소중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또한 나의 정조도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으로 남은 인생에 반드시 많은 훌륭한
사람 만나지리라 확신한다.

그땐 정말 훌훌히 내 것을 그 사람이 다 가지게 해드려야겠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말이다.

이것은 老子の 無爲에 해당된다.

莊子は 남을 교화하려면 뜻을 하나로 하고 귀로써 듣지 말고
마음으로써 들어라, 마음으로써도 듣지 말고 기(氣)로써 들어라,
기로써 들려면 심재(心齋)를 해야 한다, 마음이 허(虛)한 곳에
도(道)가 모인다고 하고 있다.

마음이 비어 있으려면 치료자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한다.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역전이(逆轉移)가 없어야 한다.

Carl Rogers는 정신치료자가 갖추어야 할 것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Congruence(一致)이고 이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둘째로는 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셋째로는 정확한 공감적인
이해(accurate empathic understanding)라고 말하고 있다.

치료자는 환자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최고의 치료자는 부처, 보살,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박사는 항상 정신과 의사도 정신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치료자는 환자의 저항을 성인의 경지로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한
깨달음이 내가 치료받은 핵심이다.

다시 한 번 나의 철학을 적어보자.

인간은 태어나서 배운다.

그리고 가르친다.

가르치는 것이 쉬워지는 길이 곧 나의 길이다.

만약 여러분이 멘토를 구하고 싶다면 이동식 선생 冊 3권을 권하고
싶다.

『現代人과 노이로제』

『노이로제의 이해와 치료』

『한국인의 주체성과 道』 (이 책이 가장 우수)

사백아흔세 번째 만남 _ 2009. 10. 12

언제부터인가 우리회사 임직원들이 넥타이를 풀기 시작했다.

넥타이를 풀었다는 것이 또 다른 패션의 출발이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옷입기'의 기본과 원칙을 잘 모른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대로 된 옷입기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다. 당신 자신도 옷에 대해 잘 몰랐고, 또 옷입기 따위는 사소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우리가 입는 옷은 결코 사소하지 않으며 과소평가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착용한 수트와 셔츠, 액세서리는 타인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재킷 속에서 밖으로 조금 드러난 칼라와 커프스에도 성품이
드러나는데,

귀찮아서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고 변명하는 남자들이
있다(사실은 많다). 그러나 여기서 '귀찮다'는 말은 사실 부족한
감수성과 호기심을 위장하기 위해 쓰이는 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복식과 패션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여자에게 의존한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스타일을 부인의 종이나 노예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선 **수트(Suit)**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명백한 의사표현이다.

수트는 기술적으로 재킷과 바지를 함께 입는 세트를 의미한다.

수트는 영국의 새빌로(Savile Row)에서 시작하여 이탈리아에서 활짝
핀 **클래식 수트**와 유명 디자이너(조르지오 아르마니, 캘빈 클라인, 질 샌드,
구찌)들의 창의적 감성으로 만들어진 **디자이너 수트**로

양분된다.(베르사체를 입은 007을 생각해보라)

특히 이탈리아 모드는 지금 추세로서는 단연 선두로 색채와 형태에
관한 이태리 사람들의 감각은 실로 예리하다.

아무리 점잖은 색의 배합이라도 그들 몸에만 걸쳐지면 단번에
화사해진다.

(작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에 내가 임원들께 이태리 밀라노에 가서 조르지오 아르마니 옷
한 벌씩 사오라 주문한 것도 아직 유효하다)

전통적으로 섬유업이 발달하고 국민들의 예술적 취향이 빼어난
나라답게 이탈리아 수트는 가장 스타일리쉬하며 현대적인 수트로
정평이 나있다.

수트야말로 우리들의 목소리처럼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미지를 드러낸다.

신사가 모든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입기에 함부로 입는 남자와
구별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남자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그냥 입는 남자와 또 하나는 제대로 입는 남자다.

- 서스펜더(벨뺑)를 벨트와 함께 착용하는 것은 속옷을 두 개
겹쳐입는 것과 같다.
- 수트엔 긴소매 드레스 셔츠를 입어야 한다.

반소매(박연목 교수 평소 자주 착용)셔츠처럼 우스운 것도 없다.

- 드레스 셔츠 안에 런닝셔츠를 입는 건 더 말이 안 된다.

(박연목 교수는 런닝셔츠를 꼭 입어야하고 드레스 셔츠에 볼펜을 꼭 꽂고, 넥타이에 타이 핀을
꼭 꽂는다)

- 클래식 수트에는 기본적으로 화이트, 블루 드레스 셔츠다.
- 셔츠 소매는 1.5cm쯤 재킷 소매 밖으로 나오게 입는다.
- 수트에 벨트를 매되 색깔은 블랙, 브라운이어야 하고 구두색깔도
맞추면 금상첨화다
- 넥타이 끝은 절대 벨트 밑에 내려와서는 안 된다.
- 정장용 벨트를 청바지에(박연목 착용) 하는 것은 옷기지만 캐주얼
벨트를 정장에 하는 건 더욱 웃긴다.
- 수트에는 요란한 디자인의 시계보다 심플한 브라운, 블랙 가죽
밴드 시계가 최고다.
- 수트에는 뭉니뭉니해도 구두다. 품격 있는 클래식한 구두 말이다.

(왜 한국사람은 검정구두 일색인지...)

- 어떤 상황에서도 넥타이 끝을 드레스 셔츠 가슴 포켓에 접어넣을
바에는 차라리 넥타이를 풀어라.
- 양말색은 가능하면 바지나 구두색에 가깝게 맞추어야 한다.
- 돈지갑을 뒷 포켓에 꽂는 것도 꼴불견

(박 교수는 항상 돈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볼록하게 넣고 다님)

- 수트를 입었으면 신사가 아니라 수트 입은 행동을 할 때 신사다.
수트는 패션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이자 전통이다.
- 옷은 자기 개성에 맞게 입는 게 아니다.
자기가 개성을 선택하여 차려입는 행위다.
- 한국 남자 중 가장 꼴불견은 앉아있을 때 양말과 바지 사이로
드러난 맨살의 사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로 끝을 맺으며 다음엔 Dress Shirts(한국사람들은 미국식 White Shirts를 일본식 와이샤츠라고 부름), Ties(넥타이), Shoes(구두), Socks(양말), Pocket Square(가슴 주머니 손수건), Casual Wear Sportcoat(예)승마복, 테니스복, 해양스포츠복), Outwear(외투), Knit(털옷), Piquet Shirts, T-Shirts, Accessories(액세서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옷은 멋을 내기 위해서도 입지만 옷을 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배경 역할을 위해서도 입는다. 진정한 스타일과 취향을 가졌다면 입고 있는 옷만으로도 주목받을 것이다. 당신의 스타일이 당신의 첫인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백아흔네 번째 만남 _ 2009. 10. 13

자코모 푸치니(Giacomo Puccini, 1858.12.22~1924.11.29)

베르디 이후 이탈리아 오페라 최고의 작곡가로 알려진 푸치니는 1858년 12월 22일 루카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상은 대대로 음악가였으며, 아버지 미켈레는 루카에서 작곡과 연주,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다가 푸치니가 5세 되던 해에 병사하였다.

푸치니는 어릴 때에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학업 성적이 높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의 집안에서는 그가 음악가로서 성공하기를 원했으며 특히 푸치니의 어머니는 아무도 푸치니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그의 음악 교육에 정성을 다했다.

그런 어머니의 노력이 점차 결실을 맺어 아버지의 제자였던 안젤로니의 훌륭한 지도 아래 그의 음악적 재능이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1880년 푸치니가 22세 되던 해에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마르게리타 여왕의 장학금을 받고 그가 바라던 밀라노 음악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다음해부터는 장학금을 받지 못해 비슷한 처지의 친구 **마스카니**와 함께 가난한 하숙생활을 하며 고학을 하여 1883년에 졸업했다.

이때의 푸치니의 ‘보헤미안적인 삶’의 경험이 훗날

〈라보엠 La bohème〉을 작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후 그는 오페라 작곡에 더욱 열중하며, 〈마농 레스코 Manon Lescaut〉를 비롯한 여러 오페라를 작곡하였다.

그 중에서 〈라보엠 La bohème〉, 〈토스카 Tosca〉, 〈나비부인 Madama butterfly〉은 그의 3대 걸작으로 오늘날까지 오페라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젊고 가난했던 시절 푸치니의 자전적인 생활이 녹아들어 있는 〈라보엠〉은 파리의 젊고 가난한 예술가들의 우정과 사랑, 그들의 열정적인 청춘을 표현한 작품으로서 사실적인 표현이 뛰어나서 인물의 성격과 장면의 묘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다.

작년 대구 오페라 축제 기간 중 **라보엠** 공연에 내가 아는 성악가 **이정아(Mimi Soprano)**, **이윤경(Musetta Soprano)**이 열연을 했었다.

이 두 사람을 기획실에서 500회 기념 컨퍼런스에 초청하였다.

성악가마다 자신의 개성과 목소리의 빛깔과 소리의 영역에 따라 오페라 배역이 정해진다.

저 유명한 **마리아 칼라스**는 배역의 영역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역을 해낸다.

위의 두 사람도 배역을 초월한 노력형 젊고 아름다운 소프라노 성악가이다.

이제 그들의 전성기가 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들의 전성기 때 목소리 하나하나를 새겨들어 보아야겠다.

며칠 전 신천 둔치에서 세계육상경기대회(2011)기념 축하공연에 **시립교향악단** **곽승 지휘**로 바그너 〈차리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주페 〈경비병 서곡〉,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오펜바흐 〈천국과 지옥〉, 마지막 차이코프스키 〈1812년〉 서곡이 연주되었다.

중간에 이윤경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 이흥렬의 〈코스모스를 노래함〉 열창이 있었는데 역시 비주얼이 선명하고 훌륭한 몸매와 선녀 같은 얼굴에 열정적인 이미지가 신천 가을 밤하늘에 쨍쨍 올려 퍼져 함께한 강덕식 교수와 난 스타달 신드롬에 빠진 저녁이 되었다.

저녁 디종에서 종파티에 곽승 부부가 이윤경 선생의 노래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동료나 친구의 칭찬으론 자기의 소리는 모른다.

우리 곽 선생이 흐뭇해하시며 향후 대기만성형이라 하셨다”고 곽 선생 부인이 말씀하셨고 그 소식을 들은 계명대학교 신일희 총장이 따로 불러 이 선생을 격려하셨단다.

모든 성악가들은 이 재미로 산다.

애호가인 나도 덩달아 흐뭇하고 아무튼 우리 주위에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탄생되었다는 건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다음주 월요일 포항예술문화회관에서 아름다운 이정아 선생의 나비부인(초초상) 공연이 있어 포항 임직원 100명이 관람하게 기획실에서 진행할 것이고, 포항공대 교수들과 함께 공연 후 페페에서 종파티가 열릴 계획이다.

사백아흔다섯 번째 만남 _ 2009. 10. 14

이 글은 나의 동서 김길수 교수가 회갑 때 내게 준 글이다.

戲詩한시

泰昌태창의 목소리

劉載晷 會長 回甲宴(유재성 회장 회갑연)

北城路(북성로)에서 들던 그 音聲(음성)

몽골의 大地(대지)에 아침을 열고 있네

靑丘(청구)에서 들이킨 큰 호흡

長成(장성)을 넘었고

가을 江(강)위에 뜬 달같이 찬 理性(이성)은

눈 덮인 曠野(광야)에 梅花香氣(매화향기)로 피네

험한 길 외로웠어도

낮마져 팔지는 않아

回甲(회갑)에 거듭 세우는 意志(의지)는

새벽 하늘에 서려있어라

어느날 그대 사자의 咆哮(포호)로

다시 밀림을 침묵케 하려나

2006. 初夏 초하
金吉洙

아래 글은 어느 날 정진홍 씨를 초대했더니 내게 갖다준 글이다.

내가 아는 유재성 회장

환갑이라지만 어린아이 같습니다. 천진난만합니다.

들꽃에 미치고, 너무 좋아서 '쥐긴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삽니다.

삶이 날마다 모험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만큼만 한다면 약한 척도 합니다.

'존 버닝햄'이라는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있습니다.

고희를 훌쩍 넘겼지만 스스로의 정신연령은 다섯 살이라고 말합니다.

유재성 회장은 바로 그 '존 버닝햄'을 닮았습니다.

그 역시 환갑의 나이도 잊은 채 스스로의 정신연령을 너댓살에 고정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펼쳐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의 캔버스는 몽골의 초원이고 꿈의 바다입니다.

들풀, 야생화를 찾아 수천 킬로미터 몽골초원을 누비며

그가 탄 오토바이가 붓이 되고 그가 머문 곳마다 채색이 됩니다.

열정의 물감으로 말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삶을 모험과 도전 그리고 천진난만함 속에

녹여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는 먼 훗날 재도 남기지 않고 스스로를 낭만의

열풍 속에 風葬(풍장)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는 낭만시대였다고 칭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그가 졸업 못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女子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셋째는 낭만입니다.

먼저 女子입니다. 그는 자연 속에, 아니 자연 그 자체처럼 벌거벗은
사내입니다.

그는 지금도 멋진 女人을 보면 ‘불끈불끈’ 하는 영광없는 사내입니다.

둘째, 사랑입니다.

그가 여행 중에 읽던 책을 슬쩍 어깨너머로 훑쳐본 적이 있습니다.

‘스티븐 켄’ 이 지은 ‘사랑의 문화사’ 였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사랑의 모든 것을 담았다는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을 읽고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에게 책은 이미 자기 자신이 행해본 것들을 확인해 보는 절차요

과정일 뿐입니다.

살은 그 자신이 절절한 사랑의 문화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낭만입니다.

그는 그 자체로 ‘낭만에 관하여’ 입니다.

그의 삶에서 낭만을 빼면 지구에서 공기를 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의 삶은 낭만의 향연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 영혼의 깊이만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낭만은 그의 유일한 권력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권좌도 누릴 수 없고 즐길 수 없는 낭만을

그는 스스로 만들어서 누리며 즐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독식하는 웅졸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낭만을 나눌 줄 압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진정한 낭만의 달인, 낭만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유재성이란 한 인간에 대한 작은 탐구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2006. 7. 14 대구 가는 열차 안에서 정진홍 씀

이 글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다.

항상 내 방에 걸려있고 이 길 따라 갈 것이다.

歸去來兮辭 귀거래해사

陶淵明(도연명)

돌아가자!

전원이 황폐해지고 있거늘 어찌하여 돌아가지 않는가?

이제껏 내 마음을 몸 위해 부림 받아 왔거늘

무엇 때문에 그대로 고민하여 홀로 슬퍼하는가?

이미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고

장래의 일은 오히려 할 수 있음을 알았으니,

실로 길 잘못 들어 멀어지기 전에

지금이 옳고 지난날은 글렀었음을 깨우쳤네.

배는 흔들흔들 가벼이 출렁이고

바람은 펄펄 옷깃을 날리네.

길가는 사람에게 갈 길 물으면서

새벽 빛 어둑어둑함을 한하네.

멀리 집을 바라보고는

기쁨에 달려가니,

하인들이 반겨 맞아주고

어린 자식들 문 앞에 기다리네.

오솔길엔 풀이 우거졌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그대로 있네.

아이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니

술통엔 술이 가득하네.

술병과 술잔 가져다 자작하면서
뜰 앞 나뭇가지 바라보며 기쁜 얼굴 짓고,
남창에 기대어 거리낌 없는 마음 푸니
좁은 방일지언정 몸의 편안함을 느끼네.
뜰은 날마다 돌아다니다 보니 바깥 마당 이루어지고
문은 있으되 언제나 닫혀있네.
지팡이 짚고 다니다 아무데서나 쉬면서
때때로 고개 들어 먼 곳 바라보니,
구름은 무심히 산골짜기에 피어 오르고
새들은 날기에 지쳐 동우리로 돌아오네.
해는 너웃너웃 지려 하는데도
외로운 소나무 쓰다듬으며 그대로 서성이네.

돌아가자!
세상 사람들과 사귀을 끊자!
세상과 나는 서로 등졌으니
다시 수레 몰고 나가야 무얼 얻겠는가?
친척들의 정다운 얘기 기꺼웁고
금과 책 즐기니 시름 사라지네.
농군들이 내게 봄 온 것 알려주며는
서쪽 밭에 씨 뿌릴 채비하네.
포장친 수레 타기도 하고
조각배의 노를 젓기도 하며,
깊숙한 골짜기 찾아가기도 하고
울퉁불퉁한 언덕 오르기도 하네.
나무들은 싱싱하게 자라나고
샘물은 졸졸 흘러내리니,
만물이 철 따라 변함을 부러워하며

내 삶의 동정(動靜)을 배우게 되네.
아서라!
천지간에 몸 담았으되 다시 얼마나 생존하리?
어찌 본심 따라 분수대로 살지 않겠는가?
무얼 위해 허겁지겁하다가 어디로 가겠다는 건가?
부귀는 내 소망이 아니요,
천국(天國)은 가기 바랄 수 없는 것,
좋은 철 즐기며 홀로 나서서
지팡이 꽂아 놓고 풀 뽑기 김매기 하고,
동쪽 언덕에 올라 긴 휘파람 불어보고
맑은 시냇물 대하고 시를 읊기도 하네.
이렇게 자연 변화 따르다 목숨 다할 것이니,
주어진 운명 즐기는데 다시 무얼 의심하랴!

사백아흔여섯 번째 만남 _ 2009. 10. 15

언젠가 포철 어느 부장이 내게 와서
“유 회장님 저 임원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란다.
“언제부터 임원 되시길 원했소?”
“최근 분위기를 보니 조금 가능성이 보여 유 회장 힘 좀 빌리고
싶은데요”
참 어이가 없다.
그때 내가 한 말은
“입사 20년이 되었으면 입사하는 날 회장이 되겠다는 꿈을
꾸셔야지요.
그것도 가장 훌륭한 회장 말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쯤 상무 자리에 계시면서 회장자리를 노리지
않았겠어요”
그렇다.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승진은 쟁취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엉거주춤은 결코 없다.
여러분이 지금 체력을 키우고 어학에 달라붙고 교육에 몰두하란 것은
단연코 여러분을 위한 길이다.
지금 투덜대는 사람은 언제라도 그만두거라.
우리 TC의 길과는 틀리니.

497

사백아흔일곱 번째 만남 _ 2009. 10. 16

요즘 난 여러분께 어떤 때는 공격적으로 어떤 때는 은유적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시해왔다.
그것의 실마리를 **젊어져야 한다** 라는 화두로 권유했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보다 10년 젊어지고 있는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젊어졌다고 제시해달라.
크게 칭찬해드리고 승진시켜드리고 포상해 드리겠다.
막연히 젊어져볼까 생각하다가 그냥 그 생각이 사라졌을 뿐이다.
특히 20代의 여러분은 창조적이기는커녕 고정관념의 틀 속에 스스로
자기자신을 구속시키고 안주하는 즐거움 속에 빠져있는지를 모른다.
**그리고 스스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통속적인 자기 변명에 빠져드는
기술이 늘어나는 자신을 발견 못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여러분은 모든 게 그렇다.
자, 이제 우리는 500회 동안 보고 느끼기만 했다.
이제 그만 돌아서서 뒤돌아보며 직면하여 깨달음의 길을 가보자.
자꾸 가기만 하면 어찌겠다는 건가?

496

498

사백아흔여덟 번째 만남 _ 2009. 10. 19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신이 내린 축복이다.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면
축복을 저버리는 것이다.

499

사백아흔아홉 번째 만남 _ 2009. 10. 20

올해따라 유난히 나 혼자라는 공포감에 밤잠을 설친 적이 참 많았다.
오늘은 위의 글 한 줄로 마치려고 했으나 밑에 글 하나 소개합니다.

보낸사람	"지영조" (wangchu@naver.com)
받는사람	jsyoo@tc.co.kr
제목	골목에서 찜닭장사를 했던 왕추 지영조입니다.
받은날짜	2009.10.17 오전 12:06:34

존경하는 회장님

우선 아름다운 경영을 위한 1분 메시지 5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골목에서 찜닭장사를 했던 왕추 지영조입니다. 그러니까 7년 정도 골목에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에도 방문해주셨고 가끔 새벽이면 자전거를 타고 가실 때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혹시나 못보고 지나칠 때면 뒤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일 때도 있었습니다. 07년도 건물이 팔렸으니까 나가달라는
건물주의 통보를 받고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사모님과 회장님의 배려로 모든 것이
잘되었습니다. 1분 메시지는 그때부터 저의 컴에 즐겨찾기 1순위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려나 오늘은 무슨 책을 추천하실까
그리고 열심히 사서 읽고 있습니다. 죄송한 부분은 직원도 아닌 사람이 공짜로
몰래 들어와서 매일 보고 간 부분에 미안합니다. 분명한 것은 감히 회장님을 흉내
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할 기회가 없었고 용기도 없었고 이젠 더 늦기 전에 해야겠다고
용기를 내어봅니다. 회장님 500회가 되면 501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아마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회장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혹시라도 마을에서 뵈는다면 열심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혼이 담긴 주옥같은 500회 메시지 축하드립니다.

첨부 그리고 이번에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성공사례
수기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언저주세요! “언저찜닭”

들고가세요! “들고찜닭”을 아십니까?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257-15번지 “왕추” 대표 지영조

053-959-0038 / 010-6569-7782

저는 올해 45세 된 남자로 딸 2명과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 가장입니다. 그런데 딸과 아내처럼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

같은 메뉴가 있는데, 바로 “언저”와 “들고”라는 우리가게의

효자메뉴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의 나이는 올해로 아홉 살입니다. 요즘 많이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 비법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구 경북대학교 후문에서 찜닭 장사를 9년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구석진 골목에서 20평 규모로 시작해 지금은 50평이 조금 넘는 규모의 도로변으로 이사를 해 매상이 3배 이상 증가하여 주변상인들 사이에서는 성공한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연락이 왔더군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었으니 사업자등록증을 찾아가라구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앞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겠구나 하고 내심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장사다운 장사를 제대로 하게 되겠구나... 하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창업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한 번의 실패 후 작은 가게라도 상호 하나부터 최선을 다하자는 신념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고, 젊은 나이에 유학파 사장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시작한 첫 사업이 택배세탁이란 세탁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여 과욕을 부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차입을 한 것이 결국 부담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거래하고 있던 삼성상용차의 해체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저의 거창했던 첫 사업은 실패의 쓴맛을 봐야했습니다.

정말 힘들더군요. 사업이 뭔지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신용불량이란 낙인이 찍혔고 금융거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어버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열두 번씩 더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2001년 2월 백수 1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전 어느 날 부모님을 뵈러 고향 안동에 갔었습니다. 구 시장 골목 찜닭 집을 지나가다가 안동찜닭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색적인 맛에 안동지방의 독특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봐왔던 것이었지만 창업에 실패하고 난 뒤여서 그랬던지 눈이 번쩍 띄어, 전문점을 내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찜닭 붐이 불기 직전이라 운영하시는 분에게 잘 말씀을 드려 어렵지 않게 요리하는 방법을 전수할 수 있었고 조리기술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게 이름인데 이 궁리 저 궁리 하며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왕추천 왕추 강추천 강추라는 말이 눈에 띄길래 뜻을 해석 해보니 재래종 토종닭인 의미로 닭과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웁지!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 내친 김에 특허청 검색을 하니 등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 그 후, 상표 출원하여 등록까지 하고 도메인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이왕이면 더욱더 상호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하여 사촌형님이 업을 하고 있는 안동하회마을에 유성룡 선생님 13대손 큰 어른께 상호를 적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아뿔싸 상업적인 글씨는 절대 적어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에 저녁 늦게까지 마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질 때쯤에 나오셔서 “이 사람 아직도 안 갔는가” 하시며 붓을 드셨습니다. 대신에 낙관은 한 개만 찍어주셨죠. 선비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저의 열정을 어여뵈 보시고 배려해주신 선비의 높은 인품이 느껴졌습니다. 낙관이 한 개 뿐이라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더할 수 없는 귀한 글씨였습니다. 현재 그분은 이미 작고하셨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찜닭가게 이름 “왕추”로 간판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빠르고, 맛있고, 재밌고 “3고찜닭”

개업 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조리시간 단축이었습니다. 대학가 상권에서 기본적으로 조리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니까 수업시간이 촉박한 학생 상대로는 무리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연구를 거듭하여, 미리 고기를 익혀놓는 방법을 통해 조리시간을 30분에서 5분으로 줄이고 그리고 공정단축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300만원 하는 식기세척기 도입과 포장반자동기, 출퇴근체크기도 도입하였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해서 남는 시간은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주변이 대학교라 홍보도 대학생에 맞게 홈페이지, 카페를 개설해서 축제이벤트 게임이벤트, 동아리 지원 등 온라인을 통해 함으로써 다른 가게와의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힘들 때 도움이 된 소상공인지원센터 – 매출이 일정치 않을 때는 판매경로를 다양하게 하자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는 내점고객 판매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비가 오거나 학교방학 시험 등으로 일반인 상대보다 학생 상대로 하는 장사는 매출이 들쭉날쭉이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경숙 상담사님으로부터 찜닭아이템은 배달과 테이크아웃 인터넷 판매 등 판매경로를 다양하게 개척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배달이 바빠서 매출이 유지되고 평상시 전부 조리된 찜닭을 테이크아웃하는 경우는 10%할인을 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20%를 대폭 할인해줍니다. 비가 오면 바쁘기도 바쁘지만 배달은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방문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판매경로를

다양화 한 이후, 고객이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도 가능한 찜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지원센터와의 첫 인연은 고객과 배달하는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몰랐었는데, 언젠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찜닭을 주문했는데 거리가 먼 관계로 국물이 새어버렸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돈을 못 받겠다 하였고 상담사님은 주시려고 하고 옥신각신한 것이 기억에 깊이 남으셨는지 첫 인연이 되어서 센터의 지원업무를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업체를 운영하는데 애로를 겪을 때마다 상담을 하며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 키워드 언저, 들고, 남매이야기

저희 가게의 행복! 성공의 키워드! "언저, 들고" 두 가지 메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찜닭 붐이 일어나기 전에 가게를 시작했으니 2년은 정말 잘되었습니다.

그사이에 직영점 1개를 더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도나도 체인점 창업에다 한집 건너 찜닭집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3년째부터는 신이 시기를 했던지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매출이 곤두박질하더군요, 가게 매출이 제로인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이 일을 어쩌나 하면서 하루하루가 한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두 번째 만든 가게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소상공인 조류독감피해 대출로 연명하면서도 희망의 끈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한창 어려웠던 시기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사님 도움으로 신문 지면에 돈 안들이고도 업체를 크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화통에 불이 나면서 매출 급증은 물론이고 돈도 많이 들어왔지만, 유명세도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객이 늘면서 "언저"라는 메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언저"가 얼마나 복덩이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저"는 제 특유의 풍족하고 넉넉한 성격을 반영한 메뉴인데, 인심이 좋아 찜닭에다가 뭐든지 언저 줍니다. 처음에는 닭튀김과 튀긴 떡사리를 언저주니 손님이 좋아라하며 재미있어 하였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되지 않을까 봐서 예를 든다면 피자집에 토핑을 순수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언저"입니다. 안 그래도 찜닭집시에 찜닭은 푸짐하게 보이는데다가 언저주니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직접 만든 수제 돈가스 (언저돈)웰빙 닭가슴살 등 골고루 언저드립니다.

먹는 것 말고도 저희 건물에 있는 노래방 이용 시 할인되는

언저세트메뉴도 있습니다. 찜닭 위에 손님을 위한 마음의 서비스를 언저주는 것입니다. 언저라는 언어가 재미가 있던지 언저를 아는 손님이 모르는 손님과 함께 와서 찜닭에 언저주세요 하면 모르는 손님은 "언저가 뭐고 ",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면서 산처럼 나오는 찜닭 위를 보고 놀랄 때 "이게 언저아이가" 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은 보았으나 많이 퍼져서 망하는 것은 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게입장에서는 찜닭 외 추가수입이 되어서 좋고 손님입장에서는 맛나게 드시고 또 만족하니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음식점 사장님은 손님에게 언저의 마음처럼 음식 위에 풍성하게 언저줘보세요. 마음까지도~~

먼저 탄생한 메뉴인 “언저” 덕분에 손님이 많이 늘었습니다. 언저 덕분에 방송도 몇 번 타보기도 했습니다. 주문하시는 손님의 80% 이상이 언저를 주문합니다. 찜닭 15,000원에 언저 3,000원이니까 언저 만큼 객단가를 올린 겁니다. 찜닭이 아니라 언저를 드시기 위해 오실 정도이니까요. 언저의 인기는 절정입니다.

얼마가지 않아서 두 번째 효자메뉴인 “들고”가 출시되었습니다.

들고의 성격을 말하자면 가게에서만 먹었던 찜닭을 갖고가서 시간이 지나도 먹을 수 있고 멀리까지 택배로도 보낼 수 있는 영업형태의 차별화된 방법을 메뉴이름으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테이크아웃이 되겠죠. 가게에서 찜닭을 맛있게 드시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갖고 가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발상이 사업화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다 조리된 찜닭을 배달하거나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당면이 퍼져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빨리 먹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고는 닭만 반 조리하고 나머지 야채 당면은 따로 포장해 해가면 내일 먹을 수도 있고 택배로 보낼 수도 있고 맛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 똑똑한 들고찜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들고”를 개발한 후, 소상공인지원센터 김경숙 상담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상담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조리하기 전인데도 처음부터 색소가 들어가서 색상이 어둡고 미각을 자극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고, 가정에서 조리했을 때의 당면소리 문제점 등이 드러났습니다. 가게와 다르게 가정이나 야외에서는 가스렌지 불이 약해서 당면이 퍼지거나 조리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불세기를

세게 할 수도 없고 얼마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고민을 단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찜닭을 전골요리처럼” 끓이면서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들고는 소위 요즘 웰빙 트렌드로 유행하는 DIY(Do it yourself)찜닭입니다. 요리의 콘셉트는 “반은 가게에서 반은 고객님의 조리하는 새로운 개념의 찜닭”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경기에 이리저리 절약모드로 살아야하는 요즘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레토르트 식품에 식상한 고객님들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요즘 단골고객이 되신 경북대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은 퇴근시간이 되면 아내에게서 전화가 온답니다. 왕추(저희 가게이름)에 가서 “들고 오세요!” 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들고 갈게요” 한답니다. 저녁 반찬 근심 없어서 좋고 저희 가게는 수입이 되어서 좋고, 특히 학교 대학축제 행사 때 주막을 열 때는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단대, 학과, 동아리에서 대량으로 주문해서 주막에서 팔기도 합니다. 요즘같은 여름철엔 복날 수박 대신 “들고 가세요!” 라고 홍보합니다. 포장박스를 고급스럽게 하니 선물용으로도 잘 나갑니다.

각 단체나 산악회도 하산주에 필수로 “들고찜닭”을 주문합니다. 만약에 사업이 더욱 잘되어서 TV광고를 한다면 경북대학교를 졸업한 과 커플이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하는데 신랑이 퇴근길에 자기 오늘밤에는 “뭘 먹고 싶지”하면 신부가 오늘밤도 “들고 오세요”(뭘 들고 오라는 건지-ㅋㅋ 멘트를 생각해보았습니다. ㅋㅋ 조금 썰렁했나요 -실지로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고객이 모여있는 곳에 홍보를 하자 - 음식메뉴도 온라인으로 판매해보자
찜닭에다 “언저” 팔아서 수입되고 매장에서 먹고나서 또 “들고”가니 왕창
수입되니 정말 썩 먹고 알 먹고가 아니겠습니까! 자랑한 김에 하나 더
소개하자면 온라인으로도 왕추의 메뉴를 판매하기 시작한 후,
“들고까페”를 개설했는데 올라와있는 몇 가지 후기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다 “왕추아자” 들고찜닭의 가장 큰 장점은 분리해서 포장을
해주신다는 점이에요. 야채의 신선도가 보이기 때문에 미식가들에게는
더욱 구미가 당기죠. 또 하나의 장점은 요리를 전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맛있게 해 먹을 수 있고, 기호에 따라 무엇인가 더 첨가해서
먹을 수 있어요. 전 라면을 끓일 때도 항상 물을 못 맞춰서 같이 먹는
언니에게 쥐어 박히고는 하는데요, “들고”는 다른 것 필요 없고 무조건
포장해 주신 거 다 넣고 적당히 끓이다 먹으면 최고예요 “산격동”
아이다인 분 처음 시켜서 사실 걱정도 했었는데 받고나니 최고였습니다.
1마리 가지고 3명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였고 깔끔하게 손질된
야채 금방 먹을 수 있는 구성까지~~~그냥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더군요. 이제까지 인터넷으로 시킨 어떤 음식보다도 만족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포인트가 된다. “언저”와
“들고”는 간단하면서도 재미있고 자극히 상식적인 메뉴입니다. 하찮은 말로
지나칠 수도 있는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평범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중에서도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희가게에는 상징이 되었고 매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열심히 외쳐도 장사가 잘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봅시다. 큰일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야 그다음이 보입니다! 저의 첫 번째 사업의 실패의
원인은 보이지 않는 지구반대편을 불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보이는 곳까지 가야 그다음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복덩어리
“언저”와 “들고”는 저희 가게의 미래이면서 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저를 떠올리시고, 언저의 동생 들고의 의미를
되씹어보세요. 우리 가게의 성공 희망의 키워드는 “들고가세요 들고찜닭,
언저주세요 언저찜닭”입니다. 파이팅

여러분, 이 글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창조경영**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 무엇을 바꾸어야 주인이 되는지
찾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집 근처 왕추에 오셔서 ‘언저’ 시켜 드시고 우리집에
오시면 집사람이 맛있는 **모과주스나 석류주스, 매실주스**(전부 우리집 나무에서
집사람이 손수 만듬) 대접할 겁니다.

500

오백 번째 만남 _ 2009. 10. 21

제10회 세계지식포럼(매일경제 주관)이 10월 13일~1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일간 위커히호텔에서 개최되어 이천석, 심장섭 사장과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주제는 “하나의 아시아, 신경제질서 그리고 경기회복”으로 세계 석학들이 다 모여 영국, 미국으로부터 이제 신 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인도)가 활짝 열렸음을 확인하는 귀중한 강연이었습니다.

작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75% 세계의 국가가 미국 금융자산부실 3.4조\$ 미쳐분 상태로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지만 세계 경기는 회복이 약할 것이고 회복과정에서 긴장감은 상존(더블딕 경제)한다는 강연으로 세계 속에 내가 어디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회사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참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회사도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1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는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도 향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부채 비율을 줄이고 충분한 자본 축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어떤 위기도 극복해내며(居安思危) 향후 몇 년간 더욱 안정성장에 방향을 맞추고 제2도약을 위한 발판을 우리 TC는 함께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분담해주었기에 나도 그 위기 때에 결단을 빨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틀린 결단일지라도 여러분은 내게 그 빠른 결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미래는 Boss의 시대는 가고 Leader의 시대가 왔습니다.

조직과 개인이 동시에 성장하는 미래의 시대 말입니다.

그동안 2007년 9월 3일부터 바로 오늘까지 779일 동안(2년 49일)

1분 메시지 500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업가로서 여러분께 내 자신의 고백부터 약점, 단점, 부끄러운 점을 다 드러내었고 내가 가진 장점도, 지식도 경험도 다 밝혔습니다.

즉 내 속에 녹아있는 인문학이 얼마인가를 보여드렸고

나의 경험으로부터 여러분이 익혀 배움을 넓힌다면

이것 또한 나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숙연히 직분을 수행해준 사랑하는 조수영 비서에게 500회를 마감하면서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일러두기

이 책에 게재된 작품에 대한 설명은 작가, 작품명, 재료 및 기법, 크기(세로×가로), 제작연대 순으로 적었습니다. 작품 도판은 저작권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게재했지만 사전에 조치하기 어려웠던 일부는 추후에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경영을 위한 유재성 회장의 1분 메시지

2010년 7월 15일 2쇄 발행 / 지은이 유재성(e-mail:jsyoo@tc.co.kr)
TC (704-901)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966(☎ 053-589-1112)
펴낸곳 e-포럼(053-744-8416) / 비매품

※ 책이 필요하신 분은 TC홈페이지(www.tc.co.kr)에 개설된 신청코너로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본래 엮고 푸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나는 받지도 않을 사람한테 줘놓고
내 혼자 킁킁 댄다.



나는 소멸과 유한성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사람이다.



행복과 고통을 거의 같은 비율로 얻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지금 우리가 만일 고통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전에 받았거나 잃은 행복 때문일 것이다.



“선생님 담배는 왜 못 끊습니까?”
“음- 그건 말이야 끊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